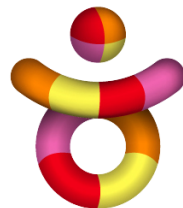


# 중국인 관광객 출입국제도 개선 및 유치 전략

---

(주)메디라운드

(주)기술과가치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b>I. 연구개요</b>	<b>----- 3</b>	<b>IV.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방향성</b>	<b>--- 82</b>
1. 배경 및 목적	----- 4	1. 전문가 의견	--- 83
2. 범위 및 추진 절차	----- 5	2.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조사	--- 90
<b>II. 중국인 출입국제도 변화 및 효과</b>	<b>----- 6</b>	<b>V.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효과</b>	<b>--- 108</b>
1. 출입국제도 개요	----- 7	1. 개선효과 분석 방법	--- 109
2. 중국인 출입국제도	--- 16	2. 개선효과 분석 결과	--- 112
3.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효과	--- 26	3. 부정적 효과 대응	--- 120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	--- 35	<b>VI.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및 유치활성화 전략</b>	<b>--- 125</b>
<b>III.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환경 분석</b>	<b>--- 64</b>	1. 비전 및 전략	--- 126
1. 외부환경	--- 65	2. 로드맵	--- 127
2. 내부환경	--- 77	3. 목표	--- 128
3. 환경분석	--- 81	4. 추진체계	--- 137
<b>VII. 부록</b>	<b>--- 199</b>	5. 선결조건	--- 138
1. 제도개선효과 분석방법 개요	--- 200	6. 1단계 세부과제	--- 139
2. 중국인 해외관광객 현황	--- 204	7. 2단계 세부과제	--- 176
3.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 206	8. 3단계 세부과제	--- 186
4. K-ETA 대상국가	--- 207		
5. 주중공관별 복수비자 발급 건수	--- 208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	--- 211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	--- 237		
8. 한·중 지역간 자매결연 현황	--- 257		
9. 참고문헌	--- 274		

# I . 연구개요

## 1. 배경 및 목적

## 중국인 방한시장 성장을 위한 출입국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유치 전략 수립

세계 최대 해외관광 송출국가  
중국의 중요성 증대

중국의 경제성장, 개별 자유여행객 증가  
등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유치 증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인적교류 확대 필요

우리나라 제1위 교역국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외교 관계국으로서 교류 확대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시장의  
회복 방안 마련

코로나19로 변화한 중국인의  
해외관광 수요를 반영한 유치전략 수립

중국인의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

출입국제도 개선을 통한 효과 분석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인 관광수요 변화

중국인 방한시장 지속성장을 위한  
중장기 출입국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유치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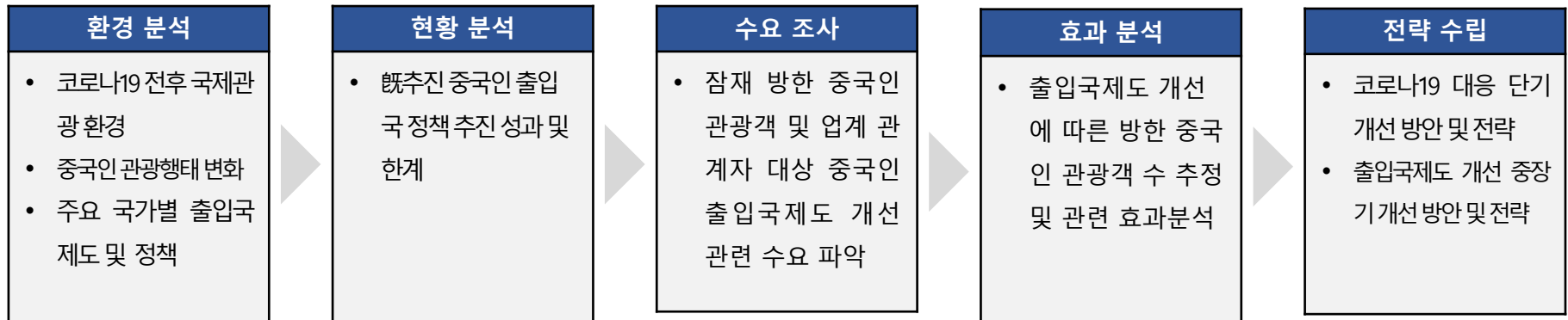
## 2. 범위 및 추진절차

## 일반여권 소지 단기방문(C-3) 중국인 방한객 대상 출입국제도 개선 중심

## 1) 범위

- 환경분석: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관광환경과 중국인 관광행태 변화 분석
- 현황분석: 既추진 방한 중국인 출입국 정책 추진 성과와 한계 분석
- 수요조사: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관련 의견 수렴(잠재 방한 중국인관광객, 업계 관계자)
- 효과분석: 출입국제도 개선에 따른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추정 및 국내 관광 수용력 분석
- 전략수립: 코로나19 상황 고려, 중장기 방한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방안

## 2) 추진체계



## **Ⅱ. 중국인 출입국제도 변화 및 효과**

## **Ⅱ. 중국인 출입국제도 변화 및 효과**

### **1. 출입국제도 개요**

## 1. 출입국제도 개요\_개념

# 내·외국인 출입국과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결정하고, 공정한 심사·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

### 출입국관리법\*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외국인 입국 조건

### 유효한 여권 및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

유효 여권	유효 비자	입국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자(VISA)라고도 불리고,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li> <li>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별도 규정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자를 소지했더라도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입국금지 가능</li> </ul>

출처: 법무부(외국인정책과).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8295호). 2021.07.13.



## 1. 출입국제도 개요\_우리나라 비자 분류

### 비자는 신청대상 · 사용횟수 ·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분류 가능

#### 신청 대상

분류	대상
개인비자	친지 방문, 친선경기, 공익사업투자,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동안 체류하려는 자
단체비자	체류기간 경과 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사용횟수별 분류

분류	조건
단수비자(S)	유효기간 내에 1회 입국
더블비자(D)	유효기간(6개월) 내에 2회 입국
복수비자(M)	유효기간(1년3년5년) 내에 횟수 제한없이 입국

출처: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

#### 체류자격별 분류

1.외교(A-1)	2.공무(A-2)	3.협정(A-3)	4. 비자면제(B-1)
5.관광통과(B-2)	6.일시취재(C-1)	7.단기방문(C-3)	8. 단기취업(C-4)
9.문화예술(D-1)	10.유학(D-2)	11.기술연수(D-3)	12.일반연수(D-4)
13.취재(D-5)	14.종교(D-6)	15.주재(D-7)	16.기업투자(D-8)
17.무역경영(D-9)	18.구직(D-10)	19.교수(E-1)	20.회화지도(E-2)
21.연구(E-3)	22.기술지도(E-4)	23.전문직업(E-5)	24.예술흥행(E-6)
25.특정활동(E-7)	26.계절근로(E-8)	27.비전문취업(E-9)	28.선원취업(E-10)
29.방문동거(F-1)	30.거주(F-2)	31.동반(F-3)	32.재외동포(F-4)
33.영주(F-5)	34.결혼이민(F-6)	35.기타(G-1)	36.관광취업(H-1)
37.방문취업(H-2)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비자발급 안내 매뉴얼. 2021.08.

## 1. 출입국제도 개요\_무비자 입국 규정

**112개국의 국민은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 가능하며,  
2019년 기준 한국에 입국한 전체 외국인 중 51.5%는 무비자로 입국**

###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 ①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②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 ③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④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3장, 제1절 제7조 2항.

[(일반여권 소지자) 지역별 우리나라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

지역	국가 수
아주지역	8개
미주지역	32개
유럽지역	43개
아프리카·중동지역	16개
대양주	13개
<b>총계</b>	<b>112개</b>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2020년 1월 기준

[ 2016~2020년 무비자 입국자 수 (단위: 명)]

연도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	무비자 입국자 수 (B1,B2)			무비자입국자 비율
		비자면제 (B1)	관광·통과 (B-2)	합계	
2016	17,418,307	1,556,536	4,914,542	6,471,078	37.1%
2017	13,569,509	1,634,095	4,909,869	6,543,964	48.2%
2018	15,630,522	1,908,616	5,814,882	7,723,498	49.4%
2019	17,880,503	2,053,173	7,158,538	9,211,711	51.5%
2020	2,659,845	222,306	939,748	1,162,054	43.6%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자여행허가제(K-ETA) 보도자료. 2021.04.29.

## 1. 출입국제도 개요\_출입국심사

외국인은 입국 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해야 하며, 2019년 7월부터는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도 자동출국 심사대를 통해 출국 가능



**외국인 신원확인**

- 2012년 1월부터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제도 시행
- 동 제도에 따라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입국심사 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함
- 17세 미만, 국제기구 소속직원, 외교비자 소지자, 정부초청자는 지문 제공 의무 면제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국경관리(<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14/subview.do>).

## 1. 출입국제도 개요\_비자발급확인서 발행

# 2020년부터 기존 스티커 부착방식을 폐지하고, 비자포털에서 비자발급확인서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전환

### 비자발급확인서 방식 시행

대한민국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 VISA GRANT NOTICE 사증 발급 확인서



Visa No. (사증번호) : AB0000000

##### 1. DETAILS OF APPLICANT 신청자 정보

	Full Name 성명	KIM SAMPLE		
	Date of Birth 생년월일	2019. 01. 01.	Gender 성별	male
	Nationality 국적	REPUBLIC OF KOREA		
	Passport No. 여권번호	M15001234		
	Passport Expiration Date 여권만료일	2022.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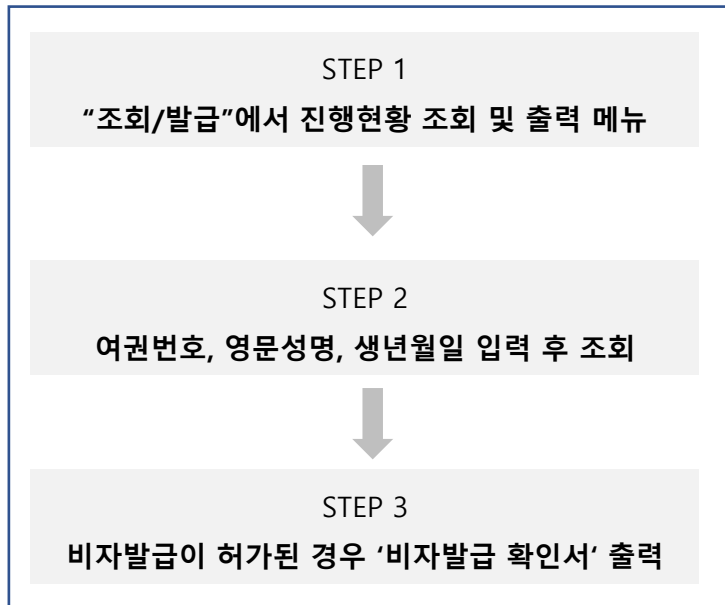
##### 2. VISA DETAILS 사증 사항

Status of Stay 체류자격	C-3-9	Period of Stay 체류기간	30 Days	Number of Entries 사증 종류	Multiple
Date of Issue 발급일	2020. 01. 01	Validity Period of Visa 사증 유효기간	2025. 01. 01	Issuing Authority 발급 기관	Korean Embassy in Vietnam
비고 Remarks					

- 2020년 2월 24일부터 비자 발급 시 부착하던 스티커 방식을 폐지하고 비자포털(visa.co.kr)에 접속하여 비자발급확인서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2020년 7월 1일부터 전 세계 우리나라 공관에서 비자발급확인서 방식으로 전환
- 재외공관에서는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비자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를 발급하고,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언제 어디서나 비자포털 사이트에서 비자발급확인서를 출력

### 비자발급확인서 발급 절차

비자포털([www.visa.go.kr](http://www.visa.go.kr)) 접속



출처: 법무부, 비자 스티커 부착 중단 알림. 2020.02.21.

## 1. 출입국제도 개요\_전자비자 시행

### '해외 우수인재'와 '단체관광객'은 전자비자 신청 가능

전자비자 발급 대상	
구분	발급 대상
단체	중국,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단체관광객 대상
개인	① 교수(E-1), 연구원(E-3), 기술지도사(E-4), 전문 직업 종사자(E-5), 산업부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인력(E-7) ② ①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동반가족(F-3) ③ 인증대학의 석·박사 과정 유학생(D-2) ④ 우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와 동반가족(C-3-3, G-1-10) ⑤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또는 인증대 학이 초청한 외국인 과학자(C-4)
• 2016년 7월부터 전자비자센터에서 처리 • 단, 외국인 과학자 단기(C-4) 전자비자 발급제도는 2018년 4월부 터 시행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자비자 신청안내.	

전자비자 발급 대상자 입국 통계 (단위: 명)					
• 전자비자는 외국인 본인 또는 초청기업이 대리신청 가능 • 출입국관리사무소 비자담당자가 제출서류 확인 후 출입국관리본부에서 자격별 비자발급 심사기준에 따라 비자 발급심사 진행 • 비자발급이 된 경우, 외국인 본인 또는 초청기업이 전자비자 발급 확인서를 출력하고 입국 시 소지 • 전자비자 발급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입국은 가능하지만 입국 시 정밀심사를 위해 입국시간 지연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자비자 신청안내.					
전자비자 발급 대상자 입국 통계 (단위: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E-1	7,555	7,550	7,491	7,160	6,094
E-3	9,810	9,494	9,618	9,508	9,212
E-7	43,300	46,324	47,528	46,661	46,475
F-3	43,222	43,683	40,048	38,402	40,284
D-2	140,160	169,715	212,295	248,472	291,007
C-4	12,218	12,920	20,617	24,507	24,507
출처: 법무부. 2015~2019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정리					

## 1. 출입국제도 개요\_K-ETA 시행

# 2021년 9월부터는 무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시행

### 전자여행허가제도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정의

관광 상용 통과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방문국에 신상 및 여행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사전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목적

외국인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 위험인물 국내 입국 차단

#### 현황

최초 호주(1996)을 시작으로, 미국(2009), 대만(2009), 스리랑카(2012), 영국(2014), 캐나다(2016), 뉴질랜드(2019), 유럽연합 33개국 도입

#### 우리나라 법적 기반

2020년 2월 4일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3(사전여행허가)를 신설하여 비자면제협정 국가 및 면제대상 외국인도 필요시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함

### 우리나라 전자여행허가제도 K-ETA 개요

- 법무부는 2021년 5월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
- 시범운영기간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9월부터는 사전에 K-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급이 가능
- K-ETA 수수료는 한화 1만 원
-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 없음
- K-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 가능
- K-ETA 대상국가는 비자면제 국가(66개국) 및 무비자 허용국가(46개국) 등 총 112개국이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시범기간에는 미국 포함 21개 국가에 한해 K-ETA신청을 허용하고, 9월 1일 후 49개 국가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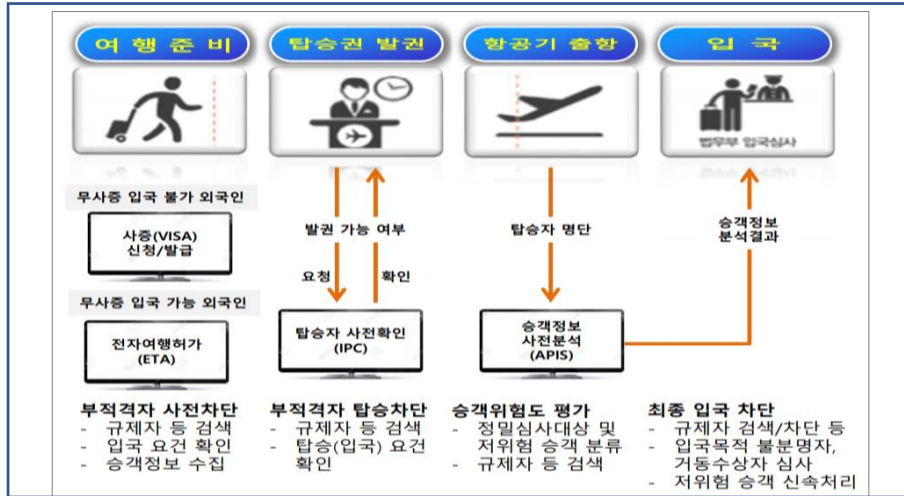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자여행허가(ETA)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화전략계획 수립

출처: 법무부(출입국심사과).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알림(<https://www.moj.go.kr/bbs/immigration/47/551356/artclView.do>). 2021.08.27.

## 1. 출입국제도 개요\_국경관리 개선

# 입국자의 정보를 입국 전에 파악하여 우범자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출국자의 출국심사 편의 개선

### 우범자 입국 차단



### 외국인 출국 편의



### 외국인의 자동출국심사 서비스 시작

- 2008년부터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국내 체류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2016년 7월부터 17세 이상의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이용대상 확대
- 2019년 7월부터 입국 시 취득한 지문과 얼굴정보를 활용하여 단기체류 외국인의 출국 시 자동심사대 이용 전면 시행

2019년 7월~12월 출국 시 자동출국심사를 이용한 외국인은 전년동기(416,495명) 대비 856%(3,568,249명) 증가하였고, 전체 외국인 출국자 중 38%가 자동출국심사로 출국

인터폴 수배자 정보 19건, 분실 무효 처분된 여권 정보 16,977건 등을 포함한 32,281건에 대한 탑승불가 통보 (2018년 12월 기준)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국경관리(<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14/subview.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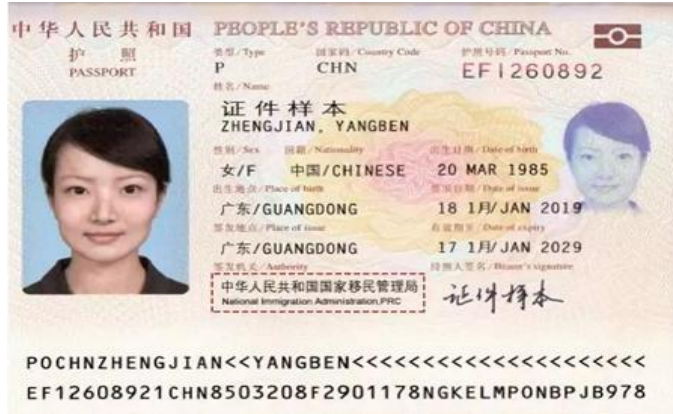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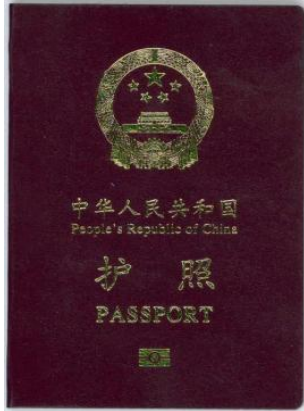
## **Ⅱ. 중국인 출입국제도 변화 및 효과**

### **2. 중국인 출입국제도**



## 2. 중국인 출입국제도\_중국인 출국 조건(1)

### 중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33개국에 무비자 입국 가능



- 일반여권은 인사여권(因私护照)으로 불리기도 함
- 성인은 여권 신청 시 여권용 사진 1장, <중국국민출입국 신청서>, 중국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120위안 필요
- 만 16세 미만의 중국인은 보호자의 동의(보호자가 발급한 출국동의서, 보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필요)가 필요
- 공무원은 해당기관 또는 상급 주관기관의 출국동의의견서를 함께 제출

출처:外交部: 2月1日起海外中国公民护照“全球通办”(https://baijiahao.baidu.com/s?id=1656025403079557596&wfr=spider&for=pc). 2020.01.

상호비자면제국	중국인 대상 일방적 비자 면제국
15개국	18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랍에미리트</li> <li>• 카타르</li> <li>• 모리셔스</li> <li>• 세이셸</li> <li>• 벨라루스,</li> <li>• 세르비아</li> <li>• 보스니아</li> <li>• 헤르체고비나</li> <li>• 산마리노</li> <li>• 에콰도르,</li> <li>• 바베이도스</li> <li>• 바하마</li> <li>• 그레나다</li> <li>• 피지</li> <li>• 통가</li> <li>• 아르메니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제주도)</li> <li>• 인도네시아</li> <li>• 모로코</li> <li>• 자메이카</li> <li>• 튀니지</li> <li>• 도미니카</li> <li>• 앤티가 바부다</li> <li>• 아이티</li> <li>• 폴리네시아(프랑스령)</li> <li>• 사모아</li> <li>• 우즈베키스탄</li> <li>• 알바니아</li> <li>• 세인트키츠 네비스</li> <li>• 레위니옹(프랑스령)</li> <li>• 사이판</li> <li>• 사우스조지아 사우스 샌드위치제도</li> <li>•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li> <li>• 오만</li> </ul>

## 2. 중국인 출입국제도\_중국인 출국 조건(2)

중국인은 「중국공민 해외여행 관리법」에 근거한, ADS(Approved Destination Status)에 등록된 지역으로 여행이 가능하며, 자국민의 귀국을 법적 의무로 규정

### 중국인의 해외 출국 조건

#### 조건 1

##### 여행목적지의 ADS 등록 여부

한국은 1998년 부분적으로 자비관광 자유화 국가로 지정된 이후 2000년에 전면 자유화 국가로 허가



#### 조건 2

##### 여권소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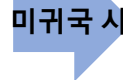
2012년 5월 15일부터 지문, 서명, 여권 발급 정보가 저장된 전자여권 발급



#### 조건 3

##### (단체관광객의 경우) 중국인 전담여행사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



### 중국인의 귀국 의무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75조

"중국공민이 출국 후 불법으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출국하여 송환된 경우 출입국 변방 검사기관은 송환일로부터 6개월에서 3년 이내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

#### 단체여행 계약 규정 제8조

"해외여행객은 해외체류 후 귀국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단체로 출국한 여행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돌아오지 않거나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본 계약법에 따라 여행사가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 중국공민해외여행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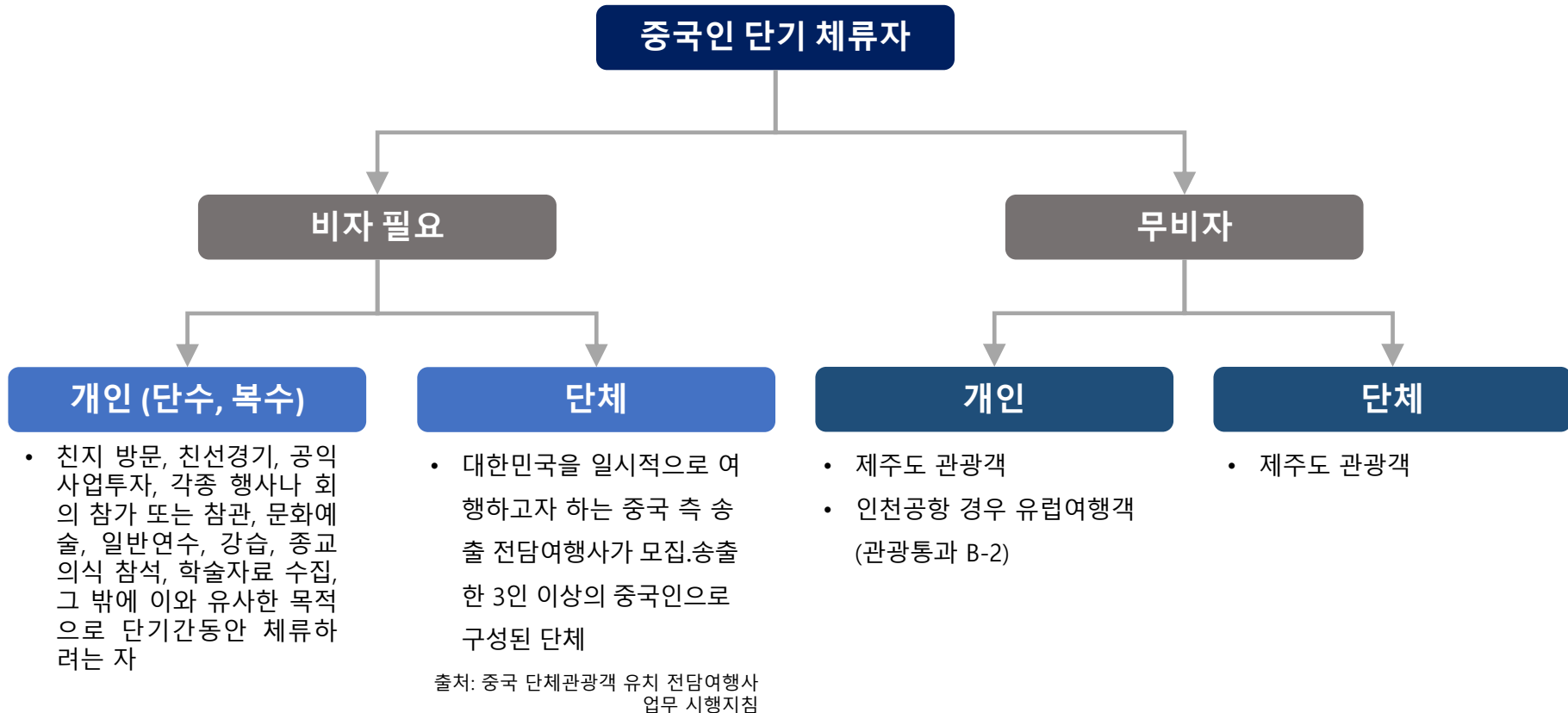
"해외 여행자가 불법체류로 송환되면,公安기관에서 해당자의 여권을 취소한다."  
"해외 여행자가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귀국하지 않으면 형법상의 도주죄, 국경도피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한다."

출처:外交部: 2月1日起海外中国公民护照"全球通办"(<https://baijiahao.baidu.com/s?id=1656025403079557596&wfr=spider&for=pc>). 2020.0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행정처분 및 신규 지 실시. 2019.05.20.

## 2. 중국인 출입국제도\_중국인 입국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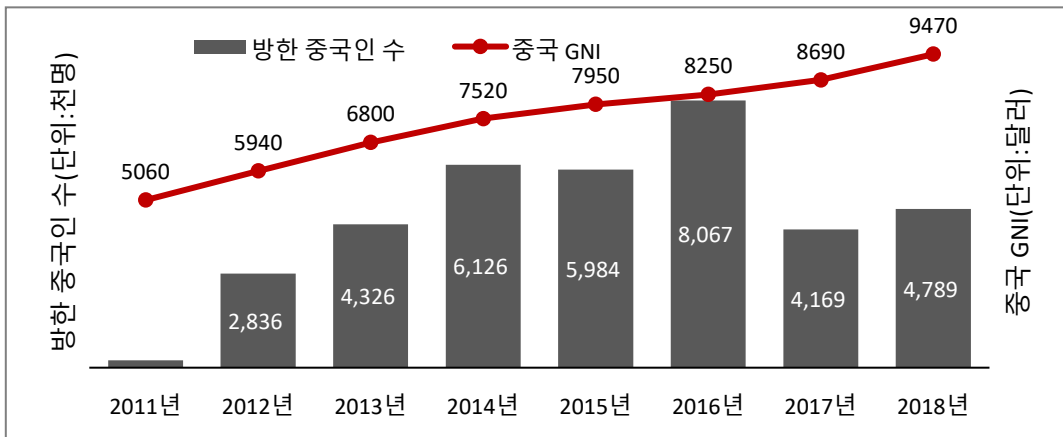
###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관광 또는 환승을 제외하고는 입국 비자 필요



## 2. 중국인 출입국제도\_중국인 입국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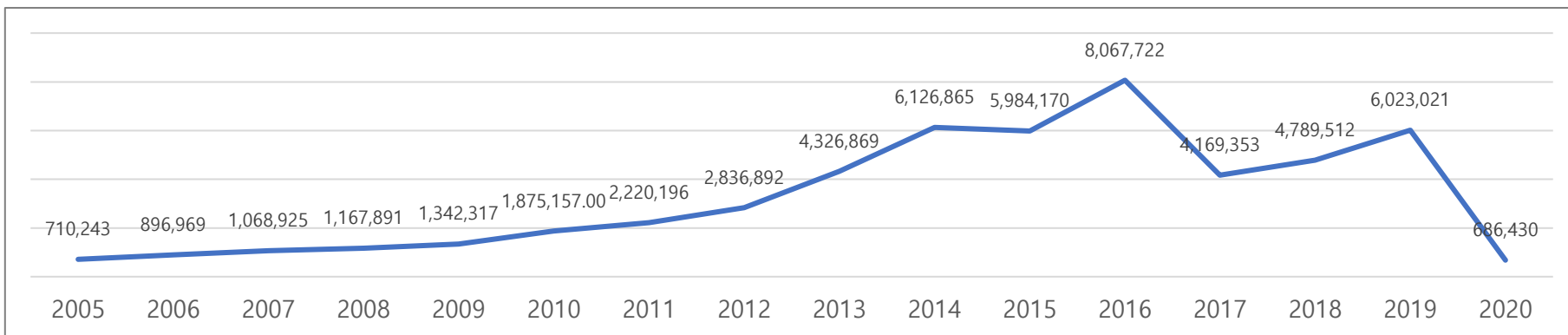
**2011년부터 사드 이슈 이전인 2016년까지 방한 중국인 수는 29.4% 증가하였으나, 사드 이슈로 약 50% 감소**

중국 GNI 변화에 따른 방한 중국인 수 변화



- 2011년부터 사드 이슈 이전인 2016년까지 방한 중국인 수는 29.4% 증가
- 같은 기간 중국의 해외여행객 수 증가율 13.9% 상회
- GNI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중국의 GNI가 1% 증가 시 중국인 전체 해외관광객은 0.4% 증가하지만, 한국에 오는 방문객은 2.5% 증가

2005 ~ 2020년 방한 중국인 수 (단위: 명)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국적별 입국관광통계(<https://know.tour.go.kr/stat/entryTourStatDis19Re.do>)

## 2. 중국인 출입국제도\_중국인 대상 출입국제도 개선

### 비자의 대상 및 종류 서류 간소화와 발급 편의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발급서류 간소화	발급과정 간소화	무비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관광객 비자발급 기존 7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2009)</li> <li>중산층 대상 복수비자 발급(2010년)</li> <li>중국 4개 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대상 복수비자 발급(2014)</li> <li>중국 4년제 대학생 재정증빙 서류 간소화(2015)</li> <li>중국 14개 대도시 거주자 재정증빙 서류 간소화(2019)</li> <li>즈마신용점수 780점 이상 우수회원, 유니온페이 발급 프리미엄 신용카드 소지자 재정능력 입증 완화(2021)*</li> <li>복수비자 발급 대상 OECD 회원국 방문이력에 '단체비자'도 포함(20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수엑스포 기간 중국인관광객 도착비자 발급(2012)</li> <li>단체관광객 대상 전자비자 발급(2015)</li> <li>중국내 비자신청센터 설치</li> <li>전문직 등 대상 10년 유효 복수비자 신설(2016)</li> <li>'20.1.1-3.31.(3개월), '20.6.1-8.31.(3개월) 동안 중국 4년제 대학 재학생의 단기방문 수수료 한시적 면제(20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공항 경유 유럽여행 중국인 국내 무비자(B-2) 30일 체류 (2005)</li> <li>제주지역 무비자 입국 시행(2006년, 중국公安부가 2008년에 자국민 출국을 허용하여 본격 시행)</li> </ul>

**복수비자 대상 확대**  
**재정증빙 관련 서류 간소화**

**비자 발급 과정 전자화**  
**비자 수수료 면제**

**제한적 무비자 적용**

\* 2021년 1월 4일 발표, 1월 11일부터 시행. 단 코로나19로 인해 방한관광 재개 시점에 시행

## 2. 중국인 출입국제도\_개별비자 편의성

### 2015년부터 중국에 비자신청센터를 통해 중국인 개인이 직접 비자신청 가능

상하이 비자신청센터



- 과거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서 대리 신청하는 방식과 함께 중국인 개인이 직접 비자신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중국 내 5곳의 비자신청센터 운영
- 개별비자와 단체비자 모두 과거처럼 주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은 해소되었음

소재 도시	개소일	운영주체
광저우	2015-09-14	하나투어(광동CITS 합작)
칭다오	2015-09-14	하나투어
우한	2019-07-08	하나투어
청두	2019-07-08	하나투어
상하이	2019-07-15	하나투어

## 2. 중국인 출입국제도\_복수비자 개선

# 중국인 대상 출입국제도 개선에서 '복수비자' 대상 확대가 가장 주요한 수단

### 복수비자

#### 기존 대상자

- 대학강사 등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 공관장이 인정한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
- 중국인 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가이드로 3회 이상 입국한 적이 있는 자  
(무비자는 인정 안함, 의료관광의 경우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인 경우 방문이력 인정)
- 한국과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 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
-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200만 위안 이상 보유한 것을 입증한 사람
- 중국 공무원,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 100만 불 이상 한국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 한국 취항하는 항공사, 선사의 임직원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중 사용실적, 신용도를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자
- 월 5000위안 이상 소득이 있는 자
- 17세 미만, 55세 이상인자
- 4년제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중국고등교육학력증서 검증시스템의 전자인증 학력인증서 제출 必)
- 중국기업 연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사람
-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구매자
- OECD 회원국 방문비자 소지자 중 동 OECD 회원국 방문자
-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대상추가 확대

### 중국 14개 지역 복수비자 발급

- 신청인의 호구부(주소지 증명)으로 복수비자 발급 가능
- 14개 지역 중 5개 지역의 일부 구(區) 거주자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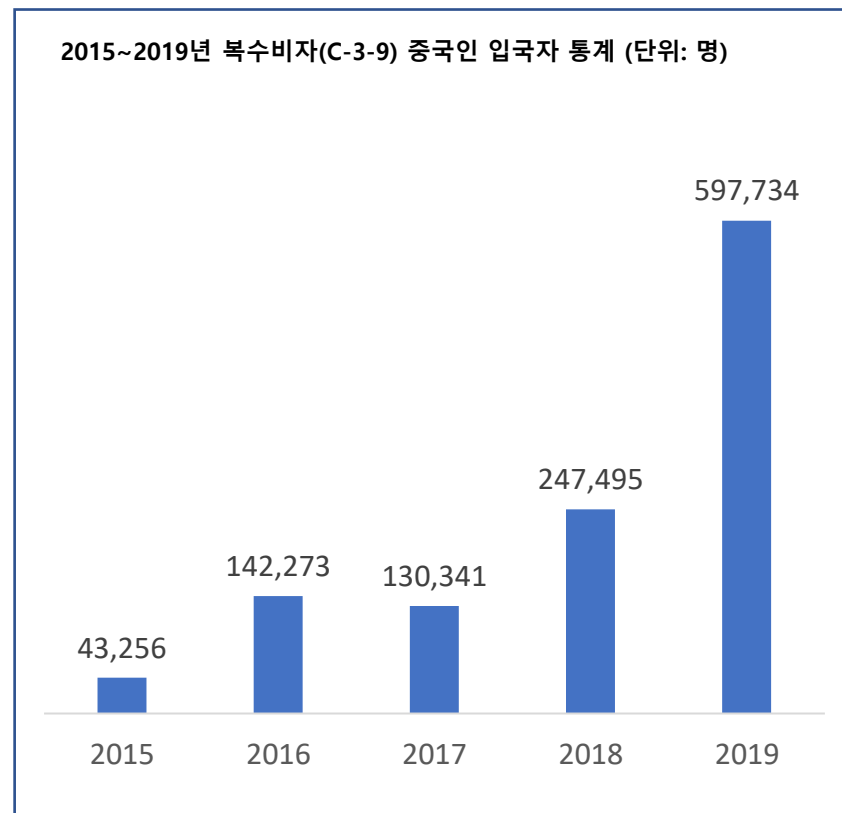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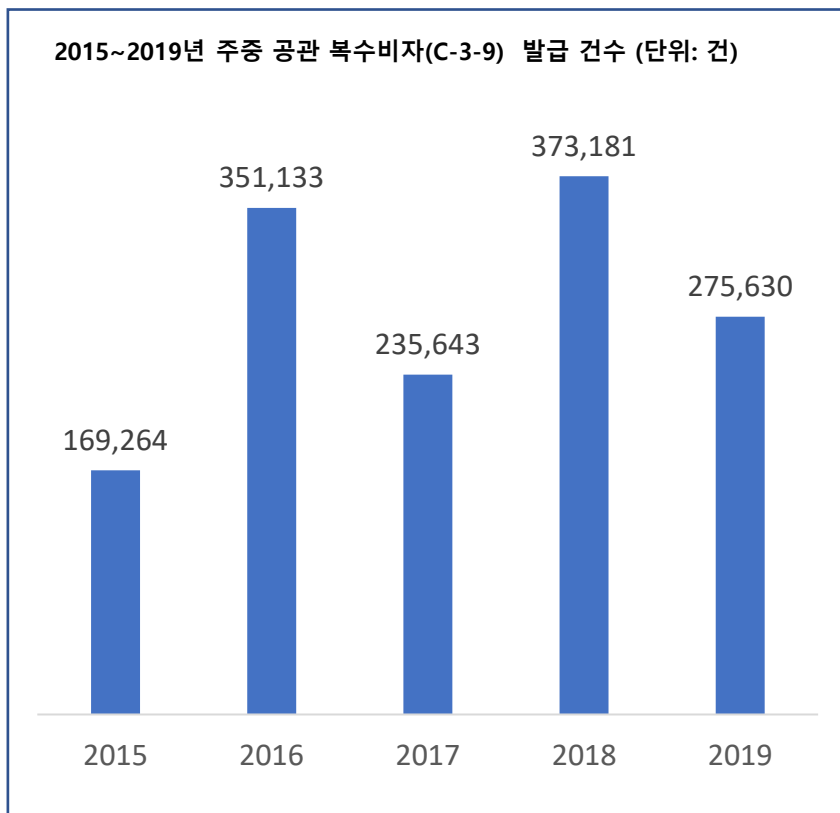
기존 (4곳)	현재 (14곳)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쑤저우, 샤먼, 톈진, 난징, 항저우 닝보, 우한, 창사, 칭다오, 충칭

구분	지역	
전지역 발급	베이징, 상하이, 쑤저우, 난징, 항저우, 닝보, 광저우, 선전, 샤먼 등 9개 지역	
구분 지역	톈진	静海区, 宁河区, 宝坻区, 蓟州区, 武清区, 滨海新区 제외
	우한	黄陂区, 蔡甸区, 汉南区, 新洲区 제외
	창사	望城区 제외
	칭다오	即墨区, 胶州市, 平度市, 莱西市 제외
	충칭	万州区, 涪陵区, 綦江区, 大足区, 黔江区, 长寿区, 江津区, 合川区, 永川区, 南川区, 璧山区, 铜梁区, 潼南区, 荣昌区, 开州区, 梁平区, 武隆区 제외

출처: 주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 중국 내 복수비자 발급도시 확대 알림). 2019.05.24.

## 2. 중국인 출입국제도\_복수비자 입국자

**복수비자 입국자는 사드 이슈에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2018년부터 대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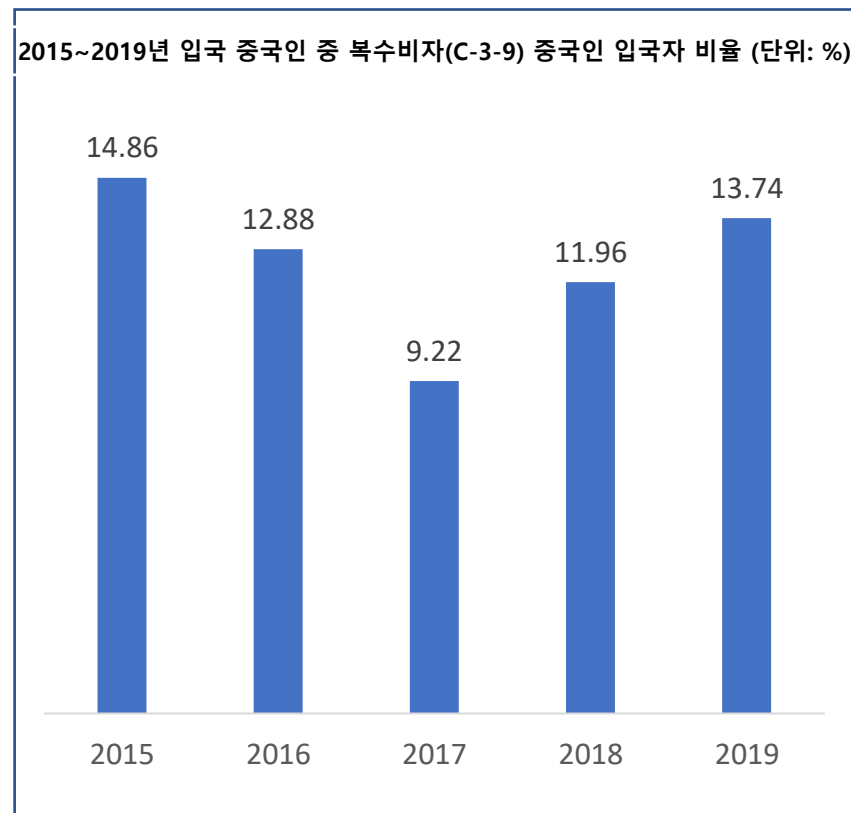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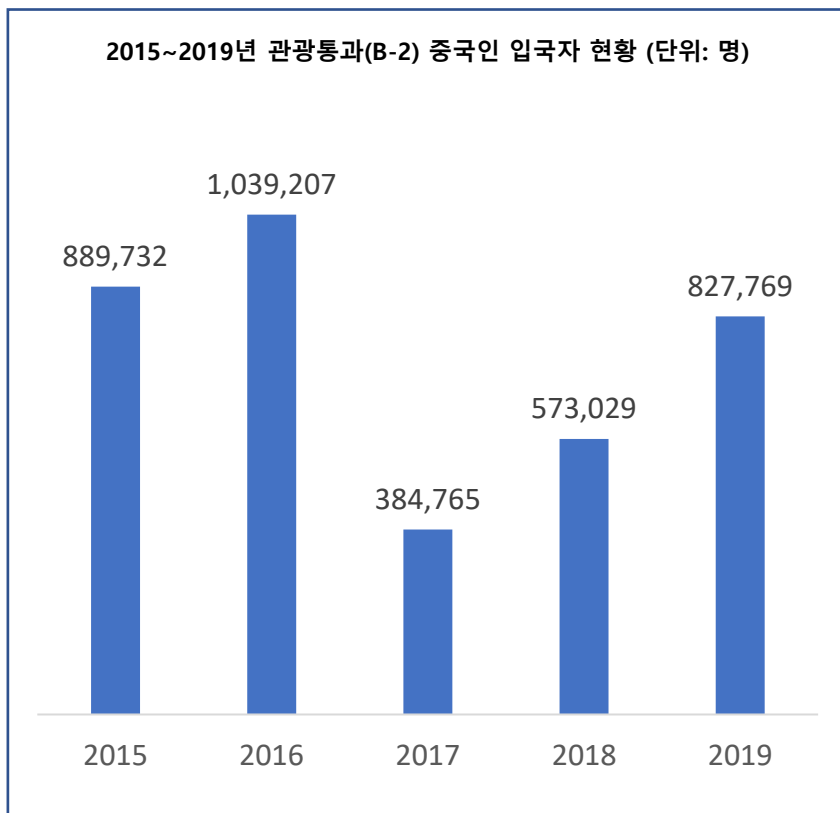
출처: 법무부 출입국자료 정보공개청구 정리

- 1명이 여러 번 입국한 경우 1명으로 집계
- 2015~2019년 주중 공관별 복수비자 발급건수는 부록에 별도 수록



## 2. 중국인 출입국제도\_관광통과 비자 입국자

**2019년 관광통과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은 약 82만명이며,  
이는 전체 중국인 입국자의 13.7%에 해당**



출처: 법무부 출입국자료 정보공개청구 정리

## **Ⅱ. 중국인 출입국제도 변화 및 효과**

### **3.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효과**

### 3.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효과\_주요 개선 제도

## 개인관광객 대상 주요 제도개선: 비자발급 서류 간소화

- 여행사 등 관광업계에서 중국인관광객 한국방문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까다로운 입국 비자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였고, 2010~2012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중국인관광객에 대해 비자발급 요구 서류를 대폭 간소화함

### 제도 개선 전: 개인 목적 한국 방문객의 경우 최대 7종의 서류 제출 필요

구 분		여 권	사 진	신분증 복사본	호구책 복사본	재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재산 증명서	개인 이력서	여행 계획서	임시 거주증
한국	개별	✓	✓	✓		✓	✓	✓	✓	✓	✓
	단체	✓	✓	✓	✓	✓		✓			✓
싱가포르	개별	✓	✓			✓		✓			✓
	단체	✓	✓								
말레이시아	개별, 단체	✓	✓								
태국	개별, 단체	✓	✓								

2009년 7월

### 제도 개선 후: 재정증빙 서류 간소화

재직증명서, 최근 6개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납세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 해당국가 영주권 등 영주.장기체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특정단체 초청장, 연금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대상별로 최대 2종을 넘지 않을 것**

### 3.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효과\_주요 개선 제도

## 개인관광객 대상 주요 제도개선: 복수비자 간소화

2008년	2010년	2014년	2016년
<b>최고 우수인재, 부유층 중심</b> 수시방문기업인, 학술회의, 국제행사 참가자 등 일부 대상 발급에서 대상 확대 ①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또는 OECD 국가(한국 제외)를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방문자 ②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③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 정기 선사의 임직원 ④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골드 또는 플래티넘카드 소지자) ⑤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또는 통산 5회 이상 방문자 ⑥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⑦ 외국 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⑧ 단기상용, 단기종합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b>중산층까지 확대</b> 2008년 기준에서 대상 확대 유효기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①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② 대학 전임강사 또는 교사 ③ 퇴직 후 연금수령자 ④ 중국 500대 기업 임·직원 ⑤ 우수대학 졸업생 ⑥ 연간소득 25만 위안에서 6만 위안으로 기준	<b>지역 확대</b>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대상 복수비자 발급	<b>대상확대</b> 비자발급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 1회 입국 시 체류기간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확대 변호사,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에 10년 유효 비자 최초 시행
<b>불법체류 안전성 중심</b>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중국인에 국한		<b>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중심</b> 해외관광의 수요가 높은 지역 및 대상을 중심으로 복수비자 간소화 전면적 확대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및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비자관련 공지사항' 정리([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1248/list.do](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1248/list.do))

### 3.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효과\_주요 개선 제도

## 단체관광객 대상 주요 제도개선: 단체관광비자 전자화

- 해외 우수인재, 의료관광객 등으로 한정되었던 전자비자 발급 대상에 2015년 1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포함(시범시행)하고, 2016년 3월부터 본격 시행

2015년 1월	2016년 3월
시범시행	전면시행
중국 내 공관별로 대행사 두 곳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시범실행 기간에는 전자비자 신청과 함께 기존의 공관 방문 신청 병행	단체관광비자 지정대행사들은 비자포털 사이트( <a href="http://www.visa.go.kr">www.visa.go.kr</a> ) 에서 계정등록 및 승인요청 작업 후 전자비자 발급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전면알림 시행. 2016.02.24.

3.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효과\_분석결과 1

중국인 ‘개별관광객 비자발급 서류 간소화’는 방한 중국인 수 증가에 유의미한 요소로 나타남

비자이벤트 1. 2009년부터 시행된 중국인 개별관광객 비자발급 서류 간소화

- 환율, 항공운항편수, 1인당 GDP, 비자이벤트1(개별관광객 비자발급 서류간소화)은 유의수준 0.1에서 방한 중국인 입국자 수에 영향을 미쳤음
- 개별관광객 비자발급 서류 간소화 직후 방한 중국인 수는 62,495명이 증가하였으며, 환율, 항공운항편수 등의 요인도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구분	B	표준오차	β	t값(p값)
방한 중국인 수	상수	255,421	14,451.6		17.674(0.000)
	호텔 객실 수	5,716.89	7,088.36	0.028	0.807(0.421)
	환율	27,593	5,682.6	0.137	4.856(0.000)
	항공운항편수	204,799	86,47	1.016	23.684(0.000)
	국제유가	9,531.39	5,769.65	0.047	1.652(0.101)
	1인당 GDP	-36,217	7,581.8	-0.18	-4.777(0.000)
	2009년 개별비자 서류간소화	62,495	17,334	0.126	3.605(0.000)
F=304.604(0.000), R²= 0.930					

참고: 개선 효과분석의 방법론 및 변수 설정관련 내용은 부록(제도개선효과 분석방법 개요) 참조  
 “통계적으로 유의(유의미)하다.” : 확률적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의미가 있다는 뜻

## 3.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효과\_분석결과 2

2010년의 불법체류 안전성 중심의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간소화'는  
방한 중국인 수 증가에 유의미하지 않음

## 비자이벤트 2. 2010년 7월 시행된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 2010년의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는 중국인 수 증가에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비자이벤트 1(개별관광객 비자발급 서류간소화)는 방한 중국인 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 $p=0.001$ )을 보이며 68,629명이 증가
- 이 시기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는 환율, 항공운항편수, 1인당 GDP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방한 중국인 수에 영향

	구분	B	표준오차	$\beta$	t값(p값)
방한 중국인 수	상수	259,001	1,6092.1		16.095(0.000)
	호텔 객실 수	5,320.44	7,149.67	0.026	0.744(0.458)
	환율	28,215	5,826.1	0.140	4.843(0.000)
	항공운항편수	206,145	9,060.7	1.023	22.751(0.000)
	국제유가	11,319	6,758.6	0.056	1.675(0.096)
	1인당 GDP	-34,781	8,103.9	-0.173	-4.292(0.000)
	2009년 개별비자 서류간소화	68,629	2,1117	0.139	3.250(0.001)
	2010년 복수비자 발급 간소화 (불법체류 안전성 중심)	-11,910	2,3283.1	-0.027	-0.512(0.610)
F=259.719(0.000), $R^2= 0.930$					

"통계적으로 유의(유의미)하지 않다." : 확률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결과가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는 뜻

### 3.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효과\_분석결과 3

## 2015년의 '단체관광객 대상 전자비자 발급 시행'은 방한 중국인 수 증가에 유의미하지 않음

### 비자이벤트 3. 2015년 1월 시행된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시행

- 2015년의 단체관광객 대상 전자비자 발급은 중국인 수 증가에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비자이벤트 1(개별관광객 비자발급 서류간소화)는 방한 중국인 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 $p=0.001$ )을 보이며 68,949명이 증가
- 이 시기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는 환율, 항공운항편수, 1인당 GDP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방한 중국인 수에 영향

	구분	B	표준오차	$\beta$	t값(p값)
방한 중국인 수	상수	258,452	19,332.8		13.369(0.000)
	호텔 객실 수	5,091.74	8,434.52	0.025	0.604(0.547)
	환율	28,323	6,210.7	0.141	4.560(0.000)
	항공운항편수	205,983	9,620.3	1.022	21.411(0.000)
	국제유가	11,432.6	7,133.32	0.057	1.603(0.111)
	1인당 GDP	-35,224	11,823	-0.175	-2.979(0.003)
	2009년 개별비자 서류간소화	68,949	22,086	0.139	3.122(0.002)
	2010년 복수비자 발급 간소화 (불법체류 안전성 중심)	-12,067	23,567.8	-0.027	-0.512(0.609)
	단체관광객 대상 전자비자 발급 시행	1,499.59	29,063.3	0.003	0.052(0.959)
F=225.588(0.000), $R^2=0.930$					



## 3.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효과\_분석결과 4

2016년 1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중심의 '복수비자 발급 간소화'는  
방한 중국인 수 증가에 유의미한 요소로 나타남

## 비자이벤트 4. 2016년 1월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 비자이벤트 4(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시행 후, 방한 중국인 수는 74,02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자 이벤트 1(개별관광객 비자발급 서류간소화)도 지속적으로 방한 중국인 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78,505명이 증가하는 효과
- 환율, 항공운항편수, 1인당 GDP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방한 중국인 수에 영향

	구분	B	표준오차	$\beta$	t값(p값)
방한 중국인 수	상수	244,016	2,0597.6		11.847(0.000)
	호텔 객실 수	-2,523.2	9,263.77	-0.013	-0.272(0.786)
	환율	322,56	6,489.7	0.16	4.970(0.000)
	항공운항편수	202,847	9,670	1.006	20.977(0.000)
	국제유가	10,491	7,082.48	0.052	1.481(0.141)
	1인당 GDP	-45,880	12,982	-0.228	-3.534(0.001)
	2009년 개별비자 서류간소화	78,505	22,444	0.159	3.498(0.001)
	2010년 복수비자 발급 간소화 (불법체류 안전성 중심)	-12,311	23,342.9	-0.028	-0.527(0.599)
	단체관광객 대상 전자비자 발급 시행	-40,823	36,383.6	-0.09	-1.122(0.264)
	2016년 복수비자 발급 간소화 (관광객 유치증대 중심)	74,029	38,922	0.16	1.902(0.059)
F=204.813(0.000, R <sup>2</sup> =0.932					33

### 3.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효과\_분석 종합

## '개별관광객 비자발급 서류간소화'와 '전면적 복수비자 간소화'는 방한 중국인 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비자제도 개선사항에 따른 효과 분석 종합

- 개별비자의 서류간소화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복수비자의 경우 대상을 실제 관광수요자 우선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실제 유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단체여행객의 경우 여행에 필요한 절차를 여행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단체여행객이 출입국제도 개선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점이 제도개선 효과에 작용함



- 2009년 개별비자 서류간소화는 시행 후 매월 62,495명 ~ 78,505명을 증가시켰음

## **Ⅱ. 중국인 출입국제도 변화 및 효과**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와와의 비교**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와 비교

중국인 대상 무비자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외에, 우리나라의 출입국제도는 중국인에게 매우 개방적인 편이나, 중국인 개별관광객 대상 전자비자는 미적용

각국의 운영 중인 출입국제도 비교

국가	무비자	전자비자	복수비자	자동 출국
우리나라	△*	△**	○	○
일본	△***	○	○	X
미국	X	○	○	X
태국	X	○	X	X
대만	X	○	X	X
호주	X	○	○	○
싱가포르	X	○	X	X
베트남	X	○	○	X
말레이시아	△****	○	X	X
인도네시아	○	-	-	X

\* 제주도 입도 또는 유럽여행을 위한 인천공항 경유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 해외우수인재, 의료관광객, 단체여행객 전자비자 적용

\*\*\*수학여행단 무비자 입국

\*\*\*\*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 강점

- 중국 여권으로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33개국에 불과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제주도 무비자 입국, 유럽관광 목적 인천공항 경유 중국인을 대상으로 30일 체류허가 등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편
- 복수비자 발급 지역을 확대하고, 즈마신용 또는 대학생 재학증명으로 재정증빙을 대체하는 등 비자신청 제출서류의 간소화도 지속적으로 시행 중
- 중국인 단기관광객이 자동출입국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국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호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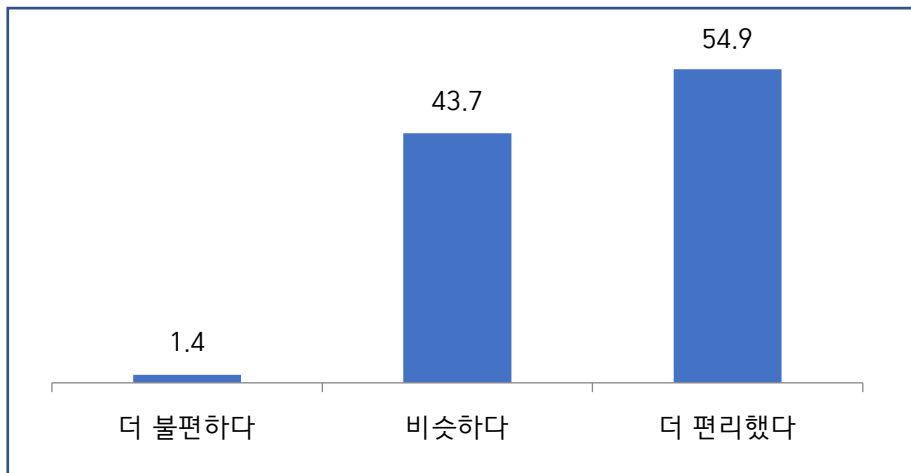
##### 개선점

- 비교 국가에서 모두 중국인 관광객 대상 전자비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반 관광객 대상 전자비자제도 미시행
- 일본의 경우 전자비자 시행 이후 첫 번째 대상자를 중국인으로 할 정도로 중국인 유치에 전자비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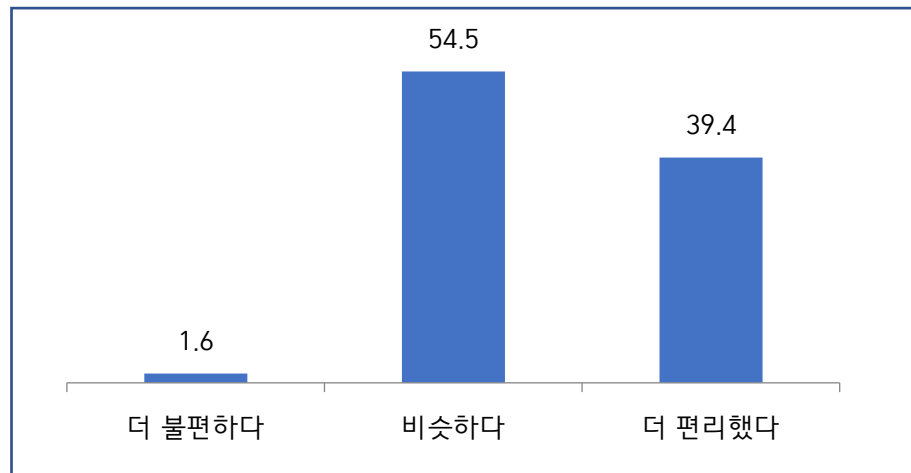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와 비교

### 중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서도 출입국제도 경쟁력은 낮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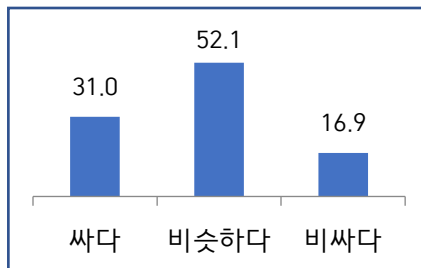
일본 대비 비자 발급과정 전반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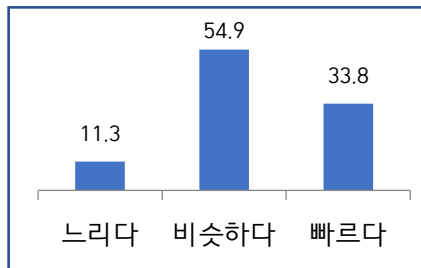
대만 대비 비자 발급과정 전반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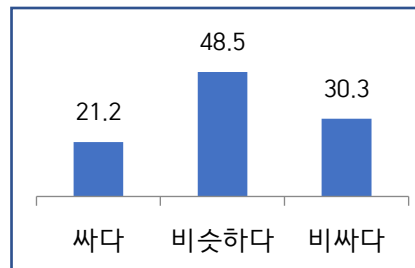
일본 대비 비자 발급비용 전반 평가(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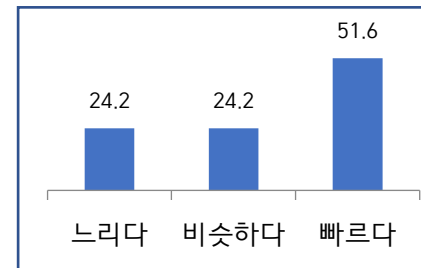
일본 대비 비자 발급시간 전반 평가(단위: %)



대만 대비 비자 발급비용 전반 평가(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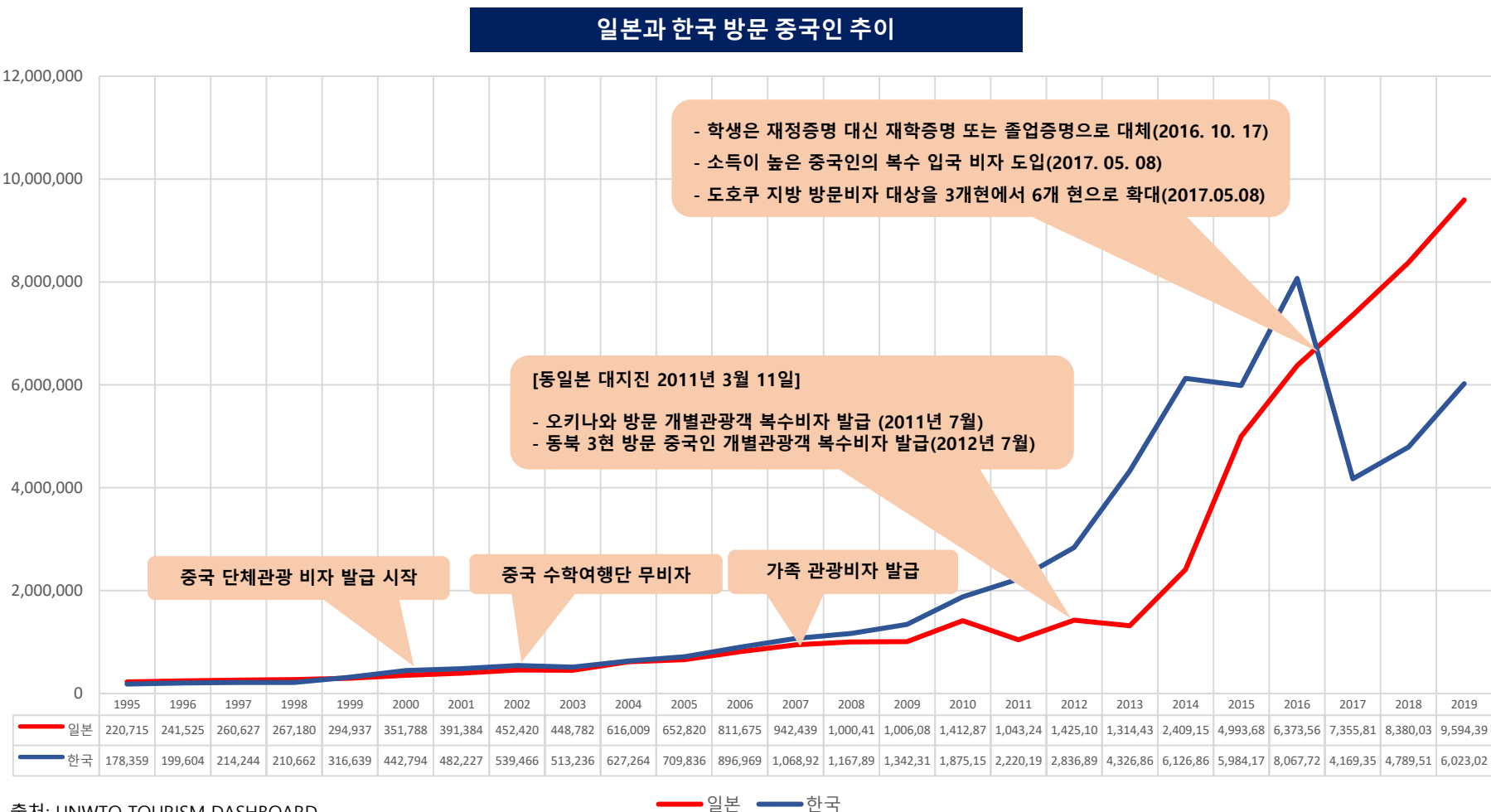


대만 대비 비자 발급시간 전반 평가(단위: %)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일본

###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인 대상 출입국제도 시행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일본

### 2000년부터 중국인 유치를 위한 출입국제도 개선

2000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인에 대한 단체관광 비자 발급 시작</li> </ul>
2004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수학여행단 무비자 제도 시행</li> </ul>
2008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에는 5명~40명의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단체여행 비자를 발급했지만, 가족여행 비자제도 시행 후 동행하는 가이드만 있으면 2명~3명의 가족단위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여행 비자 발급</li> </ul>
2009년 7월부터 (1년 시범사업으로 먼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3개 공관에서 연수입 25만 위안을 기준으로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요건을 만족하는 부유층에 한하여 개별관광비자 발급</li> </ul>
2010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 직업상의 지위 및 경제력을 가진 사람(중산층)으로 개별관광 비자 요건 완화 (예금 5만 위안 이상)</li> <li>발급 요청을 받는 재외공관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3곳에서 7개 전 공관으로 확대</li> <li>개별비자의 신청 대상 창구인 여행사도 확대</li> </ul> <p>[개별비자 주요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형 신용카드사의 '골드카드' 보유</li> <li>② 공기업과 대기업의 과장급 이상</li> <li>③ 연수입 수만위안 이상으로 안정된 수입 등의 조건 (특히 소득 제한은 연수입 25만 위안 이상에서 연수입 6만 위안 이상으로 낮춤)</li> </ol>
2011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비자 발급 완화] 중국인의 개별관광비자 신청시에 발급 조건을 더욱 완화</li> <li>① "일정 직업상의 지위 및 경제력을 가진 사람"에서 "일정 직업상의 지위"를 삭제하고 "일정 경제력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li> <li>② 체류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li> <li>[의료관광비자 신설]</li> <li>① 외국인에게 일본 의료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Medical Excellence JAPAN 운영</li> </ul>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일본

### 중국관광객은 일본 정부가 전자관광비자를 적용한 최초의 대상

- 2020년 4월부터 중국 개인 및 단체 단수비자 대상 관광객은 일본 전자비자제도 이용 가능 (현재 코로나19로 중단)
- 중국인은 일본 정부가 일본 관광비자 온라인 서비스를 적용한 최초의 국가
- 현재 여행사를 통해서 대리신청해야 하는 것은 유지

비자 종류		조건	체류일 / 유효기간
단체관광객	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여행사가 단체관광비자 신청</li> <li>• 단체관광객은 투어기간 동안 단독으로 여행할 수 없음</li> </ul>	15일
개별관광객	일반 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수준의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개인 단수 관광비자 발급</li> <li>• 중국 교육부 웹사이트에 등록된 중국 내 일반대학 학생(학사, 석사, 박사생)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 학생에게 발급</li> </ul>	15일 또는 30일
	복수 - 오키나와 또는 도호쿠(東北)지방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키나와 현 또는 도호쿠 지방의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에서 최소 1박 이상 체류하는 여행자에게 복수 입국 개별 관광비자 발급</li> <li>• [오키나와에 체류하는 신청자의 조건]</li> <li>• 충분한 수준의 재정적 능력 또는 하기 조건 만족</li> <li>• 일정 수준의 재정적 능력이 있고, 단기 방문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1회 이상 일본을 방문한 경우</li> </ul>	30일 / 3년
	복수 -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가진 개별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적 능력이 충분한 여행자와 그 가족에게는 복수 입국 개인 관광 비자가 발급</li> <li>• 특정 종류의 개인관광비자(단체관광 및 임시비자 제외)로 지난 3년 동안 일본에 2회 이상 입국한 여행 기록이 있는 사람</li> <li>• 3년 유효, 1회 30일 체류</li> <li>• 오키나와 또는 도호쿠 입국비자와는 달리 특정 목적지를 방문할 필요 없음</li> <li>• 여행사를 통해 신청</li> </ul>	30일 / 3년
	복수 - 소득이 상당히 높은 방문자를 위한 복수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적 능력이 충분한 여행자와 그 가족에게는 복수 입국 개인 관광 비자가 발급</li> <li>• 특정 종류의 개인관광비자(단체관광 및 임시비자 제외)로 지난 3년 동안 일본에 2회 이상 입국한 여행 기록이 있는 사람</li> <li>• 오키나와 또는 도호쿠 입국비자와는 달리 특정 목적지를 방문할 필요 없음</li> </ul>	90일 / 5년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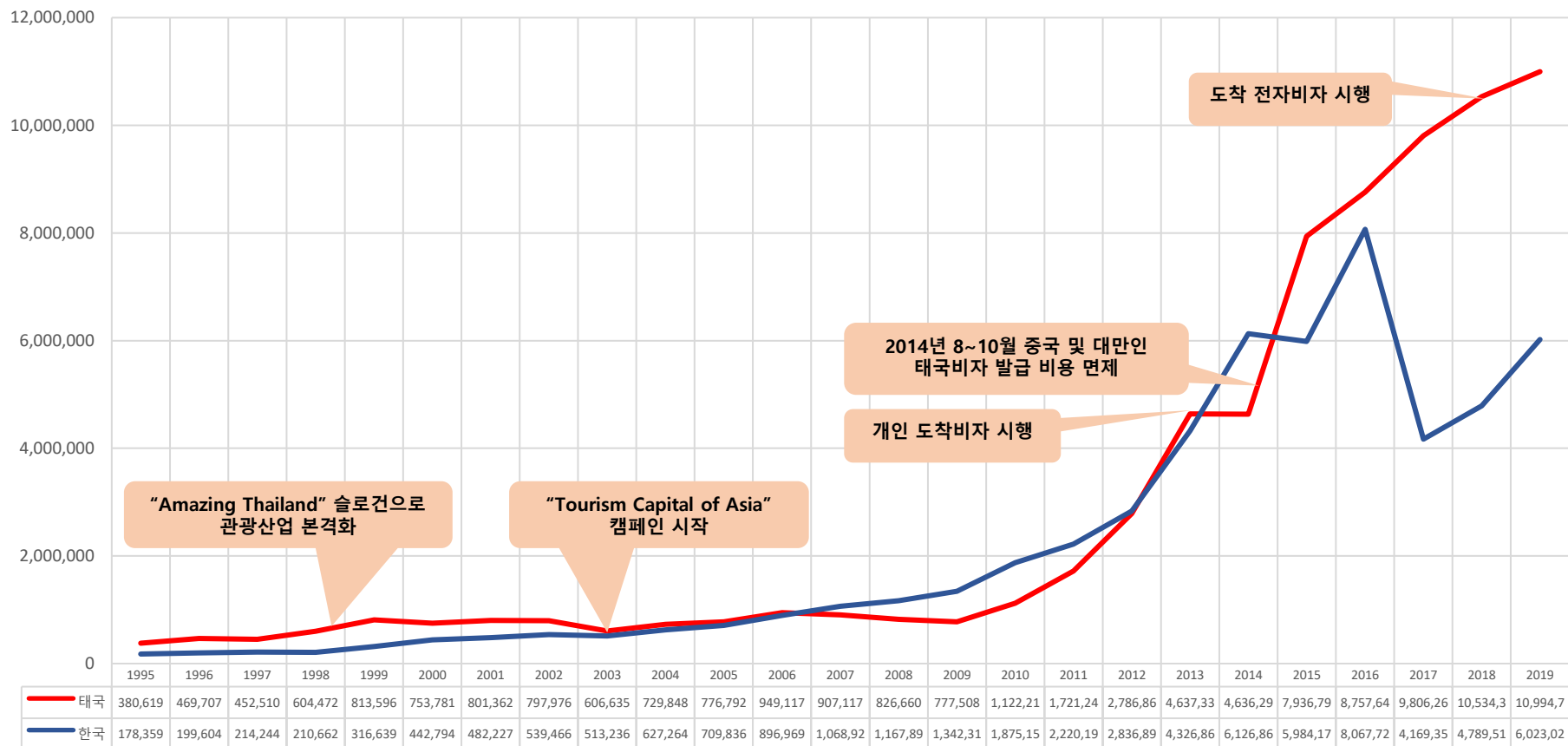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중국인관광객의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했으나,  
일본과 같은 중국인 대상 전자비자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음**

국가	전자비자	복수비자 포함 제도개선
우리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인 개별관광객 대상 미적용</li> <li>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0년부터 중국 중산층을 대상으로 복수비자를 발급하였고, 2019년 중국 소득상위 14개 지역에서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등 복수비자 발급 간소화 확대</li> <li>2015년 중국 4년제 대학생 사증서류 제도 간소화 도입</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인 개별 및 단체관광객 대상 적용 (2020년 4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년 7월 오키나와 방문 개별관광객 및 2012년 동북 3현 방문 중국인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복수비자 발급 간소화 시기가 우리나라보다 약 1년 늦고, 대상도 매우 제한적</li> <li>중국 대학생이 재학증명 또는 졸업증명으로 재정증명을 대체하는 제도도 2016년 10월에 도입하여 우리나라보다 약 1년 늦음</li> </ul>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태국

# 중국인 대상 비자제도는 있으나, 사실상 입국 증명을 위한 절차에 불과

태국과 한국 방문 중국인 추이



출처: UNWTO TOURISM DASHBOARD

— 태국 — 한국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태국

### 중국인 관광객인 '입국 전 비자', '도착비자', '전자비자'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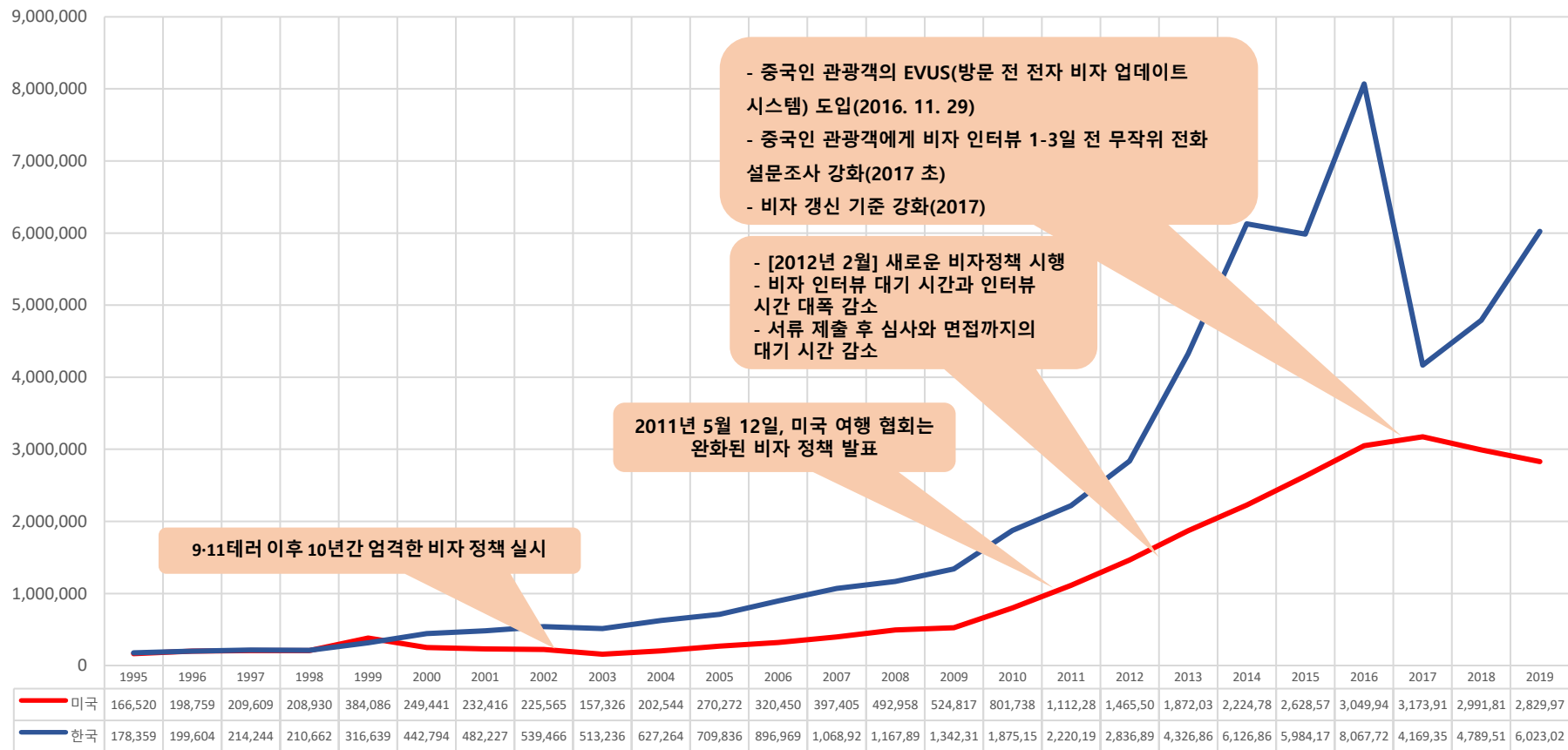
비자 종류		조건	체류일 / 유효기간
Tourist Visa [TR 비자]	사전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권, 사진, 신청서 및 태국 호텔 예약증으로 비자 발급</li> <li>TAHI E-VISA 센터(<a href="https://www.thaievisa.go.th/">https://www.thaievisa.go.th/</a>)에서 신청 후 공관에서 발급</li> </ul>	30일
	도착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 비자 서류 + 입국 후 15일 이내 출국하는 비행기표</li> <li>태국 도착비자 수수료: 2,000바트 (현금 결제)</li> <li>2019년 1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입국 비자 수수료 면제</li> </ul>	15일
	도착 전자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VOA로 불리는 도착 전자비자</li> <li>일반 도착 비자가 발급까지 약 2시간 가량 소요되는 불편을 줄이고자, 전자비자 형태 도입</li> <li>2019년 1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입국 비자 수수료 면제</li> <li>E-VOA 신청 가능 대상은 21개국으로 중국, 대만 포함</li> <li>신청 사이트: <a href="https://thailandevoa.vfsevisa.com/">https://thailandevoa.vfsevisa.com/</a></li> </ul>	15일

E-VOA 대상 국가					E-VOA로 입국 허용된 태국 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도라</li> <li>에티오피아</li> <li>라트비아</li> <li>모리셔스</li> <li>산 마리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탄</li> <li>피지</li> <li>리투아니아</li> <li>파푸아 뉴기니</li> <li>사우디아라비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가리아</li> <li>인도</li> <li>몰디브</li> <li>키프로스 공화국</li> <li>대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li> <li>카자흐스탄</li> <li>몰타</li> <li>루마니아</li> <li>우크라이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즈베키스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콕 – 수완 나품 국제 공항 – BKK</li> <li>방콕 – 돈므앙 국제 공항 – DMK</li> <li>푸켓 – 푸켓 국제 공항 – HKT</li> <li>치앙마이 – 치앙마이 국제 공항 – CNX</li> </ul>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미국

# 2011년 비자 완화 정책 발표 후 방미 관광객이 증가했으나, '미중무역 전쟁'을 기점으로 전체 방미 외국인 중국인 관광객 수 감소

미국과 한국 방문 중국인 추이



출처: UNWTO TOURISM DASHBOARD

— 미국 — 한국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미국

### 비자제도 완화 시의 관광객 증가와 비자제도 강화 시의 관광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국가

2011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 인터뷰 대기시간 감소, 미국 현지에서 비자 연장 허용, 국무부 영사관과 영사인원 수 증가 등 완화된 비자 정책 시행</li> </ul>
2012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뷰 시간 및 대기 시간 대폭 감소, 서류 제출 후 심사 및 면접 시간 대폭 감소 등의 새로운 비자 정책 시행으로 관광객 급증</li> </ul>
2013년 3월	<p>[3월 20일, 비자 정책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 신청 시 예약금과 우편비용 부과 없이 비자 신청비용만 부과</li> <li>• 온라인 인터뷰 예약을 추가하여 인터뷰 대기 시간을 일주일로 단축</li> <li>• 개인 사유로 인터뷰 기회를 놓쳤을 경우 무료로 재예약 가능</li> </ul>
2014년 11월	<p>[미중 상호 비자 정책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및 비즈니스 비자의 유효기간 1년에서 10년으로 연장</li> <li>• 학생 비자의 유효기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li> </ul>
2016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B1, B2 또는 B1/B2 비자를 소지 한 중국 관광객의 EVUS(방문 전 전자 비자 업데이트 시스템) 정책 시행</li> </ul>
2017년	<p>[비자 정책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료 후 48개월 이내에 면접 없이 갱신 가능했던 비자 정책에서 12개월 이내로 단축</li> <li>• 중국인 비자 신청자에 대한 비자 인터뷰 1-3일 전 무작위 전화 설문 조사 강화</li> </ul>
2018년~	<p>[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뉴딜 정책,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영향으로 비자 정책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시 지원자의 소셜 미디어 정보 검토</li> <li>• 불충분 서류 제출자의 경우 별도의 재심 없이 비자 거절 강화(9월 11일부터 시행)</li> <li>• B1, B2 구분을 위한 엄격한 기준 설정(2019년 시행)</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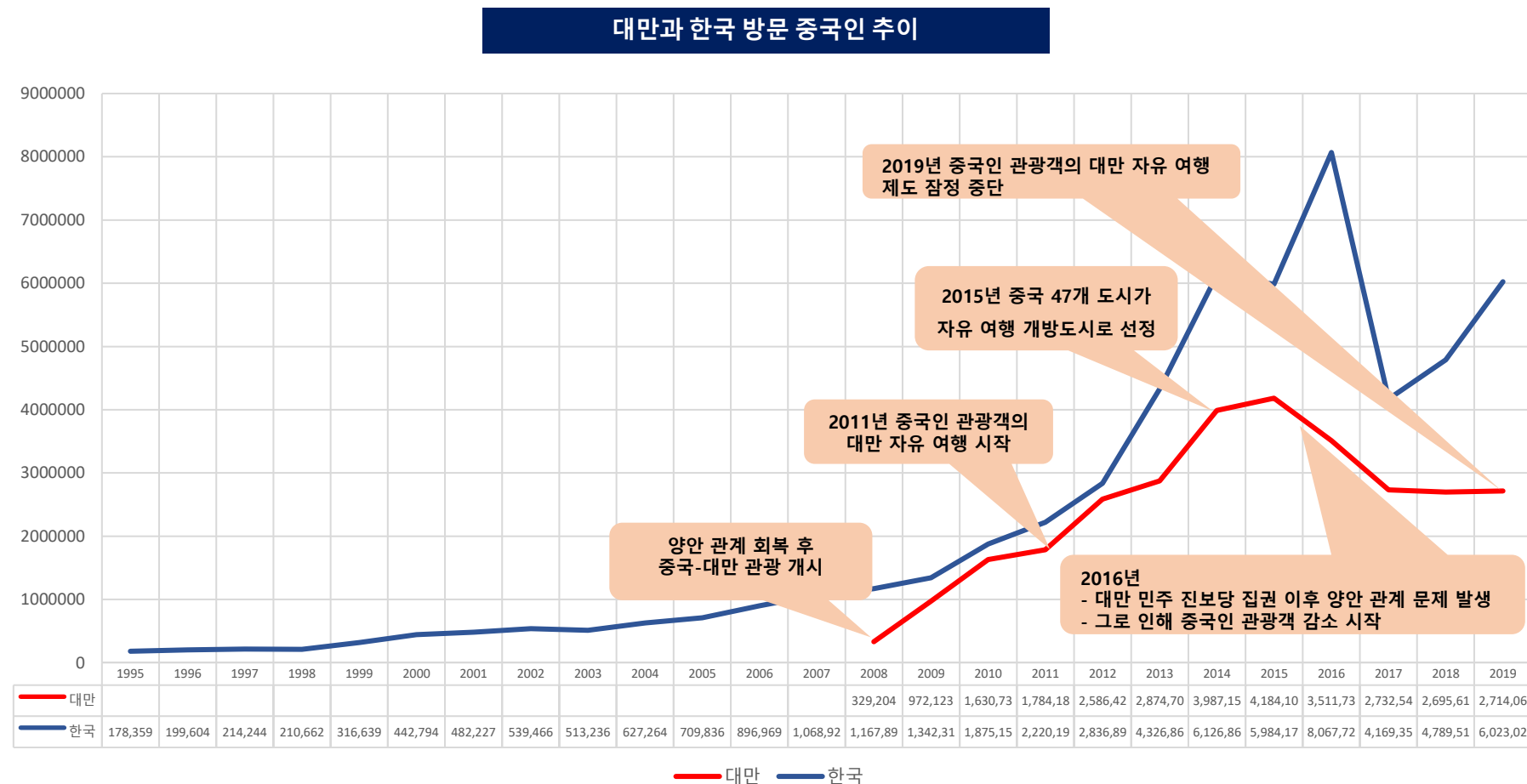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미국

온라인 비자 신청 양식인 DS-160을 작성하여 온라인에서 비자를 발급하며, 13세 이하와 80세 이상을 제외하고 필수적으로 비자 인터뷰 진행

방문자 비자(Visitor Visa) 종류		조건	체류일 / 유효기간
B1	비즈니스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 협상, 전시회 또는 컨퍼런스 참여 등 단기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비자 발급</li> <li>비자 취득 후 취업 불가</li> </ul>	6개월/최대 10년
B2	관광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행, 휴양, 친구나 친척과 방문, 치료, 사회적 행사 참여, 짧은 레크레이션 강좌(예, 방학 중 참여하는 쿠킹클래스 등) 수강 등과 같은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비자 발급</li> <li>비자 취득 후 취업 불가</li> </ul>	6개월/최대 10년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대만

2011년 중국인 관광객의 대만 자유여행 시행 후 2015년 중국 47개 도시가 '자유여행 개방도시'로 선정되었으나, 2016년 민주진보당 집권 이후 양안 관계 악화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



출처: UNWTO TOURISM DASHBOARD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대만

### 2008년 양안 관계 회복 후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제도 개선 추진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월 4일 중국인 관광객의 대만 단체 여행이 정식 시작</li> <li>12월 21일 타이베이 송산-대련, 타이중-항저우를 잇는 직항편 첫 비행 실시</li> </ul>
2011년 6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인 관광객의 대만 자유 여행 시작</li> <li>베이징, 상하이, 푸젠, 샤먼이 첫 개방도시로 선정</li> <li>7월 29일 샤먼 주민의 대만 진먼다오(金門), 마주다오(馬祖), 펑후(澎湖) 자유 여행이 정식으로 시작</li> </ul>
2012년 4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텐진, 충칭, 난징, 항저우, 광저우, 청두 등 6개의 도시가 두 번째 개방도시로 선정</li> <li>제남, 서안, 푸저우, 심천 등 4개 도시도 연내로 선정, 그리하여 총 4개의 직할시, 2개의 경제특구, 7개의 성이 대만 자유 여행 개방도시로 선정</li> </ul>
2013년 6월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양, 정저우, 우한, 쑤저우, 닝보, 칭다오, 스자좡, 장춘, 허페이, 창샤, 난닝, 쿤밍, 취안저우 등 13개 도시가 세 번째 개방도시로 선정</li> <li>13개 도시 중 심양, 정저우, 우한, 쑤저우, 닝보, 칭다오 등 6개 도시는 6월 28일 정식 시작</li> <li>이후 2014년 하얼빈, 타이위안, 난창, 구이양, 다롄, 중산, 옌타이 등이 네 번째 개방도시로 선정 되었고, 2015년 하이커우, 란저우, 인촨, 창저우, 꾸이린 등의 도시가 다섯 번째 개방도시로 선정되어 총 47개 도시가 자유 여행 개방도시로 선정</li> </ul>
2017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만 관광비자 중 하나인 '중국인의 대만 왕래 통행증(패스)' 의 전자 카드형 패스 도입 및 시행</li> </ul>
2019년 8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년 대만 민주 진보당이 집권한 이후 지속적으로 양안 관계가 훼손되어 2019년 8월 1일부터 중국에서 대만으로 가는 47개 도시 자유 여행 제도 잠정 중단</li> </ul>
2020년	<p>코로나19로 인한 30일 비자 자동 연장 정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월 21일 1차, 4월 17일 2차, 5월 18일 3차, 6월 15일 4차, 7월 17일 5차 연장 실시</li> </ul>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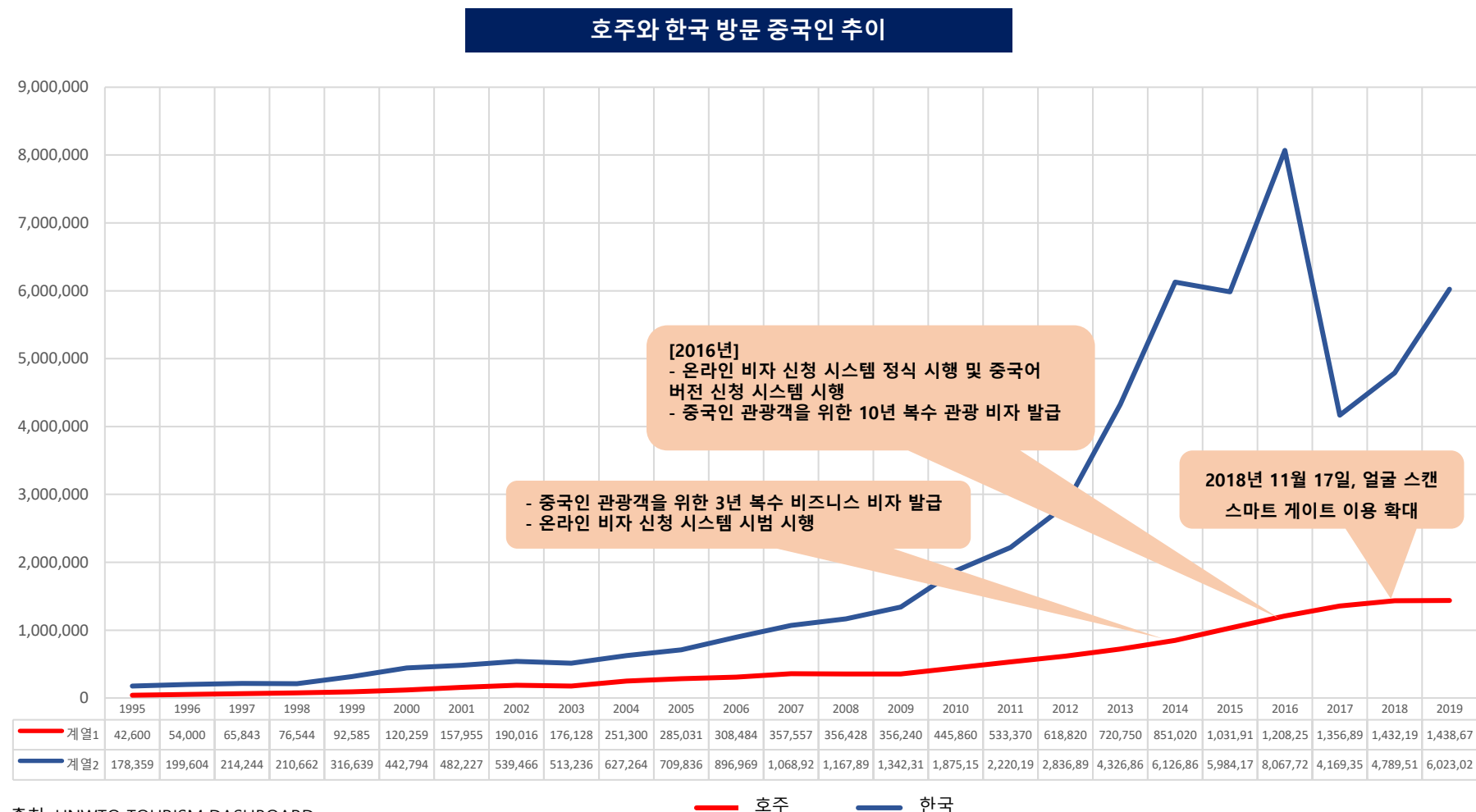
### 재정증명, 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발급

- 자유 여행의 경우 등록된 공안국 출입국 관리 부서와 국가여행국이 지정한 여행사에 대행 처리 가능
- 단체 여행의 경우 국가 관광청이 지정한 여행사가 주관하는 대만 단체 여행만 참여 가능

관광비자 종류		조건	체류일 / 유효기간
两证一签 (2증1비자)	《大陆居民往来台湾通行证》 (대륙거민왕래대만통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된 공안국 출입국 관리 부서에서 '중국인의 대만 왕래 통행증(패스)' 인증서와 G 서명 처리</li> <li>• 중국 국가여행국이 지정한 여행사에서 '대만 출입국 허가증' 인증서 처리</li> <li>• 대만 자유여행 개방 도시로는 북경, 상하이, 천진, 충칭, 남경, 항저우, 광저우, 청두, 제남, 서안, 심천 등 총 47개 도시로 해당 도시의 주민만 본 비자 신청 가능</li> <li>• 단수비자로 책자형과 카드형(전자패스) 중 선택</li> </ul>	유효기간 5년
	《中华民国台湾地区 入出境许可证》 (중화민국대만지역 입출경허가증)		15일 / 90일
	大陆居民前往台湾签注 (대륙거민의 대만행 등록)		유효기간 6개월
健检医美 入台证 (의료비자)	의료관광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签(비자)로 단체 여행에서 사용하는 비자와 동일한 비자 유형</li> <li>• 20세 이상의 성인만 신청 가능</li> <li>• 지정된 병원에서 건강검진 혹은 의료미용 시술 진행 후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 가능</li> <li>• 단수비자로 연장 불가</li> </ul>	15일 / 90일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호주

# 2014년부터 지속적인 '중국인 대상 비자정책 완화'로 호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



출처: UNWTO TOURISM DASHBOARD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호주

### 중국인 대상 10년 관광복수비자 정책 시행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3년 동안 유효한 복수 비즈니스 비자 발급 시행</li> <li>• 호주의 각 국제공항에 스마트 게이트 설치로 중국인 관광객의 대기 시간 절감</li> <li>• 12월 1일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 시범 시행으로 비자 발급 간소화 및 경쟁력 확보</li> </ul>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동안 유효한 복수 관광 비자 발급 시범 시행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편리성 제고 (시범 시행은 2016년 중반까지)</li> </ul>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 정식 시행 및 중국어 버전 신청 사이트 시행</li> <li>• 11월 19일 10년 동안 유효한 복수 관광 비자 정식 시행</li> </ul>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비자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었지만 관광 비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행은 없음</li> </ul>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호주 시드니 공항이 얼굴 스캔 스마트 게이트 세계 최초 시범 시행했고, 11월 17일 중국인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 확대</li> </ul>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비자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었지만 관광 비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행은 없음</li> </ul>
2021년 2월 27일	<p>코로나19로 인한 이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비자 수수료 면제 정책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 신청 시 호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li> <li>• 2021년 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광 비자(Subclass 600)를 신청할 경우</li> <li>• 2020년 3월 21일 이전에 호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이전에 신청한 비자가 이미 만료되었거나 2020년 3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될 경우</li> </ul>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호주

### 비자신청 목적, 지불 능력, 건강상태, 특정비자 신청 조건 등을 주요 근거로 발급

- 온라인 비자 신청 사이트 ImmiAccount에서 직접 비자 발급 진행
-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 및 eVisitor (subclass 651) 비자의 경우, 중국 여권 소지자는 신청 불가 (대만과 홍콩은 ETA 신청 가능)
- Frequent Traveler Stream visa를 신청 시 비자 신청 전 중국 소재 호주 비자 신청 센터에 방문하여 지문이나 사진과 같이 생체정보를 이용한 인증 방식을 등록한 뒤 비자 신청을 진행

관광비자 종류		조건	체류일 / 유효기간
Visitor Visa (subclass 600)	일반 관광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할 시 3개월, 6개월, 최대 12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방문 비자</li> <li>• 3개월 이내의 클래스 참여 가능</li> <li>• 본 비자 취득 후 거주나 취업 불가</li> </ul>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Frequent Traveler' Visitor visa for Chinese applic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11월 19일 중국인 관광객만 신청 가능한 The 10-year 'Frequent Traveler' Visitor visa 발급 시행</li> <li>• 한 번 방문에 최대 3개월까지 체류 가능 및 복수 입국 가능</li> <li>• 비자 소지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하의 누적 체류 허용</li> </ul>	3개월/최대 10년
	Approved Destination Status str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 여행을 오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승인 받은 여행사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li> <li>• 체류기간은 승인 레터에 구체화해서 적어 놓기 때문에 별도의 특정 체류일 없음</li> </ul>	-
Medical Treatment Visa (subclass 602)	의료관광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체류기간, 단수 및 복수 여부 결정</li> </ul>	-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호주

### 중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해 입국 가능

- 전자 국경 처리 시스템인 Smart-gate의 경우 16세 이상의 전자여권을 소지한 중국 국적의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호주 스마트 게이트 사용 입국 절차



Step 1 여권 정보 확인



Step 2 얼굴 스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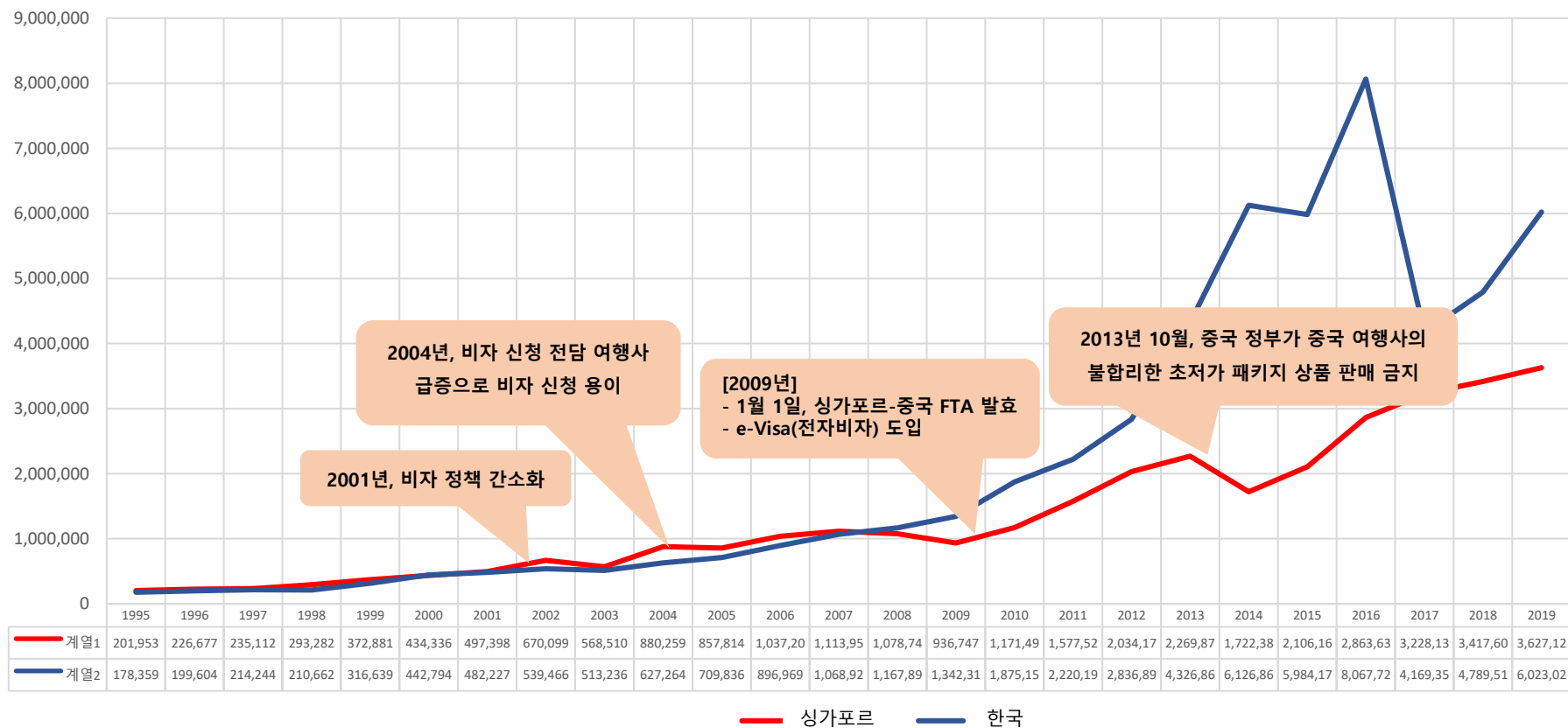
호주 스마트 게이트 사용모습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싱가포르

### '비자 전담여행사제도'로 발급과정 간소화

싱가포르와 한국 방문 중국인 추이



출처: UNWTO TOURISM DASHBOARD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싱가포르

### 모든 비자 전담여행사에서 동일한 비자수수료를 받도록 규정

200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 비자 신청 절차 간소화로 비자 처리 시간이 4-6주에서 3일로 크게 단축</li> </ul>
2004년 1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위한 비자 신청 제한 완화</li> <li>중국 관광청의 승인을 받은 여행사가 3개에서 43개로 급증하여 비자 신청 용이</li> </ul>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ubmission of Application for Visa Electronically (SAVE)를 출시하고, 온라인 비자 발급 시행</li> </ul>
2014년 12월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두, 광저우, 상하이, 샤먼에 있는 주중 싱가포르 대사관을 통한 비자 신청을 중단하고 대사관 지정 위탁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 신청</li> </ul>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자 수수료가 RMB 300으로 고정되어 비자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li> </ul>
2020년 10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 11월 6일 중국의 입국 제한이 해지되며 개인 관광 비자 신청 및 관광 재개</li> <li>싱가포르 입국 시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입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 10월 30일부터 중국인 방문객 Air Travel Pass 신청 가능</li> <li>-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PCR 검사를 받고 음성 인증서를 취득해야 체크인 가능</li> <li>-싱가포르 도착 시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고, TraceTogether APP 설치 필수.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 면제</li> <li>-입국 전에 싱가포르 공식 지정 보험 구매 필요</li> </ul> </li> </ul>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싱가포르

### 재정 상태, 특정 비자 신청 조건 등을 주요 근거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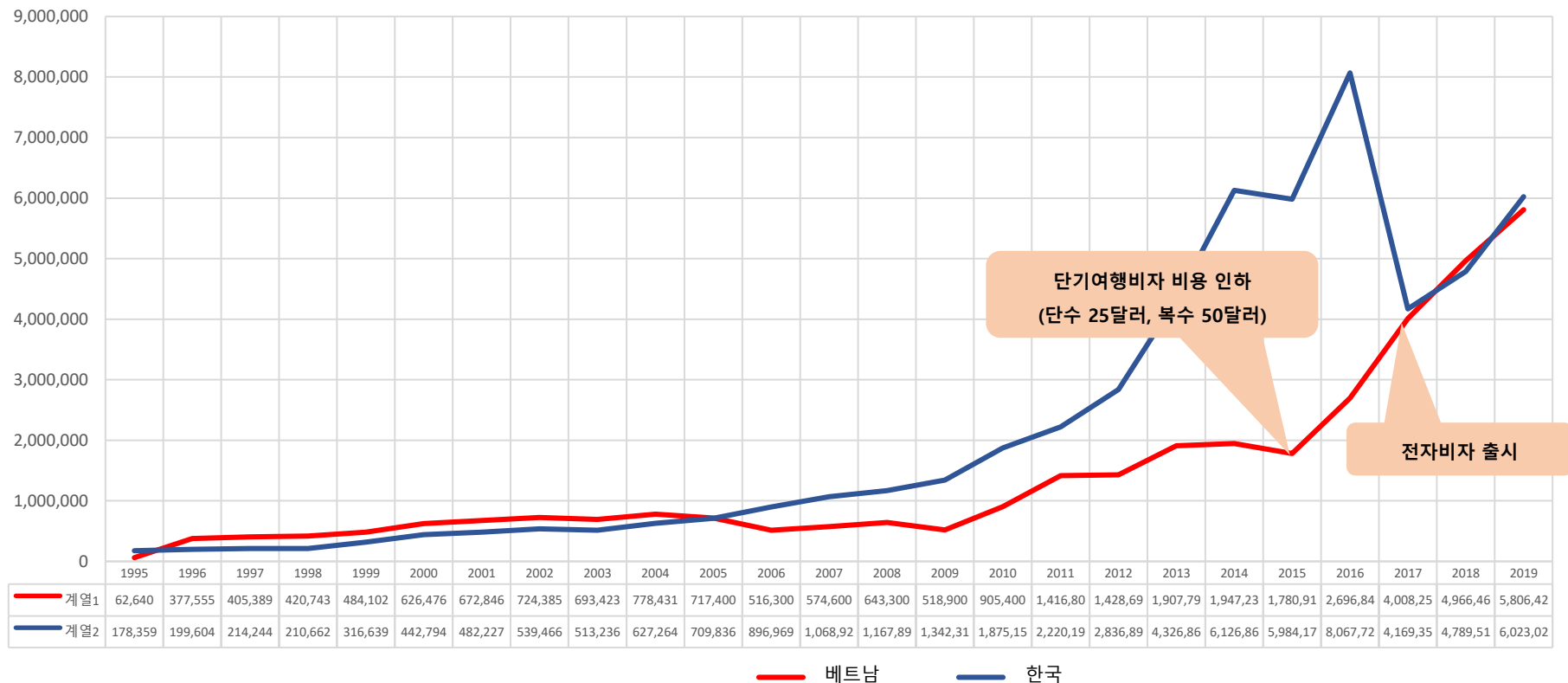
관광비자 종류		조건	체류일 / 유효기간
관광비자	Entry Visa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싱가포르 체류 시간은 최장 96시간(4일)</li> <li>단체 관광 비자로 2명 이상의 단체 신청 가능</li> <li>출입국 시 그룹 간 분리 없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하고, 비자 연장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류 일수는 입국 당시 싱가포르 출입국관리소 담당자가 결정</li> </ul>
	Entry Visa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싱가포르 체류 기간은 최대 14일</li> <li>개별 관광(자유여행) 비자로 별도의 연장 불가</li> <li>S\$1000-3000의 보증금 납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 30일이지만 7일, 14일, 28일도 있으므로 입국 시 허가 기간 승인에 유의 필요</li> </ul>
VFTF	the 96-hour visa free transit fac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 3국으로 가거나 제 3국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경우 이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자 발급</li> <li>-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li> <li>-96시간 이내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항공권 또는 페리 티켓 소지</li> <li>-싱가포르에 체류할 수 있는 경제적 증빙 조건을 충족</li> <li>-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독일, 스위스 8개국 중 하나에서 발급한 비자 소지</li> <li>-중국 본토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홍콩, 마카오를 가는 경우도 적용 가능</li> </ul>	96시간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베트남

관광비자 발급에는 여권과 사진만 필요할 정도로 간소화되었으나,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지리적 특성상 무분별한 입국을 예방하기 위해 비자제도 유지 중

베트남과 한국 방문 중국인 추이



출처: UNWTO TOURISM DASHBOARD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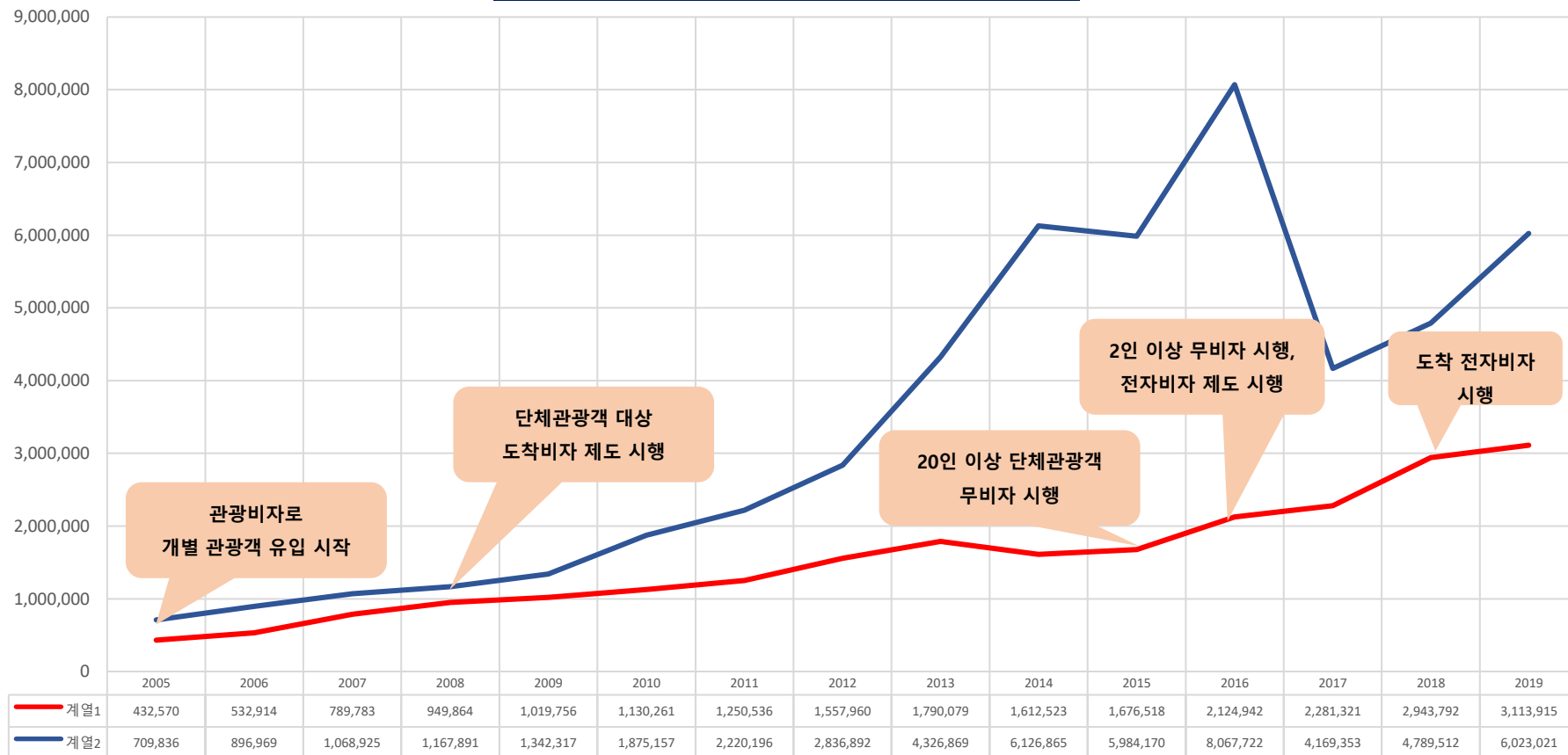
### 외교관과 공무원은 무비자이며, 일반 관광객 대상 전자비자 제도 시행

비자 종류	조건	신청 서류	신청비용 (단위: USD)	입국심사 비용 (단위: USD)
1개월 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효기간 1달</li> <li>체류기간 30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li> <li>비자 신청용 사진</li> </ul>	21	25
1개월 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효기간 1달</li> <li>체류기간 30일</li> </ul>		26	50
3개월 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효기간 3개월</li> <li>체류기간 90일</li> </ul>		34	25
3개월 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효기간 3개월</li> <li>체류기간 90일</li> </ul>		55	50
온라인 도착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비자와 종류 및 조건 동일</li> </ul>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말레이시아

2004년 관광비자 제도 시행 이후,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제도'를 시행 중이며, 개별관광객 대상으로는 '전자비자', '도착비자' 등으로 발급 절차 간소화

말레이시아와 한국 방문 중국인 추이



출처: UNWTO TOURISM DASHBOARD

— 말레이시아 — 한국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말레이시아

### 2인 이상 무비자제도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인 대상 관광비자 신설</li> </ul>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인 관광객 도착비자 제도 시행</li> </ul>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월 1일부터 2017년말까지 20인 이상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 시행</li> </ul>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일 이내 체류 관광객 대상 무비자 제도 시행 [조건] 2인 이상 동행, 15일 이내 체류, 왕복 항공권 및 호텔 예약증명자료 소지</li> <li>전자비자(eVISA) 제도 시행</li> </ul>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착 전자비자(eNTRI) 비자제도 시행</li> </ul>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말레이시아

### 관광객은 별도 증빙 없이 여권과 사진만으로 비자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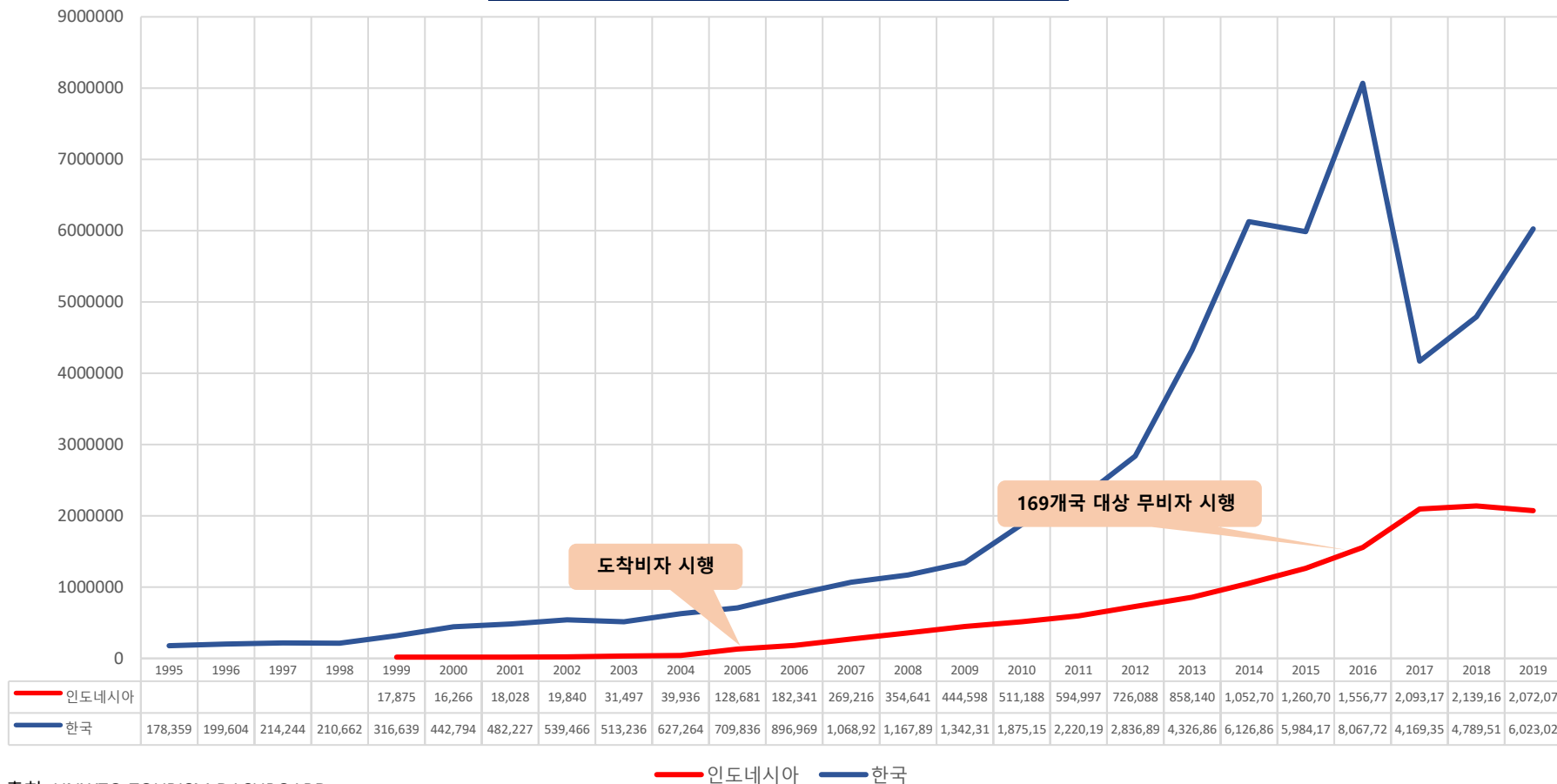
- 중국인 관광객 대상 비자는 전자비자, 도착 전자비자, 일반 단수비자 3종류 발급
- 전자비자와 도착 전자비자는 발급형태는 모두 전자비자이지만, 도착 전자비자 발급 후 재입국 시 최초 도착전자비자 발급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자비자 발급을 권장
- 전자비자와 도착 전자비자는 모두 발급 후 출력하여 입국 시 제출해야 함

	eNTRI	eVISA	단수입국비자
형태	전자비자	전자비자	일반비자
대상	입국 후 발급	입국 전 발급	입국 전 발급
체류기간	15일	30일	30일
유효기간	3개월	3~12개월	3개월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인도네시아

### 중국인 대상 무비자정책 시행

인도네시아와 한국 방문 중국인 추이



출처: UNWTO TOURISM DASHBOARD

## 4. 타 국가의 중국인 출입국제도\_인도네시아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4년 12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발생으로 관광산업에 큰 타격, 중국 관광청과 여행사는 인도네시아의 관광 시장 복원을 위해 도움</li> <li>8월 1일 도착비자 시행</li> </ul>
2013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네시아 국적 항공사 '가루다 인도네시아'는 베이징-발리 직항 노선 신설</li> <li>이후 2015년 광저우-발리, 2016년 상하이-발리, 2018년 시안-발리 직항 노선을 차례로 신설하며 발리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li> </ul>
2016년 3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을 포함한 16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 시행</li> <li>2016년 중반부터 '새로운 발리'라고 불리는 10가지 주요 관광 명소를 개발 계획 설정</li> </ul>
2020년 10월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자비자(e-VISA) 시행</li> <li>인도네시아 영사관 혹은 대표부를 방문해서 비자 수령 불필요</li> </ul>
2021년 2월 9일	<p>인도네시아 입국 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입국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PCR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 제시</li> <li>입국 시 코로나19 PCR 핵산 검사 재실시 (외국인 여행객일 경우 자가부담) 및 5일간 격리(비용 자가부담)</li> <li>입국 전 인도네시아 전자 건강 경보 카드 (e-HAC) 기입 및 신고</li> </ul>

### **Ⅲ.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환경 분석**



## 1. 외부환경\_코로나19로 인한 관광시장 변화(1)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관광을 일부 재개했으나, 백신 효과 저하로 인한 돌파감염 및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증가로 재개 유지 여부 불투명

### Tests and new confirmed COVID-19 cases per day, World

For both measures the 7-day rolling average is shown.

Our World  
in Data



미국, 태국, 싱가포르, 하와이, 사이판, 몰디브  
등 외국인 대상 무격리 입국 허용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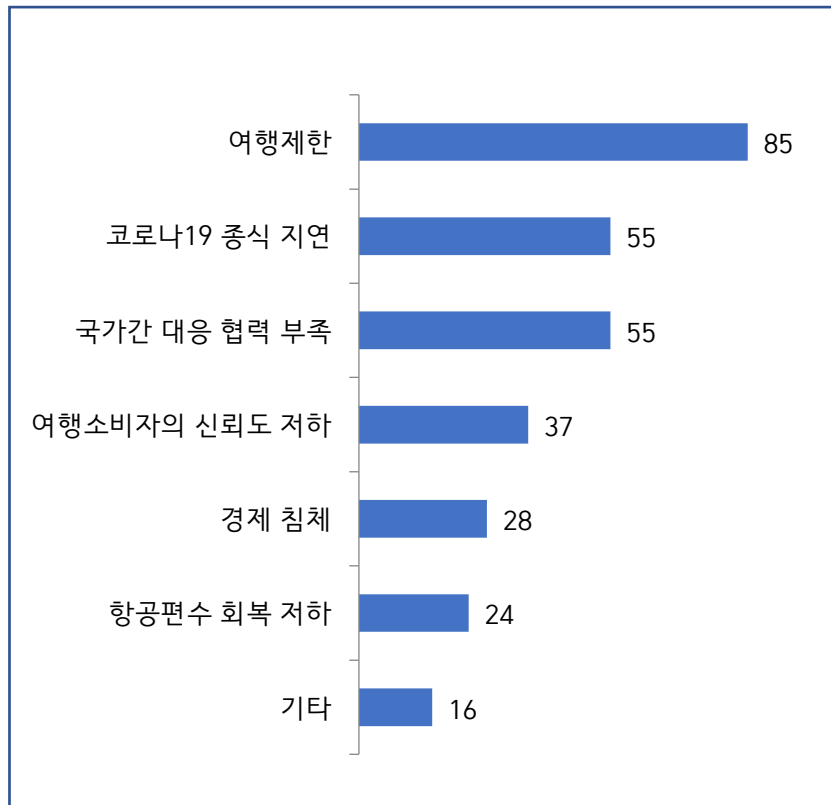
확진자 재증가 추세

Source: Official data collated by Our World in Data – Last updated 16 November 2021, 20:40 (London time), Johns Hopkins University CSSE  
COVID-19 Data – Last updated 18 November, 22:05 (London time)  
CC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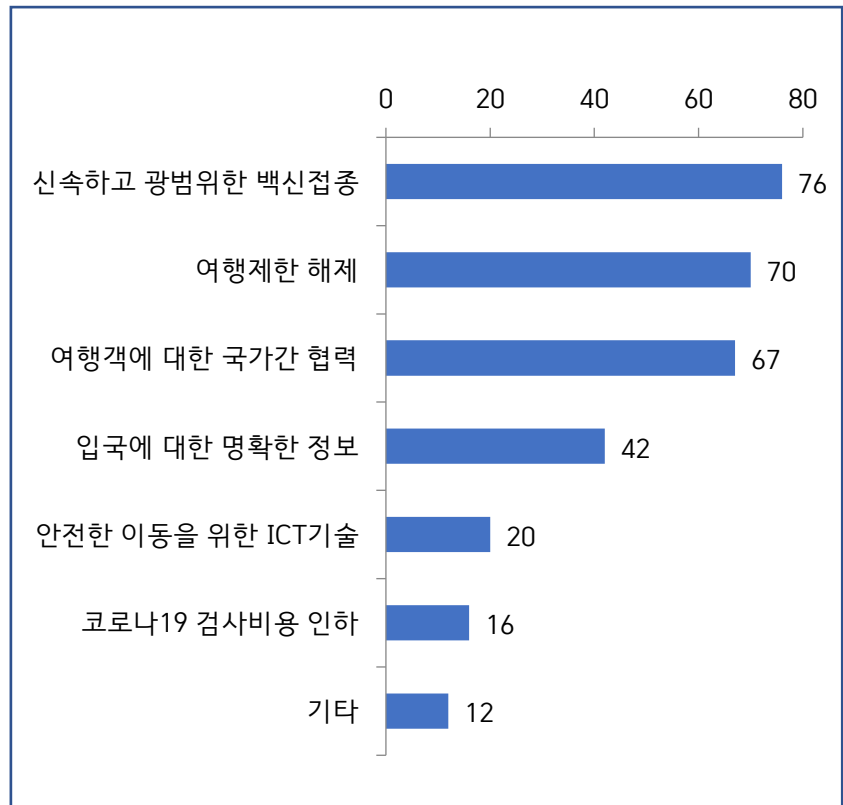
## 1. 외부환경\_코로나19로 인한 관광시장 변화(2)

# 입국금지 또는 격리와 같은 여행제한 조치는 코로나19 종식 지연과 더불어 전 세계 관광 침체의 주요원인

해외관광 회복의 제약요소는 무엇인가? (단위: %)



해외관광 회복을 위한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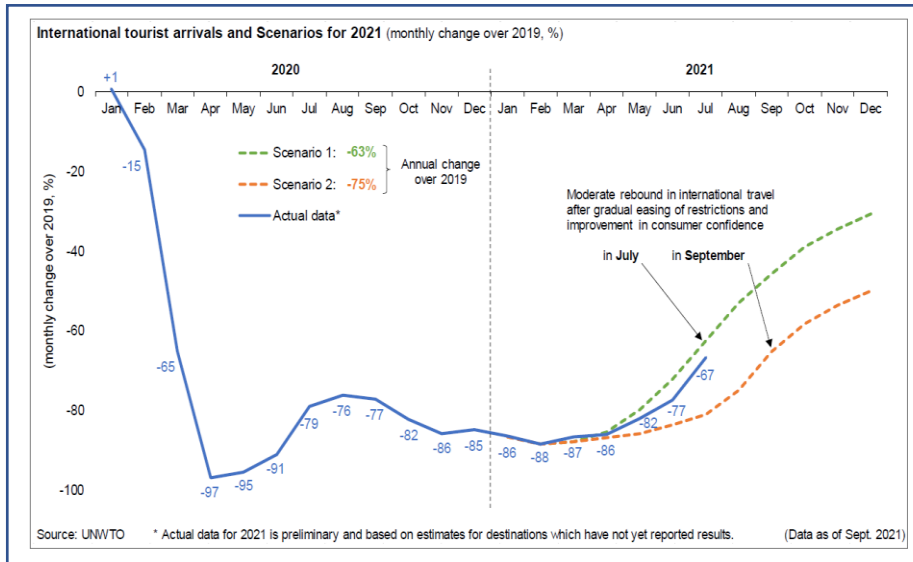


출처: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Volume19, Issue5. 2021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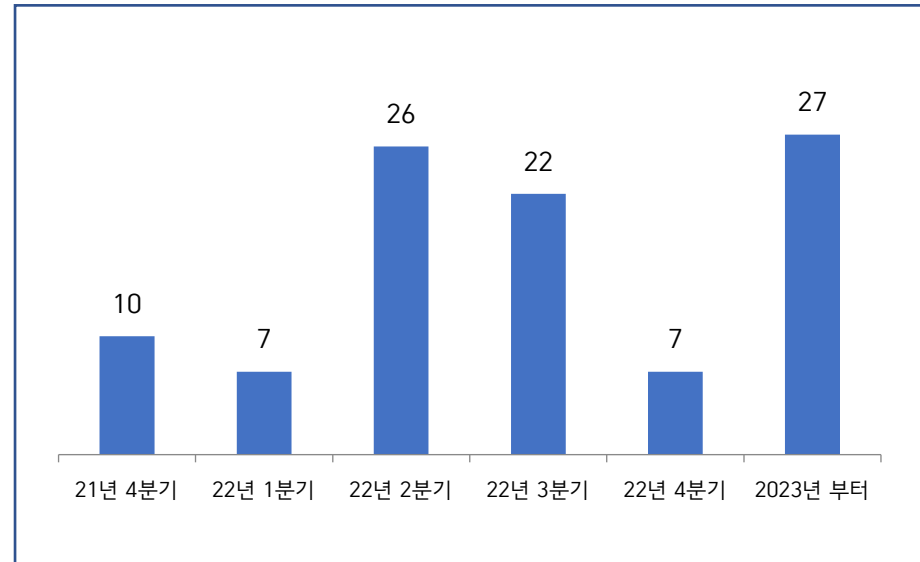
## 1. 외부환경\_코로나19로 인한 관광시장 변화(3)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여 2024년 또는 그 이후에 201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

UNWTO 글로벌 해외여행객 회복시나리오



자국의 해외관광 반등 예상시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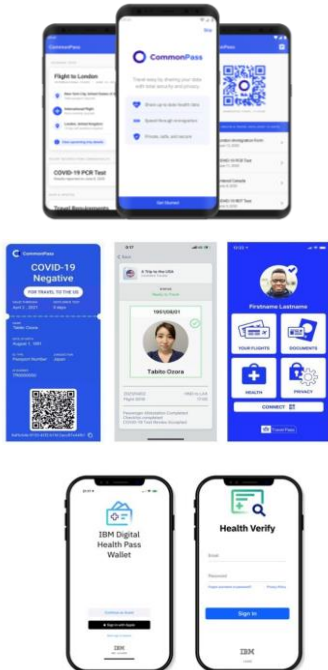
출처: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Volume19, Issue5. 2021년 9월

## 1. 외부환경\_코로나19로 인한 관광시장 변화(4)

# 글로벌 관광 회복에는 백신접종 사실증명보다는 백신접종자가 면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

2020년말에서 2021년 초까지는 디지털 형태의 백신여권을 도입하여 해외여행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자, PCR검사 결과 정보 등을 증명하는데 활용하고자 했으나 2021년말 현재, 기존 개발된 백신여권 보다는 국가별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검사 확인서가 더욱 보편적으로 활용. 코로나19에 대한 여행자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체 보유' 여부임.

### 既 출시되었던 백신여권



- 스위스 비영리단체 '커먼스 프로젝트 재단'과 세계경제 포럼 공동 개발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개발 및 운영
- 입출국 시 검역 항공사의 제출 요청에 동의만 하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항공사 전송
- 미국 IBM사 개발
- 여행 뿐만 아니라, 직장 및 기타 비즈니스로의 복귀에 활용

### WHO는 백신여권에 대해 부정적 견해

#### Other considerations

At this point in the pandemic, there is not enough evidence about the effectiveness of antibody-mediated immunity to guarantee the accuracy of an "immunity passport" or "risk-free certificate." People who assume that they are immune to a second infection because they have received a positive test result may ignore public health advice. The use of such certificates may therefore increase the risks of continued transmission. As new evidence becomes available, WHO will update this scientific brief.

- 현재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점에서, "면역 여권" 또는 "안전 인증서" 등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항체 매개 면역 효과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 만약 항체 보유검사서 양성(항체보유) 결과를 받을 경우, 공중보건 관련 조언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서가 오히려 지속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WHO는 과학적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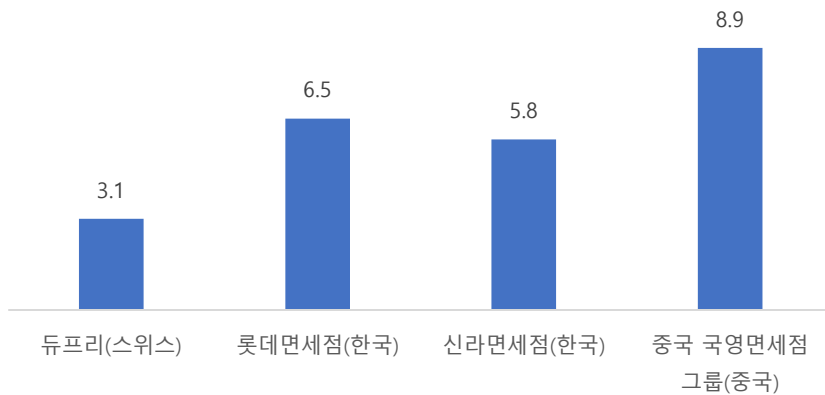
출처: WHO. "Immunity passports" in the context of COVID-19.  
<https://www.who.int/news-room/commentaries/detail/immunity-passports-in-the-context-of-covid-19.2020.04.24>.

## 1. 외부환경\_중국의 정책 변화(1)

# 중국의 면세시장 확대로 쇼핑 목적 방한 중국인 방문객 감소 예상

### 중국 면세점 성장

2020년 세계 4대 면세점 매출 순위 (단위: 조 원)



- 2019년 기준, 중국 면세시장은 제1 사업자인 CDFG(China Duty free Group)이 시장점유율 90% 차지 (**기존 중국면세사업자 대부분 인수**)
- 2020년 국내 면세점의 매출은 하락(롯데면세점 -37.1%, 신라면세점 -39.1%)
-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 매출 9.3% 성장
- 2021년 1~2월 매출 약 1조4800억 원

### 면세규제 완화로 자국 내 쇼핑 권장



### 귀국 후 이용하는 면세점



- 2010년 하이난섬을 국제적인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 발표 후에 2011년 4월 한국 제주도 면세정책을 본떠 하이난섬에 내국인 면세정책 도입
- 하이난성 싼야에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면세점 오픈
- 하이난성 외에도 베이징, 상하이, 다롄, 샤먼, 칭다오에 내국인을 위한 면세점을 개장
- 중국인들은 출국 후 6개월 이내면 이들 내국인 면세점 이용 가능
- 면세 한도도 기존 5,000위안에서 8,000위안으로 상향
- 2019년에는 중국 CDFG가 중국 면세시장의 90%를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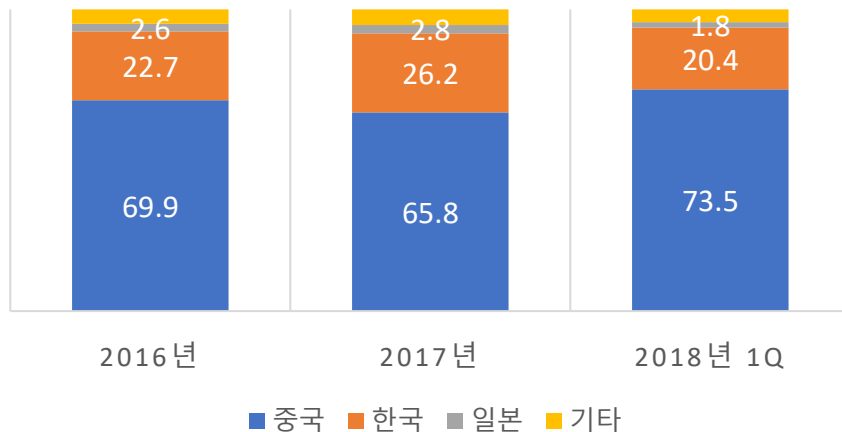
## 1. 외부환경\_중국의 정책 변화(2)

### 해외소비를 내수로 전환하려는 정책도 쇼핑 목적 관광객 감소에 영향

#### 중국 정부 리셀러의 사업자등록 의무화 및 세금 부과

- 2017년부터 한국 면세점 매출의 60% 이상은 중국인 리셀러(타이공 포함)에 의해 창출
- 사드로 한국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입국할 수 있는 유학생 등을 시작으로 B2B 모델이 생겨남
- 이미 한국 면세업 측에서는 2017년부터 중국인 리셀러에게 혜택을 주면서 시장 양성
- 이 사실을 파악한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의무화
- 2017~2018년 사이 중국 도소매업 자영업자 수는 전년대비 19% 성장

고객 국적별 롯데면세점 매출액 비중 (단위: %)



#### 중국 해외직구 규제 완화 및 수입 규제 완화

##### 2019년 해외직구 규제 완화

- 해외직구 시범지역을 2018년 22개에서 2019년 37개 도시로 확대
- 해외직구 허가 품목을 1,293개에서 1,312개로 확대
- 주류 및 헬스케어 용품도 가능
- 해외직구 수입세를 회당 2,000RMB에서 5,000RMB로 높이고, 연간 한도는 20,000RMB에서 26,000RMB로 상향

##### 수입 규제 완화

- 비특수 화장품 수입 경우에 한해 선등록-후심사로 위생허가 절차 변경
- 판매와 행정심사를 동시에 할 수 있음 (결격 사유 발생 시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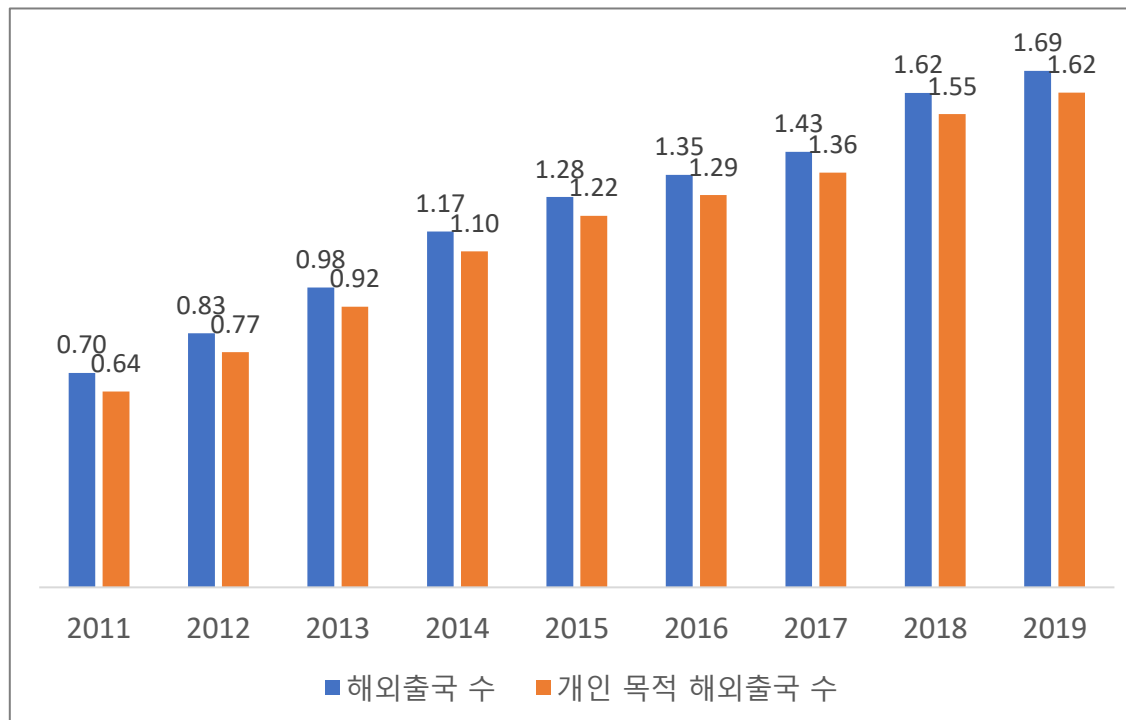
#### 중국의 해외소비 환원 대책

- 중국인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소비액을 자국으로 환원하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마련
- 전자상거래, 수입규제 완화, 관세 인하, 소비세 인하, 증치세 인하, 해외직구 규제 완화, 면세점 육성 등을 2016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약 5년이 지난 지금 시장의 성과로 나타나는 중

## 1. 외부환경\_중국인의 관광수요 변화(1)

관광, 친지방문 등 개인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수는 1.69억 회이며, 주로 가족 또는 친지 방문(VFR)을 위해 홍콩과 마카오 방문

[2011~2019년 중국 해외출국 횟수 통계 (단위: 억 회)]



출처: 중국국가통계(National Data) 검색 후 정리  
(<https://data.stats.gov.cn/>)

[2019년 중국인 방문 상위 10개 지역(단위: 회)]

지역	형태	방문 수
홍콩	VFR	51,038,230
마카오	VFR	25,260,556
태국	TFR	10,625,167
일본	VFN	8,380,034
베트남	VFR	4,966,468
한국	VFN	4,789,512
싱가포르	VFR	3,417,604
이탈리아	TCEN	3,200,847
미국	TFR	2,991,813
말레이시아	TFN	2,943,792

- TFN : 국적별 비거주 관광객(tourists)의 국경 도착
- TFR : 거주 국가별 비거주 관광객(tourists)의 국경 도착
- VFN : 국적별 비거주 방문자(visitors)의 국경 도착
- VFR : 거주 국가별 비거주 방문자(visitors)의 국경 도착
- TCEN : 국적별 비거주 관광객의 모든 유형의 숙박 시설 방문

출처: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20), Data on Outbound Tourism

## 1. 외부환경\_중국인의 관광수요 변화(2)

# 자국산 백신과 엄격한 봉쇄 방역정책으로, 중국 내수관광시장은 코로나19 이전의 95% 회복

### 중국의 방역 조치

#### 자국산 백신

- 2020. 12부터 시노팜, 시노백 등 자국 백신 접종 시작
- 2021. 09부터 추가접종(부스터샷) 실시

####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지역 단위 봉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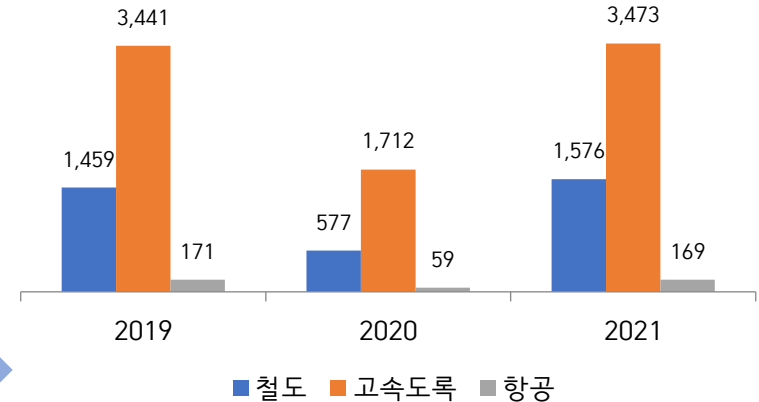
- 2021. 07. 난징 주민 930만 명, 7차례 PCR 전수검사
- 2021. 10. 란저우시(거주자 400만 명) 도시 봉쇄
- 2021. 11. 상하이 디즈니랜드 관광객 3만4,000명 전수 검사

#### 행적카드(行程卡) 시스템 운영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통신기 전국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 14일간 체류지역이 자동 입력
- 공공장소 출입 및 항공기, 기차 탑승 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행적카드를 보여주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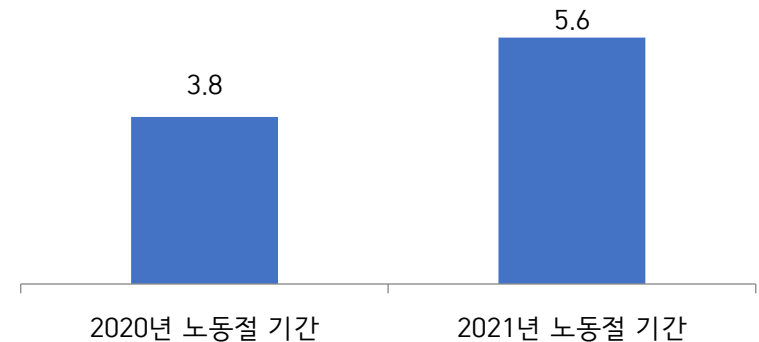


### 19~21년 중국 노동절 기간 하루 이동자 수 (단위: 만 명)



내수관광 회복

### 여행관련 어플리케이션 이용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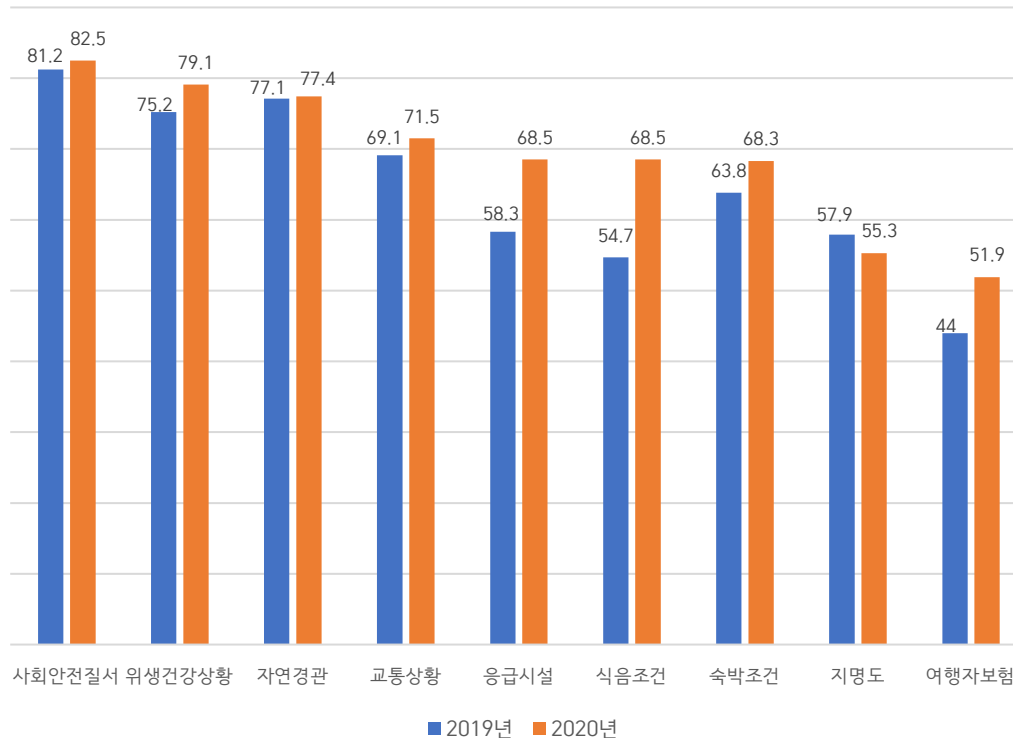
출처: 2021-2027年中國旅遊市場情態及投資機會分析報告  
(<https://www.chyxx.com/industry/202105/953161.html>). 智研諮詢.



## 1. 외부환경\_중국인의 관광수요 변화(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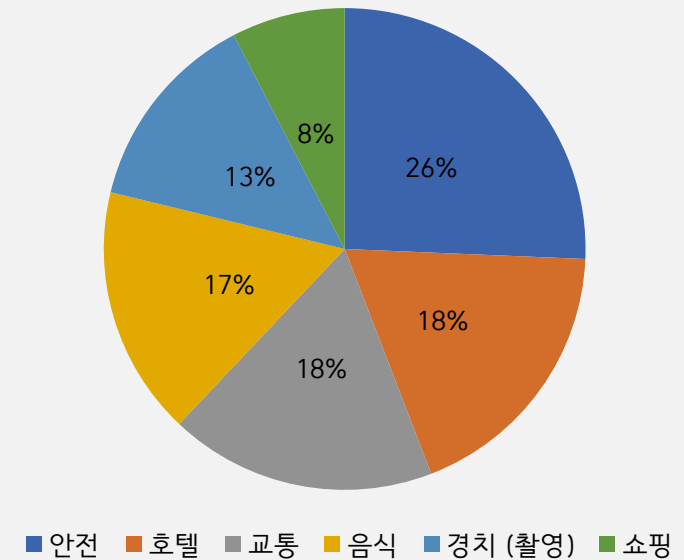
### 여행 목적지 선택에서 '안전'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

2019-2020년 소비자의 여행 요인관심도 (단위: %)



출처: 前瞻經濟學人(2020). 旅遊需求市場發展現況分析旅遊目的地變化大(<https://ecoapp.qianzhan.com/details/200527-c0224e4e.html>).

2020년 여행소비자의 여행지 결정 영향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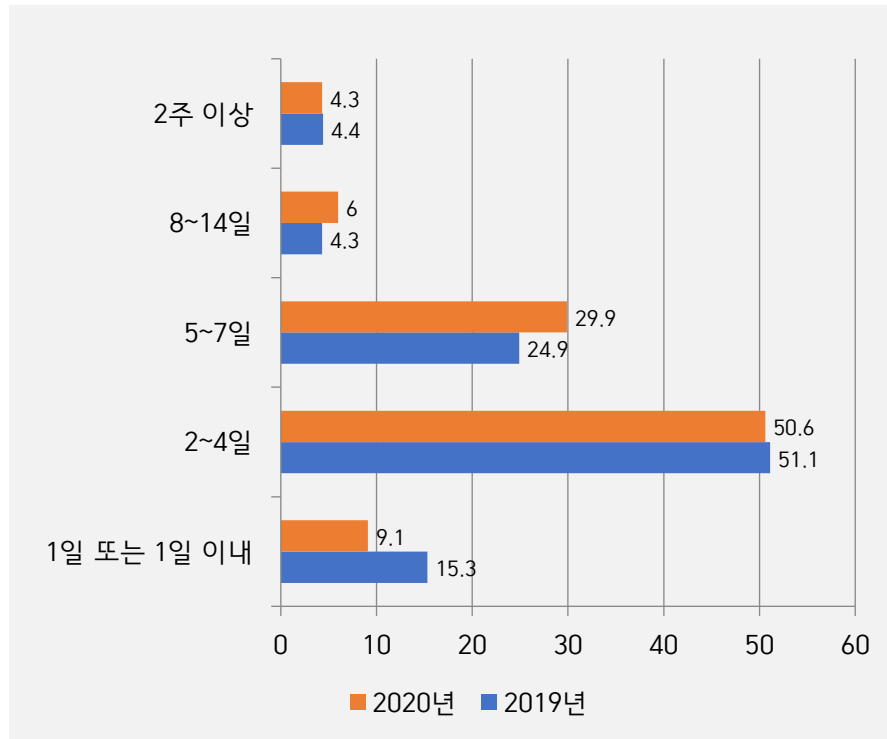


출처: sohu.com. 大數據解毒疫情下中國旅遊的發展和趨勢變化([https://www.sohu.com/a/450422613\\_280657](https://www.sohu.com/a/450422613_280657)). 2021.02.10.

## 1. 외부환경\_중국인의 관광수요 변화(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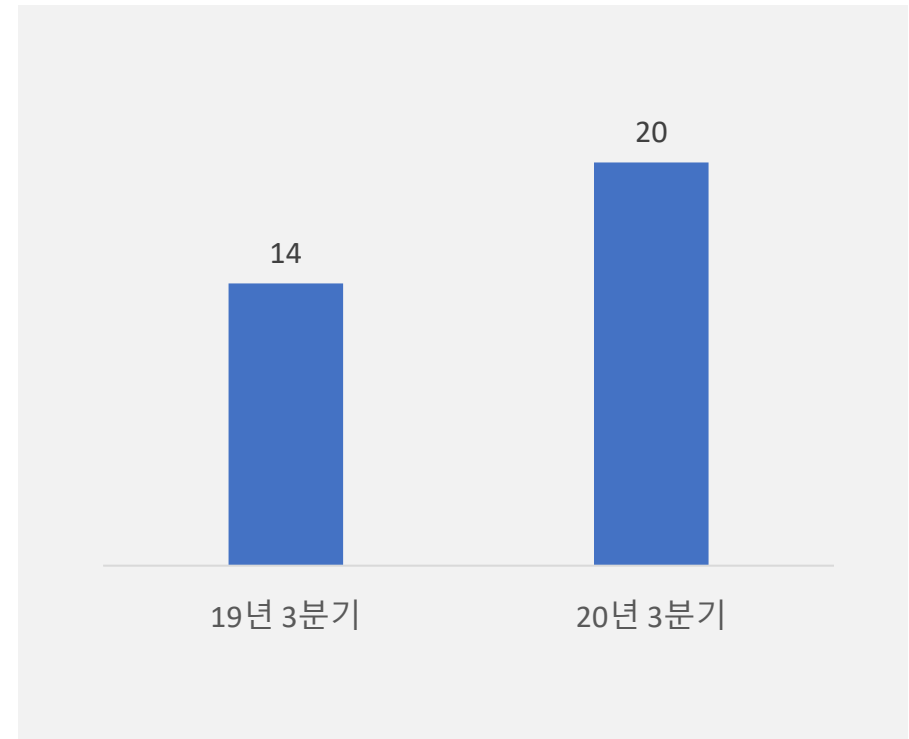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평균 여행기간이 늘어났고, 이는 안전이 보장된 여행지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글로벌 여행 행태와도 일치

2019-2020년 중국인의 평균 여행기간 (단위: %)



출처: 前瞻經濟學人(2020). 旅遊需求市場發展現況分析旅遊目的地變化大  
(<https://ecoapp.qianzhan.com/details/200527-c0224e4e.html>).

에어비앤비의 28일 이상 장기체류 비율 (단위: %)



출처: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우리가 망할 줄 알았죠? 역발상으로 퍼펙트 부활. 2021.11.19.

## 1. 외부환경\_중국인의 관광수요 변화(5)

### 온라인방송을 통해 관광지를 보는 랜선투어가 본격적으로 정착

**直播安排**

-2月22日-

直播时间	直播景区	直播账号
10:00-10:30	杭州良渚古城遗址	@诗画浙江文旅资讯
10:30-11:00	丽水莲都古堰画乡	@丽水文旅
11:00-11:30	衢州水亭门	@衢州文旅
11:30-12:00	金华婺州	@婺州文旅
12:00-12:30	温州泰顺	@泰顺文旅
12:30-13:00	嘉兴嘉善巧克力乐园	@嘉善文旅
13:00-13:30	宁波象山半边山	@象山文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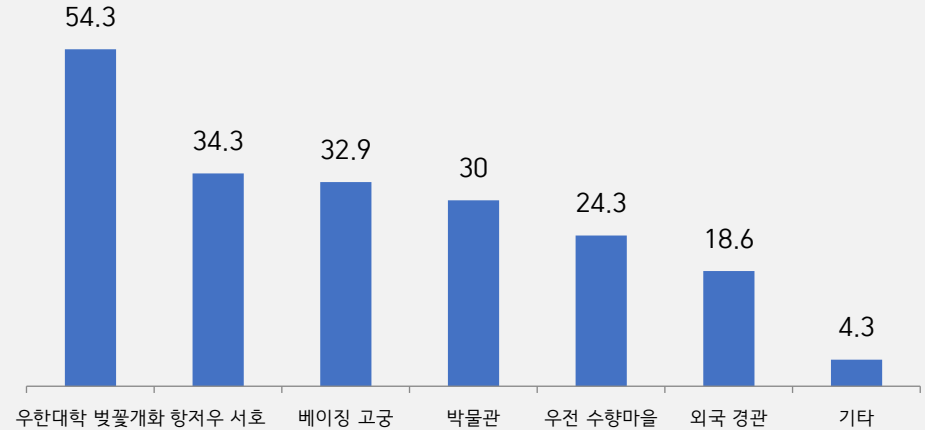
-2月23日-

直播时间	直播景区	直播账号
10:00-10:30	台州仙居神仙居	@浙江神仙居景区
10:30-11:00	绍兴上虞中华孝德园	@诗画曹娥江
11:00-11:30	湖州南浔古镇	@湖州文旅
11:30-12:00	舟山海钓	@舟山文旅
12:00-12:30	杭州淳安千岛湖	@千岛湖文旅
12:30-13:00	温州苍南渔寮景区	@苍南文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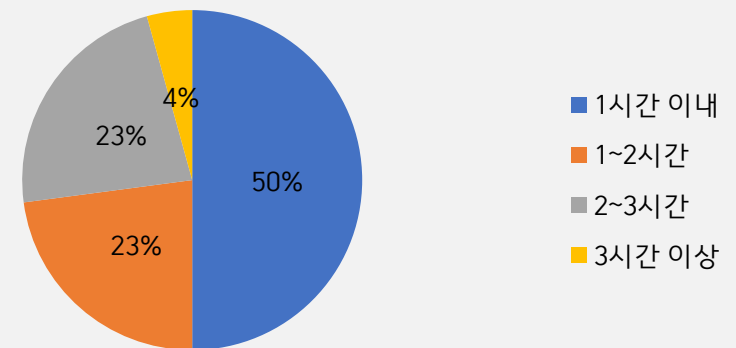
- 저장성은 중국 정부기관 최초로 지역관광지를 온라인 라이브방송으로 소개하는 랜선투어를 시작
- 저장성은 2020년 2월 22일부터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저장성 관광지를 라이브로 방송하여 동시접속자 20만 명을 달성하면서 웨이보 온라인방송 1위, 웨이보 검색 3위 달성

출처: <https://www.iimedia.cn/c1061/76820.html>. 2021.02.02.

2020년 중국 랜선투어 선호 관광지 (단위: %)



랜선투어 시청자의 하루 평균 시청시간 (단위: %)



출처: iimedia.cn. 旅遊行業數據分析: 2020年中國22.9%消費者每日觀看雲旅遊時長1~2小時 (<https://www.iimedia.cn/c1061/76907.html>). 2021.02.10.

## 1. 외부환경\_중국인의 관광수요 변화(6)

# 접종완료 중국인도 귀국 시 모두 격리가 원칙이며, 이는 해외출국 제약요인

### 해외 출국 시

- 2021년 3월 7일 '국제여행건강증명' 발급을 발표하고, 2021년 3월 8일부터 위챗 미니프로그램을 통한 전자문서 형태와 종이형태의 '국제여행건강증명'을 발행
- '국제여행건강증명'에는 백신 접종 정보(접종여부, 시기, 종류), 유전자증폭검사 결과, 항체 보유 여부 표기

### 중국 국제여행건강증명

#### 전자문서 형태



#### 종이형태



### 해외 출국 시

- 2021년 11월 기준으로 해외에 체류했던 중국인이 귀국을 할 때는 아래 3가지 절차를 따라야 함
  -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입국 48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 보고서(영문)
  - 위챗에서 '방역건강코드국제판' 미니프로그램 설치 후 검사결과를 신고하고 건강코드 신청
  - 위챗에서 '세관여행객지침서비스'에서 안전코드 신청

### 세관여행객지침서비스 신청 및 확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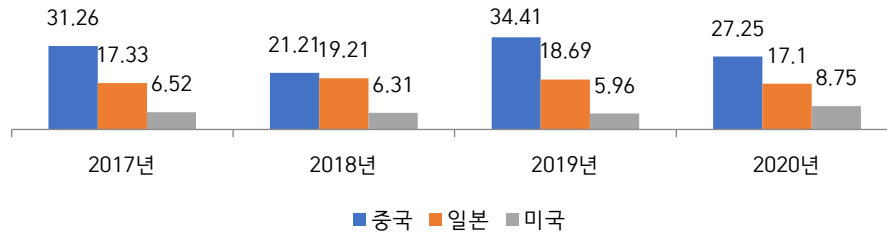
격리일	규정 및 지역
14+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지역: 푸젠성, 광둥성, 허난성, 칭하이성, 산둥성, 쓰촨성, 윈난성</li> </ul>
14+7+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지역: 안후이성, 후난성, 랴오닝성, 저장성</li> </ul>
14+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지역: 간쑤성, 광시성, 귀저우성, 허베이성, 헤룽장성, 후베이성, 지린성, 장쑤성, 산시성, 하이난성, 장시성</li> </ul>

## 2. 내부환경\_중국과의 교류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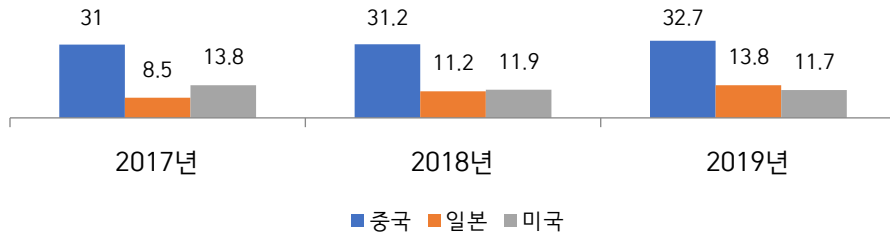
## 우리나라 제1위 교역국 · 수출국 · 무역 흑자국인 중국과의 인적교류 확대 필요

1992년 수교 당시 '선린우호 관계'에서 이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강화된 한국과 중국의 외교·경제·문화적 관계를 고려하면 한국과 중국의 인적교류는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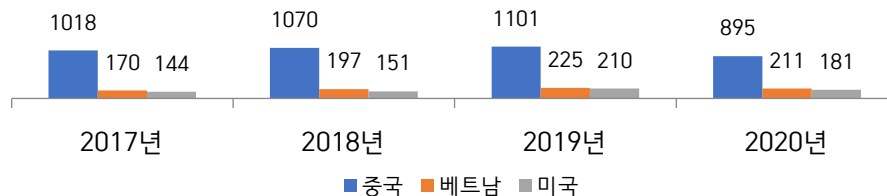
한국 방문 외국인 국적별 상위 3개국 (단위: %)



한국 방문 외국인환자 국적별 상위 3개국 (단위: %)



한국 체류 외국인 국적별 상위 3개국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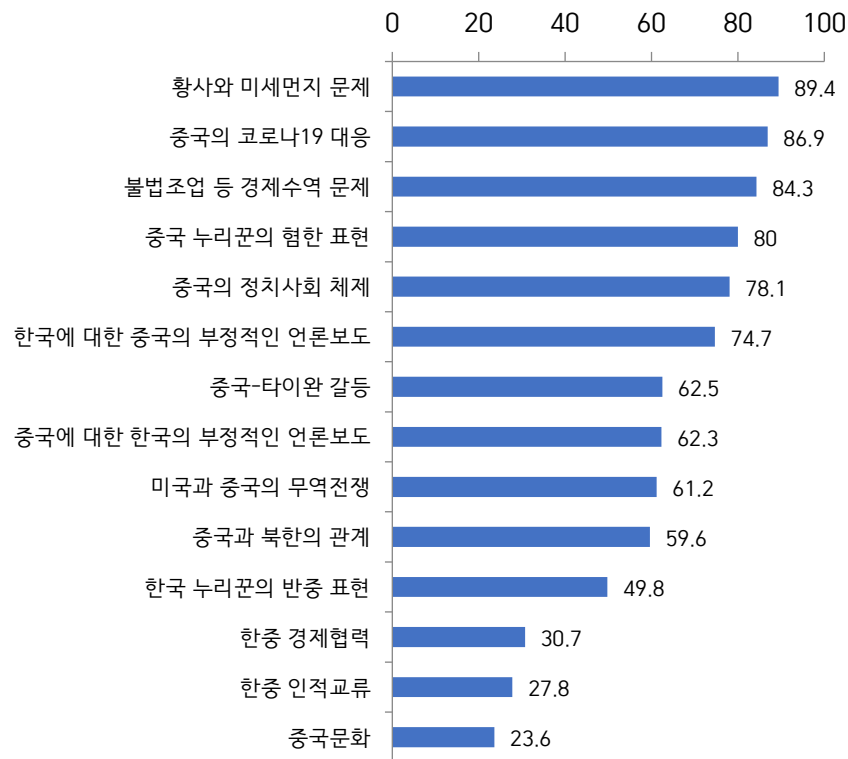
한국 지역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도시 수
서울특별시	75개
경기도	75개
인천광역시	42개
강원도	52개
충청남도	56개
충청북도	28개
세종특별자치시	2개
대전광역시	14개
전라남도	67개
전라북도	40개
광주광역시	19개
경상남도	50개
경상북도	57개
울산광역시	15개
대구광역시	23개
부산광역시	37개
제주특별자치도	16개
합계	668개

## 2. 내부환경\_반중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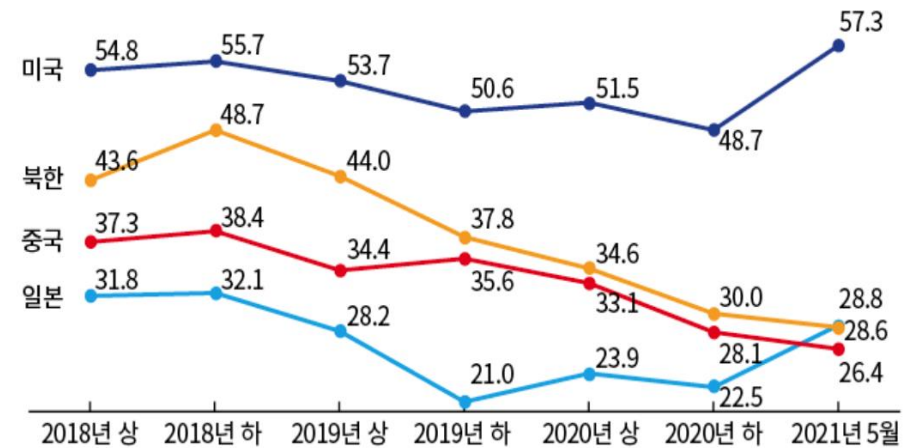
## 중국의 김치종주국 발언 등으로 중국인에 대한 정서적 반감 확산

한국의 반일감정은 과거의 역사에 기반한 정치적·외교적 감정이라면, 반중감정은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한국의 사회적 이슈(미세먼지 등)가 중국에서 기인한다는 미디어 정보와 대중문화에 기반한 정서적 감정에 속함

행위 사건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단위: %)



북·중·일·미에 대해 느끼는 감정온도 (단위: %)



## 2. 내부환경\_사드 등 외교이슈로 인한 관광객 감소 예방

## 자국민의 해외관광 수요를 대외관계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중국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중국 정부는 자국 여행사를 통해서 해외출국 중국인을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만도 비슷한 사례
- 향후 또 다른 외교적·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한령과 같은 제재가 얼마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국의 해외출국객을 협상의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한국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대비책 필요

## 외교적 무기로 활용

- ① 3.15\* 이후 모든 방한 여행상품(단체, 패키지, 인센티브 등) 판매 금지
- ② 여행사를 통한 단체비자 신청 금지
- ③ 사이트내 방한관광상품은 '판매완료'로 표기 또는 삭제
- ④ 롯데 관련 상품 삭제
- ⑤ 한국 저가 관광상품 관리감독 강화
- ⑥ 크루즈 상품의 경우 한국 경유 불허
- ⑦ 3.15 이후 한국행 여행상품 적발 시 벌금 부과

한한령으로 인해 약 800만 명이던 중국인 외래객이  
470만 명 수준으로 급감

## 자국 관광시장 정비의 명분으로 활용

- 과도한 저가 관광상품, 쇼핑 강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2016년 2월부터 국가여유국,公安부, 국가공상총국 등이 중국 관광시장 질서 정립 업무에 착수

재정비 결과	대상 여행사 수
행정처분	819곳
법정 폐업처리	61곳
불법소득 몰수	65곳
개선명령	693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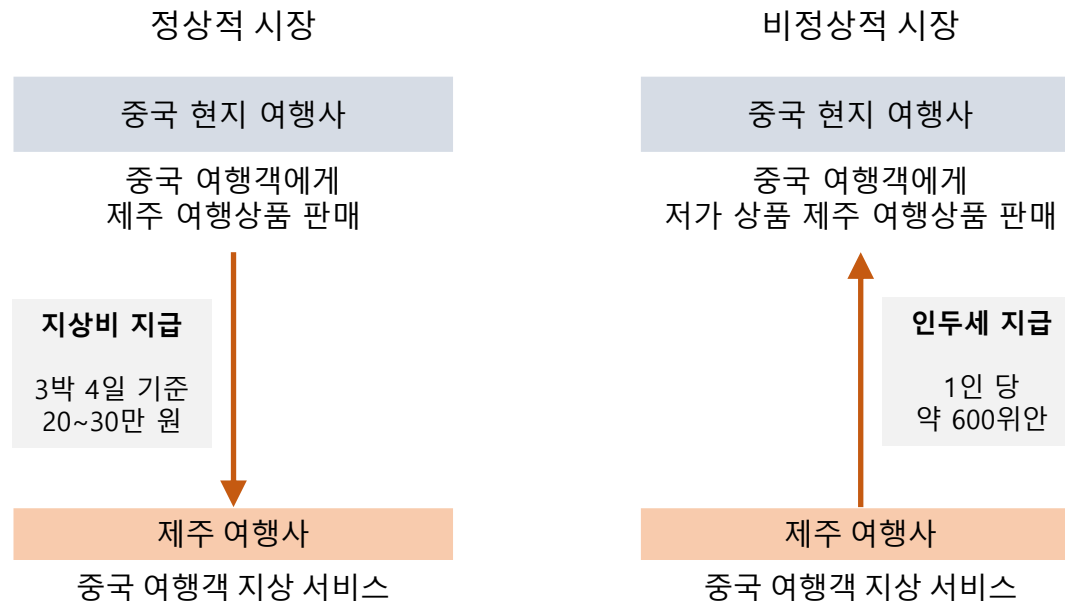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旅游局掀旅游市场秩序整治风暴2016年全国819家旅行社受处罚. 2017년 1월 12일.

\* 중국은 2017년 3월 15일 한국여행상품 판매 전면 금지 발표

## 2. 내부환경\_단체관광 개선 필요

### 현재의 중국인 단체관광은 정상적 시장경쟁이 어려운 상황

- 제주도에 중국인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기존 일본인 중심으로 유지하던 여행사들도 중국인환자 유치로 전환하였고, 후발 여행사(중국자본)은 중국 현지 여행사로부터 1인당 인두세를 지급하고 관광객을 사오는 상황 발생
- 중국 현지 여행사는 저가로 많이 모으는 데 급급하고, 제주 여행사는 중국 현지 여행사에 지급한 인두세를 보전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쇼핑센터 일정 중심으로 운영
- 쇼핑센터에서는 매출의 10~20% (최대 5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음
- 단체관광객 일정 중 쇼핑이 4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가 18.0%, 5회 이상이 34.6%





### 3. 환경분석\_종합

	기회 요인	제약 요인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드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국경 개방 국가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이바이러스 확산,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한 국경 재폐쇄 가능성</li> </ul>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부터 관광시장 회복 본격 개시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귀국자 대상 강제격리 조치 등으로 인한 해외여행 소비 심리 위축</li> </ul>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 중국의 인적교류 필요성</li> <li>• 안전관광 수요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중 감정</li> <li>• 중국의 건강코드 연계 불가</li> </ul>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랜선투어 등 한국 관광홍보 채널 다각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관광업체의 수익악화와 인력 감소로 공격적 선제 마케팅 제약</li> </ul>

## **IV.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방향성**

## 1. 전문가 의견\_방법

출입국제도 현황 및 개선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중국지사와 관광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룹인터뷰와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 수렴

## 1차 한국관광공사 중국지사

베이징 지사

상하이지사

청두 지사

광저우 지사

## 2차 관광분야 전문가그룹

자  
문  
회  
의

구 분	성 명	소 속
여행업협회	서대훈	사무국장
문화관광연구원	김현주	관광정책연구실장
출입국 분야 (방역 포함)	윤상용	한국이민재단 소장
	정진원	중앙대학교 감염내과 교수
	정명주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외국인정책분야)
OTA	김지웅	트립닷컴 대외정책이사
플랫폼	김혜지	텐센트코리아 클라우드 인터내셔널 파트너십 한국지역 총괄
항공(LO)	황대유	티웨이항공 그룹장
	양원석	제주항공 노선마케팅1팀장
인바운드 여행사	박장진	하나투어ITC 기획운영부 부장
	김우중	코앤씨 팀장

인  
터  
뷰

구 분	성 명	소 속
인바운드 여행사	박장진	하나투어 ITC 부장
	김용진	코앤씨 대표이사
중국여행 SNS	박경진	마평위 대표이사
방역 분야	정진원	중앙대학교 감염내과 교수

## 1. 전문가 의견\_중국지사 인터뷰

## 베이징 지사

- 중국인 관광객 출입국 제도개선은 유치전략 수립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OTT, SNS 등을 통해 중국인들이 과거에 비해 한국을 인지하는 것은 맞지만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느냐는 별개 문제이므로, 출입국제도 개선과 더불어 한국에 대해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 여행에 ADS제도를 적용한다, 즉 자국민 여행목적지를 정하는데 중국 정부의 영향이 크게 미친다. 국내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중국의 허가제도를 따라야 하는 상황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ADS로 인해 생긴 전담여행사 제도의 개선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출입국제도 개선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에서 개선 의견을 정리해서 현지 법무부 공사에 전달하고, 한국 법무부에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경로를 활용해야 한다.

## 상하이 지사

- 재방문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
- MICE와 테마관광을 활용한 전략도 검토가 필요하다.
- 기존 복수비자 발급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유효기간 초과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한다. 구제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한다. 지사 쪽에 이런 불만이 접수되곤 한다.

## 광저우

- 비자수수료 면제나 서류간소화 등 대학생을 위한 제도개선은 많은 효과를 낸 것으로 안다. 기존에 시행되었던 제도를 더 잘 운영하고, 여기에서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궁금하다.

## 청두 지사

- 중국은 글로벌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우리나라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경쟁하는 입장에서 타국의 출입국제도와 경쟁 포인트를 찾아서 개선하였으면 한다

## 1. 전문가 의견\_관광업계 인터뷰(1)

## 기존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출입국제도 도입보다는 既 출입국제도에서 개선되는 형태로 검토 필요

### 출입국제도 개선 필요성

- 포스트코로나가 본격 시작되면 중국인관광객을 유치 하려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출입국제도의 개선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
- 하지만 기존의 출입국제도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의 만족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도출의 필요성은 크지 않음
- 중국의 여행미디어에 한국 출입국제도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콘텐츠는 거의 없음
- 여행미디어 사용자의 연령대가 낮아서 출입국제도의 불편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큰 불만이 없다고 볼 수 있음
- 여행사의 경우 기존의 출입국제도 때문에 유치 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고, 중국 주요지역에 비자센터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비자센터를 늘린다고 해도 실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움

## 1. 전문가 의견\_관광업계 인터뷰(2)

## 소규모, 가족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발급 과정 편리성이 중요

## 출입국제도 개선 방향성

- 경쟁국 강점은 유지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 필요
- 여행에서 '편리함'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출입국제도 개선 특히 비자발급 과정에서 편리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
- 중국 국내 여행 기준으로 보면 소규모, 가족여행이 많아지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로 한국 여행이 가능해지더라도 1~2년 간은 소규모 여행이 주로 이루어질 것
- 코로나19 이전부터 중국에서는 단체여행보다는 개별여행의 수요가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개별여행 수요 증가폭이 더 클 것
- 코로나19로 인한 '안전' 측면에서도 개별관광객이 더욱 중요
- 단체관광은 폐쇄된 버스에서 같이 이동하고, 식사도 여럿이서 함께하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으므로 단체라면 소규모 가족관광으로 국한하고, 가족단위로 조정
- 개별여행객을 중심으로 비자제도가 간소화되거나 기존 복수비자 대상이 확대되면 방한 수요가 증가하여 항공사는 반기겠지만 여행사 입장에서는 단체관광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음
- 포스트코로나 초반에는 단체관광을 위주로 안심관광 등을 판매하고, 이러한 상품을 구매했을 때 향후 비자 혜택을 준다면 여행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

## 1. 전문가 의견\_관광업계 인터뷰(3)

## 관광업계의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전담여행사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유치 활성화 방향

- 여행업계는 2015년 메르스, 2016년 사드, 2019년 코로나19를 연달아 겪으면서 인프라가 많이 취약한 상태
- 본격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 재개에 앞서 인력고용 안정화 등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
-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전담여행사가 되어야 하며 중국인 전담여행사는 단체비자 발급 신청 및 승인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 하지만 행사일정 보고, 실적보고(매출액), 중국에서의 지상비 증빙, 단체관광객 관리 과정에서 통제를 많이 받고, 만약 단체관광객 중 일부가 이탈했을 경우 보고 의무사항이 있는 등 여행사가 관광서비스 외에 해야 할 업무가 많아 별도 인력을 계속 충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정부에서는 중국 현지업체 대신 한국의 업체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국내 여행사들이 더욱 어려워하고, 한국에 있는 중국인 전담여행사 중 50% 이상이 중국계 자본(중국인 또는 동포)인 상황에서 순수 한국 여행사가 이들과 경쟁하는 것도 힘든 상황
- 우수한 여행상품을 만들어내는 여행사에게 충분한 베네핏을 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
- 여행사에서 상품을 신청했을 때, 문체부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상품에 대해 인증을 해주고, 단체비자 발급을 쉽게 해주는 단체관광객 대상 인증상품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1. 전문가 의견\_관광업계 인터뷰(4)

## 중국과의 무비자협정도 고려해야 할 때

## 추가 의견

- 우리나라와 러시아와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이후 2013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입국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사례로 봤을 때 중국과의 무비자협정을 체결한다면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도움
- 하지만 태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태국인의 불법체류자가 증가하였고, 중국도 유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입국제도 개선을 통한 중국인 입국자 증가 시 불법체류 예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
- 2021년부터 도입되는 ETA를 활용하면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한 법무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1. 전문가 의견\_종합

## 출입국제도 개선 필요성

현행 중국인 대상 출입국제도의 불편함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제도 도입 대신 既 출입국제도에서 개선되는 형태로 추진

## 출입국제도 개선 방향성

- 대상: 개인 또는 가족단위 소규모 관광객
- 방향: 발급 과정의 편의성 향상

## 유치 활성화 방향

- 관광업계의 지원 우선 (고용안정화 등)
- 기존 복수비자 대상자 구제
- 포스트코로나 초반에는 단체관광을 위주로 안심관광 중심
- MICE와 테마관광 활용
- 대학생 등 특정대상군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면제나 추가서류 간소화(발급절차 간소화)
- 무비자협정도 고려 필요

## 2.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조사\_출입국 제도 개선에 대한 중국인 수요조사 개요(1/2)

### 1) 수요조사 목적

- 중국인 대상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관광 방문 수요와 한국 관광의 행태를 파악하고 한국 출입국제도관련 수요자 입장에서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수요조사 결과와 기존 한국 방문 중국인 외래객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출입국제도 개선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해당 시나리오별 직접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함
  - ① 시나리오 1. 단체비자 제도 개선
  - ② 시나리오 2. 개별비자 제도 개선
  - ③ 시나리오 2-1. 개별 복수비자 제도 개선
  - ④ 시나리오 2-2. 기존 개별 단수비자 대상 복수비자 제도 개선
  - ⑤ 시나리오 3. 무비자 제도 시행

### 2) 수요조사 방법

- 본 연구는 한국 출입국제도의 개선점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인(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난징, 닝보, 샤먼, 쑤저우, 우한, 창샤, 칭다오, 톈진, 항저우 등 13개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중 과거 5년 (2014~2019년)간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1,001명)을 대상. 설문기간은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설문배포와 회수방법은 Wechat 플랫폼과 중국설문조사 솔루션 Jinshuju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함

구분	설명
설문대상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난징, 닝보, 샤먼, 쑤저우, 우한, 창샤, 칭다오, 톈진, 항저우 등 13개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1,001명
설문기간	2021년 8월 2일 ~ 8월 13일
설문방법	Wechat과 Jinshuju(중국 설문조사 솔루션) 활용

## 2.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조사\_출입국 제도 개선에 대한 중국인 수요조사 개요(2/2)

### 3) 수요조사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구성

- 출입국제도 개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제도개선 사례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개발함. 설문문항은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대한 문항과 출입국제도개선에 대한 수요조사 등 총 97개 문항으로 구성함

조사영역	조사내용
개인적 배경	거주지, 성별, 연령, 혼인여부, 직업, 소득, 학력,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
출입국제도개선에 대한 수요	현재 국내외 여행욕구 및 계획 및 해외결정 시 주요 고려요인
	현재 한국 방한의향, 목적, 경비, 형태, 체류기간
	과거 한국 방문 시 단점
	비자발급과 입국심사과정의 장단점
	단체 비자 방문의 장단점, 개선방향 수요
	개별 비자 방문의 장단점, 개선방향 수요
	복수 비자 방문의 장단점, 개선방향 수요
	무비자 제도 수요

## 2.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조사\_수요조사 결과요약

## 중국인의 방문의사가 단체 비자 개선 시 13%, 개별비자 개선 시 45%, 개별 복수비자 개선 시 50%, 무비자 제도 시행 시 68% 증가함

### 비자제도 개선이 없어도 한국 방문의향

- 수요조사에 참여한 1,001명의 중국인 중 단체여행 경험이 있는 중국인은 535명이었고, 개별여행 경험이 있는 중국인은 466명  
개별여행 경험자중 단수비자가 314명, 복수비자가 152명
- 총 1,001명 중 출입국제도 개선이 없더라도 기존의 한국 방문 경험을 통해 한국 재방문 의사가 있는 중국인은 총 527명 한국 재방문 의사가 있는 527명의 중국인 중 단체여행 경험자는 281명, 개별여행 경험자는 246명
- 기존에 단수비자를 발급받아 방한한 중국인 314명 중 한국 방문 의향자는 156명이었으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방한한 중국인 152명 중 90명이 한국 방문 의향이 있다고 나타남

#### <비자제도 개선이 없어도 한국 방문의사가 있는가?>

(단위:명)

구분	방문 의사가 있음	방문 의사가 없음	합
현재 한국방문의향이 있습니까?	527	474	1,001
기존 단체여행 경험이 있는 중국인	281	254	535
기존 개별여행 경험이 있는 중국인	246	220	466
단수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	156	158	314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	90	62	152

### 비자제도 개선 후 한국 방문의향

- 수요조사에 참여한 1,001명의 중국인 중 출입국제도를 개선할 경우 방문의사가 있는지를 설문하였을 때 방문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재방문 의향이 없었음에도 단체비자 개선 시 재방문 의향이 높아지는 중국인은 36명이었고, 한국 재방문 의향이 없었지만 개별비자를 개선하면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중국인은 110명임
- 또한 개별 단수비자를 발급받았던 중국인 중 복수비자 제도 개선 시 방문의사가 있다는 중국인이 75명

#### <비자제도 개선 시 방한의사가 있는 중국인 수>

(단위:명)

구분	비자제도개선이 없어도 방한 의사가 있음	방문의사가 없었지만 비자제도 개선시 방한 의사가 있음	합
단체비자 개선 시	281	36	317
개별비자 개선 시	246	110	356
개별 복수비자 개선 시	246	123	369
단수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	156	75	231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	90	48	138
무비자 제도 시행 시	527	360	887

## 2.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조사\_Reference data 도출방법(1/2)

**코로나19이전 3년 평균 방한 중국인 수는 약 500만명(개별여행객 약 444만명, 단체여행객 약 47만명)이며, 평균 1,876달러의 경비를 사용함**

## 기존 통계자료

- 코로나19 이전 3년간 방한 중국인 외래객 수 평균은 4,993,962명이며,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1,876달러임

<2017-2019년 방한 중국인 외래객 수<sup>1)</sup> 및 지출경비<sup>2)</sup>>

(단위:명,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통계
방한 중국인 수	4,169,353	4,789,512	6,023,021	4,993,962
지출 경비	2,108	1,887.40	1,632.60	1,876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 3년간 한한령의 영향으로 방한 중국인 중 개별여행객은 88.9%, 단체여행객이 9.5%였음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에도 단체여행보다는 개별여행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여행과 단체여행의 비율을 3년 통계치를 사용함

<2017-2019년 방한 중국인 외래객의 여행 형태 구성<sup>2)</sup>>

(단위:%)

구분	개별여행	단체여행
2019년	82.5	15.2
2018년	92.4	6.3
2017년	91.7	6.9
평균	88.9	9.5

- 법무부 'C-3-9 복수비자 발급 중국인 입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3년간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은 평균 325,190명임

<2017-2019년 C-3-9 복수비자 발급 중국인 입국자 수<sup>3)</sup>>

(단위:명)

구분	발급 중국인 입국자 수
2019년	597,734
2018년	247,495
2017년	130,341
평균	325,190

- 단수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 수는 코로나19 이전 3년의 개별여행객 수에서 C-3-9 복수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의 수를 뺀 값으로 활용함

<코로나19 이전 3년 평균 단수/복수비자 발급 방한 중국인>

(단위:명)

구분	단수비자 발급	복수비자 발급
코로나19이전 3년 평균	4,114,442	325,190
합계		4,439,632

출처: 1)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 2017-2019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체부

3) 법무부 공개청구 자료(8309377)

## 2.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조사\_Reference data 도출방법(2/2)

## 수요조사 내에서 출입국제도 개선이 없더라도 한국 방문의사가 있는 중국인을 Reference data 설정함

## 수요조사 자료

- 코로나19 이전 3년간 방한 중국인 외래객 수 평균은 4,993,962명이며,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1,876달러임
- 1차, 2차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방문의향이 있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방문시 예상경비를 설문 조사한 결과 1차 34.7%, 2차 34.3%가 이전 방문대비 여행경비를 10% 증액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여, 효과 도출 시 1,876달러에서 10% 증액한 2,064달러로 계산
- 수요조사에서 출입국제도 개선이 없더라도 기존의 한국 방문 경험을 통해 한국 재방문 의사가 있는 중국인은 총 527명이었고, 이 중 단체여행 경험자는 281명, 개별여행 경험자는 246명이었음
- 총 1,001명 중 출입국제도 개선이 없더라도 한국 방문 의향이 있는 중국인 527명을 외래객 기준데이터( $R_{total}$ )로 설정하고, 527명 중 과거에 단체비자로 방문한 중국인 281명을 외래객  $R_{단체}$ , 개별비자로 방문한 중국인 246명을 외래객  $R_{개별}$ 의 기준데이터를 설정하였다. 또한 개별비자로 방문한 중국인 외래객(246명)을  $R_{단수}$ 와  $R_{복수}$ 로 분류함

## &lt;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Reference data&gt;

(단위:명)

$R_{total}$	$R_{단체}$	$R_{개별}$	$R_{단수}$	$R_{복수}$
527	281	246	156	90

- 각 출입국제도개선 시나리오에 의해 중국인 외래객 유입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준데이터 대비 시나리오 개선 시에 방문의향이 있는 중국인 외래객 수를 지표화해서, 예상관광객 수의 변화와 관광수입을 산출함

## &lt;시나리오별 지표 도출&gt;

i	시나리오	비자제도 개선 으로 유입될 중국인 수( $S_i$ )	기준데이터 ( $R_i$ )	지표( $S_i/R_i$ )
1	단체비자 제도개선	317	281	1.13
2	개별비자 제도개선	356	246	1.45
2-1	개별복수비자 제도개선	369	246	1.5
2-2	기존 단수비자 대상 개 별 복수비자제도 개선	231	156	1.48
3	무비자 제도 실행	887	527	1.68

## 2.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조사\_파급효과 도출방법(1/2)

## 파급효과 도출 방법(1/2)

- 도출된 직접효과를 기반으로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15년 산업연관표 기준표'를 활용하여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함. 한국은행(2015)의 '2015년 산업연관표'를 선행연구의 기준을 토대로 **관광분야(9개 산업)**, **제반분야(31개 산업)**으로 분함<sup>1)</sup>
- 산업연관표는 일반적으로 5년을 주기로 발행되기 때문에 산업연관분석은 과거자료를 토대로 미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해야 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상의 관광산업분류와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권고하는 관광산업 분류와 일치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산업연관분석은 개별 승수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된 방법론 중에서는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론으로 간주되어 다수의 선행연구<sup>2)</sup>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

분야	산업연관표 분류	
	통합 소분류코드	소분류 상품명
관광분야	520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531	철도운송서비스
	532	도로운송서비스
	540	수상운송서비스
	550	항공운송서비스
	581	음식점 및 주점
	582	숙박서비스
	790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80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제반산업	561	운송보조서비스
	562	하역서비스
	563	보관 및 창고서비스
	569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
	571	공영우편서비스
	572	소화물전문운송서비스
	591	유, 무선 및 위성 통신서비스
	599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600	방송서비스
	610	정보서비스
	621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629	기타 IT서비스
	630	신문 및 출판 서비스
	640	영상·오디오물 제작 배급
	651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
	659	기타 금융중개기관
	660	보험서비스
	670	금융 및 보험 보조 서비스
	700	연구개발
	711	법무 및 경영지원 서비스
	712	광고
	721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
	729	기타 과학기술 및 전문 서비스
	730	장비·용품 및 지식재산권 임대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조정서비스
	742	인력공급 및 알선
	749	기타 사업지원서비스
	760	교육서비스
	770	의료 및 보건
	821	자동차 및 소비용품 수리서비스
	822	개인서비스

출처: 1)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스마트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 호텔관광학회(2020)

2) 스마트관광 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2017), 5G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KT경제경영연구소(2018) 등

## 2.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조사\_파급효과 도출방법(2/2)

## 파급효과 도출 방법(2/2)

- 선정된 관광산업 분야의 40개 산업과 비관광 분야의 125개 산업별 생산승수, 수입승수, 부가가치승수, 고용승수를 평균값으로 계산함
- (생산유발승수) 전체 산업 평균 1.916이며, 비관광산업 평균 1.653, **전체 관광산업은 평균 1.098**으로 전체 관광산업 분야의 생산유발승수가 낮음. 이는 **관광 산업의 특성상 재화와 서비스가 타 산업에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가가치로 전환되기** 때문이며,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임<sup>1)</sup>
- (수입유발승수) 전체 산업 평균 0.256이며, 비관광산업 평균 0.271, **전체 관광산업은 평균 0.053**으로 전체 관광산업의 소득유발승수가 낮음. 타 산업에 비해 전체 관광산업은 소득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음
- (부가가치유발승수) 전체 산업 평균 0.724이며, 비관광산업 평균 0.538, **전체 관광산업 평균 0.713**으로 **관광산업이 큰 부가가치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관광산업을 구성하는 제반 분야에서 부가가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고용유발승수) 전체 산업 평균 7.183이며, 비관광산업 평균 4.414, **전체 관광산업 평균 8.891**으로 **전체 관광산업의 고용 파급효과가 높음**. 특히, 관광분야와 제반 분야의 고용 파급효과가 매우 뛰어나며, 전체 관광산업이 높은 고용 파급효과를 갖도록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lt;관광 분야와 비관광 분야의 유발승수 평균&gt;

구분	생산 유발승수	수입 유발승수	부가가치 유발승수	고용유발승수 (1명/10억원)
전체산업 (165개 산업)	1.916	0.256	0.724	7.183
전체 관광산업 (40개 산업)	1.098	0.053	0.713	8.891
관광분야 (9개 산업)	1.122	0.035	0.506	6.215
제반분야 (31개 산업)	1.04	0.039	0.684	8.475
비 관광산업 (125개)	1.653	0.271	0.538	4.414



## 2.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조사\_수요조사 기반의 직접효과 도출(1/5)

## 단체비자 제도 개선으로 약 6만명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유입되며, 약 2,381억 원의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1 : 단체비자 제도 개선

- 수요조사에서 과거에 단체비자로 방문한 중국인 중 '단체비자 제도 개선 시 한국 방문의사가 있다'라고 답한 중국인은 317명 (59.3%)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1에 의한 유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준데이터( $R_{\text{단체}}$ ) 대비 비자개선 시 방문의향이 있는 중국인 외래객을 지표( $S_1$ )하였더니 1.13이 도출됨
- 단체비자 제도개선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누적 약 54만 명이며, 관광수입(직접효과)는 누적 약 1.2조 원으로 예상됨<sup>1)</sup>
- 단체관광객 대상 출입국제도 개선만의 효과로 증가할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는 6.2만 명이며, 관광수입은 2,381억 원으로 예상됨

## &lt;시나리오 1에 의한 누적 유입 효과 도출&gt;

구분	내용	지수
Ref <sub>단체</sub>	현재 한국방문의사가 있는 기존 중국인 단체 여행객	1
시나리오1( $S_1$ )	중국인 대상 단체비자 제도 개선 ( $S_1/Ref_{\text{단체}}$ )	1.13
직접효과 도출		
구분	계산식	직접효과
시나리오1에의한예상 중국인단체관광객(명)	$1.13 \times 474,426 = 536,102$	536,102명
관광수입(달러)	$536,102 \times 2,064 = 1,106,514,158$	\$1,106,514,158
관광수입(원)	$1,106,514,158 \times 1,100^* = 1,217,165,573,717$	₩1,217,165,573,717

\* 1달러 환율(기준 2021년 1월) 1,100원 으로 가정

## &lt;제도개선만의 유입 효과 도출&gt;

구분	계산식	직접효과
제도개선만의 중국인 단체관광객(명)	$536,102 - 474,426 = 61,675$	61,675명
제도개선만의 관광수입(달러)	$1,106,514,158 - (474,426 \times 1,876) = 216,490,250$	\$216,490,250
제도개선만의 관광수입(원)	$216,490,250 \times 1,100^* = 238,139,275,313$	₩238,139,275,313

\* 1달러 환율 (기준 2021년 1월) 1,100원 으로 가정

## 2.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조사\_수요조사 기반의 직접효과 도출(2/5)

## 개별비자 개선 시 약 200만명의 중국인 개별관광객이 증가될 것이며, 약 5.5조원의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2 : 개별비자 제도 개선

-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별비자 개선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됨
- 수요조사에서 과거에 개별비자(단수 및 복수)로 방문한 중국인 중 '개별비자 제도 개선 시 한국 방문의사가 있다'라고 답한 중국인은 356명(76.4%)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2에 의한 유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준데이터( $R_{\text{개별}}$ ) 대비 비자개선 시 방문의향이 있는 중국인 외래객을 지표( $S_2$ )하였더니 1.45이 도출됨
- 개별비자 제도개선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개별관광객은 644만 명이며, 관광수입(직접효과)은 약 14.6조 원으로 예상되었다.
- 제도개선만의 효과로 증가할 중국인 개별관광객 수는 약 200만 명이며, 관광수입은 5.5조 원으로 예상됨

## &lt;시나리오 2에 의한 누적 유입 효과 도출&gt;

구분	내용	지수
Ref <sub>개별</sub>	현재 한국방문의사가 있는 기존 중국인 개별 여행객	1
시나리오2( $S_2$ )	중국인 대상 개별비자 제도 개선 ( $S_2$ /Ref <sub>개별</sub> )	1.45
직접효과 도출		
구분	계산식	직접효과
시나리오2에 의한 예상 중국인 개별관광객(명)	$1.45 \times 4,439,632 = 6,437,467$	6,437,467명
관광수입(달러)	$6,437,467 \times 2,064 = 13,286,931,302$	\$13,286,931,302
관광수입(원)	$13,286,931,302 \times 1,100^* = 14,615,624,432,233$	₩14,615,624,432,233

\* 1달러 환율(기준 2021년 1월) 1,100원 으로 가정

## &lt;제도개선만의 유입 효과 도출&gt;

구분	계산식	직접효과
제도개선만의 중국인 개별관광객(명)	$6,437,467 - 4,439,632 = 1,997,834$	1,997,834명
제도개선만의 관광수입(달러)	$13,286,931,302 - (4,439,632 \times 1,876) = 4,958,181,261$	\$4,958,181,261
제도개선만의 관광수입(원)	$4,958,181,261 \times 1,100^* = 5,453,999,387,169$	₩5,453,999,387,169

\* 1달러 환율 (기준 2021년 1월) 1,100원 으로 가정

## 2.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조사\_수요조사 기반의 직접효과 도출(3/5)

## 개별 복수비자 개선 시 222만명의 중국인 개별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며, 약 6조원의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2-1 : 개별 복수비자 제도 개선

- 수요조사에서 과거에 개별비자(단수 및 복수)로 방문한 중국인 중 '복수비자 제도 개선 시 한국 방문의사가 있다'고 답한 중국인은 369명(79.2%)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2-1에 의한 유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준데이터( $R_{\text{개별}}$ ) 대비 비자개선 시 방문의향이 있는 중국인 외래객을 지표( $S_{2-1}$ )하였더니 1.50이 도출됨
- 복수비자 제도개선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개별관광객은 666만 명이며, 관광수입(직접효과)은 약 15.1조 원로 예상됨
- 제도개선만의 효과로 증가할 중국인 개별관광객 수는 약 222만 명이며, 관광수입은 6.0조 원으로 예상됨

## &lt;시나리오 2-1에 의한 누적 유입 효과 도출&gt;

구분	내용	지수
Ref개별	현재 한국방문의사가 있는 기존 중국인 개별 여행객	1
시나리오2-1( $S_{2-1}$ )	중국인 대상 복수비자 제도 개선 ( $S_{2-1}/\text{Ref개별}$ )	1.5
직접효과 도출		
구분	계산식	직접효과
시나리오2-1에 의한 예상 중국인 개별관광객(명)	$1.50 \times 4,439,632 = 6,659,448$	6,659,448명
관광수입(달러)	$6,659,448 \times 2,064 = 13,745,101,347$	\$13,745,101,347
관광수입(원)	$13,745,101,347 \times 1,100^* = 15,119,611,481,621$	₩15,119,611,481,621

\* 1달러 환율(기준 2021년 1월) 1,100원 으로 가정

## &lt;제도개선만의 유입 효과 도출&gt;

구분	계산식	직접효과
제도개선만의 중국인 개별관광객(명)	$6,089,374 - 4,439,632 = 2,219,816$	2,219,816명
제도개선만의 관광수입(달러)	$113,745,101,347 - (4,439,632 \times 1,876) = 5,416,351,306$	\$5,416,351,715
제도개선만의 관광수입(원)	$5,416,351,715 \times 1,100^* = 5,957,986,436,556$	₩5,957,986,886,500

\* 1달러 환율 (기준 2021년 1월) 1,100원 으로 가정

## 2.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조사\_수요조사 기반의 직접효과 도출(4/5)

## 기존 단수비자 발급 대상 복수비자 개선 시 197만명의 중국인 개별관광객이 증가될 것이며, 약 5.3조원의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2-2 : 기존 단수비자 대상 복수비자 제도 개선

- 수요조사에서 과거에 개별비자(단수)로 방문한 중국인 중 '복수비자 제도 개선 시 한국 방문의사가 있다'라고 답한 중국인은 231명(73.6%)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2-2에 의한 유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준데이터( $R_{\text{개별}}$ ) 대비 비자개선 시 방문의향이 있는 중국인 외래객을 지표( $S_{2-2}$ )하였더니 1.48이 도출됨
- 복수비자 제도개선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개별관광객은 609만 명이며, 관광수입(직접효과)은 약 13.8조 원로 예상됨
- 제도개선만의 효과로 증가할 중국인 개별관광객 수는 약 197만 명이며, 관광수입은 5.3조 원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2-2에 의한 누적 유입 효과 도출>

구분	내용	지수
Ref단수	현재 한국방문의사가 있는 기존 중국인 단수비자 발급 여행객	1
시나리오2-2( $S_{2-2}$ )	중국인 대상 복수비자 발급 개선 ( $S_{2-2}/\text{Ref}_{\text{단수}}$ )	1.48
직접효과 도출		
구분	계산식	직접효과
시나리오2-2에 의한 예상 중국인 개별관광객(명)	$1.48 \times 4,114,442 = 6,089,374$	6,089,374명
관광수입(달러)	$6,089,374 \times 2,064 = 12,568,468,932$	\$12,568,468,932
관광수입(원)	$12,568,468,932 \times 1,100^* = 13,825,315,825,386$	₩13,825,315,825,386

\* 1달러 환율(기준 2021년 1월) 1,100원 으로 가정

#### <제도개선만의 유입 효과 도출>

구분	계산식	직접효과
제도개선만의 중국인 개별관광객(명)	$6,089,374 - 4,114,442 = 1,974,932$	1,974,932명
제도개선만의 관광수입(달러)	$12,568,468,932 - (4,114,442 \times 1,876) = 4,849,775,331$	\$4,849,775,331
제도개선만의 관광수입(원)	$4,849,775,331 \times 1,100^* = 5,334,752,864,321$	₩5,334,752,864,321

\* 1달러 환율 (기준 2021년 1월) 1,100원 으로 가정

## 2.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조사\_수요조사 기반의 직접효과 도출(5/5)

## 무비자제도 시행 시 중국인 관광객 약 340만명이 증가될 것이며, 8.7조원의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3 : 무비자 제도 시행

- 수요조사에 참여한 과거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중에서 '무비자 제도 시행 시 한국 방문 의향이 있다'라고 답한 중국인은 887명(88.6%)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3에 의한 유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준데이터( $R_{total}$ ) 대비 비자개선 시 방문의향이 있는 중국인 외래객을 지표( $S_3$ )하였더니 1.68이 도출됨
- 무비자 제도 도입에 따른 증가하는 예상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839만 명 이며, 관광수입(직접효과)는 약 19.0조 원으로 예상됨
- 제도개선만의 효과로 증가할 중국인 개별관광객 수는 약 340만 명이며, 관광수입은 8.7조 원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3에 의한 누적 유입 효과 도출>

구분	내용	지수
Ref <sub>total</sub>	현재 한국방문의사가 있는 여행객	1
시나리오3( $S_3$ )	중국인 대상 복수비자 발급 개선 ( $S_3/Ref_{total}$ )	1.68
직접효과 도출		
구분	계산식	직접효과
시나리오3에 의한예상 중국인관광객	$1.68 \times 4,993,962 = 8,389,856$	8,389,856명
관광수입(달러)	$8,389,856 \times 2,064 = 17,316,663,114$	\$17,316,663,114
관광수입(원)	$17,316,663,114 \times 1,100^* = 19,048,329,425,664$	₩19,048,329,425,664

\* 1달러 환율(기준 2021년 1월) 1,100원 으로 가정

#### <제도개선만의 유입 효과 도출>

구분	계산식	직접효과
제도개선만의 중국인 관광객(명)	$8,389,856 - 4,993,962 = 3,395,894$	3,395,894명
제도개선만의 관광수입(달러)	$17,316,663,114 - (4,993,962 \times 1,876) = 7,947,990,402$	\$7,947,990,402
제도개선만의 관광수입(원)	$7,947,990,402 \times 1,100^* = 8,742,789,442,464$	₩8,742,789,442,464

\* 1달러 환율 (기준 2021년 1월) 1,100원 으로 가정

## 2.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조사\_수요조사 기반의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1/5)

## 단체사증 개선 시 전체관광분야의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 2,615억 원, 수입파급효과 126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1,698억 원, 고용파급효과 2,117명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1 : 단체비자 개선

- 단체비자 개선을 통한 전체 관광산업의 생산파급효과는 약 1.3조 원, 수입파급효과 약 645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약 8,678억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10,822명으로 나타남
- 전체관광 산업들의 승수에 단체비자 제도개선으로 인한 직접효과액(1,217,165,573,717 원)을 곱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하면 아래와 같음
- 관광분야의 생산파급효과 1.4조 원, 수입파급효과 426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6,159억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7,565명으로 예상됨
- 제반분야의 생산파급효과 1.3조 원, 수입파급효과 475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8,325억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10,315명으로 예상됨
- 사증개선만(직접효과액 약 2,381억원)의 전체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 2,615억 원, 수입파급효과 약 126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약 1,698억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2,117명으로 예상됨

#### <단체비자 제도 개선으로 인한 산업분야별 파급효과>

(단위:백만원, 명)

	생산파급액	수입파급액	부가가치파급액	고용 파급인원
전체	2,332,089	311,594	881,228	8,743
전체관광	1,336,448	64,510	867,839	10,822
관광분야	1,365,660	42,601	615,886	7,565
제반분야	1,265,852	47,469	832,541	10,315
비관광산업분야	2,011,975	329,852	654,835	5,373

#### <비자개선만의 산업분야별 파급효과>

(단위:백만원, 명)

	생산파급액	수입파급액	부가가치파급액	고용 파급인원
전체	456,275	60,964	172,413	1,711
전체관광	261,477	12,621	169,793	2,117
관광분야	267,192	8,335	120,498	1,480
제반분야	247,665	9,287	162,887	2,018
비관광산업분야	393,644	64,536	128,119	1,051

## 2.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조사\_수요조사 기반의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2/5)

**개별사증 개선 시 전체관광분야의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 6조 원, 수입파급효과 2,891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3.9조 원, 고용파급효과 48,492명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2 : 개별비자 개선

- 개별단수비자 개선을 통한 전체 관광산업의 생산파급효과 약 16.0조 원, 수입파급효과 약 7,746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약 10.4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129,948명으로 나타남
- 전체관광 산업들의 승수에 개별 단수비자 제도개선으로 인한 직접효과액(14,615,624,432,233 원)을 곱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하면 아래와 같음
- 관광분야의 생산파급효과 16.4조 원, 수입파급효과 5,115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7.4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90,836명으로 예상됨
- 제반분야의 생산파급효과 15.2조 원, 수입파급효과 5,700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10.0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123,867명으로 예상됨
- 사증개선만(직접효과액 약 5.5조원)의 전체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 6.0조 원, 수입파급효과 약 2,891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약 3.9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48,492명으로 예상됨

## &lt;개별비자 개선으로 인한 산업분야별 파급효과&gt;

(단위:백만원, 명)

	생산파급액	수입파급액	부가가치파급액	고용 파급인원
전체	28,003,536	3,741,600	10,581,712	104,984
전체관광	16,047,956	774,628	10,420,940	129,948
관광분야	16,398,731	511,547	7,395,506	90,836
제반분야	15,200,249	570,009	9,997,087	123,867
비관광산업분야	24,159,627	3,960,834	7,863,206	64,513

## &lt;비자개선만의 산업분야별 파급효과&gt;

(단위:백만원, 명)

	생산파급액	수입파급액	부가가치파급액	고용 파급인원
전체	10,449,863	1,396,224	3,948,696	39,176
전체관광	5,988,491	289,062	3,888,702	48,492
관광분야	6,119,387	190,890	2,759,724	33,897
제반분야	5,672,159	212,706	3,730,536	46,223
비관광산업분야	9,015,461	1,478,034	2,934,252	24,074

## 2.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조사\_수요조사 기반의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3/5)

**개별 복수사증 개선 시 전체관광분야의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 6.5조 원, 수입파급효과 3,158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4.2조 원, 고용파급효과 52,972명으로 예상됨**

시나리오 2-1 : 개별 복수비자 개선

- 복수비자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의 생산파급효과 약 16.6조 원, 수입파급효과 약 8,013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약 10.8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134,428명으로 나타남
- 전체관광 산업들의 승수에 개별 복수비자 제도개선으로 인한 직접효과액(15,119,611,481,621 원)을 곱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하면 아래와 같음
- 관광분야의 생산파급효과 17.0조 원, 수입파급효과 5,292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7.7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93,968명으로 예상됨
- 제반분야의 생산파급효과 15.7조 원, 수입파급효과 5,897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10.3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128,139명으로 예상됨
- 사증개선만(직접효과액 약 6조원)의 전체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 6.5조 원, 수입파급효과 약 3,158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약 4.2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52,972명으로 예상됨

&lt;복수비자 개선으로 인한 산업분야별 파급효과&gt;

(단위:백만원, 명)

	생산파급액	수입파급액	부가가치파급액	고용 파급인원
전체	28,969,176	3,870,621	10,946,599	108,604
전체관광	16,601,333	801,339	10,780,283	134,428
관광분야	16,964,204	529,186	7,650,523	93,968
제반분야	15,724,396	589,665	10,341,814	128,139
비관광산업분야	24,992,718	4,097,415	8,134,351	66,738

&lt;비자개선만의 산업분야별 파급효과&gt;

(단위:백만원, 명)

	생산파급액	수입파급액	부가가치파급액	고용 파급인원
전체	11,415,502	1,525,245	4,313,582	42,796
전체관광	6,541,869	315,773	4,248,044	52,972
관광분야	6,684,861	208,530	3,014,741	37,029
제반분야	6,196,306	232,361	4,075,263	50,494
비관광산업분야	9,848,552	1,614,614	3,205,397	26,299



## 2.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조사\_수요조사 기반의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4/5)

**기존 단수사증 대상 개별 복수사증 개선 시 전체관광분야의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 5.9조 원, 수입파급효과 2,827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3.8조 원, 고용파급효과 47,431명으로 예상됨**

시나리오 2-2 : 기존 개별 단수비자 대상 복수비자 개선

- 기존 단수비자를 받았던 중국인 대상으로만 복수비자 개선 파급효과 확인 시, 전체 관광산업의 생산파급효과 약 15.2조 원, 수입파급효과 약 7,327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약 9.9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122,921명으로 나타남
- 전체관광 산업들의 승수에 개별 복수비자 제도개선으로 인한 직접효과액(13,825,315,825,386 원)을 곱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하면 아래와 같음
- 관광분야의 생산파급효과 15.5조 원, 수입파급효과 4,839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7.0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85,924명으로 예상됨
- 제반분야의 생산파급효과 14.4조 원, 수입파급효과 5,392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9.5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117,170명으로 예상됨
- 사증개선만(직접효과액 약 5.3조원)의 전체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 5.9조 원, 수입파급효과 약 2,827억 원, 부가가치 파급 효과 약 3.8 조 원 이며 고 용 파 급 효 과 는 47,431명으로 예상됨

&lt;단수비자 발급 대상 복수비자 개선으로 인한 산업분야별 파급효과&gt;

(단위:백만원, 명)

	생산파급액	수입파급액	부가가치파급액	고용 파급인원
전체	26,489,305	3,539,281	10,009,529	99,307
전체관광	15,180,197	732,742	9,857,450	122,921
관광분야	15,512,004	483,886	6,995,610	85,924
제반분야	14,378,328	539,187	9,456,516	117,170
비관광산업분야	22,853,247	3,746,661	7,438,020	61,025

&lt;비자개선만의 산업분야별 파급 효과&gt;

(단위:백만원, 명)

	생산파급액	수입파급액	부가가치파급액	고용 파급인원
전체	10,221,386	1,365,697	3,862,361	38,320
전체관광	5,857,559	282,742	3,803,679	47,431
관광분야	5,985,593	186,716	2,699,385	33,155
제반분야	5,548,143	208,055	3,648,971	45,212
비관광산업분야	8,818,346	1,445,718	2,870,097	23,548

## 2.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조사\_수요조사 기반의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5/5)

**무사증 시행 시 전체관광분야의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 9.6조 원, 수입파급효과 4,634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6.2조 원, 고용파급효과 77,732명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3 : 무비자 제도 시행

- 무비자제도 도입을 통한 관광산업의 생산파급효과 약 20.9조 원, 수입파급효과 약 1.0조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약 13.6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169,359명으로 나타남
- 전체관광 산업들의 승수에 개별 복수비자 제도개선으로 인한 직접효과액(19,048,329,425,664 원)을 곱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하면 아래와 같음
- 관광분야의 생산파급효과 21.4조 원, 수입파급효과 6,667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9.6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118,385명으로 예상됨
- 제반분야의 생산파급효과 19.8조 원, 수입파급효과 7,429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13.0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161,435명으로 예상됨
- 사증개선만(직접효과액 약 8.7조원)의 전체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 9.6조 원, 수입파급효과 약 4,634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약 6.2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77,732명으로 예상됨

## &lt;무비자 시행으로 인한 산업분야별 파급효과&gt;

(단위:백만원, 명)

	생산파급액	수입파급액	부가가치파급액	고용 파급인원
전체	36,496,599	4,876,372	13,790,991	136,824
전체관광	20,915,066	1,009,561	13,581,459	169,359
관광분야	21,372,226	666,692	9,638,455	118,385
제반분야	19,810,263	742,885	13,029,057	161,435
비관광산업분야	31,486,889	5,162,097	10,248,001	84,079

## &lt;비자시행만의 산업분야별 파급효과&gt;

(단위:백만원, 명)

	생산파급액	수입파급액	부가가치파급액	고용 파급인원
전체	16,751,185	2,238,154	6,329,780	62,799
전체관광	9,599,583	463,368	6,233,609	77,732
관광분야	9,809,410	305,998	4,423,851	54,336
제반분야	9,092,501	340,969	5,980,068	74,095
비관광산업분야	14,451,831	2,369,296	4,703,621	38,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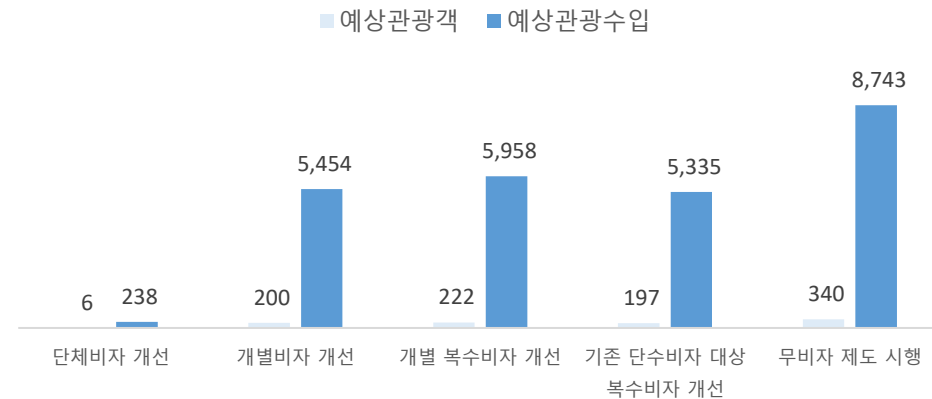
## 2. 출입국제도 개선 수요조사\_소결

# 비자제도 개선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개선의 종류에 따라 관광객 유치 증대의 규모와 기대효과는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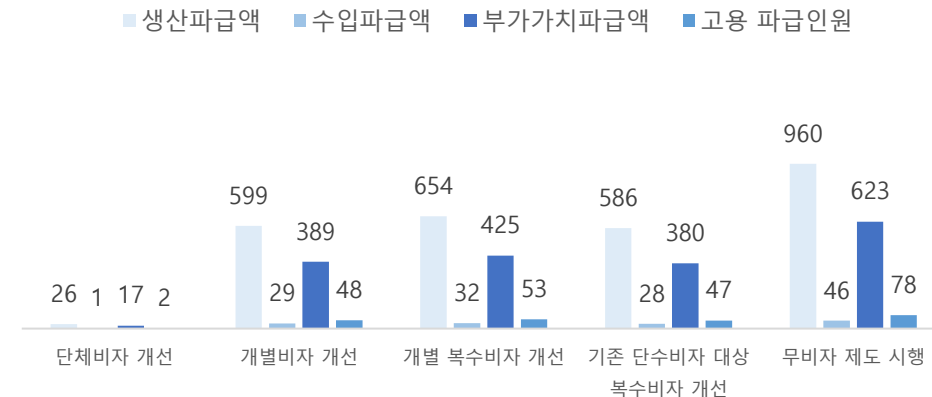
## 소결

- 개별비자 제도 개선 및 무비자 시나리오의 경우 분명하게 중국인 관광객 유치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고, 단체비자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 기대효과가 다른 제도 개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음
- 코로나19로 인해 방한 중국인의 개별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개별비자 제도 개선이 기대효과가 높고, 개별비자 중에서도 복수비자 제도 개선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나타남.
-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향 중에 무비자제도 도입 시의 기대효과가 단체 또는 개별비자 제도 개선에 비해 기대효과가 높음
- 비자제도 개선은 국내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
- 단체비자 개선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미미하지만, 개별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경제적 파급효과 부분에서도 무비자제도 도입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단체 또는 개별비자 제도 개선에 비해 가장 큼

&lt;비자제도 개선만을 통한 직접효과&gt; (단위:만명,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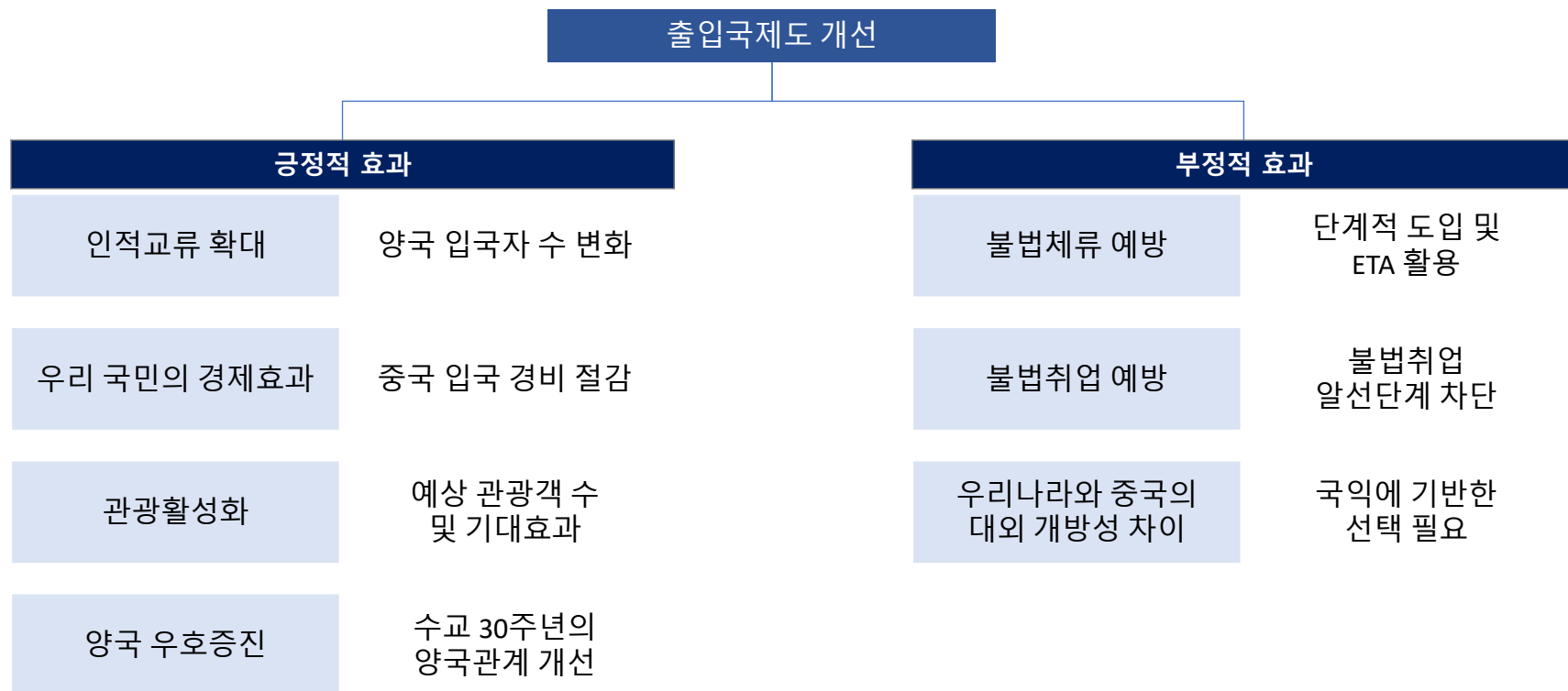
&lt;비자제도 개선만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gt; (단위:천명, 백억 원)



## **V.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효과**

## 1. 개선효과 분석 방법\_범위

출입국제도 개선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시 발생하는 긍정적 · 부정적 요소를 도출하고, 긍정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단계와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검토



## 1. 개선효과 분석 방법\_수요조사 및 기대효과 분석 개요(1/2)

### 1) 수요조사 목적

- 1차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통해 긍정적 효과(관광시장 확대 및 경제성장 기여)를 파악하였다. 1차 수요조사를 통해 각 시나리오별 효과를 파악하여 제도개선의 우선 순위를 검토하였고, 2차 수요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향 및 효과를 확인함
- 수요조사 결과와 기존 한국 방문 중국인 외래객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출입국제도 개선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해당 제도 개선 시나리오별 직접효과와 파급효과를 산출함
  - ① 시나리오 1. 개별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 ② 시나리오 2. 개별 복수비자 전자화
  - ③ 시나리오 3. 무비자 제도 시행
- 산출된 시나리오별 직접효과와 파급효과가 언제 도달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UNWTO보고서와 과거 유사한 비자 제도의 개선 이후 중국인 외래객의 변화 추세를 토대로 각 시나리오별 도달시기를 예측함
- 제도 개선 이후 유입이 예상되는 중국인 외래객이 국내 전반에 수용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고자 2019년 관광숙박업 사업체 수와 코로나19 이전의 3년간 교통편(항공, 선박)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리적 수용력을 판단함

## 1. 개선효과 분석 방법\_수요조사 및 기대효과 분석 개요(2/2)

## 2) 수요조사 방법

-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난징, 닝보, 샤먼, 쑤저우, 우한, 창샤, 칭다오, 톈진, 항저우 등 13개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중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586명 대상으로 하였다. 2차 설문조사의 참여자는 1차 설문조사자와 다름
- 설문조사 기간은 2021년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이며, 설문배포와 회수방법은 Wechat 플랫폼과 중국설문조사 솔루션 Jinshuju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짐

구분	설명
설문대상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난징, 닝보, 샤먼, 쑤저우, 우한, 창샤, 칭다오, 톈진, 항저우 등 13개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586명
설문기간	2021년 10월 11일 ~ 10월 22일
설문방법	Wechat과 Jinshuju(중국 설문조사 솔루션) 활용

## 3) 수요조사 설문지 내용과 문항 구성

- 출입국제도 개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제도개선 사례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개발함. 설문문항은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대한 문항과 출입국제도개선에 대한 수요조사 등 총 65개문항으로 구성함

조사영역	조사내용
개인적 배경	거주지, 성별, 연령, 혼인여부, 직업, 소득, 학력
출입국제도개선에 대한 수요	현재 국내외 여행욕구 및 계획 및 해외결정시 주요 고려요인
	현재 한국 방한의향, 목적, 경비, 형태, 체류기간
	과거 한국 방문 시 단점
	비자발급과 입국심사과정의 장단점
	개별 복수비자의 장단점, 발급대상 확대 수요
	개별 복수비자의 전자화 수요
	무비자 제도 수요

## 2. 개선효과 분석 결과\_수요조사 결과요약

## 중국인의 방문의사는 개별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시 50.3%, 개별 복수비자 전자화 시 46.9%, 무비자 제도 시행 시 67.0% 증가함

### 비자제도 개선이 없어도 한국 방문의향

- 수요조사에 참여한 586명의 중국인 중 단체여행 경험이 있는 중국인은 314명이었고, 개별여행 경험이 있는 중국인은 272명임
- 개별여행 경험자중 단수비자가 188명, 복수비자가 84명임
- 총 586명 중 출입국제도 개선이 없더라도 기존의 한국 방문 경험을 통해 한국 재방문 의사가 있는 중국인은 총 306명임
- 한국 재방문 의사가 있는 306명의 중국인 중 단체여행 경험자는 161명, 개별여행 경험자는 145명임
- 기존에 단수비자를 발급받아 방한한 중국인 188명 중 제도 개선이 없어도 한국 방문의향이 있는 자는 96명이었으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방한한 중국인 84명 중 49명이 한국 방문 의향이 있다고 나타남

<비자제도 개선이 없어도 한국 방문의사가 있는가?>

(단위:명)

구분	방문 의사가 있음	방문 의사가 없음	합
현재 한국방문의향이 있습니까?	306	280	586
기존 단체여행 경험이 있는 중국인	161	153	314
기존 개별여행 경험이 있는 중국인	145	127	272
단수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	96	92	188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	49	35	84

### 비자제도 개선 후 한국 방문의향

- 수요조사에 참여한 586명의 중국인 중 출입국제도를 개선할 경우 방문의사가 있는지를 설문하였을 때 방문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 재방문 의향이 없었음에도 개별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시 재방문 의향이 높아지는 중국인은 73명이었고, 한국 재방문 의향이 없었지만 개별 복수비자 전자화 실행 시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중국인은 68명이었음. 또한 무비자 제도 도입 시 방한하겠다는 중국인은 205명이었음

<비자제도 개선 시 방한의사가 있는 중국인 수>

(단위:명)

구분	비자제도개선이 없어도 방한 의사가 있음	방문의사가 없었지만 비자제도 개선시 방한 의사가 있음	합
개별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145	73	218
단수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	96	48	144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	49	25	74
개별 복수비자 전자화 실행 시	145	68	213
단수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	96	42	138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	49	26	75
무비자 제도 실행 시	306	205	511



## 2. 개선효과 분석 결과\_Reference data 도출방법

## 기존 통계자료 및 수요조사 기반으로 시나리오별 중국인 관광객 유입효과 및 관광수입을 산출함

## Reference data 도출 방법

- 직접효과 및 파급효과 도출방법은 1차 수요조사에서 사용한 방식과 동일함. 시나리오별 유입효과와 관광객 수 변화에 따른 관광수입을 산출하고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함
- 수요조사 결과와 기존 통계자료를 Reference data라고 설정하여, 시나리오별 유입효과와 관광객 수 변화에 따른 관광수입을 산출함
- 총 586명 중 출입국제도 개선이 없더라도 한국 방문 의향이 있는 중국인 306명을 외래객 기준데이터( $R_{total}$ )로 설정하고, 306명 중 과거에 단체비자로 방문한 중국인 161명을 외래객  $R_{단체}$ , 개별비자로 방문한 중국인 145명을 외래객  $R_{개별}$ 의 기준데이터를 설정하였다. 또한 개별비자로 방문한 중국인 외래객(145명)을  $R_{단수}$ 와  $R_{복수}$ 로 분류함

- 각 출입국제도개선 시나리오에 의해 중국인 외래객 유입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준데이터 대비 시나리오 개선 시에 방문의향이 있는 중국인 외래객 수를 지표화해서, 예상관광객 수의 변화와 관광수입을 산출함

## &lt;시나리오별 지표 도출&gt;

i	시나리오	비자제도 개선 으로 유입될 중국인 수( $S_i$ )	기준데이터 ( $R_i$ )	지표( $S_i/R_i$ )
1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218	145	1.5
2	(현재범위 내에서) 복사 비자 발급의 전자화	213	145	1.47
3	무비자 제도 실행	511	306	1.67

## &lt;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Reference data&gt;

(단위:명)

$R_{total}$	$R_{단체}$	$R_{개별}$	$R_{단수}$	$R_{복수}$
306	161	145	96	49

## 2. 개선효과 분석 결과\_수요조사 기반의 직접효과 도출(1/3)

# 개별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시 222만명의 중국인 개별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며, 약 6조원의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1 : 개별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 2차 수요조사에 의하면, 개별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를 통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 효과는 클 것으로 나타남
- 수요조사에서 과거에 개별비자(단수 및 복수)로 방문한 중국인 중 '개별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시 한국 방문의사가 있다'고 답한 중국인은 218명(80.1%)로 나타남
- 시나리오 1에 의한 유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준데이터( $R_{\text{개별}}$ ) 대비 비자개선 시 방문의향이 있는 중국인 외래객을 지표( $S_1$ )하였더니 1.5가 도출됨
- 개별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중국인 개별관광객은 누적 666만 명이며, 관광수입(직접효과)는 누적 15.1조 원으로 예상됨
- 제도개선만의 효과로 증가할 중국인 개별관광객 수는 약 222만 명이며, 관광수입은 6.0조 원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1에 의한 누적 유입 효과 도출>

구분	내용	지수
Ref <sub>개별</sub>	현재 한국방문의사가 있는 기존 중국인 개별 여행객	1
시나리오1( $S_1$ )	중국인 대상 개별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 $S_1/\text{Ref}_{\text{개별}}$ )	1.5
직접효과 도출		
구분	계산식	직접효과
시나리오1에의한예상 중국인개별관광객(명)	$4,439,632 \times 1.5 = 6,659,448$	6,659,448명
관광수입(달러)	$6,659,448 \times 2,064 = 13,742,437,568$	\$13,742,437,568
관광수입(원)	$13,742,437,568 \times 1,100^* = 15,116,681,324,357$	₩15,116,681,324,357

\* 1달러 환율(기준 2021년 1월) 1,100원 으로 가정

### <제도개선만의 유입 효과 도출>

구분	계산식	직접효과
제도개선만의 중국인 개별관광객(명)	$6,659,448 - 4,439,632 = 2,219,816$	2,219,816명
제도개선만의 관광수입(달러)	$13,742,437,568 - (4,439,632 \times 1,876) = 5,413,687,527$	\$5,413,687,527
제도개선만의 관광수입(원)	$5,413,687,527 \times 1,100^* = 5,955,056,279,292$	₩5,955,056,279,292

\* 1달러 환율 (기준 2021년 1월) 1,100원 으로 가정

## 2. 개선효과 분석 결과\_수요조사 기반의 직접효과 도출(2/3)

**(현재 비자 발급 대상 내)개별 복수비자 전자화 시 208만명의 중국인 개별관광객이 유입될 것 이며, 약 5.6조원의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2 : 개별 복수비자 전자화

- 수요조사에서 과거에 개별비자(단수 및 복수)로 방문한 중국인 중 '개별 복수비자 전자화 시 한국 방문의사가 있다'고 답한 중국인은 213명(78.3%)이었음
- 시나리오 2에 의한 유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준데이터( $R_{\text{개별}}$ ) 대비 비자개선 시 방문의향이 있는 중국인 외래객을 지표( $S_2$ )하였더니 1.47이 도출되었음
- 개별 복수비자 전자화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중국인 개별관광객은 652만 명 이며, 관광수입(직접효과)는 약 14.8조 원으로 예상됨
- 제도개선만의 효과로 증가할 중국인 개별관광객 수는 약 208만 명이며, 관광수입은 5.6조 원으로 예상할 수 있음

## &lt;시나리오 2에 의한 누적 유입 효과 도출&gt;

구분	내용	지수
Ref개별	현재 한국방문의사가 있는 기존 중국인 개별 여행객	1
시나리오2( $S_2$ )	중국인 대상 개별 복수비자 전자화 ( $S_2/\text{Ref}_{\text{개별}}$ )	1.47
직접효과 도출		
구분	계산식	직접효과
시나리오2에 의한 예상 중국인 개별관광객(명)	$1.47 \times 4,439,632 = 6,521,667$	6,521,667명
관광수입(달러)	$6,521,667 \times 2,064 = 13,458,111,273$	\$13,458,111,273
관광수입(원)	$13,458,111,273 \times 1,100^* = 14,803,922,400,405$	₩14,803,922,400,405

\* 1달러 환율(기준 2021년 1월) 1,100원 으로 가정

## &lt;제도개선만의 유입 효과 도출&gt;

구분	계산식	직접효과
제도개선만의 중국인 개별관광객(명)	$6,521,667 - 4,439,632 = 2,082,034$	2,082,034명
제도개선만의 관광수입(달러)	$13,458,111,273 - (4,439,632 \times 1,876) = 5,129,361,232$	\$5,129,361,232
제도개선만의 관광수입(원)	$5,129,361,232 \times 1,100^* = 5,642,297,355,340$	₩5,642,297,355,340

\* 1달러 환율 (기준 2021년 1월) 1,100원 으로 가정

## 2. 개선효과 분석 결과\_수요조사 기반의 직접효과 도출(3/3)

## 무비자 제도 시행 시 335만명의 중국인 개별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며, 약 8.6조원의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3 : 무비자 제도 시행

- 수요조사에 참여한 과거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중에서 '무비자 제도 시행 시 한국 방문 의향이 있다'라고 답한 중국인은 511명(87.2%)이었음
- 시나리오 3에 의한 유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준데이터( $R_{total}$ ) 대비 비자개선 시 방문의향이 있는 중국인 외래객을 지표( $S_3$ )하였더니 1.67이 도출되었음
- 무비자 제도시행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누적 834만 명이며, 관광수입(직접효과)는 누적 18.9조 원으로 예상됨
- 제도개선만의 효과로 증가할 중국인 개별관광객 수는 약 335만 명이며, 관광수입은 8.6조 원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시나리오 3에 의한 누적 유입 효과 도출>

구분	내용	지수
Ref <sub>total</sub>	현재 한국방문의사가 있는 여행객	1
시나리오3( $S_3$ )	중국인 대상 복수비자 발급 개선 ( $S_3/Ref_{total}$ )	1.67
직접효과 도출		
구분	계산식	직접효과
시나리오3에 의한 예상 중국인 관광객	$1.67 \times 4,993,962 = 8,339,590$	8,339,590명
관광수입(달러)	$8,339,590 \times 2,064 = 17,209,578,207$	\$17,209,578,207
관광수입(원)	$17,209,578,207 \times 1,100^* = 18,930,536,027,963$	₩18,930,536,027,963

\* 1달러 환율(기준 2021년 1월) 1,100원 으로 가정

#### <제도개선만의 유입 효과 도출>

구분	계산식	직접효과
제도개선만의 중국인 관광객(명)	$8,339,590 - 4,993,962 = 3,345,628$	3,345,628명
제도개선만의 관광수입(달러)	$17,209,578,207 - (4,993,962 \times 1,876) = 7,840,905,495$	\$7,840,905,495
제도개선만의 관광수입(원)	$7,840,905,495 \times 1,100^* = 8,624,996,044,763$	₩8,624,996,044,763

\* 1달러 환율 (기준 2021년 1월) 1,100원 으로 가정

## 2. 개선효과 분석 결과\_수요조사 기반의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1/3)

**개별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시 전체관광분야의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 6.5조 원, 수입파급효과 3,156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4.2조 원, 고용파급효과 52,946명으로 예상됨**

시나리오 1 : 개별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 개별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를 통한 전체 관광산업의 생산파급효과 약 16.6조 원, 수입파급효과 약 8,012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약 10.8조 원이며, 고용 파급 효과는 134,402명으로 추정됨
- 전체관광 산업들의 승수에 개별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로 인한 직접효과액(15,116,681,324,357 원)을 곱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함
- 관광분야의 생산파급효과 17.0조 원, 수입파급효과 5,291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7.6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93,950명으로 예상됨
- 제반분야의 생산파급효과 15.7조 원, 수입파급효과 5,896억 원, 부가가치 파 급 효 과 10.3 조 원 이며 고 용 파 급 효 과는 128,114명으로 예상됨
- 사증개선만(직접효과액 약 6조 원)의 전체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 6.5조 원, 수입파급효과 약 3,156억 원, 부가가치 파 급 효 과 약 4.2 조 원 이며 고 용 파 급 효 과는 52,946명으로 예상됨

&lt;개별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에 의한 산업분야별 파급효과&gt;

(단위:백만원, 명)

	생산파급액	수입파급액	부가가치파급액	고용 파급인원
전체	28,963,561	3,869,870	10,944,477	108,583
전체관광	16,598,116	801,184	10,778,194	134,402
관광분야	16,960,916	529,084	7,649,041	93,950
제반분야	15,721,349	589,551	10,339,810	128,114
비관광산업분야	24,987,874	4,096,621	8,132,775	66,725

&lt;비자개선만의 산업분야별 파급효과&gt;

(단위:백만원, 명)

	생산파급액	수입파급액	부가가치파급액	고용 파급인원
전체	11,409,888	1,524,494	4,311,461	42,775
전체관광	6,538,652	315,618	4,245,955	52,946
관광분야	6,681,573	208,427	3,013,258	37,011
제반분야	6,193,259	232,247	4,073,258	50,469
비관광산업분야	9,843,708	1,613,820	3,203,820	26,286

## 2. 개선효과 분석 결과\_수요조사 기반의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2/3)

**현재 사증발급 대상 내)개별 복수사증 전자화 시 전체관광분야의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 62조 원, 수입파급효과 2,990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4.0조 원, 고용파급효과 50,166명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2 : 개별 복수비자 전자화

- 개별 복수비자 전자화를 통한 전체 관광산업의 생산파급효과 약 16.3조 원, 수입파급효과 약 7,846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약 10.6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131,622명으로 추정됨
- 전체관광 산업들의 승수에 개별 복수비자 전자화 제도개선으로 인한 직접효과액(14,803,922,400,405 원)을 곱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함
- 관광분야의 생산파급효과 16.6조 원, 수입파급효과 5,181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7.5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92,006명으로 예상됨
- 제반분야의 생산파급효과 15.4조 원, 수입파급효과 5,774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10.1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125,463명으로 예상됨
- 사증개선만(직접효과액 약5.6조원)의 전체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 6.2조 원, 수입파급효과 약 2,990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약 4.0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50,166명으로 예상됨

## &lt;개별 복수비자 전자화로 인한 산업분야별 파급효과&gt;

(단위:백만원, 명)

	생산파급액	수입파급액	부가가치파급액	고용 파급인원
전체	28,364,315	3,789,804	10,718,040	106,337
전체관광	16,254,707	784,608	10,555,197	131,622
관광분야	16,610,001	518,137	7,490,785	92,006
제반분야	15,396,079	577,353	10,125,883	125,463
비관광산업분야	24,470,884	4,011,863	7,964,510	65,345

## &lt;비자개선만의 산업분야별 파급효과&gt;

(단위:백만원, 명)

	생산파급액	수입파급액	부가가치파급액	고용 파급인원
전체	10,810,642	1,444,428	4,085,023	40,529
전체관광	6,195,242	299,042	4,022,958	50,166
관광분야	6,330,658	197,480	2,855,002	35,067
제반분야	5,867,989	220,050	3,859,331	47,818
비관광산업분야	9,326,718	1,529,063	₩3,035,556	24,905

## 2. 개선효과 분석 결과\_수요조사 기반의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3/3)

**무사증 제도 시행 시 전체관광분야의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 9.5조 원, 수입파급효과 4,571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6.1조 원, 고용파급효과 76,685명으로 예상됨**

시나리오 3 : 무비자 제도 시행 시

- 무비자 제도 시행을 통한 전체 관광산업의 생산파급효과 약 20.8조 원, 수입파급효과 약 1.0조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약 13.5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168,311명으로 추정됨
- 전체 관광 산업들의 승수에 무비자 제도 시행으로 인한 직접효과액(18,930,536,027,963 원)을 곱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함
- 관광분야의 생산파급효과 21.2조 원, 수입파급효과 6,626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9.6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117,653명으로 예상됨
- 제반분야의 생산파급효과 19.7조 원, 수입파급효과 7,383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12.9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160,436명으로 예상됨
- 사증개선만(직접효과액 약 8.6조원)의 전체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 9.5조 원, 수입파급효과 약 4,571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약 6.1조 원이며 고용파급효과는 76,685명으로 예상됨

&lt;무비자 제도 시행으로 인한 산업분야별 파급효과&gt;

(단위:백만원, 명)

	생산파급액	수입파급액	부가가치파급액	고용 파급인원
전체	36,270,907	4,846,217	13,705,708	135,978
전체관광	20,785,729	1,003,318	13,497,472	168,311
관광분야	21,240,061	662,569	9,578,851	117,653
제반분야	19,687,757	738,291	12,948,487	160,436
비관광산업분야	31,292,176	5,130,175	10,184,628	83,559

&lt;비자제도 도입만의 산업분야별 파급효과&gt;

(단위:백만원, 명)

	생산파급액	수입파급액	부가가치파급액	고용 파급인원
전체	16,525,492	2,207,999	6,244,497	61,953
전체관광	9,470,246	457,125	6,149,622	76,685
관광분야	9,677,246	301,875	4,364,248	53,604
제반분야	8,969,996	336,375	5,899,497	73,097
비관광산업분야	14,257,118	2,337,374	4,640,248	38,071

3. 부정적 효과 대응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 한국 3D 산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노동력 수요로, 불법체류자와 브로커의 음성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발생
-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발생하는 편익에 비해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0억 원 가량 더 높음

불법체류 비용편익 산출변수 및 결과

구분			변수	결과	구분		편익-비용
불법체류자 1인당 총 비용	직접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 인건비</li><li>•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비</li><li>• 법무부 출입국업무 예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간: 3,416,092원</li><li>• 월간: 284,674원</li></ul>		750,108,349,827원	
	간접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불 의사 추정</li><li>• 4대 보험료 탈루</li></ul>				
불법체류자 1인당 총 편익	직접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임금 절감액</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간: 2,660,325원</li><li>• 월간: 221,694원</li></ul>		453,725,454,468원	
	간접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불 의사 추정</li></ul>				

물가상승률 및  
2018년도  
불법체류자  
(192,111명) 적용



-296,382,895,359원

출처: 하봉주 외. 불법체류자 비용 및 편익분석 연구. 2014.  
\* 2014년 불법체류자 187,579명 기준



### 3. 부정적 효과 대응

## 출입국제도 개선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불법체류를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님

- 불법체류는 매년 통계에서 **전년도 미출국자가 쌓이는 누적**의 특징이 있으며, 중국의 한한령으로 한국으로의 출국이 까다로워지면서 한국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수요가 2017년부터 급격히 높아짐
- 무비자입국자가 많은 제주의 무비자 불법체류자 수가 2016년까지는 전국 기준 비율 대비 낮다는 것은 무비자 입국제도가 불법체류를 높이는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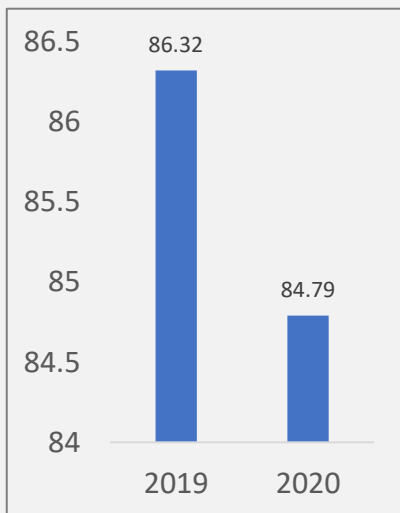
연도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자수	제주지역 무비자 불법체류자 수	제주지역 비율	전국 기준
2013	429,230	1,285	0.30%	1.5%
2014	646,180	2,154	0.33%	1.5%
2015	629,724	4,913	0.78%	1.6%
2016	918,683	7,788	0.85%	1.2%
2017	357,590	9,846	2.75%	1.9%
2018	259,577	11,979	4.61%	2.3%

## 3. 부정적 효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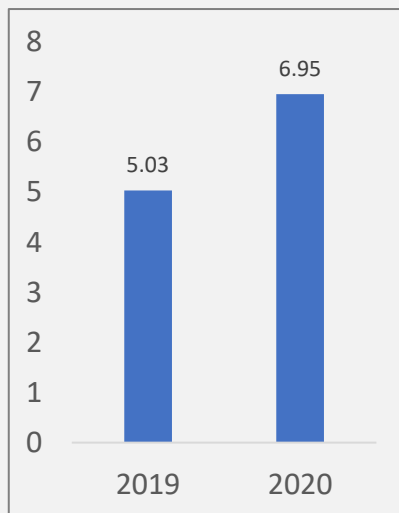
## 불법체류자의 경제적 요인 및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 수요가 불법체류 양성의 근본적 배경

- 불법체류자(불법취업자)는 일반적으로 임금 소득이 적은 국가에서 임금소득이 높은 나라로 이동 (태국이 대표적인 사례)
- 하지만, 복수비자가 발급되는 중국의 14개 지역의 경우, 평균 소득이 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불법체류에 대한 필요성이 낮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과거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던 산업체가 감소하여 외국인의 일자리 역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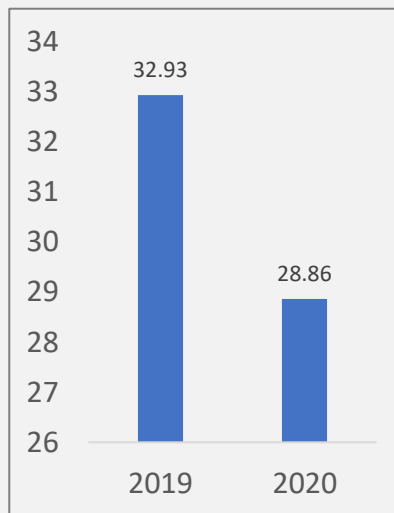
외국인 취업자 (만 명)



외국인 실업자 (만 명)



외국인 임시/일용직 (만 명)



## 베이징 국유기업의 평균 연봉

16만 6803위안(한화 약 2,842만원)

- 중국 지역별로 평균 6.4~14.4% 증가 추세

##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평균 월급

200만원 (2018년, 이주와 인권연구소)

##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필요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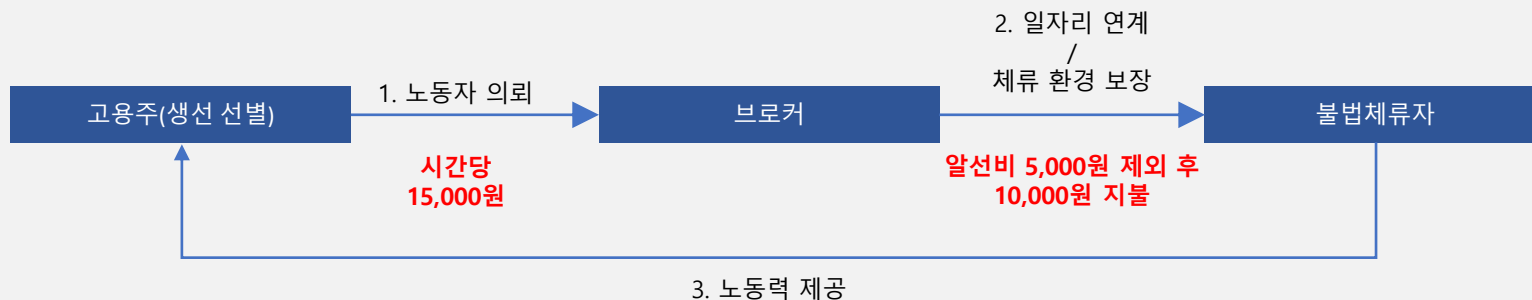
- 음식 및 숙박업(16만 명), 건설업(11만 명), 농림어업(5만 명)으로, 위 3개 업종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36.6%
-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줄면서, 농림어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증가

### 3. 부정적 효과 대응

## 불법체류 노동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브로커 차단이 중요한 방안

- 제주의 경우, 어업분야 불법체류 노동력을 공급하는 브로커 고착화
- 제주의 경우, 2018년까지 제주출입국 외국인처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는 조사과 직원은 8명에 불과
-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980여 명 수준이던 2012년 5명에서 3명 늘어난 것이며, 이는 2012년에서 2018년까지 6년 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13배 늘어날 동안 관리 단속 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
- 이에 불법체류자 발생 근본 원인인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단속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

불법체류 노동 수요와 공급 연계 방식



출처: 마문품,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연구

### 3. 부정적 효과 대응\_일본 사례

## 일본의 경우 불법체류자 예방을 위해 2005년부터 정보·강제·재정·조직수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중

- 일본의 불법체류는 2018년 기준 2005년에 비해 73.6% 감소한 66,000명 수준을 유지
- 일본은 1명의 감시관이 69명의 불법체류자를 담당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명의 감시관인 인력이 1,000여 명(2015년 기준 1,253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
- 일본에서 시행하는 방안은 우리나라도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유일한 차이는 감시인력의 규모

정보 수단	강제 수단	재정 수단	조직 수단
<p><b>사전승객정보시스템(APIS) 도입</b></p> <p>2005년부터 항공기가 출발하여 일본의 공항에 도착하는 사이에 항공사로부터 승객 등의 정보를 사전 제출 받아 법무성, 경찰청, 관세청이 활용</p> <p><b>개인식별정보 제공 의무화</b></p> <p>2007년 11월 20일부터 개인식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입국 신청 시에 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한 다음 입국심사관으로 부터 심사.</p> <p><b>관련 기관 정보공유</b></p> <p>법무성, 경찰, 후생노동성 등에서 생산된 불법체류자 정보를 기관들이 공유.</p> <p>입국관리국은 불법체류 브로커,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 위반 조 체류카드 이용자들에 대해 경찰에 직접 고발</p>	<p><b>단속</b></p> <p>2004년부터 2009년까지 불법체류자 단속 전담 경비관 수를 400여명에서 850명으로 증원하고, 입국관리국 직원은 2003년 2,693명에서 2008년 3,413명으로 720명 증원</p> <p>일본의 경우 1명의 감시관이 69명의 불법체류자를 담당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1명의 관련직원이 1000여명(2015년 기준 1,353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p> <p><b>형사처벌</b></p> <p>불법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한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p>	<p><b>보상금</b></p> <p>불법체류자를 신고하고, 해당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되면 신고자에게 50만 엔 이하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p> <p><b>보험*</b></p> <p>불법체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 제한 (한국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출국만기 보험과 귀국비용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지만, 일본은 미시행)</p>	<p><b>관계 국장 연락회의</b></p> <p>1992년부터 경찰청, 법무성, 후생노동성의 국·부장으로 구성된 '불법 취업 외국인 대책 관계 국장 연락회의'를 설치운영</p> <p><b>입관법 위반사범 예방 및 단속 대책 협의회</b></p> <p>1971년부터 매년 1회(1972년 제외) 개최하는 회의로, 불법체류자와 위장 체류자를 야기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대응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협의</p> <p><b>외국정부</b></p> <p>주요 입국 대상국의 대사관에 자국 출신 불법체류자의 귀국 재촉 요청.</p> <p>스스로 출두하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구속하지 않고 출국시키는 '출국 명령제도' 등을 대사관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요청</p>

## **VI.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및 유치활성화 전략**

## 1. 비전 및 전략

## 출입국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 중국인 방문국가 1위로 성장

[2019년 중국인 방문 상위 10개 지역 (단위: 회)]

지역	형태	방문 수
홍콩	VFR	51,038,230
마카오	VFR	25,260,556
태국	TFR	10,625,167
일본	VFN	8,380,034
베트남	VFR	4,966,468
한국	VFN	4,789,512
싱가포르	VFR	3,417,604
이탈리아	TCEN	3,200,847
미국	TFR	2,991,813
말레이시아	TFN	2,943,792

출입국제도 개선 활용  
유치 활성화

[2030년 중국인 방문 상위 10개 지역 (단위: 회)]

지역	형태	방문 수
홍콩	VFR	51,038,230
마카오	VFR	25,260,556
한국	VFN	12,000,000
태국	TFR	...
일본	VFN	...
● ● ●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해외 국가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로 도약

## 2. 로드맵

## 2030년 중국인 외래객 1,200만 명 달성을 위한 회복 · 확대 · 도약단계 설정

	1단계 - 회복	2단계 - 확대	3단계 - 도약
기간	2022~2023년	2024~2025년	2026~2030년
목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중국인 관광객 회복	사드 이전 수준으로 회복	1,000만 명 돌파 후 급속 도약
유치 목표	600만 명	800만 명	1200만 명
주요 대상	한국 방문 목적과 필요성이 분명한 중국인 위주	복수비자 간소화 제외 지역 복수비자 간소화 제외 대상	재방문객,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방향	기존 제도 일시적 완화	기존 제도의 대상 확대, 전자비자로 전환	제한적 무비자제도 도입
유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인 가족친지 방문</li> <li>20~30대 의료관광</li> <li>대학생 교류 확대</li> <li>(단체)한·중 민간스포츠 교류</li> <li>(단체)실버가족 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 웰니스 및 퍼스널 브랜딩 관광</li> <li>4계절 관광 기반 반복 입국 유도</li> <li>한·중 자매결연 도시간 Family 테마</li> <li>그루밍실버</li> <li>USIM 활용 관광객 맞춤형 콘텐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즈니스 · 의료 · 친지방문 · 개인관광 등 한국 체류경험 개선을 통한 재입국 유도</li> <li>취업·유학 등 기존 장기체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재입국 유도</li> </ul>
주요 마케팅	국내向 마케팅	중국向 마케팅	개인 Data 마케팅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업체를 대상으로 한 역(逆)마케팅	제도 개선 대상자 또는 지역 단위에 집중한 소규모 집중형 마케팅	해당 여행자의 Data를 활용하여 지속적 혜택제공 및 한국 체류경험 개선

## 3. 목표\_1단계 출입국제도 개선 방향

한국 방문 목적과 필요성이 분명한 중국인 대상 기존 제도 일시적 완화로  
중국인 관광객 방한 재개 및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V자 회복 가속화

## 제도개선 주요 방향

## 복수비자 발급 간소화

기존 복수비자 발급자 중  
코로나19로 유효기간 초과자의 기한연장 또는 신규발급 비용 면제

복수비자 대상 외, 국내기업 초청의 경우  
'상용목적 빈번 출국입국' 이력이 없더라도 복수비자 발급

## 단수비자 발급 간소화

중증질환이 아닌 중국인도 국내 의료기관 이용 목적으로  
방문하는 중국인 대상 의료비자 또는 일반 단수 발급

한국 MICE 개인 참가자 대상 신규 발급 비용 면제

## 단체비자 완화

가족단위 2명도 단체로 입국

기존 제도 활용  
입국 유도

중국인 방한 외래객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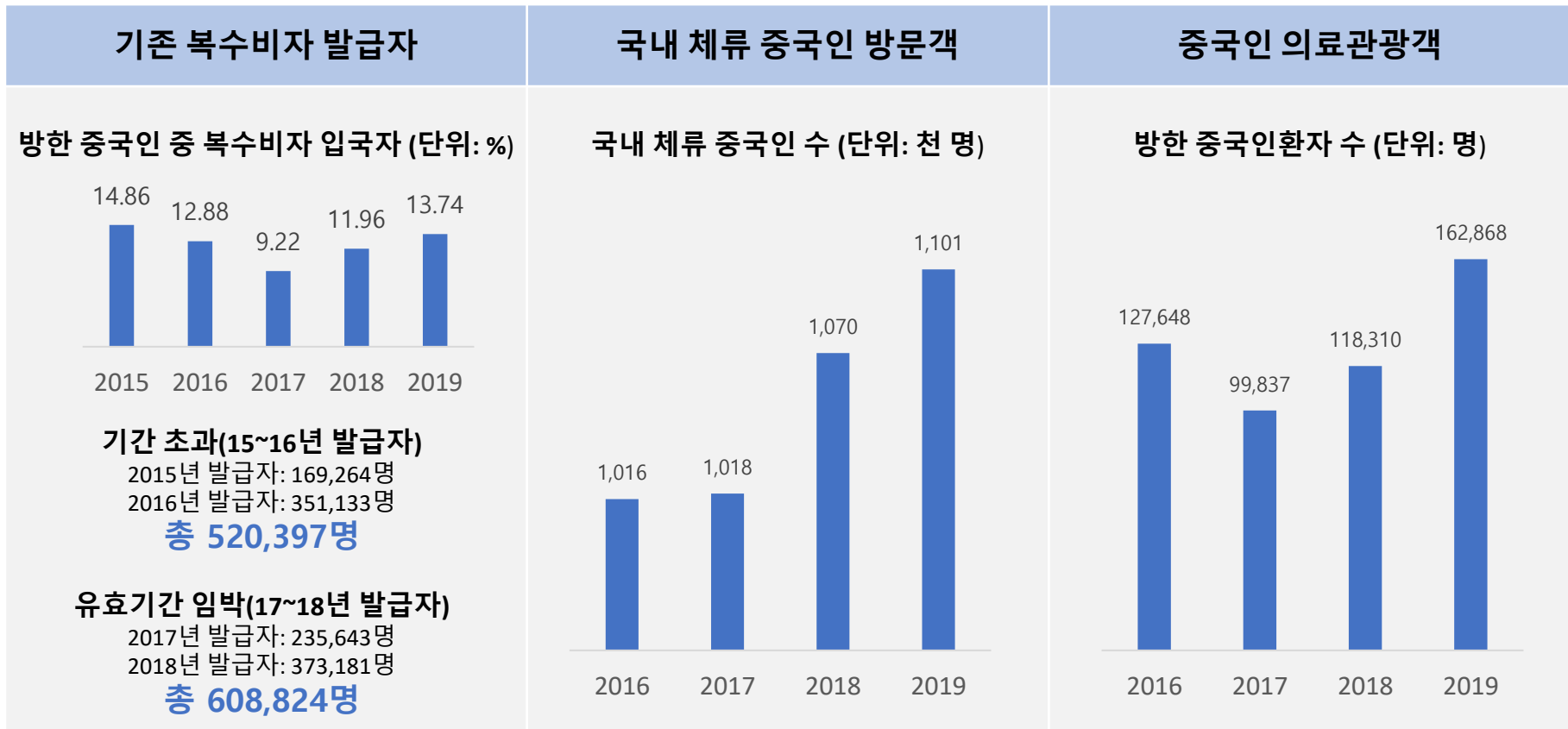
출처: 법무부, 출입국통계(<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 3. 목표\_1단계 수요 대상(1)

## 중국인 개별관광객의 기존 주요 방한 목적에 맞춰 대상 세분화

## 개별관광객\_1 기존 방문 유형

출처: 법무부, 출입국통계(<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외국인환자 유치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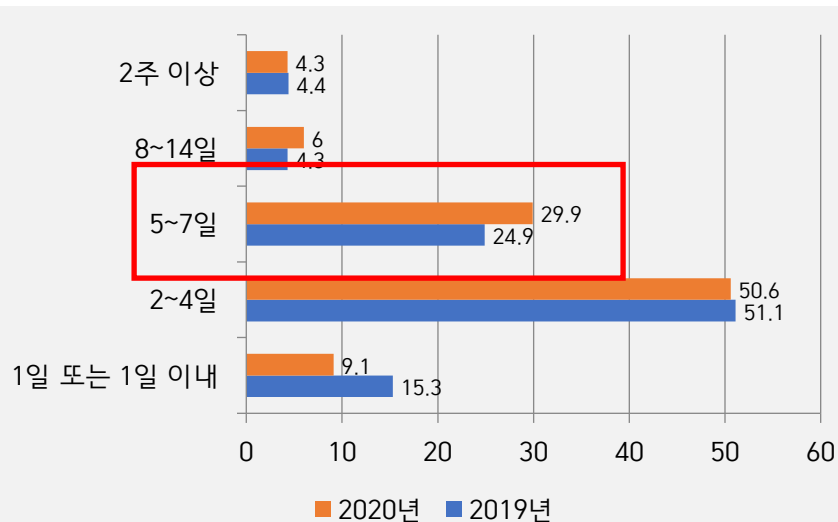
## 3. 목표\_1단계 수요 대상(2)

안전이 보장된 여행지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여행객 확보 및  
한·중 경제교류로 발생하는 인적교류 확대

## 개별관광객\_2 신규 고객군

## 1주일 이상 체류 여행객

2019-2020년 중국인의 평균 여행기간 (단위: %)



## 한국업체의 필요에 의해 오는 중국인

한국의 교역순위

순위	국명
1	중국
2	미국
3	EU
4	일본
5	베트남
6	홍콩

중국의 교역순위

순위	국명
1	EU
2	미국
3	일본
4	한국
5	홍콩
6	대만

### 3. 목표\_1단계 수요 대상(3)

## 코로나19 안전성 확보 외에도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유치모델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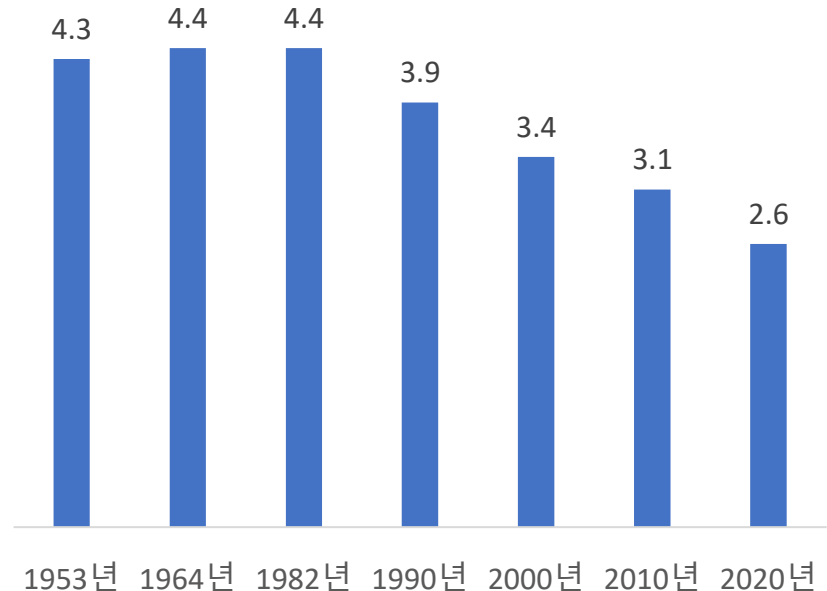
## 단체관광객

## 기업 내 스포츠 활동 활성화

- 중국 중소기업은 농구, 배구, 탁구 등 평균 9.4개의 운동시설 보유하고 스포츠활동 장려
- '길림동강(제철)', 대련완다(부동산, 미디어) 등 대형기업에서는 회사를 대표하는 직장인 스포츠팀 운영
- 기업 스포츠 동아리별 리그 활성화



중국 가구당 가족 수 변화 (단위: 명)

출처: <https://www.wenmi.com/article/pzpmdk01drs1.html>

출처: <http://baijiahao.baidu.com/s?id=1699481571623357609&wfr=spider&for=pc>

## 3. 목표\_2단계 출입국제도 개선 방향

**복수비자 대상 확대로 신규고객을 창출하고, 복수비자 전자화로 발급 편의성을 높여 중국인 관광객 수를 사드 이전 수준으로 회복**

### 제도개선 주요 방향

####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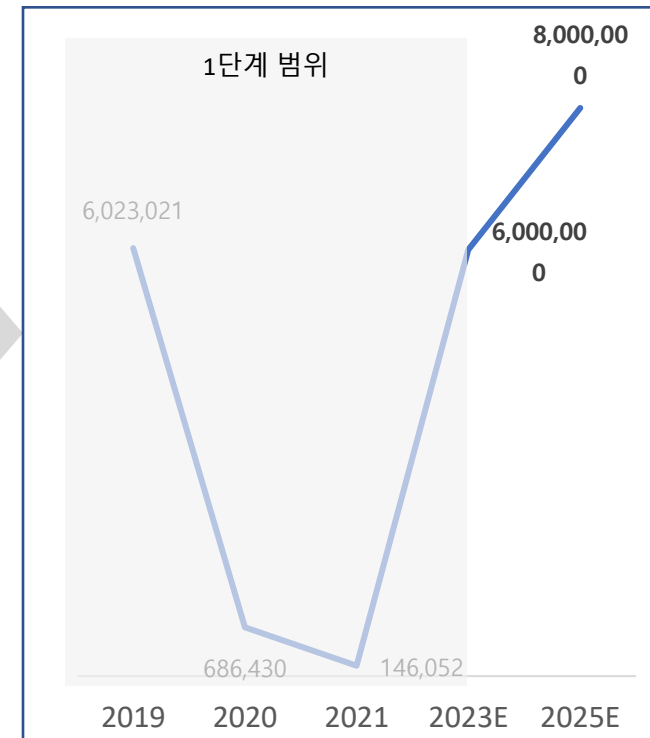
복수비자 발급 14개 지역 외 1인당 GDP 2만 달러 이상 지역 추가  
4년제 대학 외, 전문대학 재학생을 복수비자 대상 추가

#### 비자발급 방법 간소화

기존 복수비자 대상자 전자비자 이용 대상에 포함

제도 대상 확대로  
잠재고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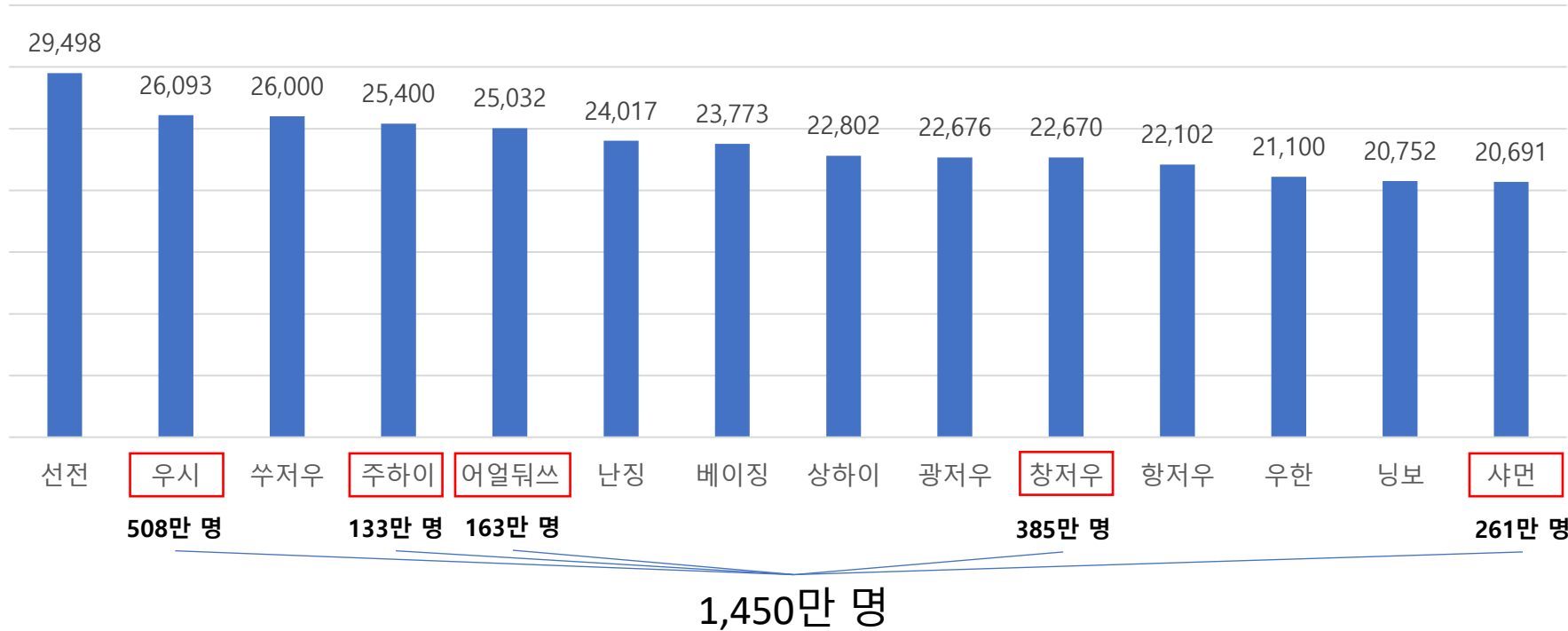
중국인 방한 외래객 (단위: 명)



3. 목표\_2단계 수요 대상(1)

현재 복수비자 발급 가능한 14개 지역 외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인 지역을 복수비자 발급 지역으로 추가하여 잠재고객 확보

중국 지역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인 지역 (단위: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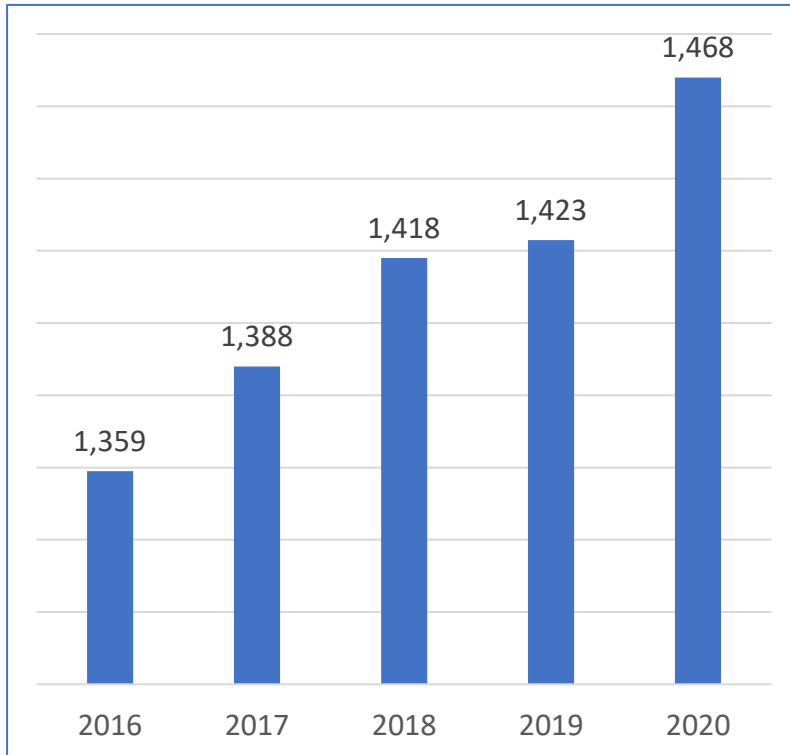
현행 복수비자 발급 도시 외,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지역 및 호구 인구

출처: 봉황망. 2019년 1인 GDP 2만 달러 초과 14개 도시(<https://finance.ifeng.com/c/7vwOjA0Svk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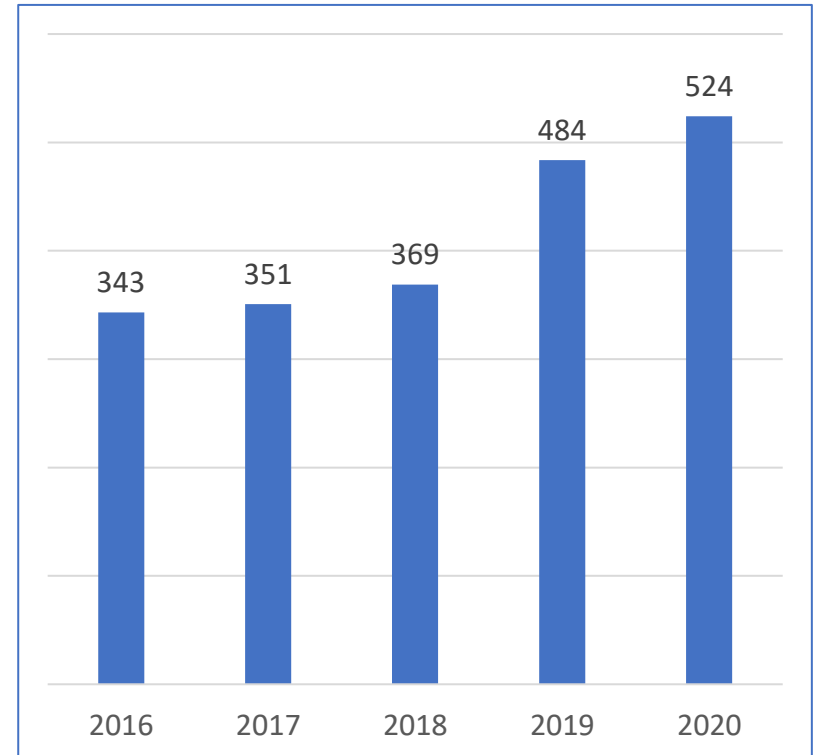
## 3. 목표\_2단계 수요 대상(2)

중국의 전문대학(大专) 고등교육기관 및 재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본과 대학생과 더불어 복수비자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MZ세대 고객 확보에 도움

중국 전문대학 고등교육기관 수 (단위: 개소)



중국 전문대학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 (단위: 만 명)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data.stats.gov.cn

## 3. 목표\_2단계 수요 대상(3)

시니어 모델처럼 자신을 더욱 가꾸고 관리하는 고령자(그루밍실버)를 신규 고객으로 설정



자신의 외모와 패션에 관심이 높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의료미용 · 패션 · 화장품 연계 관광

## 3. 목표\_3단계 출입국제도 개선 방향

한국 재방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불법체류 위험은 낮은 고객군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비자를 적용하여 중국인 관광객 수 급성장 실현

## 제도개선 주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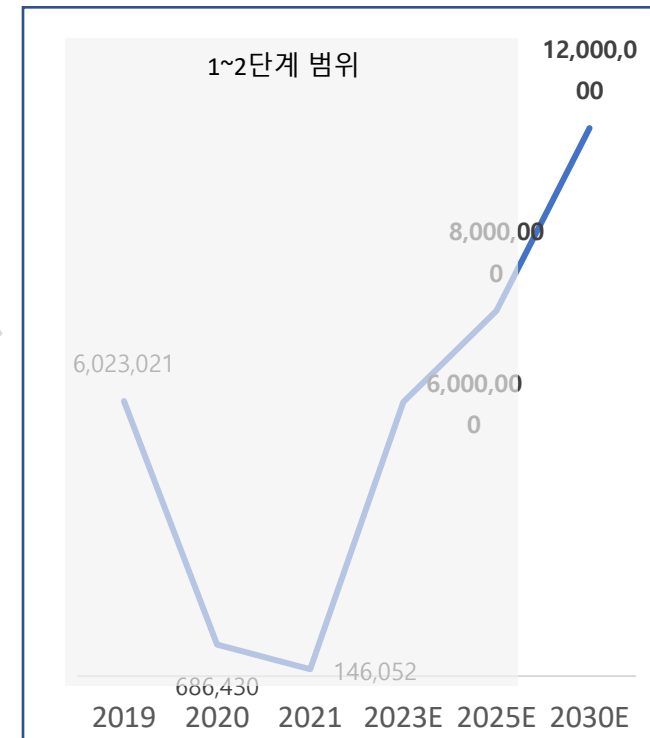
## 제한적 무비자 적용

기존 복수비자를 통해 비즈니스 의료 친지방문 개인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중국인

취업 유학 등 기존 관광 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장기체류했던 중국인

K-ETA  
적용

중국인 방한 외래객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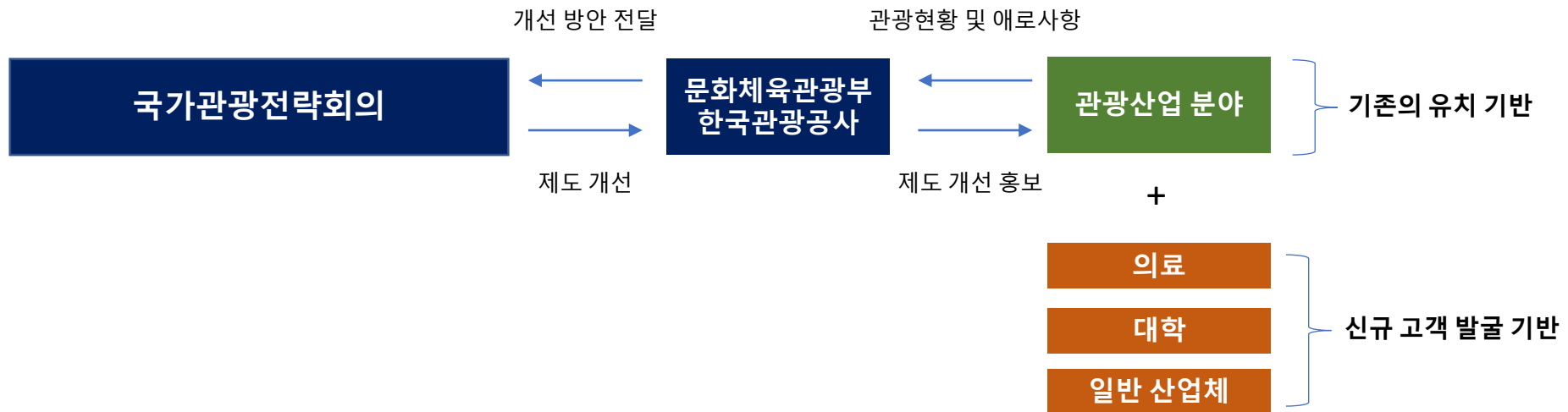




## 4. 추진체계

**출입국제도는 관광진흥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다양한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므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필두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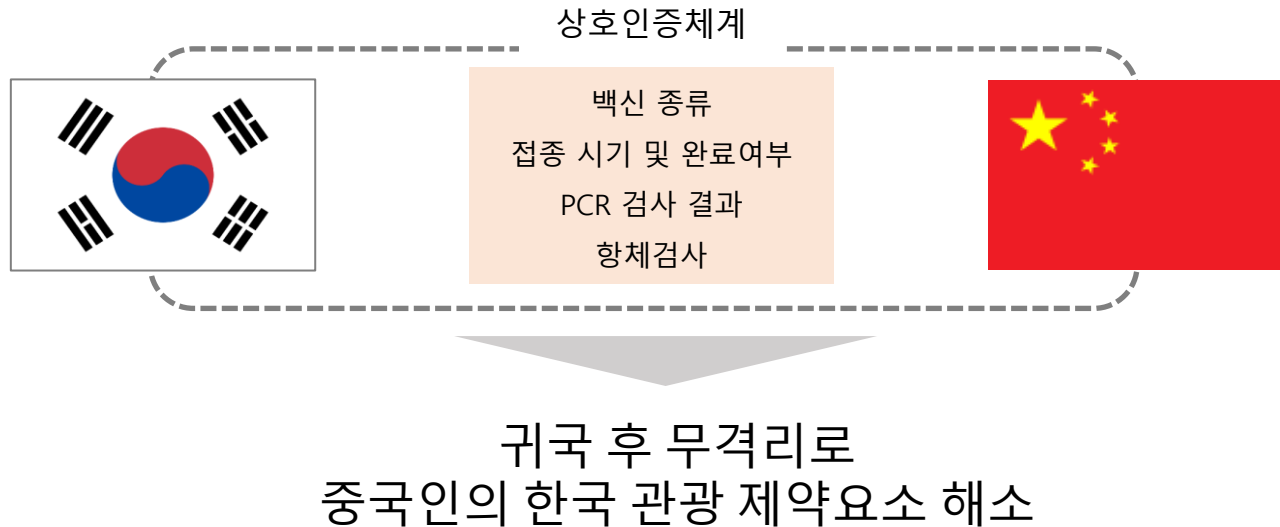
- 「관광기본법」에 따라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쟁점 사항을 심의·조정
-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



## 5. 선결조건

## 한·중 코로나19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 구축은 중국인 관광객 회복의 최우선 과제

- 2021년 4월 3일 중국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 측은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서로의 국민을 포함하고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의했으나, 한국 외교부에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지 않음
- 중국이 자국백신 접종완료자에게도 귀국 후 최소 2주의 격리를 강제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건강코드 상호인증을 통한 격리면제는 방한객 회복에 매우 중요한 시작점



## **VI.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및 유치활성화 전략 \_1단계**

## 6. 1단계 세부과제

2022년에는 특정대상에게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안전한 관광 재개' 환경을 마련하고, 2023년에 일반관광객 대상 입국 완전 재개

구분	세부과제	2022년				2023년			
		1	2	3	4	1	2	3	4
		특정대상 제한적 비자 발급 재개				일반관광 입국 완전 재개			
개인	국내 체류 중국인 가족·친지방문객 방한 재개								
	의료관광객 입국 재개								
	한국산업체 초청자 대상 입국 허용								
	고소득 프리랜서 중심 워케이션								
	한국식으로 살아가기								
단체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톈진발 무박 쇼핑 여행								
	한·중 대학생 해커톤								
	한·중 기업 스포츠동호회 교류								
	실버부부(가족) 단체여행 허용								
	MICE 인센티브관광 재개								

6. 1단계 세부과제\_무박쇼핑 여행(개요)

한·중 코로나19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를 바탕으로 무격리 여행 재개 메시지 전달

세부과제 1.	무박쇼핑 여행(공항체류 관광)
과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실제 입국까지 허용하는 상품</li> <li>입국 후 공항에서 식사, 쇼핑, 한국 뷰티 체험, 의료검진, 공연 등의 이벤트를 경험하고 당일 귀국</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중 코로나19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를 바탕으로 한 양국 무격리 여행 재개 메시지 전달</li> <li>중국인의 입국 후 활동범위를 공항으로 제한하여, 방역 안전성과 중국인 관광객 재입국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심리적 안심 확보</li> <li>중국 내수관광시장 회복 흐름을 한국 관광으로 유입</li> </ul>

기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

- 2020년 12월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 도입
- 국내에서 출발 후 해외 영공을 선회한 후 착륙없이 다시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는 형태
- 엄연한 국제선 비행이기 때문에 여권 필요
- 일반 해외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
- 입국 후 코로나19검사와 격리가 면제되며 탑승객은 면세 쇼핑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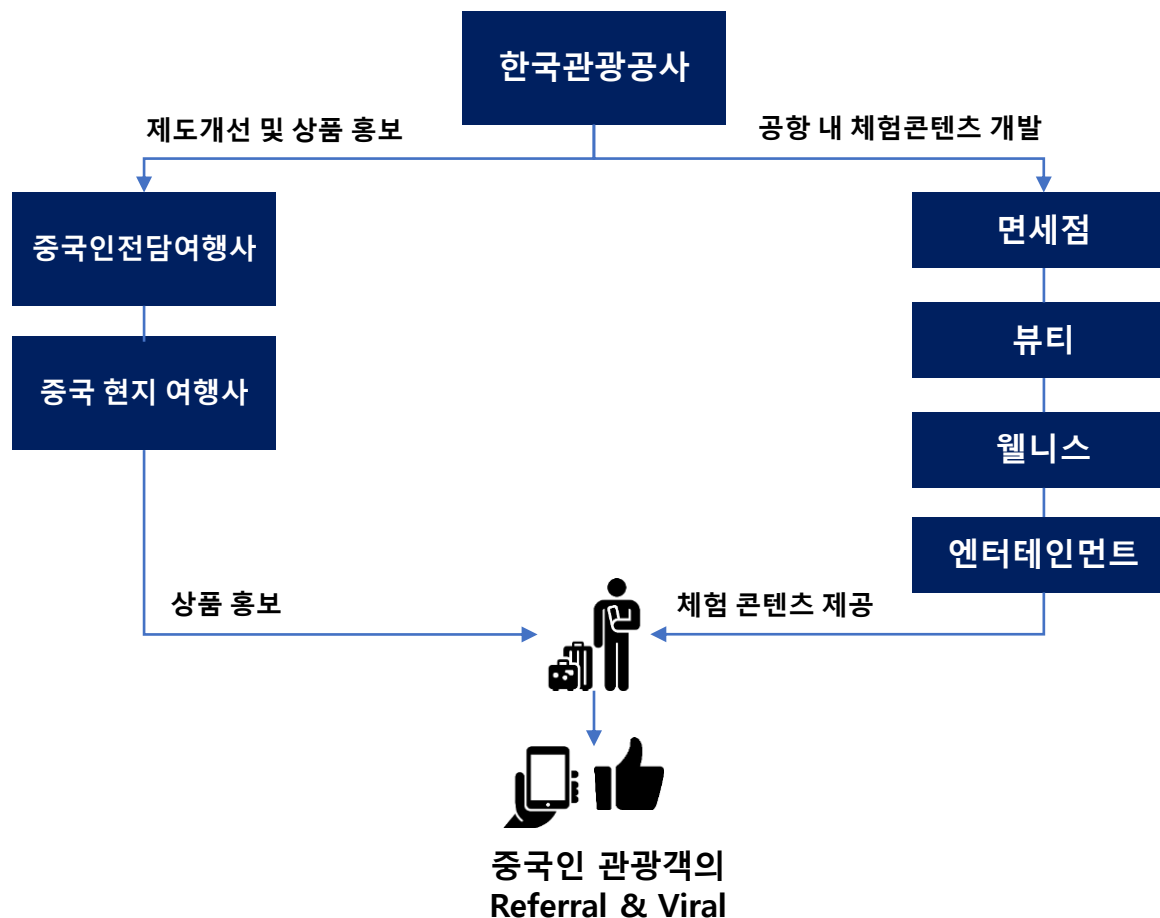
착륙 후 공항체류관광 상품

대상	한중 항공편도 비행시간 2시간 내외인 베이징(2H), 상하이(2H), 톈진(2H), 칭다오(1.5H) 지역 거주 20~30대 해외관광 선호 중국인
제도적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체관광비자 재개 (단체비자는 전자비자 대상이므로 중국인의 비자발급 불편 없이 입국 가능)</li> <li>복수비자 유효기간 초과자 또는 기한 임박자의 경우 비자재발급 수수료 면제</li> </ul>
구성	한국 입국 후 공항에서 식사, 쇼핑, 한국 뷰티 체험, 의료검진, 공연 등의 이벤트를 경험
효과	항공사, 중국인전담여행사, 면세점, 한류콘텐츠기업 재개

출처: 위키리크스 한국, 인천공항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효과 어땠는가

## 6. 1단계 세부과제 무박쇼핑 여행(마케팅 전략)

중국 현지 여행사, 중국인전담여행사를 주요 마케팅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서는 공항 내 체험콘텐츠 개발에 집중



## 6. 1단계 세부과제\_무박쇼핑 여행(마케팅 세부과제)

## 공항에서의 다양한 체험과 면세패키지 등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추진

구분	세부과제	2022년				2023년			
		1	2	3	4	1	2	3	4
		특정대상 제한적 비자 발급 재개				일반관광 입국 완전 재개			
한국	공항 내 한국 체험 콘텐츠개발 공모	→							
	무박여행자 대상 면세패키지 개발	→							
	무박여행자 만족도 모니터링			→					
중국	한국 체험 콘텐츠 수요조사	→							
	중국의 대형여행사(CITS, CYTC, Tongcheng Yilong 등) 무박여행 사업 설명회	→							
	무박여행 바이럴 콘텐츠 공모전		→						

6. 1단계 세부과제\_국내 체류 중국인 가족·친지방문객 방한(개요)

무격리 여행 재개 후 국내에 중국인 방문 본격화

세부과제 2.	국내 체류 중국인 가족·친지 방문객 방한 재개
과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중국인 가족 및 친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중국인 대상</li> <li>• 국내 체류 중국인의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명을 통해 방문허용객 선별</li> <li>• 국내 체류 중국인이 중국 외래객의 방역관리 동참</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코로나19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를 바탕으로 양국 외래객 본격 유입 시작</li> <li>• 복수비자 발급 정상화</li> </ul>





## 6. 1단계 세부과제\_국내 체류 중국인 가족·친지방문객 방한(마케팅 전략)

## 중국이 아닌 국내 체류 중국인을 대상으로 가족방문객 입국 허용 홍보



## 6. 1단계 세부과제\_국내 체류 중국인 가족·친지방문객 방한(마케팅 세부과제)

## 코로나19로 장기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중국인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국내상품 개발

구분	세부과제	2022년				2023년			
		1	2	3	4	1	2	3	4
		특정대상 제한적 비자 발급 재개				일반관광 입국 완전 재개			
한국	국내 체류 중국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대상 VFR 방문 재개 홍보회	➡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별 국내 안심여행 패키지 개발 (단체여행이 아니므로, 국내 여행사가 운영 가능)	➡							
	공항에서의 가족 입국 환영 이벤트 개발	➡							
중국	OTA 대상 한국 가족방문객 항공권 프로모션		➡						

## 6. 1단계 세부과제\_의료관광객 입국 재개(개요)

##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의료 목적의 의료관광객 입국 재개

세부과제 3.	중국인 의료관광객 입국 허용
과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의료서비스 이용 목적의 중국인 유치</li> <li>중국인은 중증보다는 미용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아 기존 의료관광비자(C-3-3)으로 입국 유도는 어려움</li> <li>중증환자 위주로 발급되는 의료관광비자(C-3-3) 대신 외국인환자 유치업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또는 유치회사의 진료 예약을 증빙으로 복수비자(대상자의 경우) 또는 단수비자 발급</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에 오는 외국인환자 중 가장 많은 비중(2019년 32.7%)을 차지하는 중국인환자(2019년 162,868명) 유치 재개</li> </ul>

진료과	비중
피부과	21.0
성형외과	20.4
내과통합	15.5
산부인과	12.7
정형외과	4.4
검진센터	4.0
신경외과	2.9
그 외 진료과	19.2
합계	100



미용의료관광 재개	
대상	한국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의료서비스 이용 목적의 중국인
제도적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증환자 위주로 발급되는 의료관광비자(C-3-3) 대신 외국인환자 유치업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또는 유치회사의 진료 예약을 증빙으로 복수비자(대상자의 경우) 또는 단수비자 발급</li> </ul>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이용</li> </ul>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환자 유치업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유치회사, 음식 및 숙박업 재개</li> </ul>

## 6. 1단계 세부과제\_의료관광객 입국 재개(마케팅 전략)

## 외국인환자 유치업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또는 유치회사 대상 홍보



## 중국인 일반 여행객

인터넷(여행포털), 여행사, 광고, 여행 APP 등에서 정보 획득



## 의료서비스 이용목적 중국인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회사에 직접 문의

중국인 일반 여행객과 의료서비스 이용객은 정보 취합 경로가 다르며,  
입국 관련 정보는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회사가 주로 제공

한국관광공사

제도개선 홍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회사

정보 전달



## 6. 1단계 세부과제\_의료관광객 입국 재개(마케팅 세부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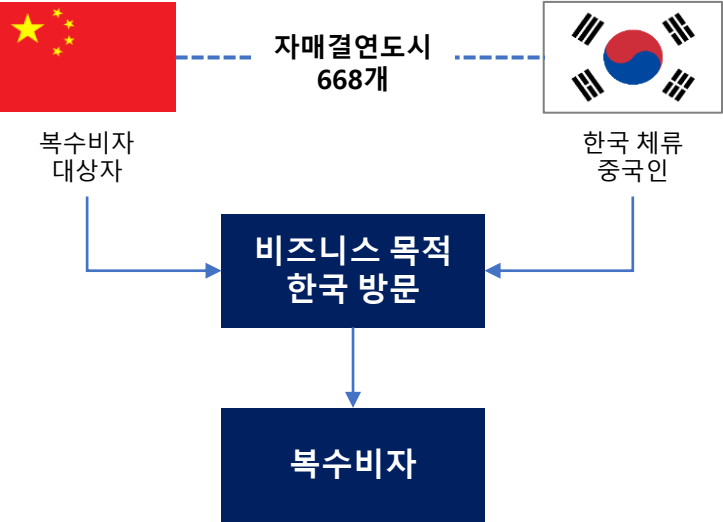
중국인환자로 직접적인 수익을 내는 의료기관과 유치회사가 중국에서 입국 재개를 홍보하고 중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

구분	세부과제	2022년				2023년			
		1	2	3	4	1	2	3	4
		특정대상 제한적 비자 발급 재개				일반관광 입국 완전 재개			
한국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회사 대상 예약증 기반 입국 허용 설명회	➡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회사 대상 중국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						
	의료기관 - 유치회사 - 숙박 - 교통 - 음식 분야 협의체 구축	➡							
중국	중국 대학생, 직장인 대상 한국 의료관광 설명회	➡							
	OTA 및 중국 성형미용정보 플랫폼(예, 썬메이, 신양)를 통한 방학 및 휴가기간 한국 의료관광 홍보		➡						

6. 1단계 세부과제\_한국산업체 초청자 대상 입국 허용(개요)

한국 산업체의 중국사업을 위한 중국인 초청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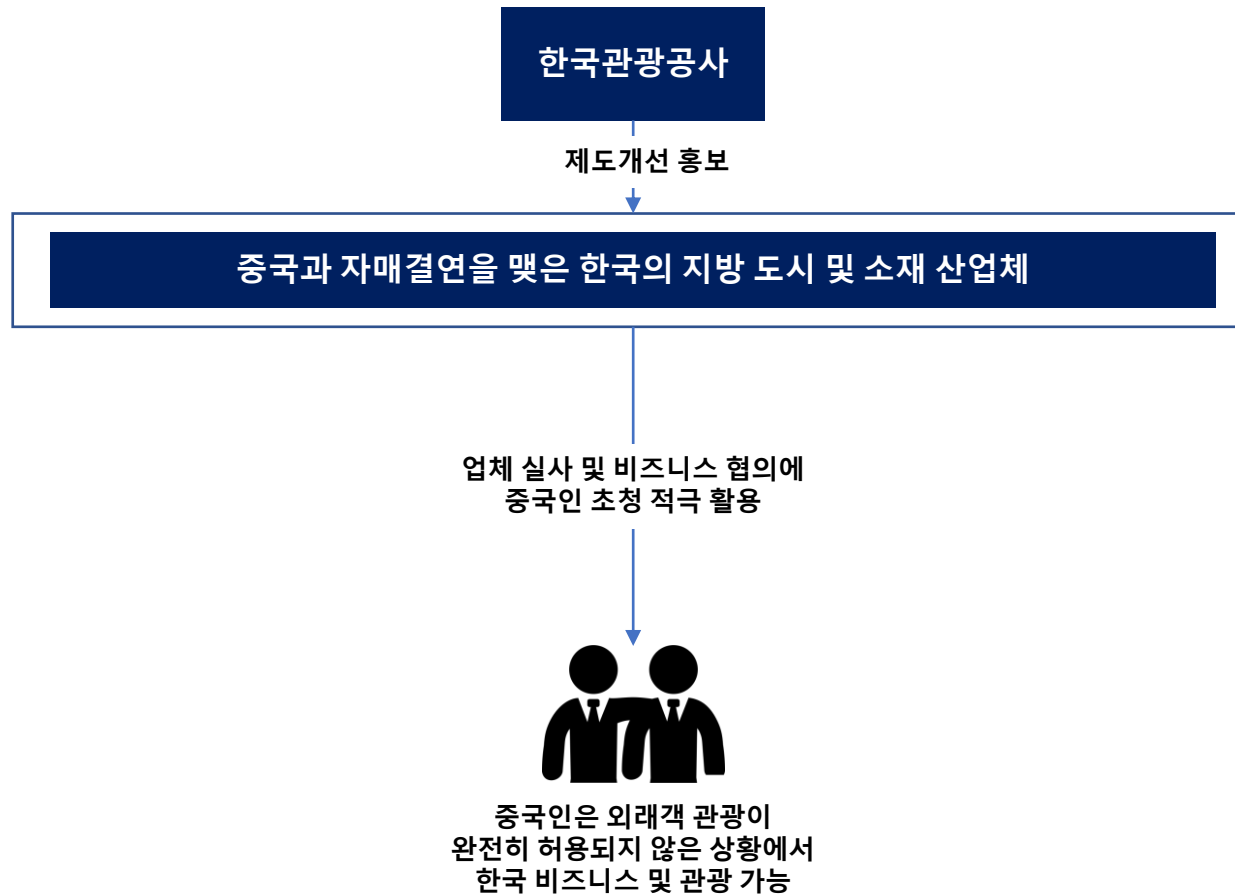
세부과제 4.	한국산업체 초청자 대상 입국 허용
과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한국의 교역 1위 국가로 한국의 산업체는 다양한 중국업체와의 교류 필요</li> <li>• 한국의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방문자에 대해 복수비자(대상자의 경우) 또는 단수비자 발급하여 한국 산업체의 중국비즈니스 활로 개척</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 중국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총 668개)를 대상으로 산업교류 재개</li> <li>• 서울 등 대도시 방문 중심의 일반 관광객 대신, 본 과제 대상자는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의 입국을 유도하여 지방관광 활로 개척</li> </ul>



한국산업체 초청자 입국 허용	
대상	한국 측 초청으로 한국으로 방문하는 비즈니스 목적 방문객
제도적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수비자 대상 외, 국내기업 초청의 경우 '상용목적 빈번 출국입국' 이력이 없더라도 복수비자 발급</li> </ul>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산업체 방문 및 비즈니스 협업 추진</li> <li>• 지방관광</li> </ul>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업체의 對중국사업 기회 확대</li> <li>• 지방관광 활로 개척</li> </ul>





## 6. 1단계 세부과제\_한국산업체 초청자 대상 입국 허용(마케팅 전략)

##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한국 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 6. 1단계 세부과제\_한국산업체 초청자 대상 입국 허용(마케팅 세부과제)

## 중국인을 초청하는 한국산업체에게 중국인 컨시어지 인프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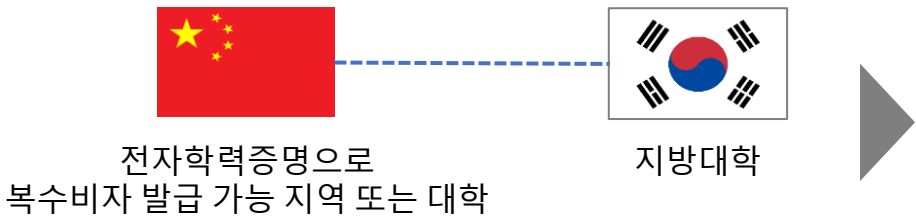
구분	세부과제	2022년				2023년			
		1	2	3	4	1	2	3	4
		특정대상 제한적 비자 발급 재개				일반관광 입국 완전 재개			
한국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총 668개)를 대상으로 초청장 기반 입국허용 입국 허용 공지								
	지역 특화 위케이션 상품 개발								
	공항 → 지역 이동 패스 또는 이동수단 서비스 제공								
중국	자매결연 도시 대상 한국 지방 위케이션 홍보								



6. 1단계 세부과제\_한·중 대학생 해커톤(개요)

중국의 대학생의 한국 우호도 증대 및 MZ 잠재고객 확보

세부과제 5.	한·중 대학생 해커톤
과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대학생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양국의 환경·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행사</li> <li>• 지방의 대학들과 함께 추진하여 지방관광산업과 연계</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의 대학생들 교류를 통해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대</li> <li>• 전자학력증명으로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한 중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우호도를 증대하여 잠재 MZ 고객 확보</li> <li>• 지방관광 재개</li> </ul>



한·중 대학생 해커톤	
대상	전자학력증명으로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한 지역 또는 대학의 대학생
제도적 수단	코로나19로 일반 관광이 재개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커톤 참여로 단체관광으로 연결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대학생들과의 해커톤</li> <li>• 지방 관광</li> </ul>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의 감정적 반감 해소</li> <li>• 한국에 우호적인 잠재 MZ고객 확보</li> <li>• 지방 관광 활성화</li> </ul>

## 6. 1단계 세부과제\_한·중 대학생 해커톤(개요)

한국과 중국의 MZ세대가 양국의 환경과 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반중·반한감정 해소의 계기로 활용하고, 해커톤 아이디어를 엔젤투자 펀드와 연계



### Hackathon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앱, 웹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

#### 한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환경 문제

- 미세먼지
- 황사
- 저탄소로 인한 자원 문제

#### 한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문화 문제

- 김치종주국 발언 등 문화적 이해 부족
- 양국 누리꾼의 반한·반중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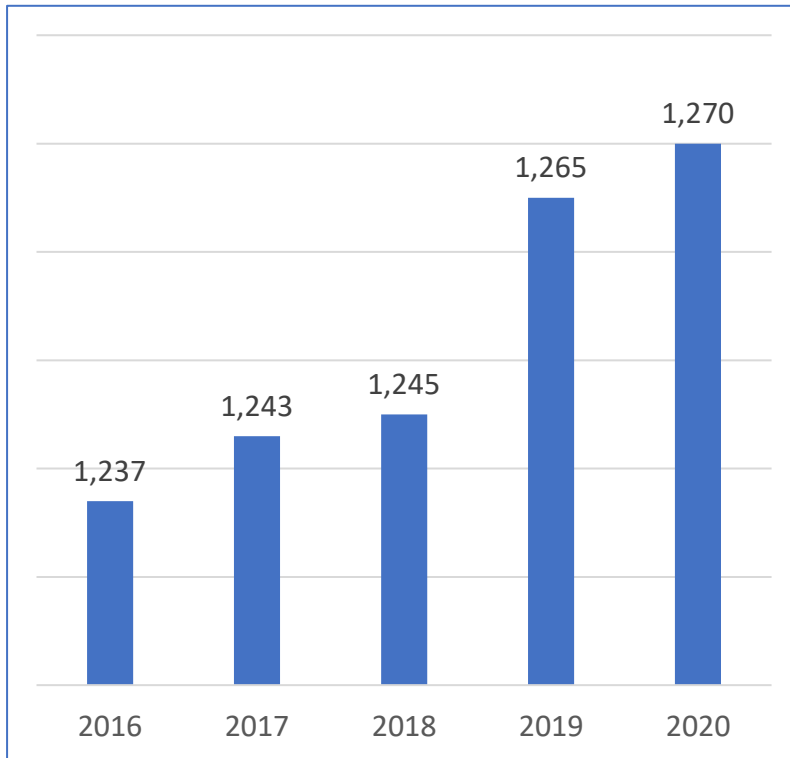
양국의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해결 모델을 도출

엔젤투자 펀드와 연계하여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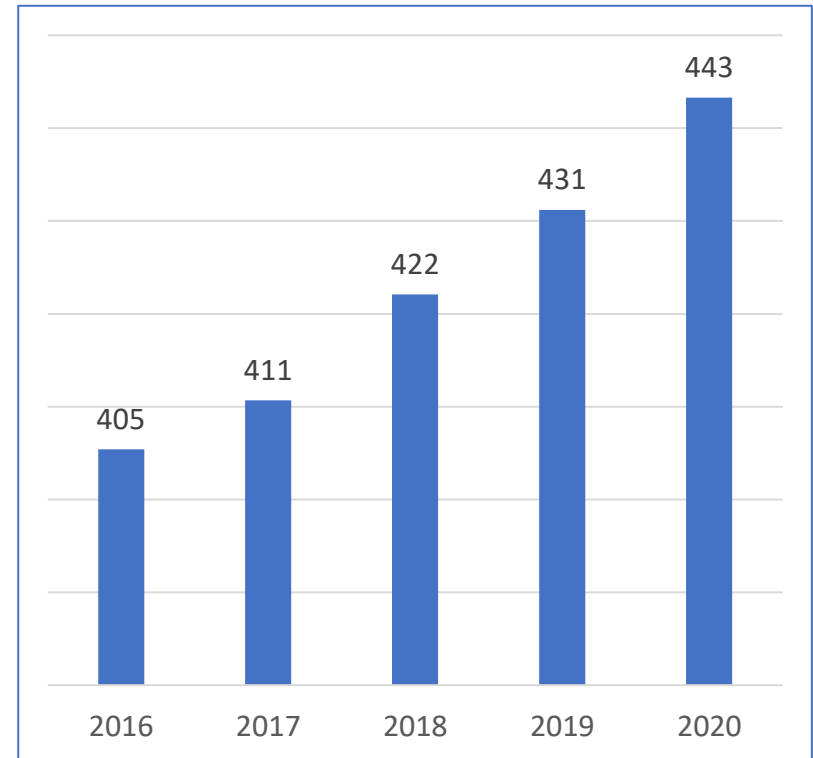
## 6. 1단계 세부과제\_한·중 대학생 해커톤(개요)

중국의 고등교육기관 및 재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양국의 대학생 교류를 통해 MZ세대 고객 확보

중국 4년제 본과 고등교육기관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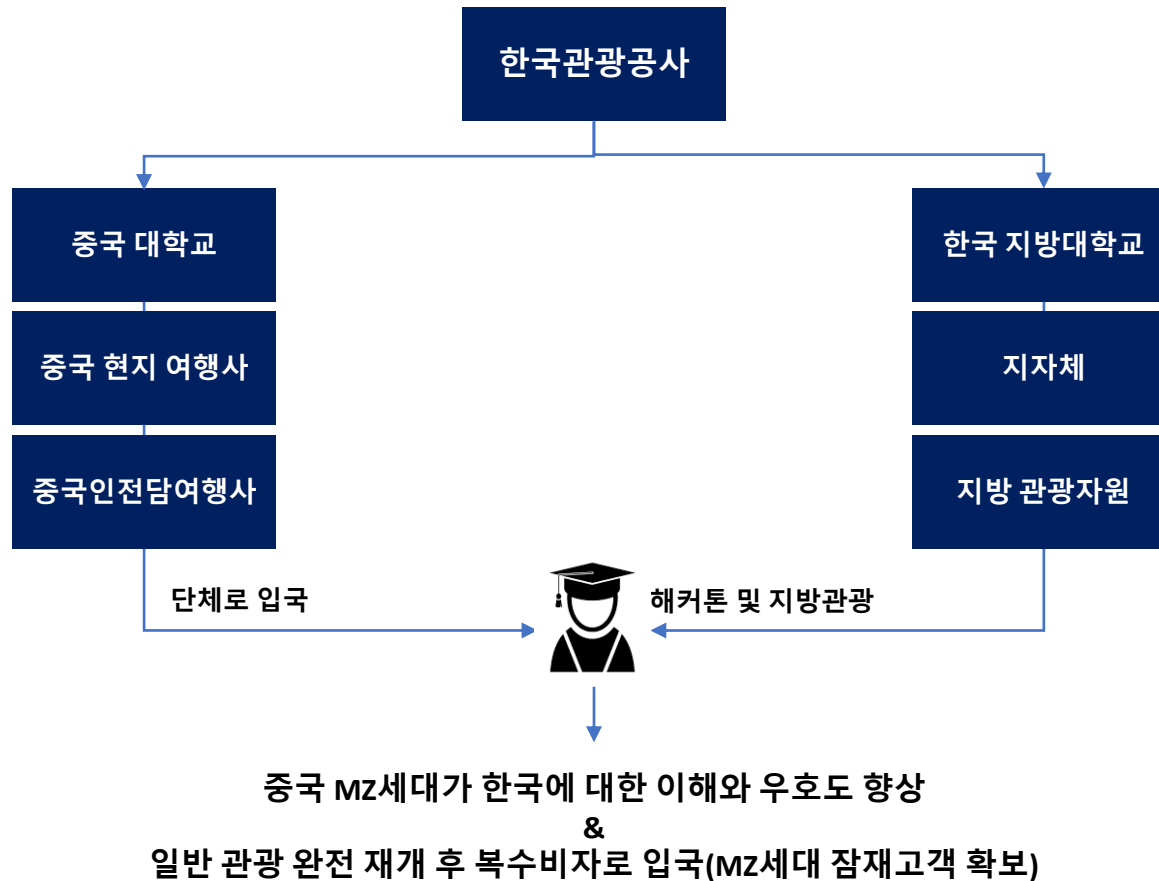
중국 4년제 본과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 (단위: 만 명)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data.stats.gov.cn

## 6. 1단계 세부과제\_한·중 대학생 해커톤(마케팅 전략)

전자학력증명으로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한 중국 대학교와 한국 지방대학 중심으로  
해커톤 프로그램 구축 및 홍보



## 6. 1단계 세부과제\_한·중 대학생 해커톤(마케팅 세부과제)

이벤트성 해커톤이 아닌 양국의 산업교류 및 비즈니스 목적 방문객 활성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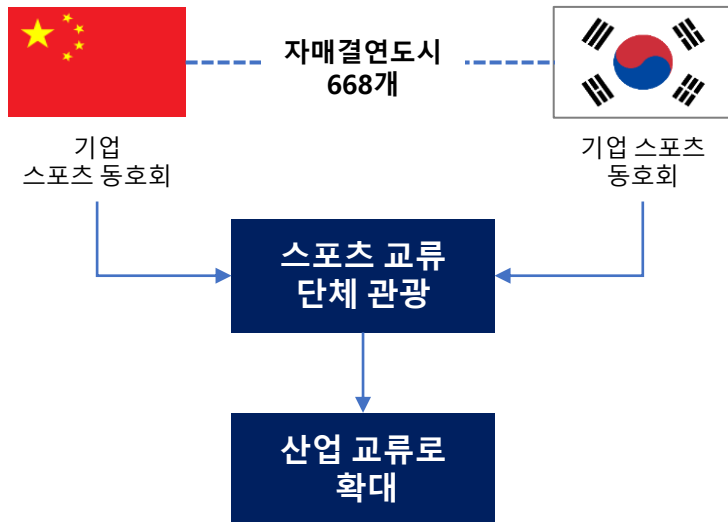
구분	세부과제	2022년				2023년			
		1	2	3	4	1	2	3	4
		특정대상 제한적 비자 발급 재개				일반관광 입국 완전 재개			
한국	지방 대학교 중심 해커톤 프로그램 모집	➡							
	한·중 해커톤 (방학 기간 집중 추진)		➡		➡				
	한국 엔젤투자 펀드 대상 IR 대회 (중소기업청, 엔젤투자협회 등과 공동)			➡		➡			
중국	중국 대학교 대상 해커톤 참여 모집	➡							
	중국 엔젤투자 펀드 대상 IR 대회 (중국 엔젤투자펀드와 공동)			➡		➡			

[참고] 1) 중국 주요 엔젤투자 펀드: 真格基金, 创新工场, 险峰长青, 联想之星, 梅花投资, 阿里巴巴投资, 洪泰基金, 英诺天之基金, 德迅投资, 隆领投资  
 2) 2021년 엔젤투자10대브랜드순위: [https://www.maigoo.com/maigoo/6293tstz\\_index.html](https://www.maigoo.com/maigoo/6293tstz_index.html)

## 6. 1단계 세부과제\_한·중 기업스포츠 동호회 교류(개요)

## 중국 기업 내 스포츠 동호회 유치를 통한 지방 단체관광 재개

세부과제 6.	한·중 기업스포츠 동호회 교류
과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기업 내 스포츠 동호회와 한국 스포츠 동호회와의 친선 경기 및 국내 관광</li> <li>중국 기업의 MICE 단체 유치의 새로운 모델 추진</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과 중국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총 668개) 소재 기업체 대상 스포츠를 매개체로 한 교류 증대</li> <li>중국 기업의 MICE 단체 유치의 새로운 모델 추진</li> <li>지방관광 재개</li> </ul>



한·중 기업스포츠 동호회 교류	
대상	중국 기업 내 스포츠 동호회 단체
제도적 수단	코로나19로 일반 관광이 재개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 단체관광 허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스포츠 동호회와의 친선 경기</li> <li>지방 관광</li> </ul>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국의 감정적 반감 해소</li> <li>한국에 우호적인 잠재 MZ고객 확보</li> <li>지방 관광 활성화</li> </ul>

## 6. 1단계 세부과제\_한·중 기업스포츠 동호회 교류(마케팅 전략)

중국의 기업간 스포츠리그 SNS 플랫폼을 통해 잠재 고객팀을 발굴하고, 한국과의 친선경기를 해당 플랫폼에 홍보하면서 중국 기업의 관심 및 참여 유도

## 중국의 기업간 스포츠리그 SNS 홍보 플랫폼 '17VS'

17VS企业间赛事社交传媒平台      参赛价值      传媒价值      赛事案例

**珍品网2018兄弟杯企业间篮球争霸赛**

珍品网2018兄弟杯企业间篮球争霸赛于2018年5月5日至6月10日在千帆篮球中心举办。本次赛事由珍品网主办，17VS企业间赛事运营平台承办，以58集团、新浪、国美、网易、北汽恒盛、电信集成、去哪儿网、VIPKID、正和岛、便利蜂为代表的32支企业球队报名参加。前国家队男篮名将“京都球侠”焦健和前中国女篮主力“篮球女侠”许诺到场为32支企业球队加油助威并于赛后分别带领冠军队和MVP联队进行了友谊赛交流。最终58集团与天翼云并列冠军，智慧图获得季军。本赛事共有144903参赛企业在职员工参与17VS系统社交、互动。



万科V联盟企业  
2018迎新杯足球联赛



珍品网2018兄弟杯  
企业间篮球争霸赛



国苑体育  
2018科创企业足球联赛



17VS金羽杯  
企业间羽毛球联赛

17VS 홈페이지(<http://www.17vs.net/>)



2019년  
기업간 당구 경기  
중계 모습

龙珠z电光火石3, 白神贝吉特17vs白神悟饭  
QQ音乐小程序 13天前

软17vs德西荷  
bilibili小程序 1年前

巅峰对决——冠军17vs最好18混剪  
乱扯的Jerry 1年前

忍者神龟格斗 17vs虐心  
bilibili小程序 2年前

17vs 200海寇  
bilibili小程序 3年前

17VS主办企业间台球挑战赛圆满落幕, 中国平安夺冠  
17VS 1年前

온라인게임, 축구,  
배구, 농구 등 기업간  
스포츠리그 연계

## 6. 1단계 세부과제\_한·중 기업스포츠 동호회 교류(마케팅 세부과제)

##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2월4일~20일) 직후 양국 기업간 스포츠동호회 교류 추진

구분	세부과제	2022년				2023년			
		1	2	3	4	1	2	3	4
		특정대상 제한적 비자 발급 재개				일반관광 입국 완전 재개			
한국	한·중 스포츠교류 '직장인 올림픽' 기획 수립 (종목, 경기 수, 장소 등)	➡							
	지방기업 내 스포츠팀 확보	➡							
	지역 특화 워크ेशन 상품에 10인 이상 단체관광 인프라 추가	➡							
중국	17VS 등 기업 내 스포츠 동호회 플랫폼에 한·중 스포츠교류 '직장인 올림픽' 홍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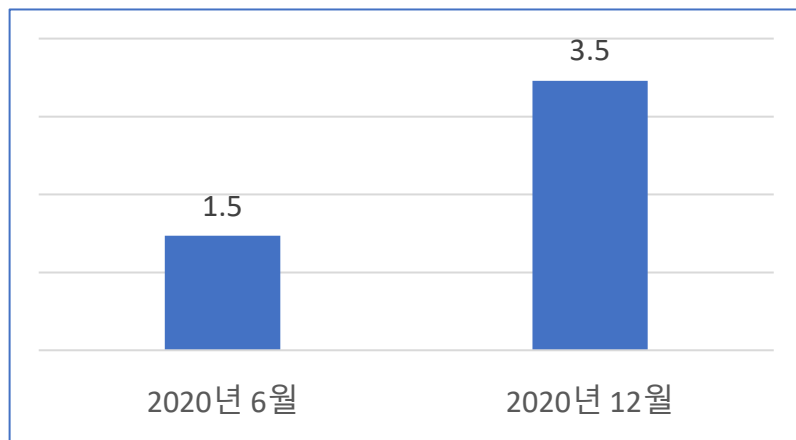


## 6. 1단계 세부과제\_중국 고소득 프리랜서 중심 위케이션(개요)

## 중국 고소득 프리랜서 중심 한국 지방 위케이션 추진

세부과제 7.	프리랜서 중심 위케이션
과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프리랜서 대상 한국의 위케이션 형태의 장기체류</li> <li>• 중국과 다르게 지역봉쇄 등의 제약이 없는 한국에서 관광과 원격업무를 병행하는 관광상품</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지역봉쇄와 같은 방역조치를 피하고자 하는 20~40대 고소득 프리랜서를 잠재고객으로 확보</li> <li>• 지방의 휴양관광콘텐츠 및 한국의 우수한 IT환경을 활용한 개별 장기관광 모델 확보</li> </ul>

중국 원격근무자 수 (단위: 억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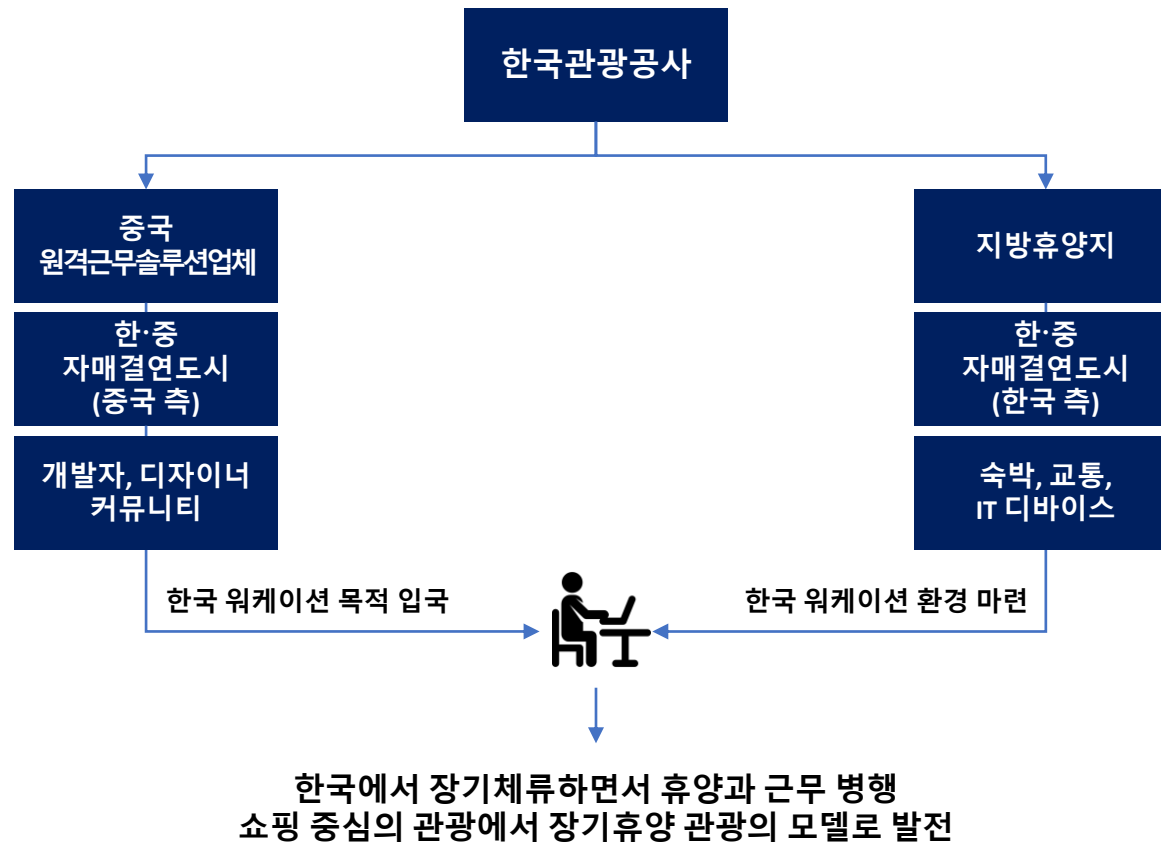


출처: 중상정보망. 원격근무시장규모 폭발적 성장. 2020년 중국원격근무자 3.46억 명  
(<https://www.askci.com/news/chanye/20210204/1008471351476.shtml>)

프리랜서 중심 위케이션	
대상	중국 고소득 프리랜서 (개발자, 디자이너, 창작자 등)
제도적 수단	• 복수비자 유효기간 초과자 또는 기한 임박자의 경우 비자재발급 수수료 면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휴양지 장기체류</li> <li>• 위케이션에 필요한 오피스 디바이스 렌탈</li> </ul>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한 중국인의 고객군 확대</li> <li>• 중국인 관광객 1인당 체류시간 증가로 지방관광 확대</li> </ul>






## 6. 1단계 세부과제\_중국 고소득 프리랜서 대상 워케이션(마케팅 전략)

중국의 원격근무 솔루션업체를 주요 채널로 하여 프리랜서 및 원격근무자에게 한국 워케이션 상품 노출



## 6. 1단계 세부과제\_중국 고소득 프리랜서 대상 위케이션(마케팅 세부과제)

## 중국인관광객 입국 및 지방 이동을 위한 방역 프로토콜 및 지방 장기체류 환경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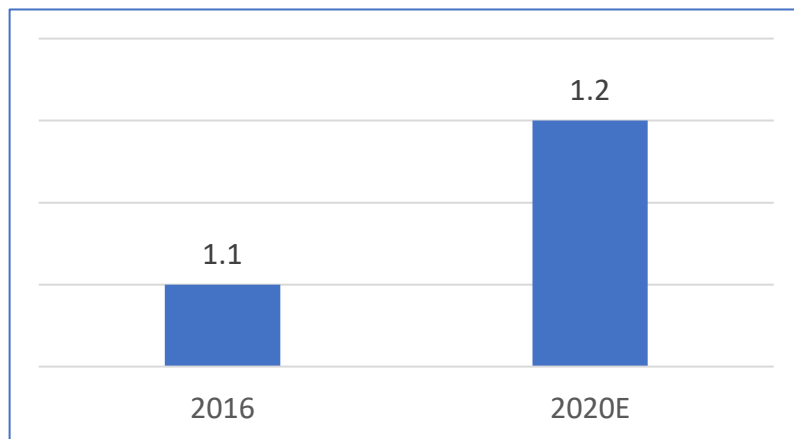
구분	세부과제	2022년				2023년			
		1	2	3	4	1	2	3	4
		특정대상 제한적 비자 발급 재개				일반관광 입국 완전 재개			
한국	지역특화 중국인 대상 위케이션 인프라 구축								
	개별 중국인 장기체류에 대한 방역 프로토콜 마련								
	위케이션 전문상담 채널 마련								
중국	IT개발자, 디자이너, 기타 창작자 대상 한국 지방관광 및 위케이션 인프라 홍보								
	우리나라 지역별 위케이션 체험단 모집								

## 6. 1단계 세부과제\_실버부부 가족 단체여행(개요)

## 중국의 고소득 고령자 대상 맞춤형 패키지여행 제공

세부과제 8.	실버부부 가족(2인) 단체여행
과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세 이상 실버부부 대상 단체여행 일시적 허용</li> <li>자유여행을 위한 준비와 관광정보 App 사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단위 단체 여행</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20~40대 중심 방문객에서 50~60대 이상 시니어층으로 고객군 확대</li> <li>고소득 2인 시니어가족을 위한 럭셔리여행 모델 확대</li> </ul>

자녀 독립 후 고령부부만 거주하는 인구 (단위: 억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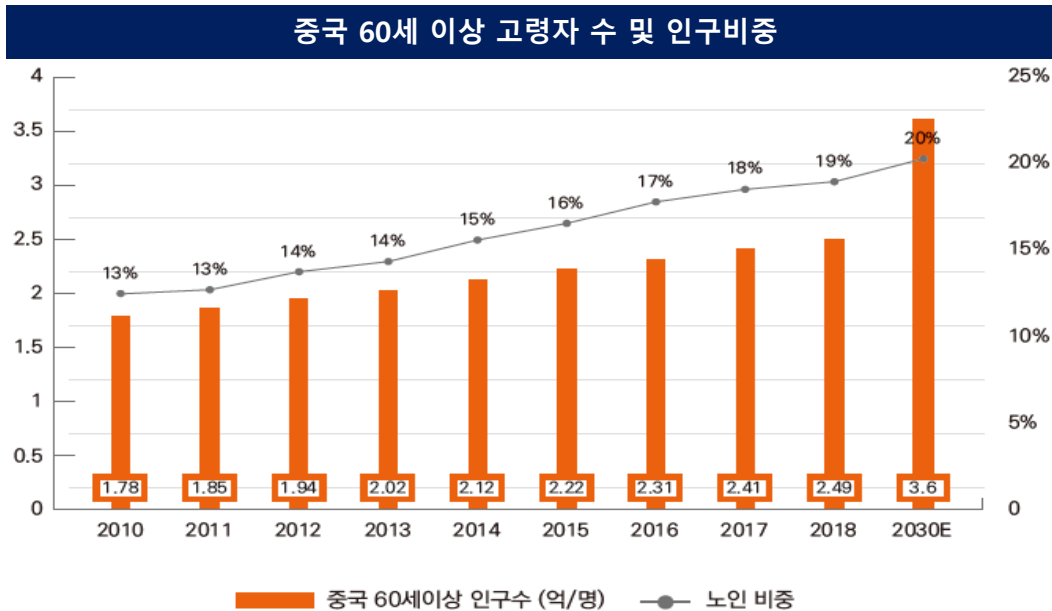


실버부부 가족 단체여행 일시적 허용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2인)
제도적 수단	단체여행의 기준을 기존 3인에서 실버부부를 대상으로 2인으로 일시적 허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버부부 대상 럭셔리여행</li> <li>웰니스관광</li> </ul>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한 중국인의 고객군 확대</li> <li>쇼핑 중심의 저가형 단체관광에서 고소득 2인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부가가치 상품 확보</li> </ul>

출처: 중국산업정보망. 2020년 중국 각등급별 노인인구 수 및 자녀 독립 후 고령부부 인구, 독거노인 후  
 주세 예측(<https://www.chyxx.com/industry/202001/829508.html>)

## 6. 1단계 세부과제\_실버부부 가족 단체여행(개요)

중국의 고소득 고령자부부(2인)인 비자발급, 숙박 예약, 언어 등의 불편 없이 한국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패키지형 단체관광 조건 일시적 완화



도시 쇼핑관광



지방 웰니스관광

## 고령자 저축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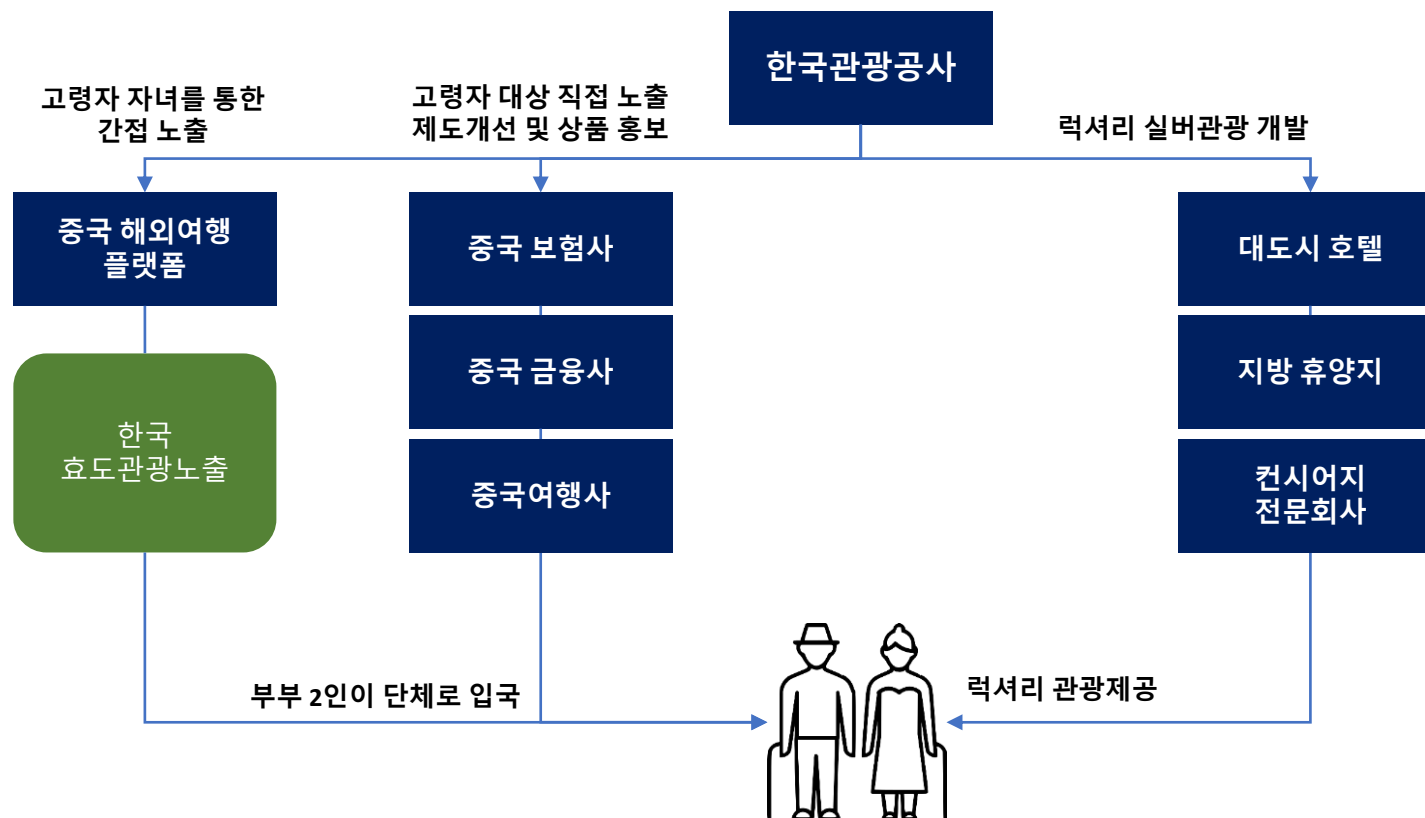
한화 2,950조 원

## 고령자 퇴직보험금

한화 1,215조 원

## 6. 1단계 세부과제\_실버부부 가족 단체여행(마케팅 전략)

## 소비력을 갖춘 고령자 대상 직접 노출과 고령자 자녀를 통한 간접 노출 모두 추진







출처: 2020년 중국노령화인구수, 인구노령화 문제, 인구노령화 해결방안 및 노령산업발전전구모전망, 중국산업정보망

출처: 대건강산업백서: 중국대건강산업 발전보고서

출처: 중국노인소비능력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한다. 은발경제의 업그레이드, 중국소후망

## 6. 1단계 세부과제\_실버부부 가족 단체여행(마케팅 세부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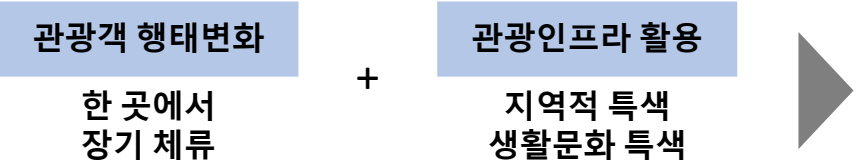
랜선투어 콘텐츠를 활용하여 고령자와 자녀들이 한국관광 전 안심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구분	세부과제	2022년				2023년			
		1	2	3	4	1	2	3	4
		특정대상 제한적 비자 발급 재개				일반관광 입국 완전 재개			
한국	지역특화 웰니스의료관광 개발 (보건복지부: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추진 중)								
	실버관광 랜선투어 프로그램 개발								
중국	중국 보험사, 금융사, 여행사 대상 럭셔리 실버관광 홍보								
	럭셔리 실버관광 랜선투어 홍보회								

6. 1단계 세부과제\_한국식으로 살아가기(개요)

2023년 일반관광 입국 재개 시점에 중국인 장기여행객 유치

세부과제 9.	한국식으로 살아가기
과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인이 한국에서 1주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관광상품</li> <li>개인자유여행, 장기여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에서 한국식 생활문화를 느끼며 살아보는 경험 제공</li> <li>제주를 포함 지역적 특색 기반과 한옥호텔과 같은 생활문화 특색 기반 체험관광상품으로 확대</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로 중단된 해외여행의 본격 재개시점에 한국관광의 새로운 모델 제시</li> <li>랜선투어와 연계하여 중국인 잠재관광객에게 한국 관광동기 부여</li> </ul>



한국식으로 살아가기	
대상	개인자유 여행, 장기여행 소비자
제도적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복수비자 발급자 중 코로나19로 유효기간 초과자의 신규발급 비용 면제</li> </ul>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의 지방 또는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에서 1주일 이상 체류</li> </ul>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쇼핑과 한류콘텐츠 외 한국의 생활문화를 경험하는 한국 관광의 새로운 모델 제시</li> <li>중국인 관광객 1인당 체류시간 증가로 지방관광 확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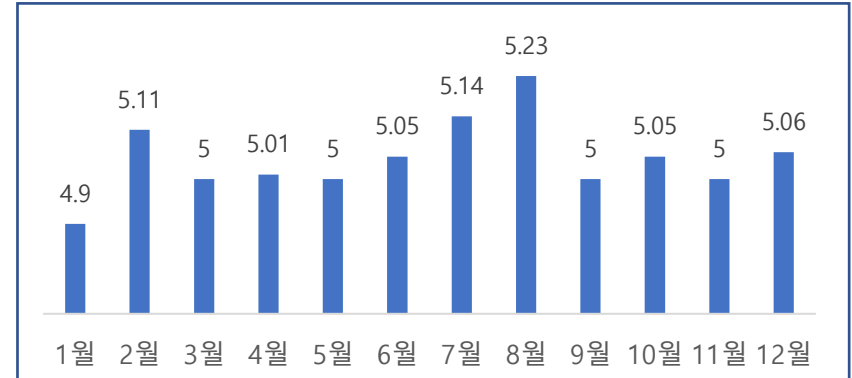
## 6. 1단계 세부과제\_한국식으로 살아가기(마케팅 전략)

## 여행 Vlog 창작자 중심 마케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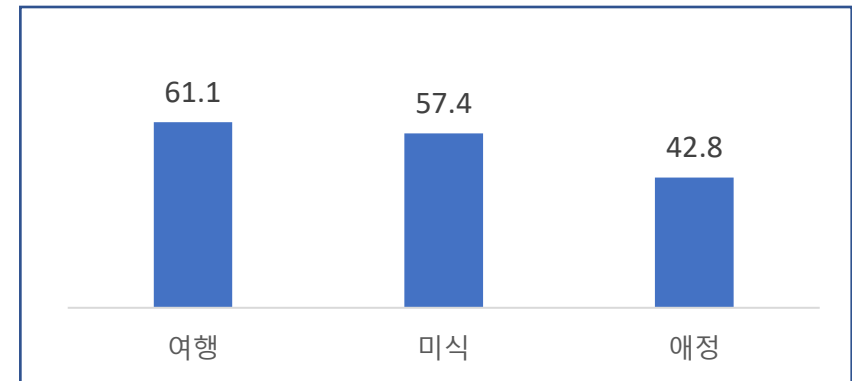
출처: . 상단이미지 - 샤오홍수 / 하단 이미지: 바이두 Vlog

2020년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일일 사용자 평균 (단위: 억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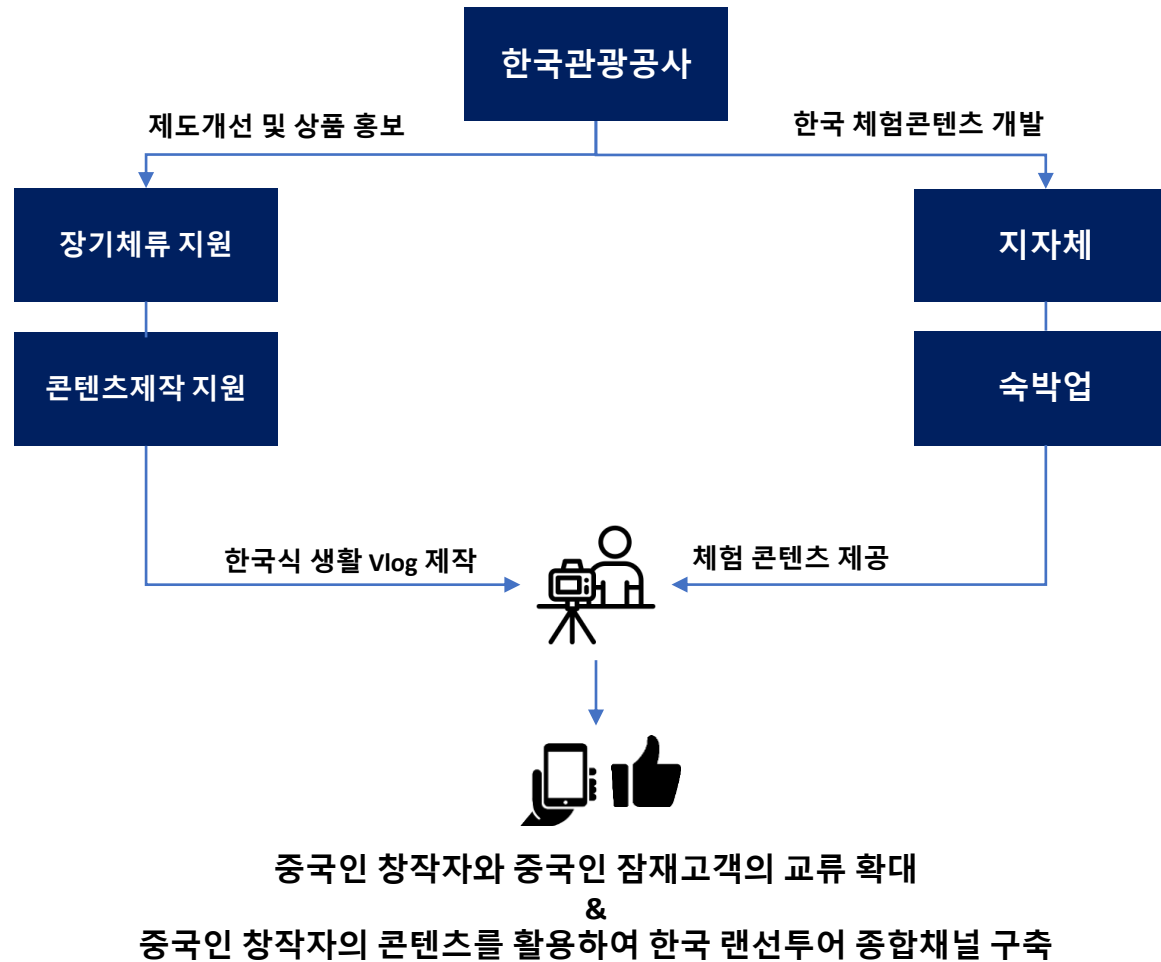
출처: 易观分析. 중국 온라인 동영상시장 연도보고(中国网络视频市场年度报告2021)

Vlog 시청자의 선호 콘텐츠 분야 (단위: %)

출처: . 중국청년망. <https://baijiahao.baidu.com/s?id=1635549262992302210&wfr=spider&for=pc>






## 6. 1단계 세부과제\_한국식으로 살아가기(마케팅 전략)

여행 Vlog 창작자의 창작을 지원하고, 이들의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협업



## 6. 1단계 세부과제\_한국식으로 살아가기(마케팅 세부과제)

## 한국의 지역과 다양한 문화를 중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온라인 콘텐츠 확보

구분	세부과제	2022년				2023년			
		1	2	3	4	1	2	3	4
		특정대상 제한적 비자 발급 재개				일반관광 입국 완전 재개			
한국	지역 특색기반 장기체류 상품 개발 및 인프라 개선								
	한국 생활문화기반 장기체류 상품 개발 및 인프라 개선 (도시 생활, 한옥 생활 등)								
	온라인에서 한국식으로 살기 (랜선투어 채널 구축)								
중국	중국 Vlog 창작자 대상 한국 장기체류 상품 설명회								
	한국 장기체류 Vlog 콘테스트								

## 6. 1단계 세부과제\_MICE 인센티브관광 유치(개요)

## 2023년 일반 관광 입국 완전 재개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MICE 단체관광 유치 필요

## 세부과제 10.

## MICE 인센티브 관광 유치

## 과제 개요

- 중국 기업체의 인센티브 대규모 단체 관광객 유치
- 한국과 중국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총 668개)를 대상으로 자매결연 도시 소재 기업간 인센티브관광 추진

## 목표

- 대규모 단체관광객 유치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를 코로나19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
- 지방의 관광수용력을 본격 개선하여 대규모 단체관광객 수용 태세 마련



2019년 11월

중국 상하이 화장품제조판매회사 웨이나화장품 임직원 3,300명 방문

출처: MTN뉴스. 중국 상하이 웨이나화장품 임직원 3,300여명 인센티브단  
방한(<https://news.mtn.co.kr/news-detail/?v=2019121016250468622>)



2020년 1월

중국 선양 건강식품·보조기구회사 '이윽탕' 임직원 5,000명 서울 방문

출처: 서울경제, 중국 인센티브 관광객 5,000명 한국 방문. 사드 이후  
최대 규모(<https://www.sedaily.com/NewsView/1YXJZ9XTCJ>)

## 6. 1단계 세부과제\_MICE 인센티브관광 유치(개요)

일반적인 단체관광은 저가쇼핑 관광 등의 이슈가 계속 발생하지만,  
인센티브 관광은 인원 규모도 크고, 1인당 평균 지출액도 일반 관광객의 1.5배 수준

## 중국 인센티브 관광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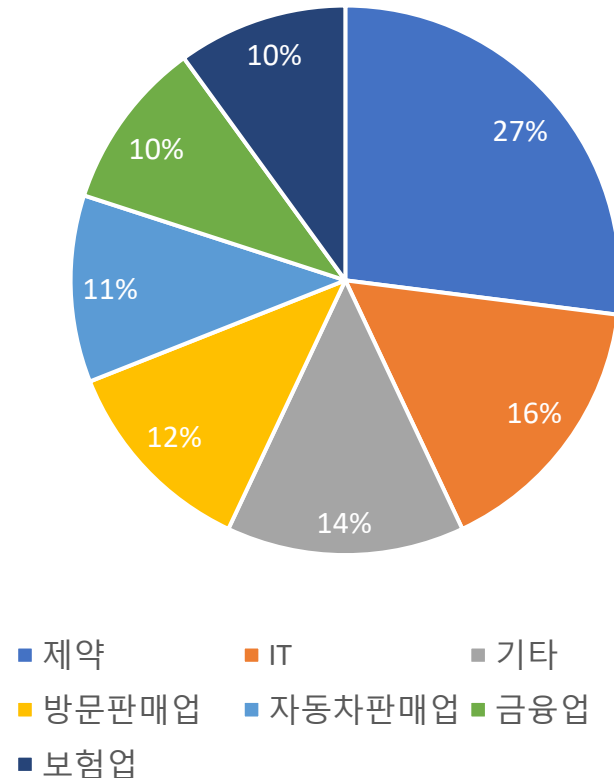


뉴스킨 중국법인, 실적이 좋은 판매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행사 개최

## 2016년 4월, 8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인센티브 관광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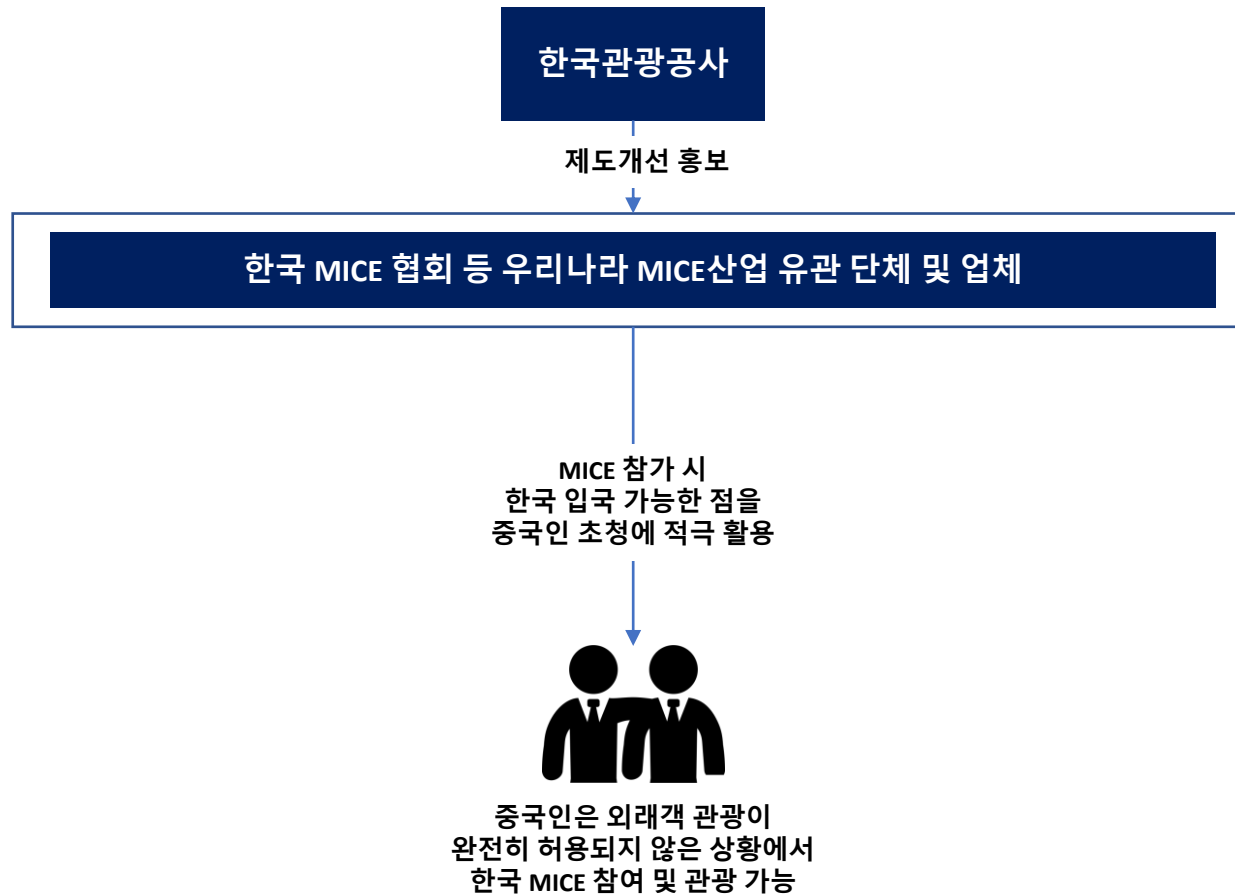
참가자	4,000명
항공편	7개 항공사, 60편의 항공편
객실	12개의 5성 호텔, 2,000개 객실
교통	150편의 버스
행사보조	800명
경제적 파급효과	480억 원

## 중국 인센티브관광 주요 업종






## 6. 1단계 세부과제\_MICE 인센티브관광 유치(마케팅 전략)

## 우리나라 MICE 수행사에게 중국인 입국 완화 사실을 홍보하는 마케팅



6. 1단계 세부과제\_MICE 인센티브관광 유치(마케팅 세부과제)

인센티브관광 주요 추진 산업군별 우리나라 지역 특화형 MICE 프로그램 개발

구분	세부과제	2022년				2023년			
		1	2	3	4	1	2	3	4
		특정대상 제한적 비자 발급 재개				일반관광 입국 완전 재개			
한국	지역 및 산업 특화형 MICE 프로그램 개발 (제약·자동차·금융·보험 등)								
중국	관광공사 지사 활용 MICE관광 전문상담 상시 운영								
	주요 고소득 도시 외, 한국과 중국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및 산업 특화형 MICE 프로그램 로드쇼								

## **VI.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및 유치활성화 전략 \_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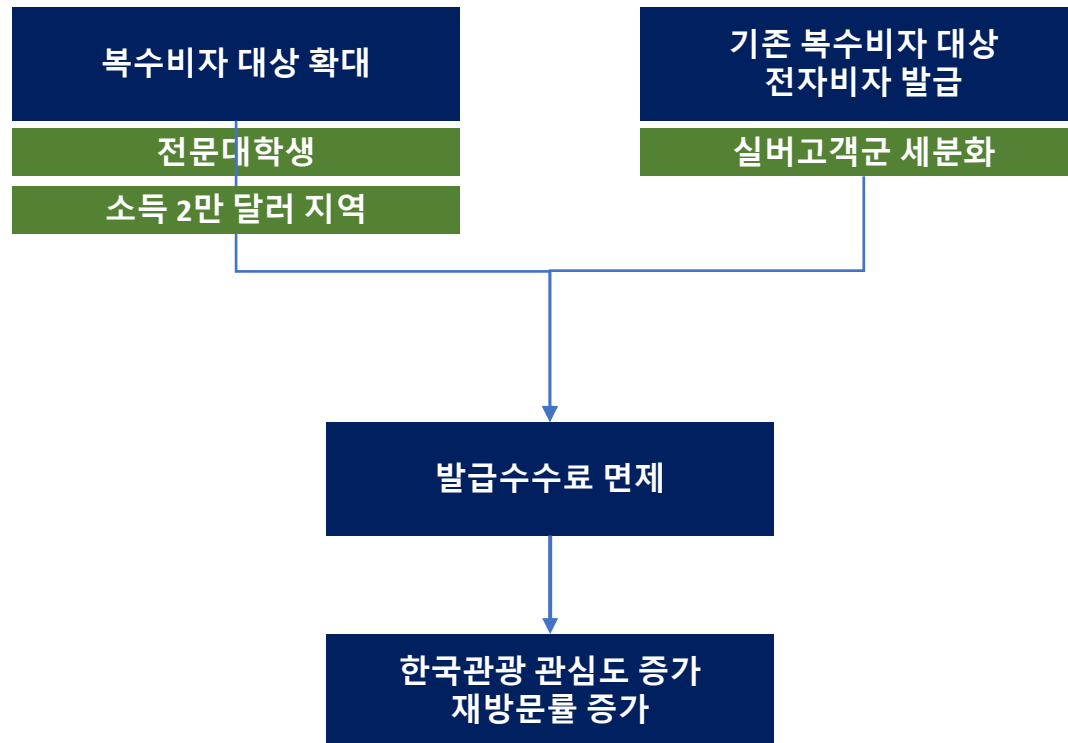
7. 2단계 세부과제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복수비자 대상자는 전자비자 대상에 포함하여  
향상된 비자 발급 편의성을 기반으로 재방문 잠재고객 확대

구분	세부과제	2024년				2025년			
		1	2	3	4	1	2	3	4
		복수비자 대상 확대				전자비자 대상 확대			
개인	1인당 2만 달러 이상 신규 도시 한시적 발급 수수료 면제 홍보								
	한국 4계절 관광상품으로 반복 입국 유도								
	퍼스널 브랜딩 관광								
	그루밍실버 페스티벌								
	기존 복수비자 대상자 대상 전자비자화								
	세분화된 관광객 대상 USIM 마케팅								
	한중 자매결연 도시간 Family MICE								

## 7. 2단계 세부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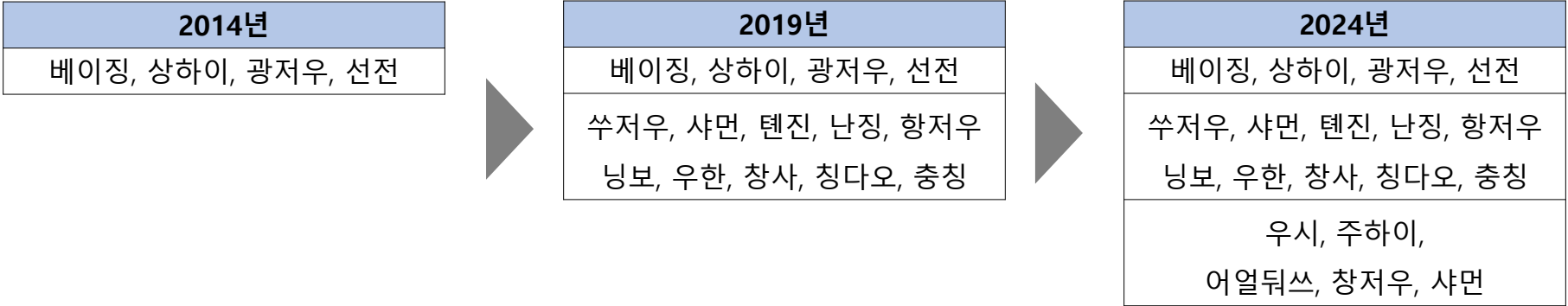
복수비자 확대 대상에게 신규 비자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관심도를 높이고,  
기존 고객군을 더욱 세분화하여 복수비자 활용 재방문률 향상



7. 2단계 세부과제\_복수비자 신규도시 홍보

복수비자 적용 신규도시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홍보

세부과제 1.	복수비자 신규도시 홍보 – 한시적 복수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과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시, 주하이, 어얼뎬쓰, 창저우, 샤먼 등 1인당 GDP 2만 달러 이상 지역 호구자 복수비자 발급</li> <li>신규 복수비자 발급 지역 호구자 대상 복수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수비자 발급 지역 확대로 재방문 유도 잠재고객 확보 (신규지역 인구 1,450만 명의 10%)</li> <li>신규지역 특징 분석에 기반한 한국 맞춤형 관광 홍보</li> </ul>



7. 2단계 세부과제\_중국 MZ세대가 보여주는 한국 4계절 관광상품

중국의 MZ세대 및 복수비자 신규 발급지역에 4계절의 특징을 담은 관광상품 홍보

세부과제 2.	복수비자로 누리는 한국 4계절 관광
과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4년제, 전문대생을 포함한 신규 복수비자 대상 및 지역에 한국의 4계절 관광을 통해 반복 입국 유도</li> <li>• 봄-여름-가을-겨울 동일 지역을 방문하여 관광 체험</li> <li>• 신규대상자에게는 일시적으로 비자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방문 관심 유도</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4년제, 전문대생을 포함한 신규 복수비자 대상 및 지역에 한국 방문 동기 부여</li> <li>• 한국은 자주 방문해도 늘 새롭다는 이미지 전달</li> </ul>



같은 관광지라도 4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4계절 여행 VLOG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GSQjMrel9SI>

중국 MZ세대가 보여주는 한국 4계절 관광상품	
대상	중국의 4년제, 전문대생을 포함한 신규 복수비자 대상 및 지역
제도적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수비자 신규 발급지역 확대</li> <li>• 전문대생 복수비자 발급대상에 포함</li> </ul>
구성	• 봄-여름-가을-겨울 여행
효과	• 한국은 자주 방문해도 늘 새롭다는 이미지 전달

## 7. 2단계 세부과제\_퍼스널 브랜딩 관광

## 퍼스널 브랜딩 관광으로 한국 관광은 소비성이 아닌 자신을 위한 투자라는 문화 전달

세부과제 3.	퍼스널 브랜딩 관광
과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방문 목적에 자기성장 가치 부여하여 한국 입국 동기 확대</li> <li>• 한국 의료미용, 패션, K팝 관련 교육실습기관과 연계하여 한국 콘텐츠를 활용한 퍼스널 브랜딩 노하우 제공</li> <li>• 학습과 체험이 융합된 상품을 통해 관광수익모델 다변화 시도</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자신의 자기성장에 필요한 콘텐츠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 구축</li> <li>• 복수비자로 부담 없이 방문하여 한국에서 자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경험 제공</li> <li>• 관광이 소비성 문화가 아니라 투자성 문화라는 인식 전달</li> </ul>

전문대학생 포함 중국 대학생

의료관광객

그루밍 실버

한국의 의료미용 · 패션 · 화장품을 연계하여  
자신의 개성 도출과 브랜드화

## 7. 2단계 세부과제\_그루밍실버 MICE

## 그루밍실버 고객을 위한 뷰티 · 패션 · 헬스 · 금융 MICE 추진

## 세부과제 4.

## 그루밍실버 MICE

## 과제 개요

- 우시, 주하이, 어얼뉘쓰, 창저우, 샤먼 등 1인당 GDP 2만 달러 이상 지역 호구자의 고령자 대상
- 한국의 뷰티, 패션, 헬스, 금융투자 상품 등을 소개하는 박람회 추진

## 목표

- 중국 고소득 고령자 개별여행객 방문 시장 구축
- 고령자 관광을 웰니스 체험형에서 콘텐츠 소비성 관광으로 전환

## 그루밍실버 페스티벌(안)



실버 패션



실버 화장



실버 성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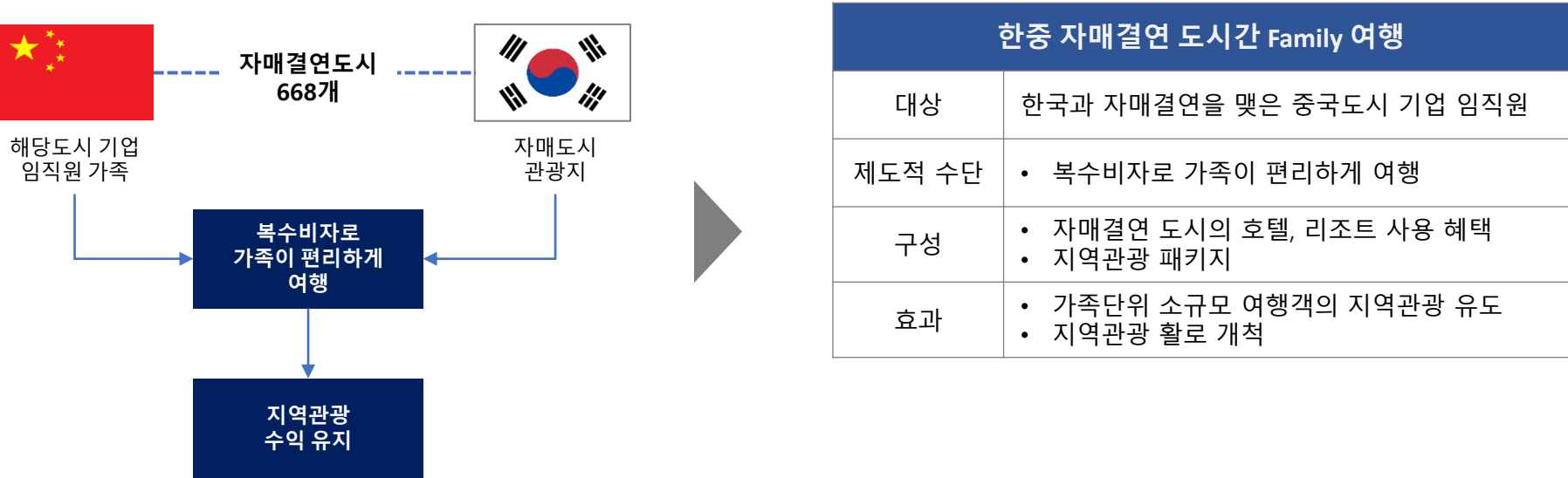
자산관리 자문

중국 그루밍실버를 위한 정기적 페스티벌

7. 2단계 세부과제\_한중 자매결연 도시간 Family 여행

기존 MICE 관광 대상을 중국인 가족단위 테마관광으로 연결

세부과제 5.	한중 자매결연 도시간 Family MICE
과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중국기업의 임직원 대상 MICE를 임직원 가족 대상 테마관광으로 확대</li> <li>한국과 중국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총 668개)를 대상으로 자매결연 도시의 호텔, 리조트 사용 시 혜택 제공</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의 복수비자 대상자 가족들이 단체관광 패키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올 수 있는 관광지 이미지 전달</li> <li>가족단위 소규모 여행객의 입국 빈도를 높여서 지역관광 수익을 일정하게 유지</li> </ul>



## 7. 2단계 세부과제\_복수비자 대상자 USIM 마케팅

복수비자로 입국하는 중국인에게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USIM을 제공하여,  
한국 체류 편의성을 높이고, USIM을 통해 복수비자 관광객의 관광행태 정보 취합

## 세부과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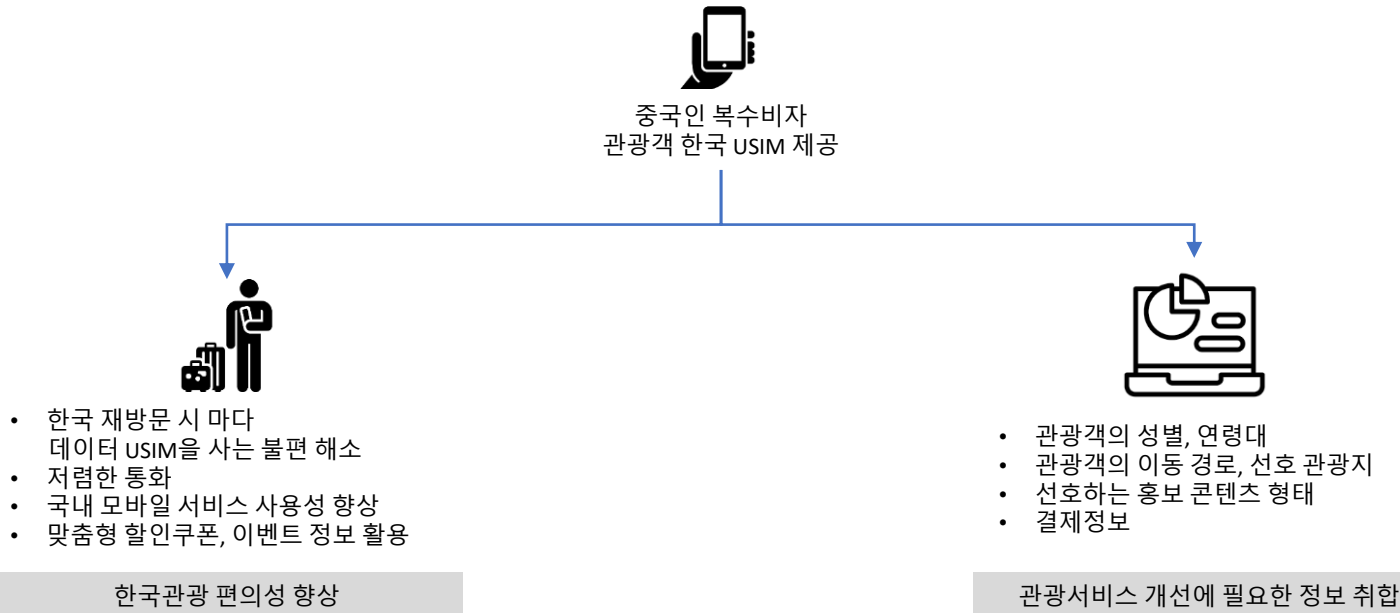
## 복수비자 입국자 대상 한국 USIM 제공

## 과제 개요

- 복수비자로 입국하는 관광객에게 USIM을 제공하여, 중국인이 한국에서 저렴하게 통화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환경 마련
- 관광객 USIM 정보를 바탕으로 할인쿠폰, 이벤트 알림 등을 전송하여 관광콘텐츠 홍보 및 판매 확대

## 목표

- 복수비자로 입국하는 관광객에게 USIM을 제공하여, 한국에서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
- 관광객 USIM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인 관광개선을 위한 DB 구축





7. 2단계 세부과제

2025년부터 복수비자 대상자를 전자비자 대상자에 포함하여, 중국인 관광객의 비자 발급 편의성을 높이고, 해외공관의 비자발급 업무 부담 감소

현행 전자비자 대상

E비자 및 단체비자

개선안: 복수비자 대상 확대 및 전자비자 발급

지역	대상
<div>현행 14개 지역</div> <div>+</div> <div>우시, 주하이, 창저우, 어얼뒤쓰, 샤먼</div>	<div>대학생 및 17세 이하, 55세 이상</div> <div>+</div> <div>전문대학생</div>

<개별 복수비자 전자화만으로 인한 산업분야별 파급효과>

(단위:백만원, 명)

	생산파급액	수입파급액	부가가치파급액	고용 파급인원
전체	10,810,642	1,444,428	4,085,023	40,529
전체관광	6,195,242	299,042	4,022,958	50,166
관광분야	6,330,658	197,480	2,855,002	35,067
제반분야	5,867,989	220,050	3,859,331	47,818
비관광산업분야	9,326,718	1,529,063	3,035,556	24,905

## **VI.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및 유치활성화 전략 \_3단계**

### 8. 3단계 세부과제

## 한국 재방문 가능성이 높은 중국인 대상으로 K-ETA 활용 제한적 무비자 입국 허용 확대



## 8. 3단계 세부과제

무비자 입국 허용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도출하는 제도적 수단이나, 양국의 외국인 대상 개방성 차이로 인해, 무비자협정이 아닌 일본과 같은 항구적 비자면제 형태 활용

한국과 중국의 'Welcoming Countries Rank(WCR)\*' 순위

순위	국가	무비자 입국국가 수
1	볼리비아,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에티오피아, 가봉, 기니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미크로네시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카타르, 르완다, 사모아, 세이셸, 소말리아, 동티모르, 투발루	198개국
38	한국	112개국
79	중국	20개국

일본의 항구적 비자면제 형태

## 일방적 비자면제

- 1995년 당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일본인의 비중이 가장 높아, 한국 측에서 국가 관광수익 증대를 위해 일본인 무비자 입국허가
- 이후 일본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단계적으로 입국비자를 면제하여 현재 양국은 서로 항구적 입국비자 면제 중
- 상호 무비자협정체결 방식이 아니므로, 어느 일방이 무비자 입국을 취소할 수 있음

### 8. 3단계 세부과제

무비자 입국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의 무비자 입국제도 입법 취지에 의거하여 국익이 명확해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무비자 입국 대상 및 시기	입법취지	목적
제1호	등록 외국인의 재입국 시	체류외국인에게 행정편의 제공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제2호	비자면제협정 국가국민 입국 시	상호 인적교류	인적교류 확대 및 상호이익 증대
제3호	국제친선, 관광 등 국가이익을 위하여 지정된 자	국가이익을 위한 입국허가 확대	입국문호 개발 및 국가이익 증대
제4호	난민인정자의 재입국 시	난민 인정자에게 행정편의 제공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중국인 외래객 대상 무비자입국은 제2호 또는 3호 기반으로 추진

## 8. 3단계 세부과제

### 현재 중국인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은 주로 제주도 관광객 중심으로 허용

- 인천공항 환승여행객(B-2) 외 『제주단체 환승객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도 있으나 역시 제주도로 입도해야 하는 조건임
- 『제주단체 환승객 무비자 입국허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제주를 방문하기 앞서 우리나라 내륙의 지정된 공항을 거쳐 가는 경우 해당 권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일시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로, 당초 체류가능일을 3일로 했으나, 지자체의 요청으로 5일로 확대
- 2019년 4월 기준,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내륙 환승관광을 할 수 있는 공항은 총 7개
- 해당 공항으로 입국하면 해당 중국인들은 해당권역과 수도권을 5일간 관광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최장 15일간 체류 가능

#### 제주 단체 환승객 무비자 입국허가 공항 및 관광가능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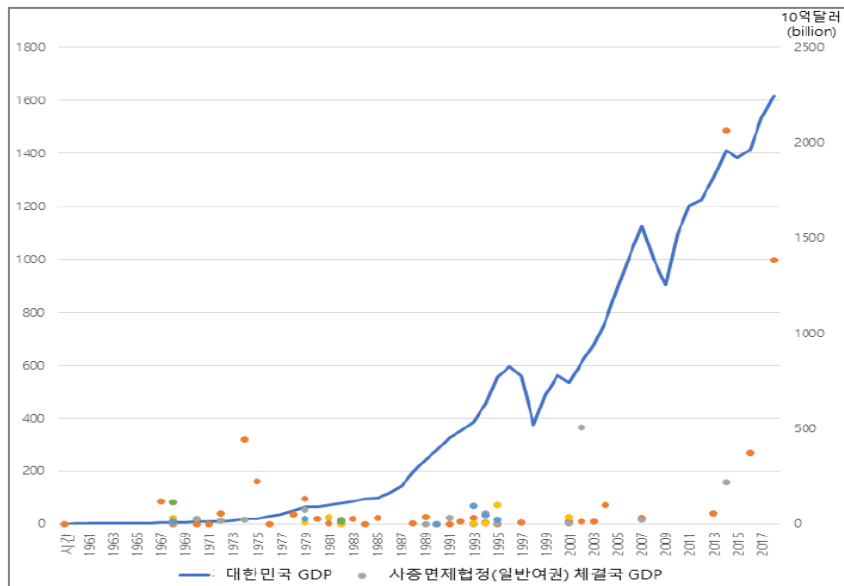
입국 공항	관광 가능 지역
인천, 김포 국제공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김해, 대구 국제공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수도권
양양 국제공항	강원도, 수도권
청주 국제공항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수도권, 전라북도
무안 국제공항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수도권

## 8. 3단계 세부과제

**무비자 협정 또는 상호주의 계약을 할 때 상대국을 선정하는 뚜렷한 기준과 원칙이 없으며, 외교 또는 정치적 이유로 선정되는 것이 대부분**

- 상대국과의 GDP 단순비교는 비자면제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님
- 비자면제와 같은 국가의 협약 및 조약은 해당 정권의 필요에 의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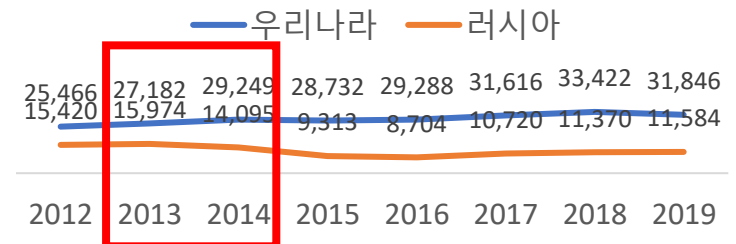
우리나라 GDP 변화와 연도별 무비자 입국대상국



시대	특징
~1970년대	유럽과 같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과 체결
1980~9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여서 당시 비자면제체결 대상국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음 당시 체결 배경은 경제규모 및 국제화와는 큰 상관이 없음 (예: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도미니카연방, 세인트 루시아 등)
1990~최근	중동지역 중심(카자흐스탄 2014년, 아랍에미리트 2016년)으로 비자면제가 이루어짐

비자면제협정 당시 양국 GDP 상황

단위: USD



## 8. 3단계 세부과제

### [참고사례]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중국인 제한적 무비자 입국허가 시행하였고, 동기간 중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자는 복수비자(5년, 90일 체류) 발급 대상에 적용

- 법무부는 평창올림픽 선수단과 관람객의 입국 편의를 증진하여 올림픽 입장권 판매 확대와 강원도의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 시행기간 2017년 12월 1일 ~ 2018년 3월 31일 (4개월)

#### 평창올림픽 중국인 제한적 무비자 입국 조건

##### [대상]

- 중국 국민 중 국내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5년 이내 재외공관에서 개별 비자(비전문취업, 선원취업, 개별보증 제외)를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출입국 한 사실이 있는 자
- 중국 전담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티켓(20만 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 중국 공부 보통 여권 소지자 (중국 국영기업 간부 및 지방 공무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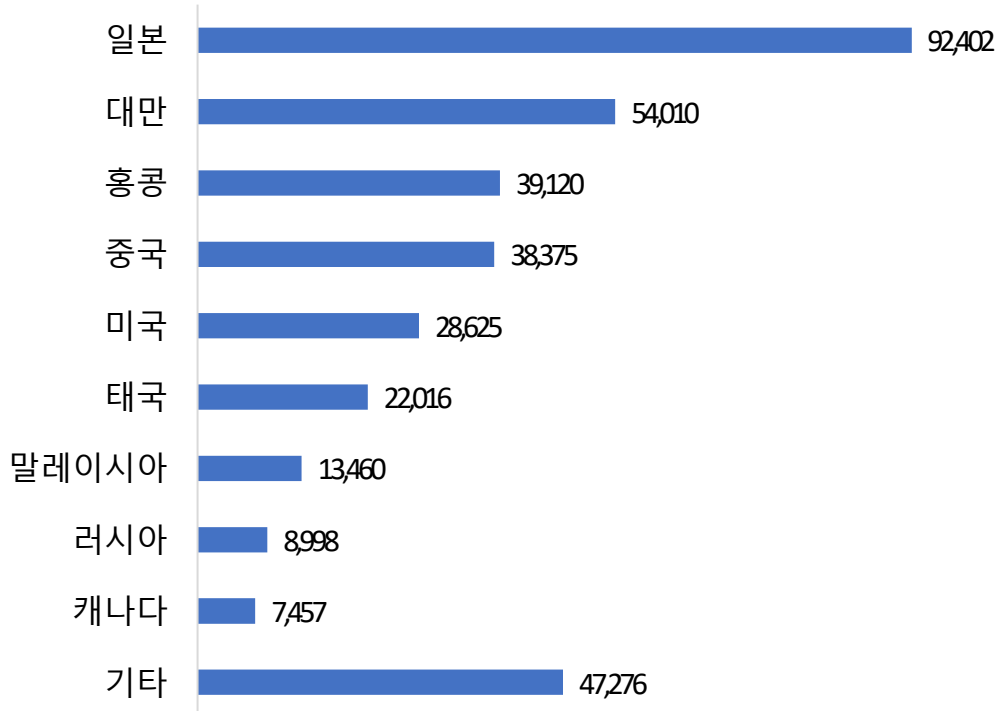
##### [입국공항]

- 인천, 김포, 김해, 청주, 무안, 대구, 양양국제공항(7개 공항)
- 항만(선박) 입국자 제외

##### [체류기간]

- 15일

#### 평창올림픽 기간 무비자 입국 외국인 현황





## 8. 3단계 세부과제

## [참고사례] 평창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 시기의 일시적 입국편의제도로 불법체류가 일시적으로 발생

2018년 평창올림픽	무사증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 11,635명 (18년 5월 기준) 발생
2016년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스리랑카 주짓수 선수 3명과 우즈베키스탄 선수 4명 불법체류 발생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외국 선수단 중 네팔(3명), 팔레스타인(1명), 방글라데시(1명), 스리랑카(2명) 불법체류 발생

## 불법체류 외국인 예방 및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 불법체류 증가 원인 및 배경에 대한 객관적 시각
- ✓ 불법체류 가능자에 대한 검증 및 입국 차단 시스템

## 8. 3단계 세부과제

## 중국인 대상 제한적 무비자제도 적용 시 불법체류에 대한 국내 반대여론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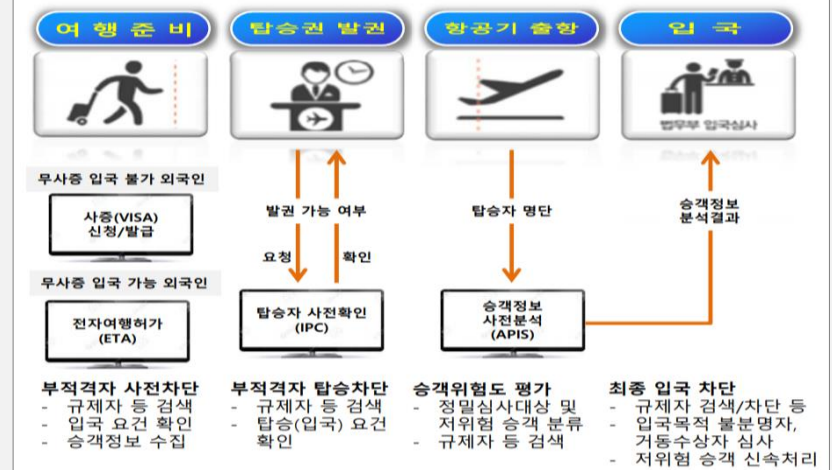
##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증가 우려

## 대응 방안

## 불법체류 증가에 대한 객관적 시각 필요

- 불법체류는 매년 통계에서 전년도 미출국자가 쌓이는 누적의 특징이 있음
- 무비자입국자가 많은 제주의 무비자 불법체류자 수가 2016년까지는 전국 기준 비율 대비 낮다는 것은 무비자 입국제도가 불법체류를 높이는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 불법체류자(불법취업자)는 일반적으로 임금 소득이 적은 국가에서 임금소득이 높은 나라로 이동 (태국이 대표적인 사례)
- 하지만, 복수비자가 발급되는 중국의 14개 지역의 경우, 평균 소득이 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불법체류에 대한 필요성이 낮음
- 불법체류 노동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브로커 차단이 중요

## 우범자 사전 검증 및 입국 차단 시스템 구축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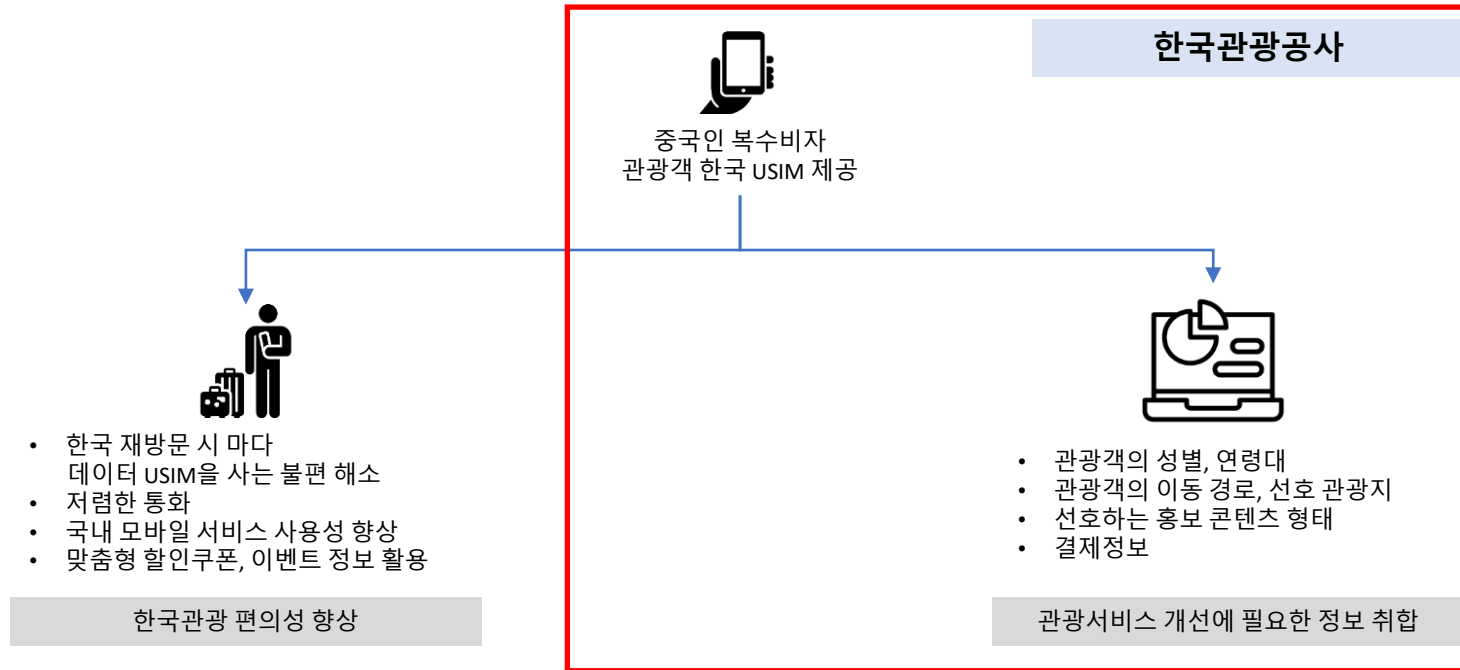
8. 3단계 세부과제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복수비자 대상자는 전자비자 대상에 포함하여  
향상된 비자 발급 편의성을 기반으로 재방문 잠재고객 확대

구분	세부과제	제한적 무비자 적용				
		2026	2027	2028	2029	2030
		K-ETA 활용				
개인	친지방문객 대상 무비자 적용					
	60세 이상 고령자 무비자 적용					
	비즈니스 목적 빈번 방문자 무비자 적용					
	의료관광 방문자 무비자 적용					
	기존 외국인등록 후 장기체류 이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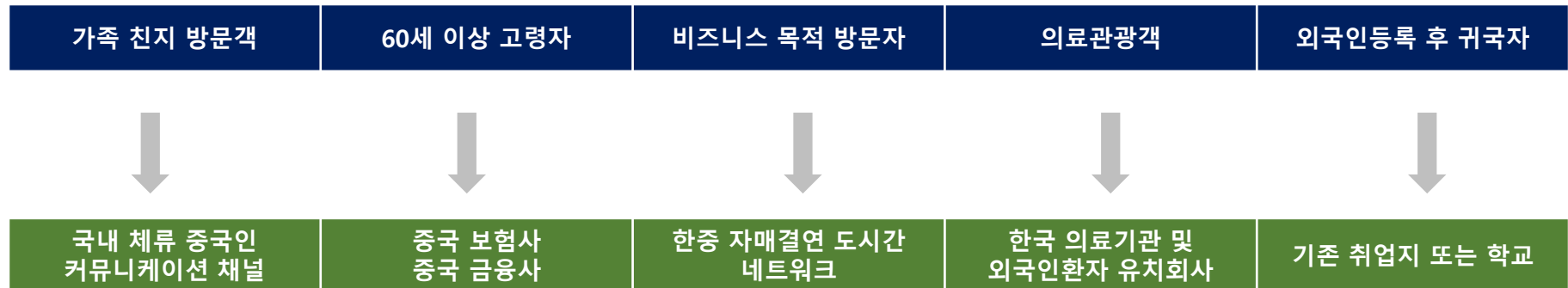
## 8. 3단계 세부과제

무비자로 한국관광 이용률을 높이고, 관광객의 행태데이터를 지역 및 관광업계와 공유하여 관광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신규 고객 발굴에 활용



## 8. 3단계 세부과제

## 1·2단계에서 구축된 마케팅 채널을 활용하여 무비자제도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제도개선 홍보



## 8. 3단계 세부과제

## 중국과 상호 무비자협정 체결 시 우리나라 국민의 비자 발급관련 시간 및 비용 절감

- 코로나19 이전 기준,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은 연평균 약 400만 명이며, 이들이 중국 입국비자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직접비(보통 단수비자 발급비 기준)는 최소 2,200억 원
- 발급에 소요되는 간접비 더하면 1년에 최소 3,420억 원

우리나라 국민의 중국 입국비자 비용 (단위: 원)

중국 비자 종류	보통	급행	특급	우편(편도)	우편(왕복)
단수	55,000	89,000	110,000	60,000	65,000
더블	73,000	107,000	128,000	78,000	83,000
6개월 복수	90,000	124,000	145,000	95,000	100,000
1년 복수	120,000	154,000	175,000	125,000	130,000

중국에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민 수 (단위: 만 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06.99	396.9	418.2	444.444	477.53	386.38	419.35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한국인 입국수.. 우리나라는 2006년 8월부터 내국인 해외출국자의 목적, 직업, 행선지 파악 불가하여 중국 측 데이터 사용  
 간접비 산출방식: 중국비자센터 방문 왕복소요시간(2시간) × 최저시급 8,720원, 서류 준비 및 작성시간(1.5시간) × 최저시급 8,720원, 총 비용 1220억 원

## VII. 부록

## 1. 개선 효과 분석 개요\_방법 선정 배경

## 외래 관광객 증감에는 국적별 가처분소득, 환율, 여행거리, 항공요금 등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정량적 분석 중 다중회귀분석기법 선택

검토 기법	ARIMA 모형	설문조사, 델파이법, 계층 분석법	다중회귀분석
주요 활용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의 관광수요 값을 통해 현재, 또는 미래의 관광수요를 예측하는 방법</li> <li>단기 예측이나 계절적인 변동을 예측하는 데 활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가이벤트 또는 새로운 관광지 조성 등 과거의 데이터가 없을 때 사용하는 정성적 기법</li> <li>잠재 여행자들에 대한 방문 의도와 욕구 정도를 파악</li> <li>계층 분석법은 방문 의도와 실제 방문 행동의 차이를 연구자에 의한 가중치 부여와 실현을 보정 등으로 정확도를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 개 이상의 연속형 독립변수가 연속형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분석법</li> <li>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독립변수)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종속변수)의 인과관계 파악에 활용</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 테러, 세계적 경제 불황 등 급작스런 정치 또는 사회적 불안정 요소와 관광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메가이벤트와 같은 변동 요인을 포함한 예측에는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li> <li>다소 주관적 특성이 있고, 객관적 근거 제출이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변수 변화에 의해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li> <li>적절한 독립 변수 선정의 어려움과 변수간 상관 관계를 사전 검토 필요</li> </ul>



## 1. 개선 효과 분석 개요\_다중회귀분석방법

##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회귀분석으로 독립변수의 변화에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증하는 분석방법임

- 결과가 여러 원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독립변수  $x_1, x_2, \dots$ 를 준비하고 하나의 종속변수  $y$ 를 설명하는 회귀방정식을 공식화함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dots + \beta_n x_n$$

구분	물리적 의미
B 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값은 영향력(한계효과)을 의미하며, 독립변수가 1 증가 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뜻한다.</li> <li>결과에서 B값이 클수록 긍정적 결과이다.</li> <li>분석표에서 '+'는 독립변수가 증가할 때 종속변수 증가를 의미하며, '-'는 독립변수가 증가할 때 종속변수 감소를 뜻한다.</li> </ul>
표준오차 (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th>B/se=t</math>값이며, t값은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2정도가 되면 95% 수준에서 유의하게 된다.</li> <li>표준오차는 B의 절반 이하 정도부터 좋은 결과이다.</li> </ul>
t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와 se의 값을 통해 t를 도출한다.</li> <li>t값이 크면 클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다.</li> <li>B계수 값의 부호에 따라 '+' 또는 '-'가 결정된다.</li> </ul>
R <sup>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값의 표준화된 값(상대적 영향력)</li> <li>실제 측정이 가능한 변수를 이용한 분석이기 때문에 B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li> </ul>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값은 신뢰도를 갖추기 위한 조건</li> <li>유의수준과 신뢰수준은 반비례의 관계로 유의수준이 작아질 수록 신뢰수준은 높아짐</li> <li>보통은 p값 0.05를 기준으로 하나 절대적이진 않으며, 사용한 샘플의 숫자가 적을 경우 p값 0.1이하 를 사용할 수 있음</li> <li>'유의하다'의 의미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방한 중국인 수)의 상관관계 유무를 의미하며, 유의수준 0.1은 신뢰수준 90%를 의미</li> </ul>

## 1. 개선 효과 분석 개요\_분석방법

## 다중회귀분석방법 1) 으로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제도 개선의 순 효과 파악

## 독립변수

## 주요 비자제도 개선

- 비자이벤트 1: 2009년 7월 중국인 개별관광객 비자발급 서류 간소화
- 비자이벤트 2: 2010년 7월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시행
- 비자이벤트 3: 2015년 10월 단체관광객 대상 전자비자 발급 시행
- 비자이벤트 4: 2016년 1월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시행

## 경제요인

- 환율
- 유가
- 1인당 GDP

## 수용력 요인

- 국내 호텔 총 객실 수
- 항공운항편수

## 종속변수

## 방한 중국인 수

- 2000년~2019년 방한 중국인 수

- 기존 출입국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4개 비자 제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방한 중국인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
- 비자제도 개선의 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자 개선과 더불어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함께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각 비자제도의 시행 시점 전후로 비자 제도를 제외한 동일한 변수들의 회귀계수를 비교하여 해당 변수들의 변동성을 비자제도의 영향, 해당 시점의 정책 환경적 요인과 연계하여 해석

변수 명	활용데이터	출처
방한 중국인 수	외래관광객조사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환율	원/위안 환율	• 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인당 GDP	중국 1인당 GDP	• 이코노미조선 • TRADING ECONOMICS
호텔 총 객실 수	-	• KOSIS
중국-한국 간 여객기 운항 편수	-	• KOSIS

## 1. 개선 효과 분석 개요\_분석결과 해석 참고

**B값은 독립변수가 1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증가하는지를 의미하지만, 해당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학적 유의는 p값으로 판단**

참고 예:

**비자이벤트 1. 2009년부터 시행된 중국인 개별관광객 비자발급 서류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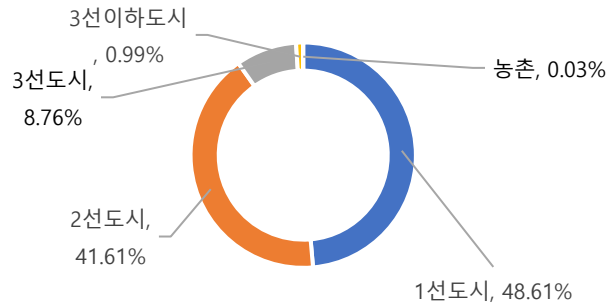
	구분	B	표준오차	$\beta$	t값(p값)
방한 중국인 수	상수	255,421	14,451.6		17.674(0.000)
	호텔 객실 수	5,716.89	7,088.36	0.028	0.807(0.421)
	환율	27,593	5,682.6	0.137	4.856(0.000)
	항공운항편수	204,799	86,47	1.016	23.684(0.000)
	국제유가	9,531.39	5,769.65	0.047	1.652(0.101)
	1인당 GDP	-36,217	7,581.8	-0.18	-4.777(0.000)
	2009년 개별비자 서류간소화	62,495	17,334	0.126	3.605(0.000)
F=304.604(0.000), R <sup>2</sup> = 0.930					

- p값은 신뢰도를 갖추기 위한 조건이므로, 비자이벤트 1의 사례에서 방한 중국인 수 변화에 유의미한 변수는 p값이 0.05 이하인 환율, 항공운항편수, 1인당 GDP, 비자이벤트1(2009년 개별비자 서류간소화)임
- 환율(원/위안)의 경우,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때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1원/위안의 변화가 관광객수 27,593명을 증가시키고, 항공운항편수 1대 증가가 204,799명 증가, GDP가 1 증가할 때 36,217명 감소, 비자이벤트 1로 62,494명 증가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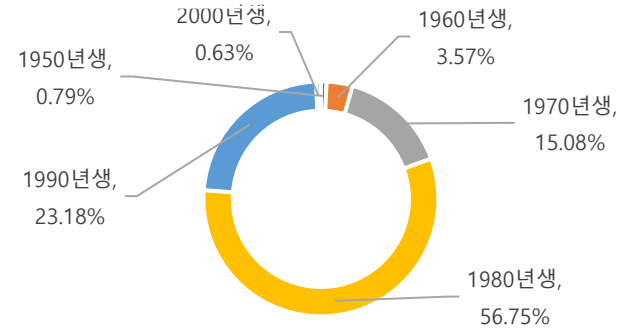
## 2. 중국인 해외관광객 현황\_해외출국 중국인 소비자 통계 1/2

### 1선 도시와 2선 도시의 해외 출국비율은 비슷하며, 80년대 이후 출생자 비율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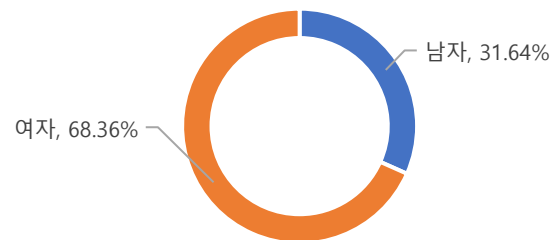
중국인 해외관광객 주요 거주지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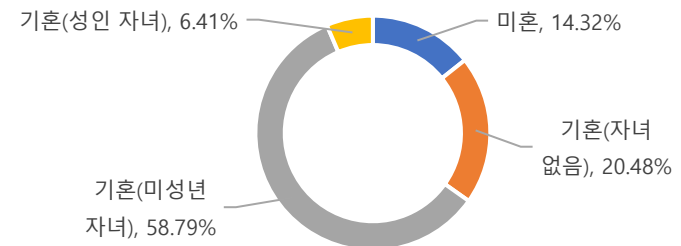
중국인 해외관광객 연령 분포 (단위: %)



중국인 해외관광객 성비 (단위: %)



중국인 해외관광객 결혼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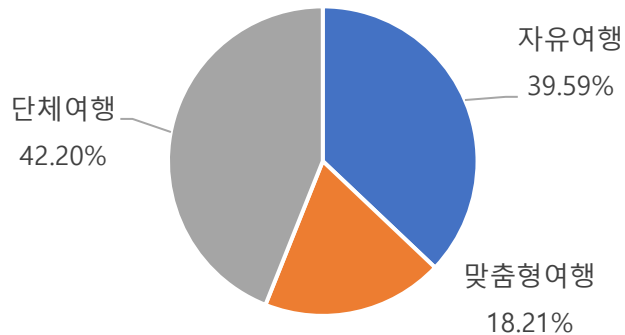
출처: WTCF. Market Research Report on Chinese Outbound Tourist (City) Consumption (2017-2018). 2018년 9월

## 2. 중국인 해외관광객 현황\_해외출국 중국인 소비자 통계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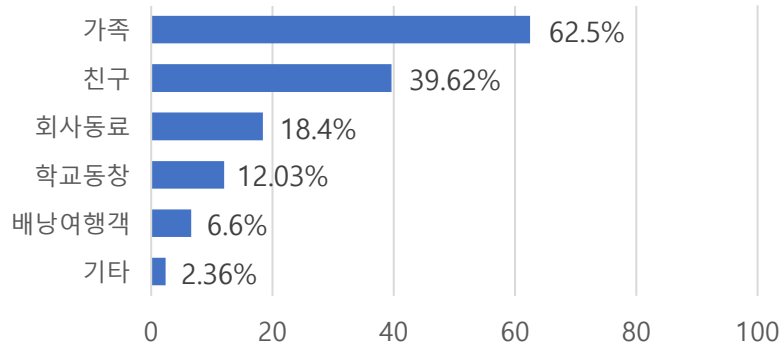
## 첫 해외출국자와 재출국자의 여행행태는 차이가 있으나, 가족과 동행하는 비율은 유사

첫 해외여행자

여행 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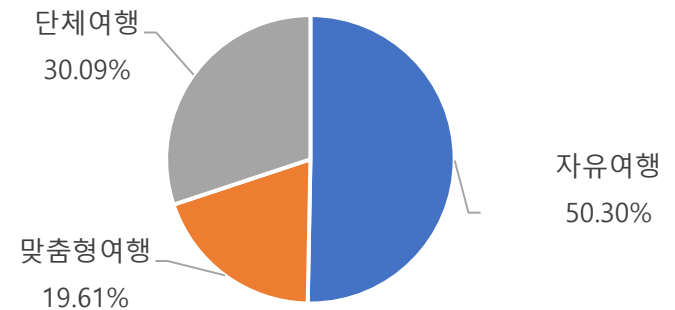


동반 여행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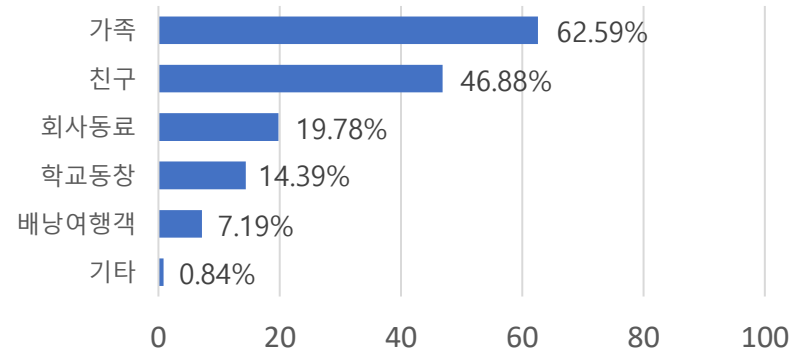


재출국 해외여행자

여행 방식 (단위: %)



동반 여행자 (단위: %)



출처: WTCF. Market Research Report on Chinese Outbound Tourist (City) Consumption (2017-2018). 2018년 9월

## 3.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구분	국가/지역 (체류가능일, 무비자 체류 형태)		
아주지역 (8개)	대만 (90일 / 상호주의)	브루나이 (30일 / 상호주의)	일본 (90일 / 상호주의)
	마카오 (90일 / 상호주의)	싱가포르 (90일 / 협정)	홍콩 (90일 / 상호주의)
	말레이시아 (3개월 / 협정)	태국 (90일 / 협정)	-
미주지역 (32개)	가이아나 (30일 / 상호주의)	브라질 (90일 / 협정)	온두라스 (30일 / 상호주의)
	과테말라 (90일 / 협정)	세인트루시아 (90일 / 협정)	우루과이 (90일 / 협정)
	그레나다 (90일 / 협정)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90일 / 협정)	자메이카 (90일 / 협정)
	니카라과 (90일 / 협정)	칠레 (90일 / 협정)	세인트키츠네비스 (90일 / 협정)
	캐나다 (6개월 / 상호주의)	도미니카(공) (90일 / 협정)	도미니카(연) (90일 / 협정)
	수리남 (90일 / 협정)	코스타리카 (90일 / 협정)	멕시코 (3개월 / 협정)
	아르헨티나 (30일 / 상호주의)	콜롬비아 (90일 / 협정)	미국 (90일 / 상호주의)
	아이티 (90일 / 협정)	트리니다드토바고 (90일 / 협정)	바하마 (90일 / 협정)
	안티과아바루다 (90일 / 협정)	파나마 (90일 / 협정)	바하마 (90일 / 협정)
	에콰도르 (90일 / 상호주의)	파라과이 (30일 / 상호주의)	베네수엘라 (90일 / 협정)
	엘살바도르 (90일 / 협정)	페루 (90일 / 협정)	-
구분	국가/지역 (체류가능일, 무비자 체류 형태)		
유럽지역 (43개)	교황령 (30일 / 일방적 면제)	몰타 (90일 / 협정)	안도라 (30일 / 상호주의)
	그리스 (3개월 / 협정)	벨기에 (3개월 / 협정)	알바니아 (30일 / 상호주의)
	네덜란드 (3개월 / 협정)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0일 / 상호주의)	에스토니아 (180일 중 90일 / 협정)
	노르웨이 (180일 중 90일 / 협정)	사이프러스 (30일 / 상호주의)	덴마크 (180일 중 90일 / 협정)
	산마리노 (30일 / 상호주의)	영국 (90일 / 협정)	독일 (90일 / 협정)
	세르비아 (90일 / 상호주의)	오스트리아 (90일 / 협정)	라트비아 (90일 / 협정)
	불가리아 (90일 / 협정)	이탈리아 (90일 / 협정 및 상호주의)	러시아 (60일, 180일 기간 중 누적 90일 / 협정)
	스웨덴 (180일 중 90일 / 협정)	체코 (90일 / 협정)	스위스 (3개월 / 상호주의)
	카자흐스탄 (30일 / 협정)	루마니아 (90일 / 협정)	크로아티아 (90일 / 상호주의)
	터키 (90일 / 협정)	룩셈부르크 (3개월 / 협정)	스페인 (90일 / 협정)
	포르투갈 (180일 중 90일 / 상호주의)	리투아니아 (90일 / 협정)	슬로바키아 (90일 / 협정)
	폴란드 (90일 / 협정)	리히텐슈타인 (3개월 / 협정)	슬로베니아 (90일 / 상호주의)
	프랑스 (90일 / 협정)	모나코 (30일 / 상호주의)	아이슬랜드 (180일 중 90일 / 협정)
	핀란드 (180일 중 90일 / 협정)	몬테네그로 (30일 / 상호주의)	아일랜드 (90일 / 협정)
	헝가리 (90일 / 협정)	-	-
구분	국가/지역 (체류가능일, 무비자 체류 형태)		
아프리카·중동지역 (16개)	모로코 (90일 / 협정)	스와질란드 (30일 / 상호주의)	라이베리아 (90일 / 협정)
	모리셔스 (30일 / 상호주의)	오만 (30일 / 일방적 면제)	레소토 (60일 / 협정)
	세이셸 (30일 / 상호주의)	카타르 (30일 / 상호주의)	이스라엘 (90일 / 협정)
	사우디아라비아 (30일 / 일방적 면제)	쿠웨이트 (90일 / 일방적 면제)	튀니지 (30일 / 협정)
	아랍에미리트 (90일 / 협정)	바레인 (30일 / 일방적 면제)	남아프리카공화국 (30일 / 상호주의)
	보츠와나 (90일 / 상호주의)	-	-
대양주 (13개)	괌 (30일 / 상호주의)	나우루 (30일 / 일방적 면제)	뉴질랜드 (3개월 / 협정)
	마셜군도 (30일 / 상호주의)	마이크로네시아 (30일 / 상호주의)	사모아 (30일 / 상호주의)
	솔로몬군도 (30일 / 상호주의)	키리바시 (30일 / 상호주의)	통가 (30일 / 상호주의)
	투발루 (30일 / 상호주의)	팔라우 (30일 / 상호주의)	피지 (30일 / 상호주의)
	호주 (90일 / 일방적 면제)	-	-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영사서비스/비자(<https://www.0404.go.kr/consulate/visa.jsp>). 2020년 1월 기준

## 4. K-ETA 대상 국가

가이아나	모나코	수리남	체코
과테말라	모로코	스웨덴	칠레
괌	모리셔스	스위스	카자흐스탄
그레나다	몬테네그로	스페인	카타르
그리스	몰타	슬로바키아	캐나다
나우루	미국	슬로베니아	코스타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미크로네시아	싱가포르	콜롬비아
네덜란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노르웨이	바베이도스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뉴질랜드	바티칸시국	아이슬란드	키리바시
뉴칼레도니아	바하마	아이티	태국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아일랜드	터키
대만	벨기에	안도라	통가
덴마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투발루
도미니카공화국	보츠와나	앤티가바부다	튀니지
도미니카연방	불가리아	에스와티니	트리니다드토바고
독일	브라질	에스토니아	파나마
라트비아	브루나이	에콰도르	파라과이
러시아	사모아	엘살바도르	팔라우
레소토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페루
루마니아	사이프러스	오만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산마리노	오스트리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세르비아	온두라스	프랑스
리히텐슈타인	세이셸	우루과이	피지
마셜제도	세인트루시아	이스라엘	핀란드
마카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이탈리아	헝가리
말레이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일본	호주
멕시코	솔로몬제도	자메이카	홍콩

출처: 법무부(출입국심사과).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알림(<https://www.moj.go.kr/bbs/immigration/47/551356/artclView.do>). 2021.08.27.

참고: 회색음영 국가는 2021년 9월부터 K-ETA 적용 국가

## 5. 2015~2019년 주중공관별 C-3-9 복수비자 발급 건수 1/3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 칭다오 총영사관	1,320	833	1,347	1,426	1,932	1,283	1,409	2,064	2,512	2,110	2,492	3,495
주 상하이 총영사관	3,276	1,656	4,019	3,912	4,546	2,320	2,422	3,650	4,016	4,259	5,359	5,596
주 선양 총영사관	936	525	905	1,184	2,060	1,642	1,594	1,512	2,023	1,444	1,996	2,357
주 광저우 총영사관	1,013	366	687	745	1,068	747	672	1,052	1,187	1,266	1,833	2,236
주 우한 총영사관	334	264	416	454	455	386	332	592	661	705	899	1,169
주 청두 총영사관	296	225	460	379	481	227	289	405	502	491	601	672
주 시안 총영사관	125	60	168	132	192	91	146	175	192	168	204	229
주 중국 대사관	3,363	2,084	4,057	4,093	5,084	2,882	2,433	4,563	5,593	4,832	5,709	7,207
주 다롄출장소	230	198	378	458	593	419	305	421	582	554	586	759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 칭다오 총영사관	3,291	2,712	7,534	13,644	9,791	9,477	9,542	8,240	7,961	7,432	8,101	9,448
주 상하이 총영사관	4,944	3,159	7,188	5,682	5,579	5,902	5,140	5,435	4,893	4,354	5,922	6,384
주 선양 총영사관	1,983	1,195	2,177	3,633	3,480	2,651	2,853	2,415	1,871	1,377	1,854	1,490
주 광저우 총영사관	2,676	1,661	4,069	3,532	3,293	3,288	3,203	3,115	3,044	2,353	2,991	3,211
주 우한 총영사관	1,001	612	1,889	1,450	1,672	1,727	1,588	1,470	1,435	1,084	1,366	1,421
주 청두 총영사관	616	572	1,040	955	881	941	703	693	759	592	756	728
주 시안 총영사관	226	155	304	208	270	283	241	203	258	187	221	233
주 중국 대사관	6,260	4,556	10,561	8,478	9,348	9,098	8,471	6,959	6,489	4,274	5,695	6,141
주 다롄출장소	656	653	1,629	1,200	1,038	1,024	1,032	769	850	566	692	784



## 5. 2015~2019년 주중공관별 C-3-9 복수비자 발급 건수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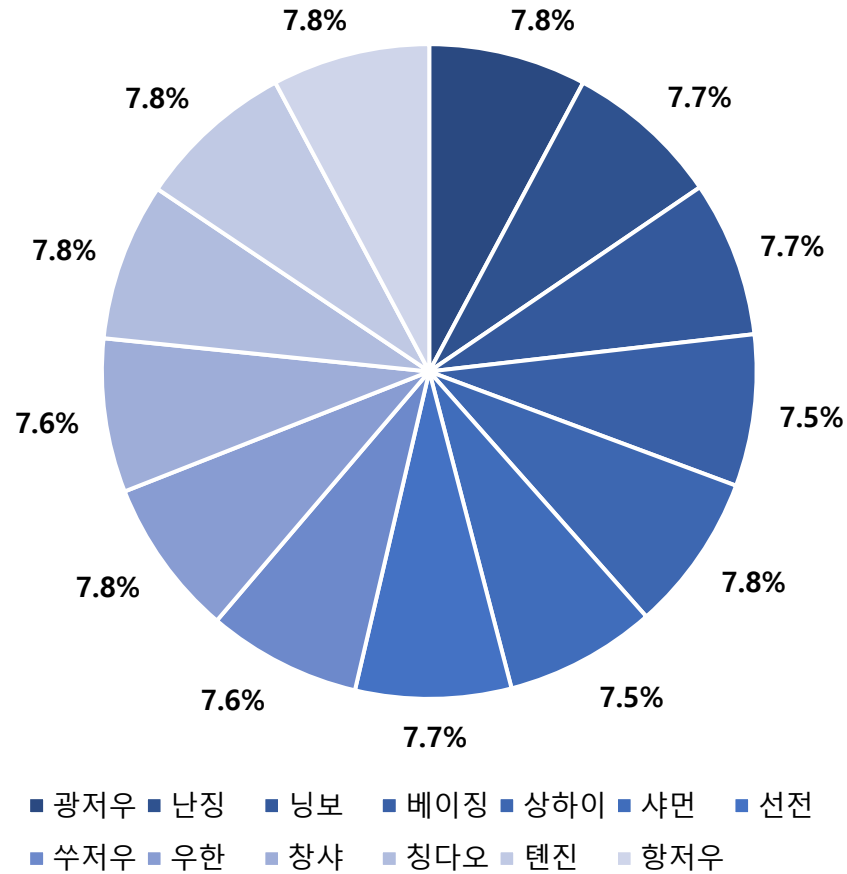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 칭다오 총영사관	8,821	5,863	5,696	3,265	3,500	4,686	4,974	4,249	5,070	3,152	4,360	5,250
주 상하이 총영사관	4,566	5,457	4,603	2,777	3,415	4,474	4,407	5,503	5,547	4,814	7,003	6,094
주 선양 총영사관	1,199	559	1,016	744	929	1,426	1,529	1,581	1,903	1,051	1,690	1,686
주 광저우 총영사관	2,394	1,923	1,805	949	1,452	1,832	1,848	2,146	2,392	1,688	2,467	2,206
주 우한 총영사관	1,021	1,027	999	538	603	984	943	1,285	1,392	994	1,328	1,351
주 청두 총영사관	628	630	609	364	510	661	679	819	905	709	992	908
주 시안 총영사관	254	192	180	105	138	228	224	289	276	191	241	249
주 중국 대사관	5,009	4,355	4,669	1,809	2,677	3,429	3,695	4,578	5,110	3,294	5,210	5,525
주 다롄출장소	621	506	419	182	370	509	528	584	746	585	969	857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 칭다오 총영사관	7,116	4,641	8,265	12,559	12,835	7,767	9,434	8,808	7,636	6,658	6,945	6,904
주 상하이 총영사관	6,811	3,124	9,040	7,232	9,711	6,305	6,500	6,892	6,152	5,847	6,605	6,287
주 선양 총영사관	2,485	1,657	2,100	2,762	3,661	2,370	2,986	2,306	2,319	1,995	2,062	2,192
주 광저우 총영사관	2,494	1,132	3,024	2,500	2,750	2,623	2,853	3,098	3,166	2,860	3,056	3,117
주 우한 총영사관	1,397	897	1,688	2,439	2,352	1,481	1,705	1,661	1,582	1,409	1,406	1,471
주 청두 총영사관	1,106	586	1,485	1,694	2,736	1,239	1,222	1,250	1,279	1,150	1,020	1,080
주 시안 총영사관	243	174	424	318	321	305	348	314	347	279	278	285
주 중국 대사관	7,042	3,272	8,137	7,584	8,588	6,241	6,937	7,208	7,360	5,512	6,369	6,346
주 다롄출장소	990	400	1,167	1,389	1,476	888	1,083	941	956	802	959	921

## 5. 2015~2019년 주중공관별 C-3-9 복수비자 발급 건수 3/3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 칭다오 총영사관	7,788	2,935	6,378	6,592	5,004	4,227	5,248	4,198	4,443	2,927	3,240	3,983
주 상하이 총영사관	6,253	3,650	7,278	6,970	5,807	3,559	4,397	4,361	4,843	3,962	4,564	5,052
주 선양 총영사관	2,148	1,036	1,737	2,057	1,634	1,425	1,773	1,579	1,573	1,157	1,370	1,524
주 광저우 총영사관	2,907	1,384	3,439	3,293	2,825	2,427	3,061	3,066	3,739	2,634	3,434	3,217
주 우한 총영사관	1,387	662	1,567	1,685	1,659	1,388	2,031	1,611	1,960	1,337	1,600	1,939
주 청두 총영사관	1,081	628	1,240	1,405	1,321	1,146	1,655	1,494	1,842	1,448	1,563	1,855
주 시안 총영사관	256	158	287	311	240	278	345	289	318	244	286	384
주 중국 대사관	6,515	3,020	7,817	8,095	6,153	2,785	3,363	3,366	3,950	2,606	3,282	3,912
주 다롄출장소	858	429	927	1,052	804	772	987	785	1,005	539	762	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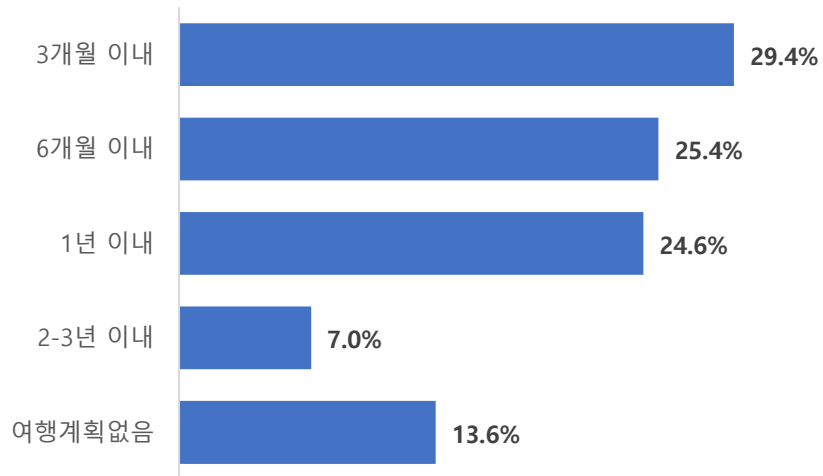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현재 거주 중인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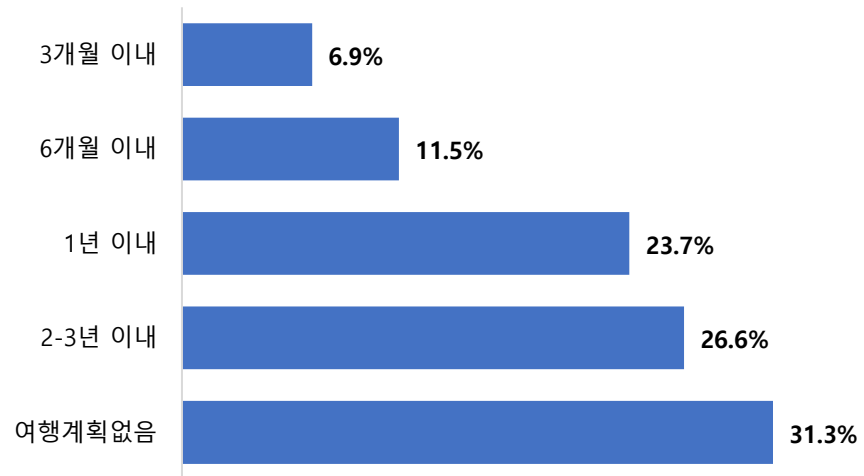
거주 중인 도시	인원 수
광저우	78
난징	77
닝보	77
베이징	75
상하이	78
샤먼	75
선전	77
쑤저우	76
우한	78
창샤	76
칭다오	78
톈진	78
항저우	78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국내여행 계획 시기 및 해외여행 계획 시기

국내여행 계획 시기



해외여행 계획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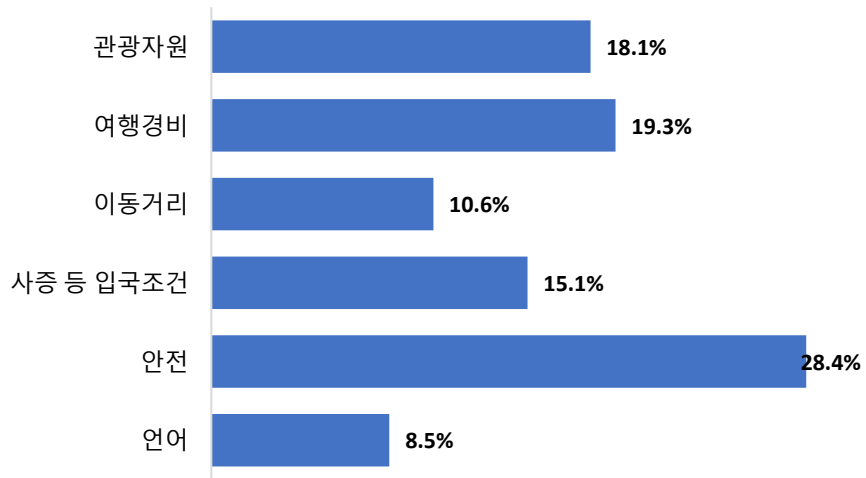


구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3년 이내	여행계획 없음
인원수	294	254	246	70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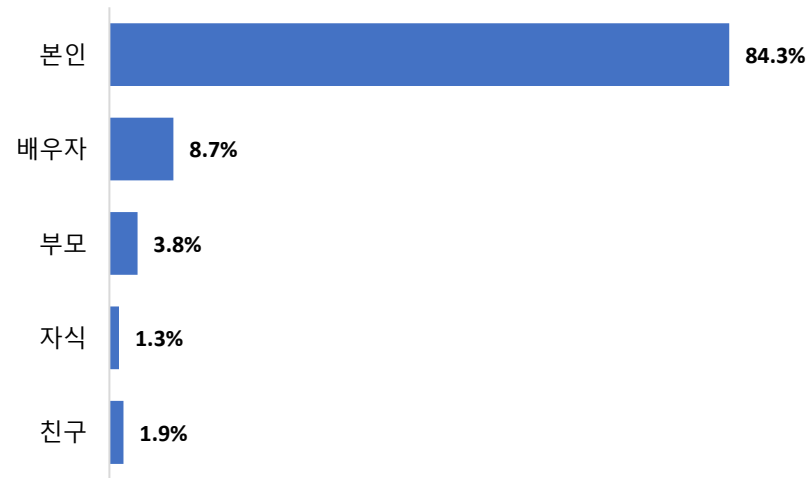
구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3년 이내	여행계획 없음
인원수	69	116	237	266	313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해외여행 결정 시 주요 고려요인 및 결정권자

주요 고려 요인



여행 결정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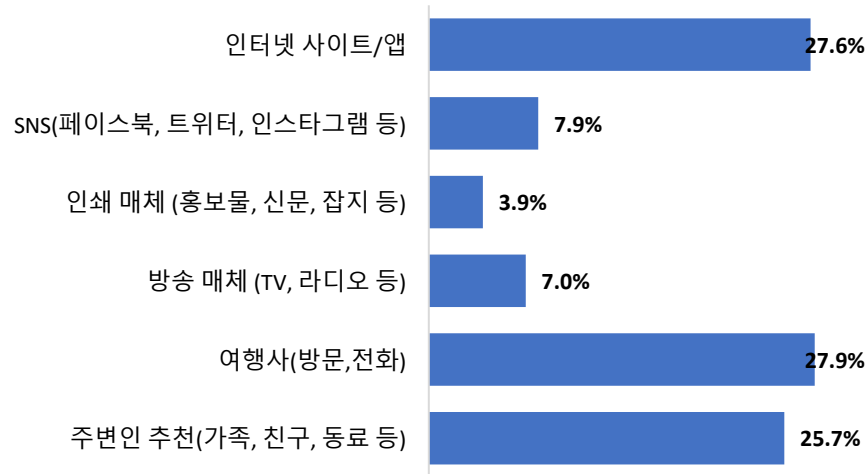


구분	관광자원	여행경비	이동거리	비자 등 입국조건	안전	언어
인원수	415	442	243	344	651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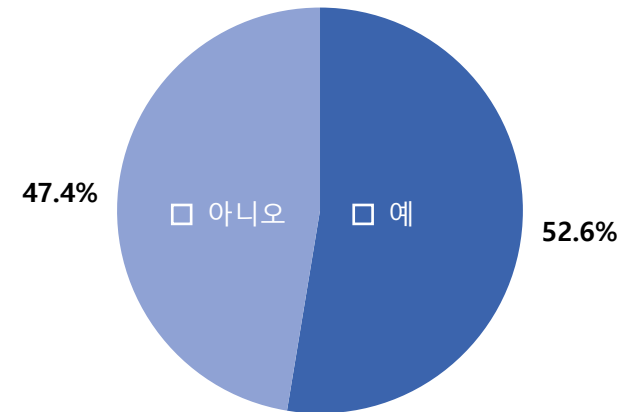
구분	본인	배우자	부모	자식	친구
인원수	844	87	38	13	19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해외여행 결정 시 주요 사용 플랫폼 및 한국 방문 의향

해외여행 결정 시 주요 사용 플랫폼



한국 방문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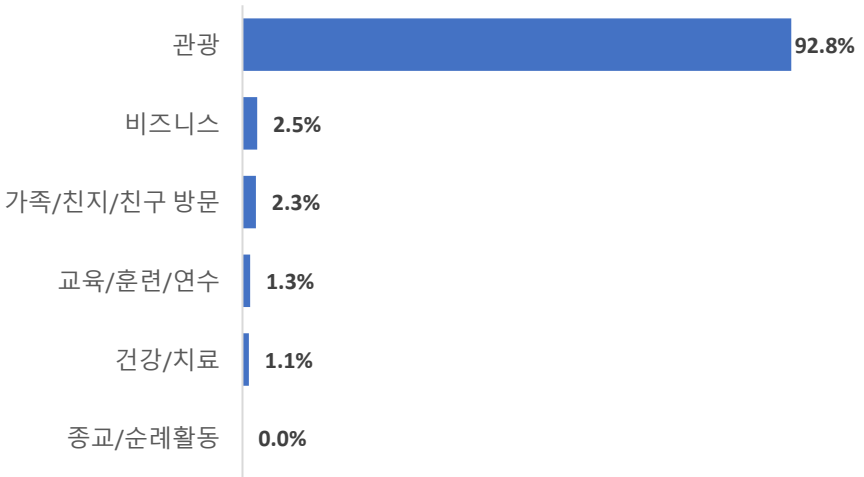


구분	인터넷 사이트/ 앱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등)	인쇄매체 (홍보물, 신문, 잡지 등)	방송매체 (TV, 라디오 등)	여행사 (방문,전화)	주변인 추천 (가족, 친구, 동료 등)
인원수	583	168	83	148	590	544

구분	예	아니오
인원수	527	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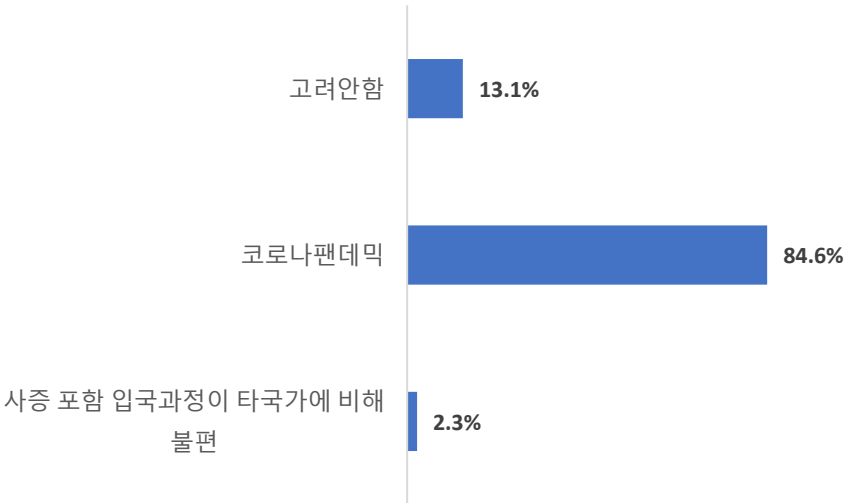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한국 방문의향에 따른 이유

한국 방문의향이 있으며, 이유



구분	관광	비즈니스	가족/친지/친구 방문	교육/훈련/연수	건강/치료	종교/순례활동
인원수	489	13	12	7	6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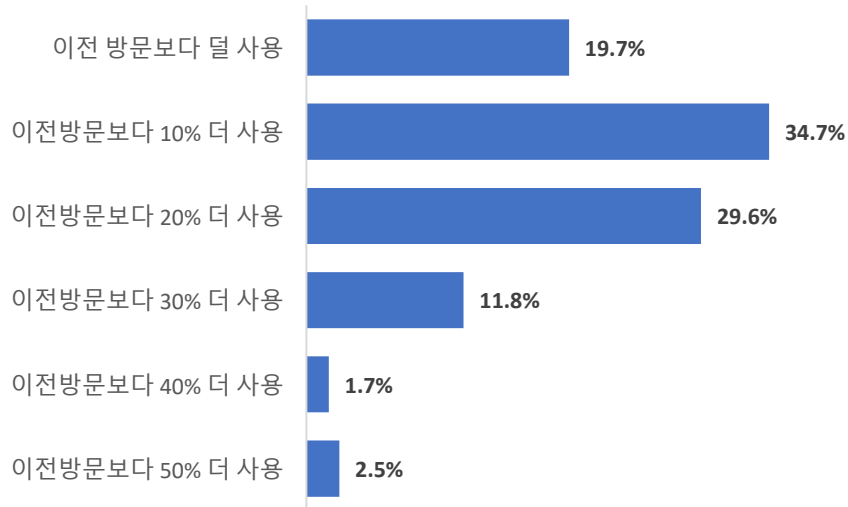
한국 방문의향이 없으며, 이유



구분	고려안함	코로나팬데믹	비자 포함 입국과정이 타국가에 비해 불편
인원수	62	40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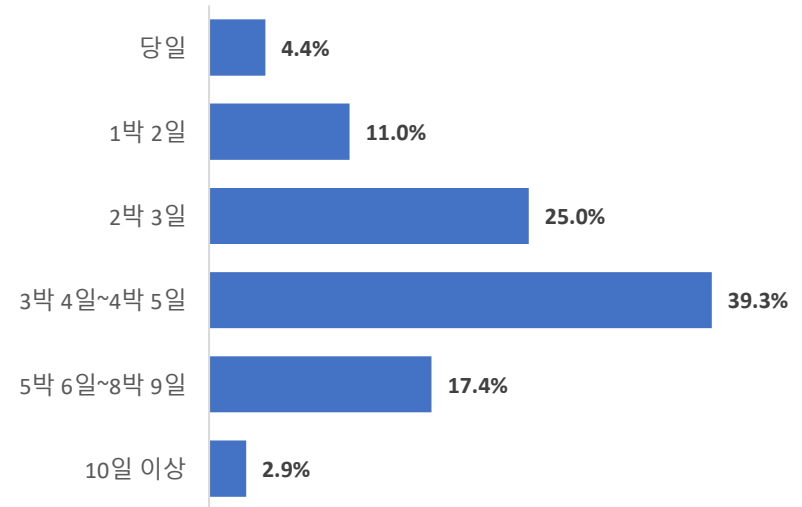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한국 방문 시 예상 경비 및 예상 체류기간

한국 방문 시 예상 경비



구분	이전 방문 대비 감액	이전방문 대비 10% 증액	이전방문 대비 20% 증액	이전방문 대비 30% 증액	이전방문 대비 40% 증액	이전방문 대비 50% 증액
인원수	104	183	156	62	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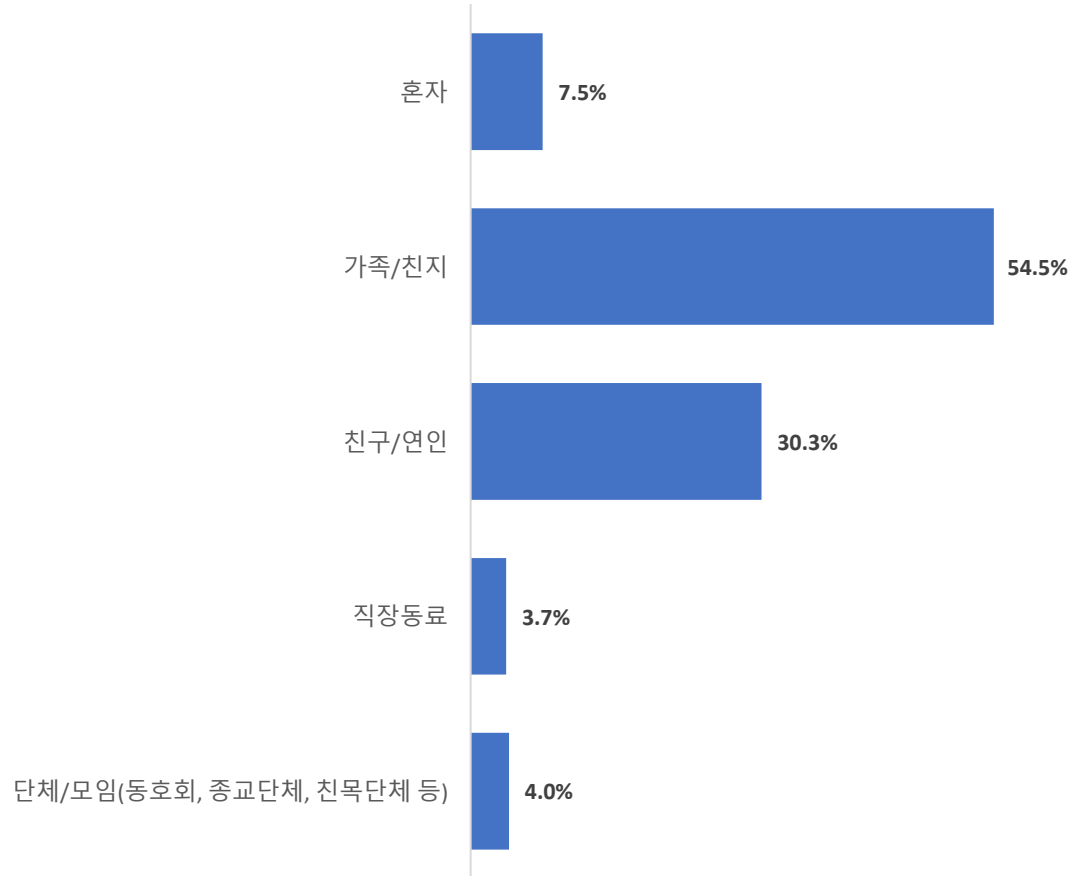
예상 체류기간



구분	당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4박 5일	5박 6일~8박 9일	10일 이상
인원수	44	110	251	393	17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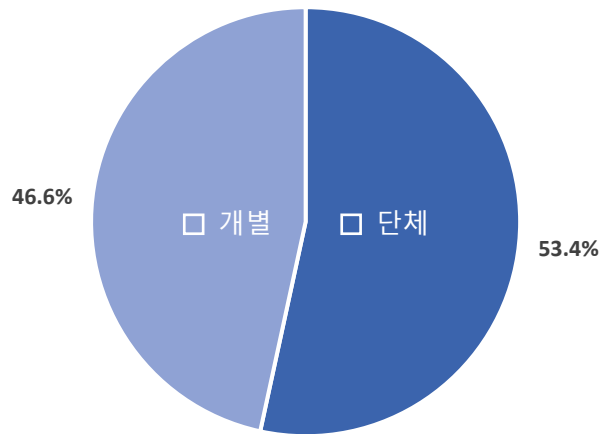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한국 방문 시 예정 동반자



구분	인원 수
혼자	75
가족/친지	546
친구/연인	303
직장동료	37
단체/모임(동호회,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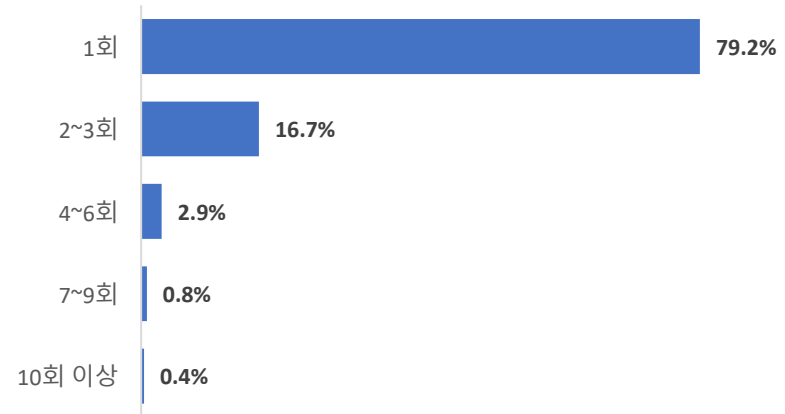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기존 한국 방문 형태 및 횟수

기존 한국 방문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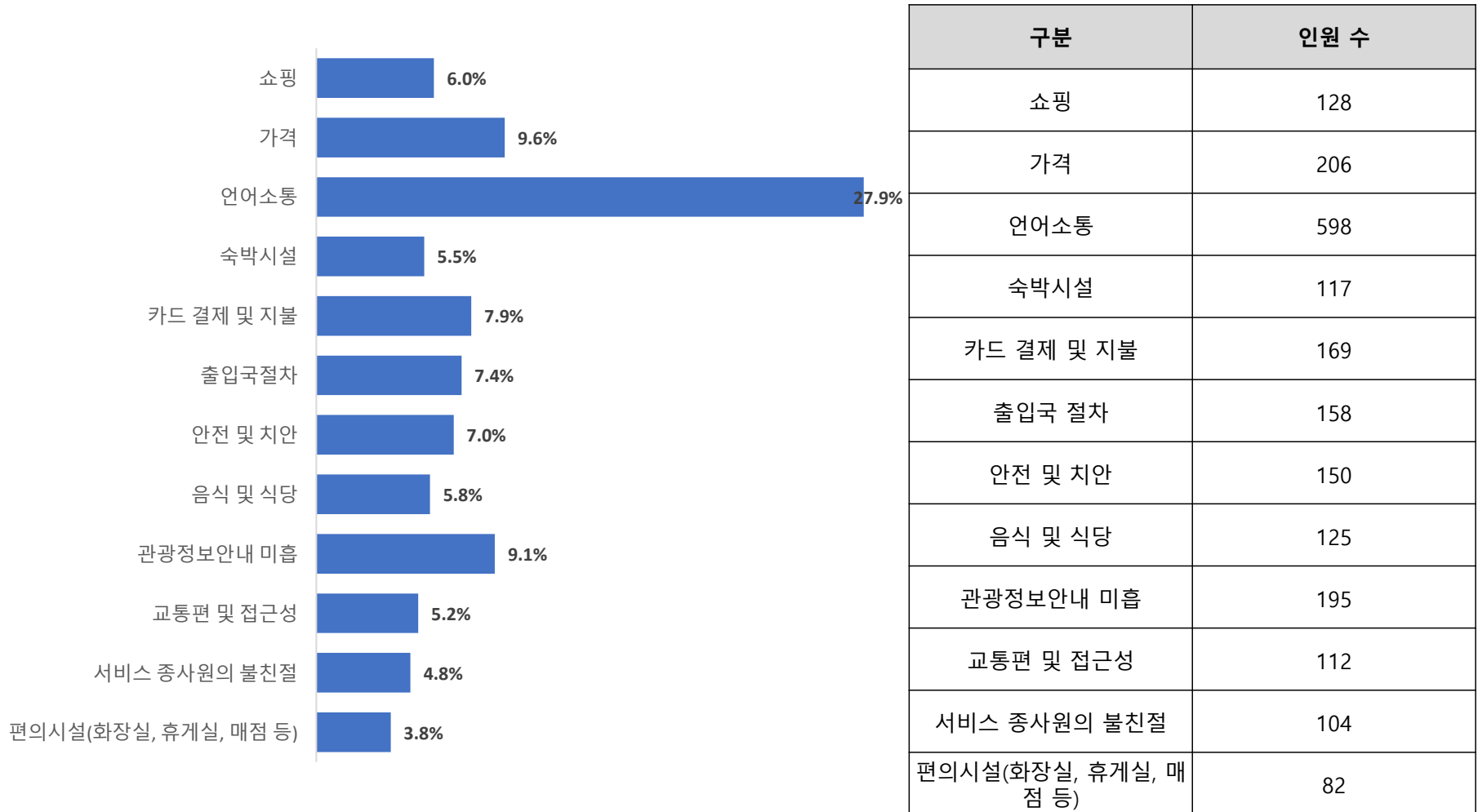
구분	단체	개별
인원수	535	466

기존 한국 방문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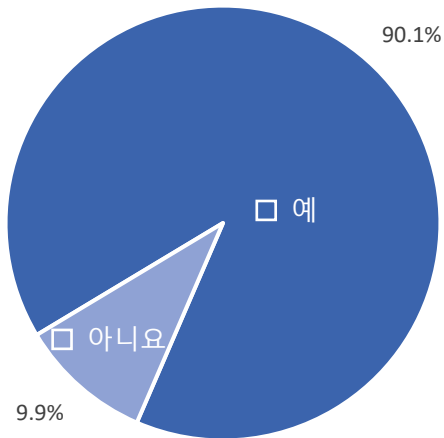
구분	1회	2~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인원수	793	167	29	8	4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기존 한국 방문 시 불편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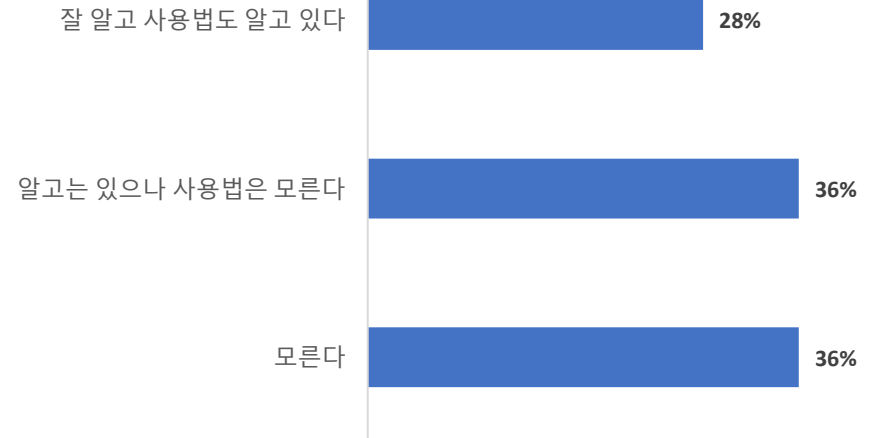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백신접종 여부 및 백신여권 인지 여부

백신접종 여부



백신여권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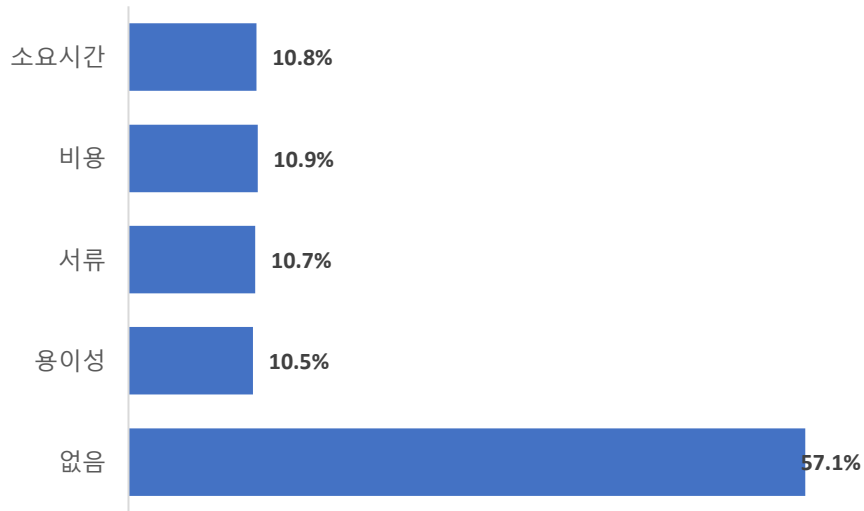


구분	예(중국백신 접종)	아니오
인원수	902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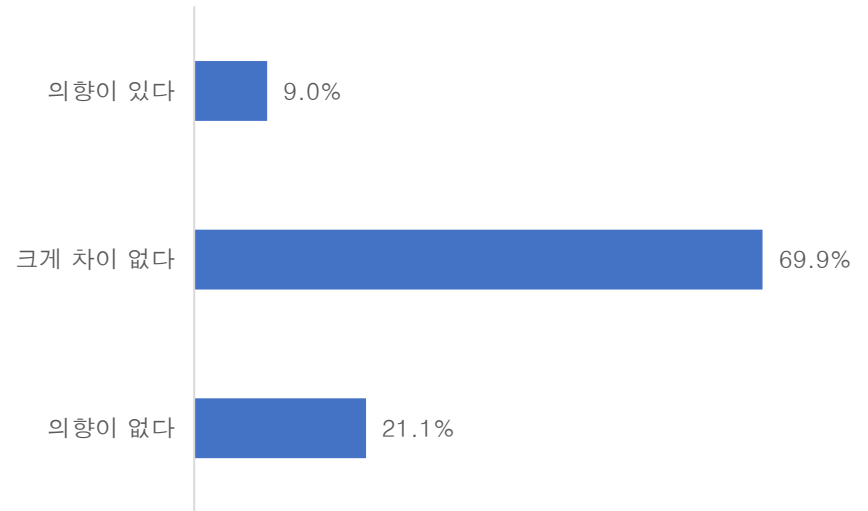
구분	잘 알고 사용법도 알고 있다	알고는 있으나 사용법은 모른다	모른다
인원수	280	361	360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단체비자 방문자 대상 비자 발급의 단점 및 단점 해소 시 방문의향

비자 발급의 단점(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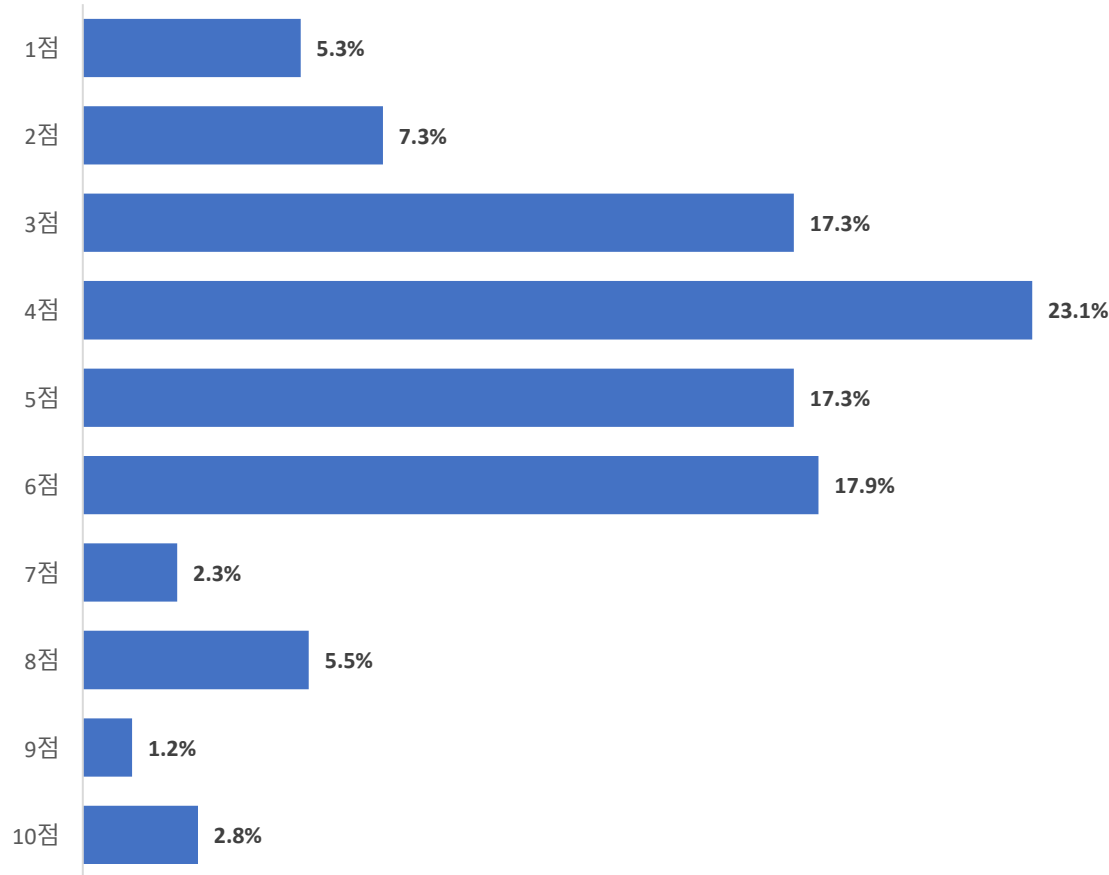
단점 해소 시 방문의향



구분	소요시간	비용	서류	용이성	없음
인원수	163	165	163	159	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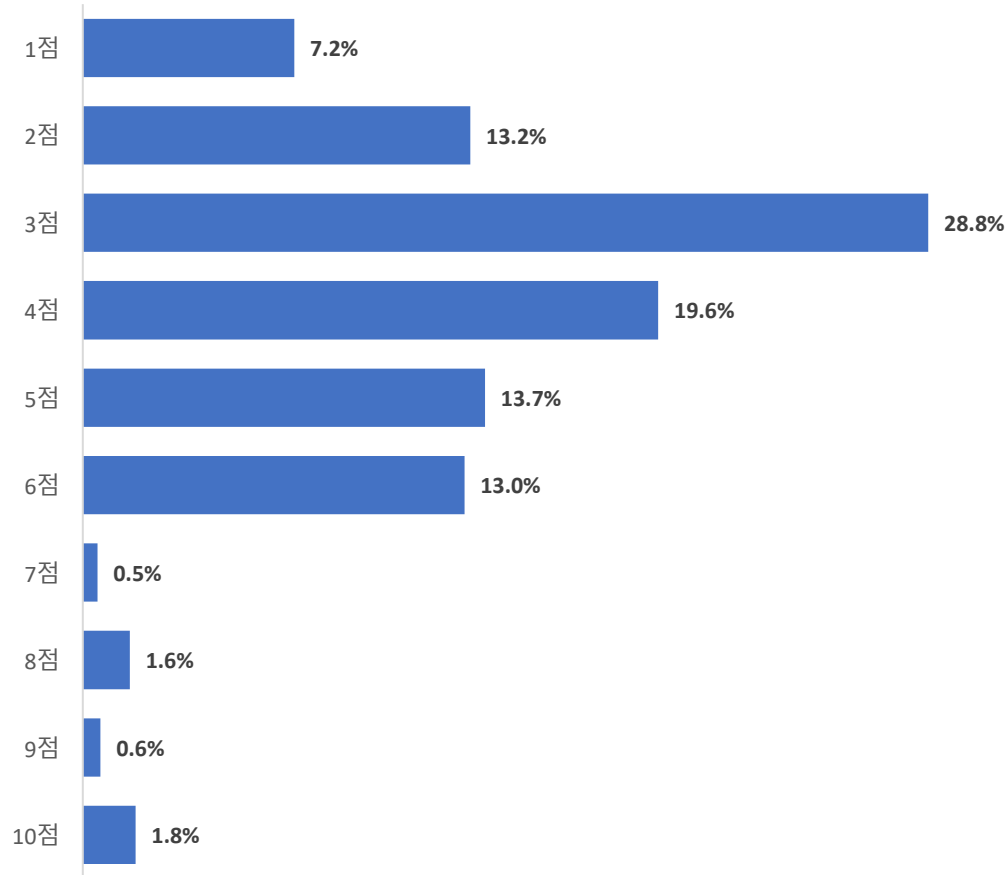
구분	다소 의향이 없다	전혀 의향이 없다	보통이다	매우 의향이 있다	다소 의향이 있다
인원수	34	79	374	31	17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비자 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의 단점이 한국 방문을 재고려할 정도인가?



구분	인원 수
1점	53
2점	73
3점	173
4점	232
5점	173
6점	179
7점	23
8점	55
9점	12
10점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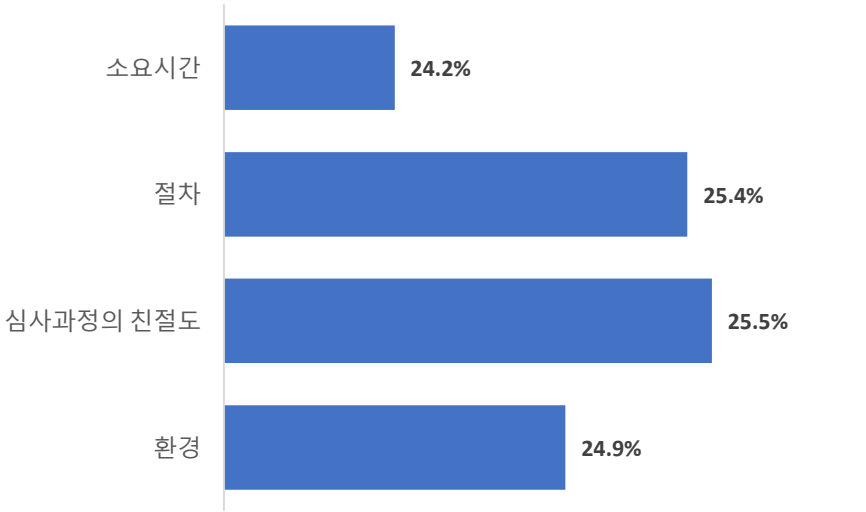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비자 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의 장점이 한국 방문을 재고려할 정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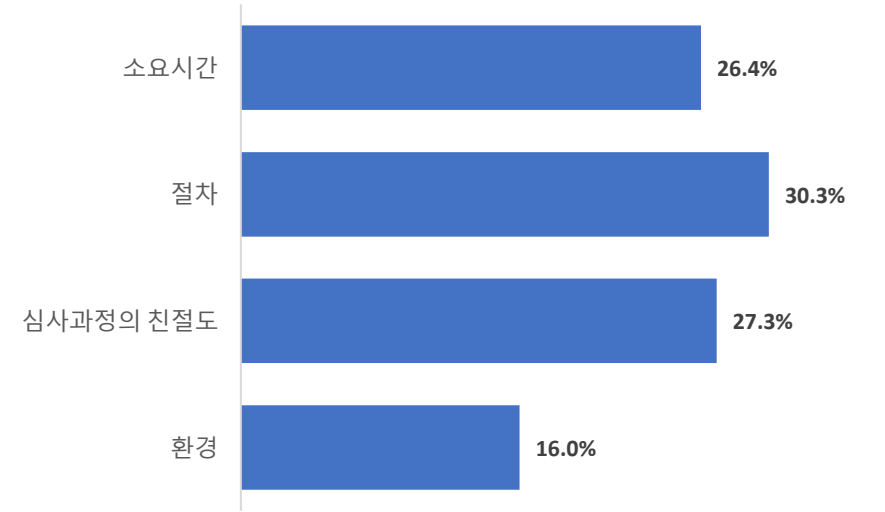
구분	인원 수
1점	72
2점	132
3점	289
4점	196
5점	137
6점	130
7점	5
8점	16
9점	6
10점	18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한국 입국심사 과정에서의 장단점

장점(복수응답)



단점(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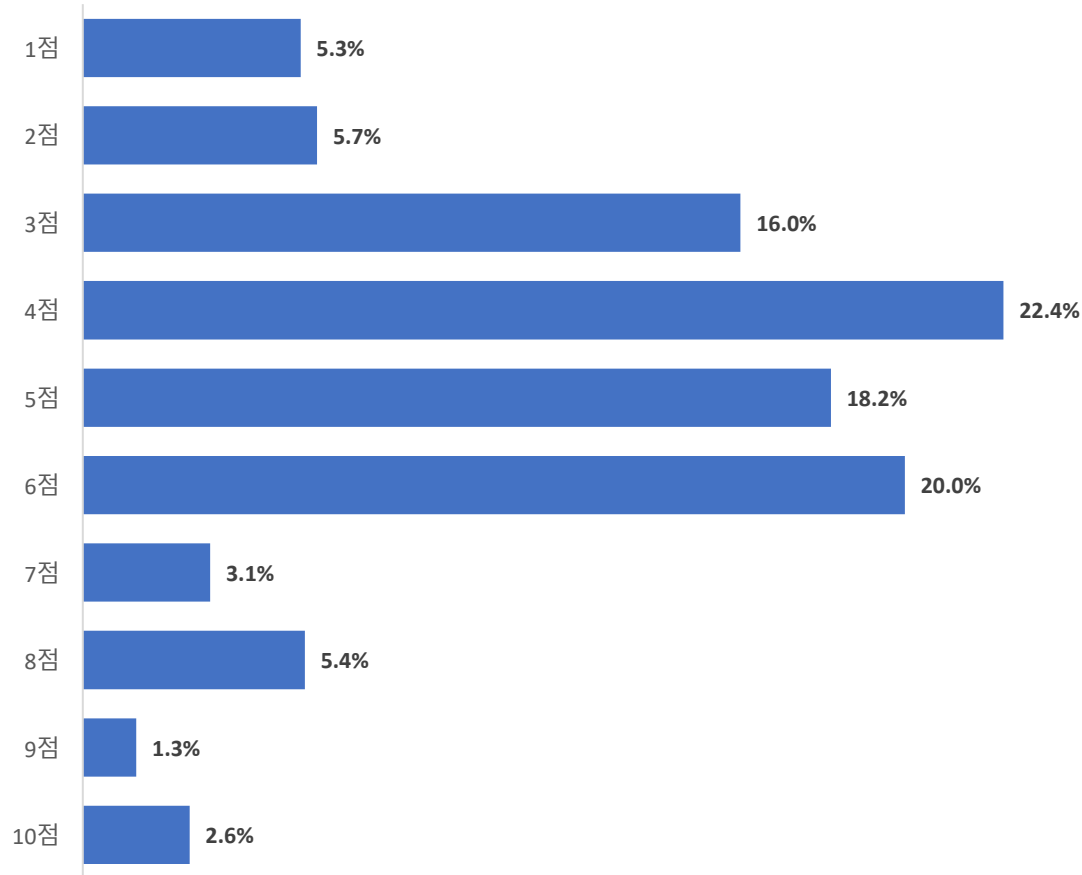


구분	소요시간	절차	심사과정의 친절도	환경
인원수	344	362	363	355

구분	소요시간	절차	심사과정의 친절도	환경
인원수	262	302	271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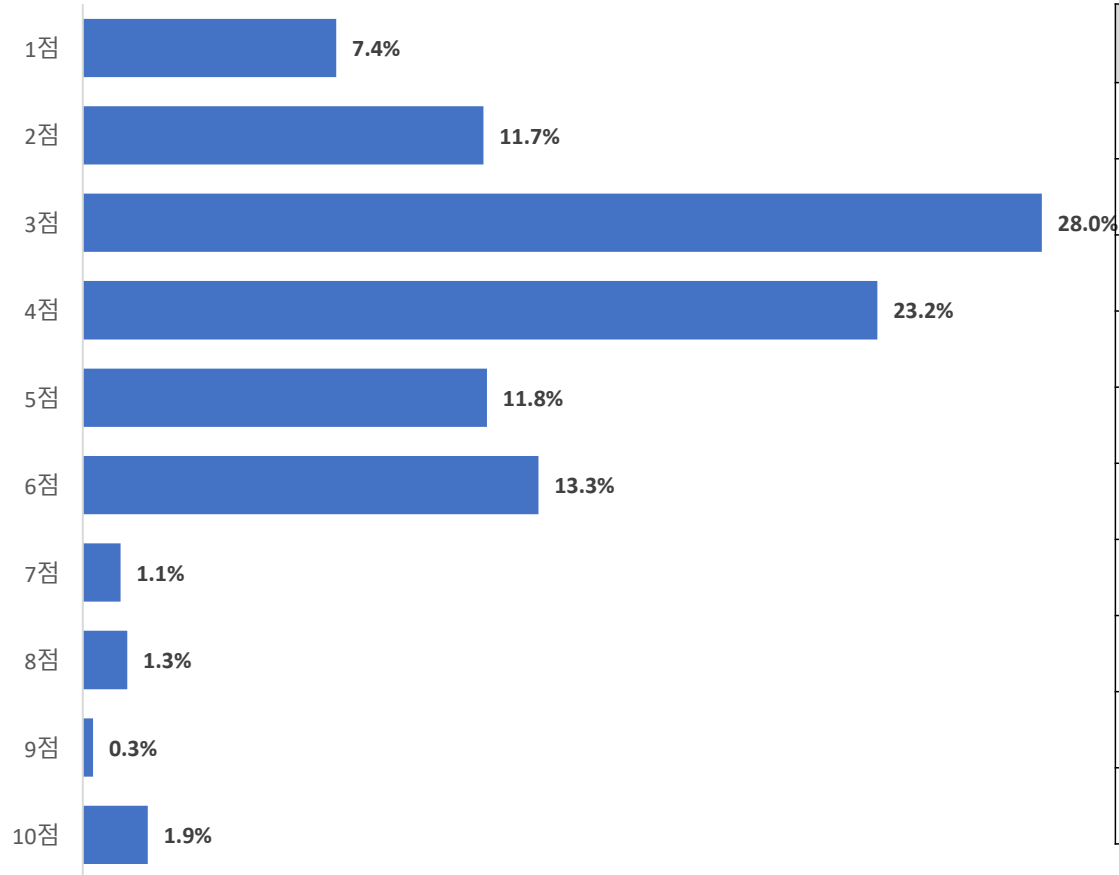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한국 입국 심사과정에서 단점이 한국 방문을 재고려할 정도인가?



구분	인원 수
1점	53
2점	57
3점	160
4점	224
5점	182
6점	200
7점	31
8점	54
9점	13
10점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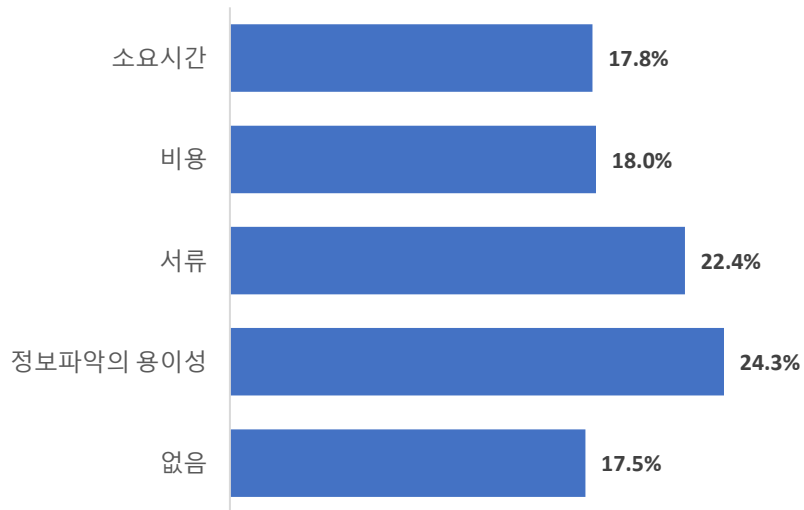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한국 입국 심사과정에서 장점이 한국 방문을 재고려할 정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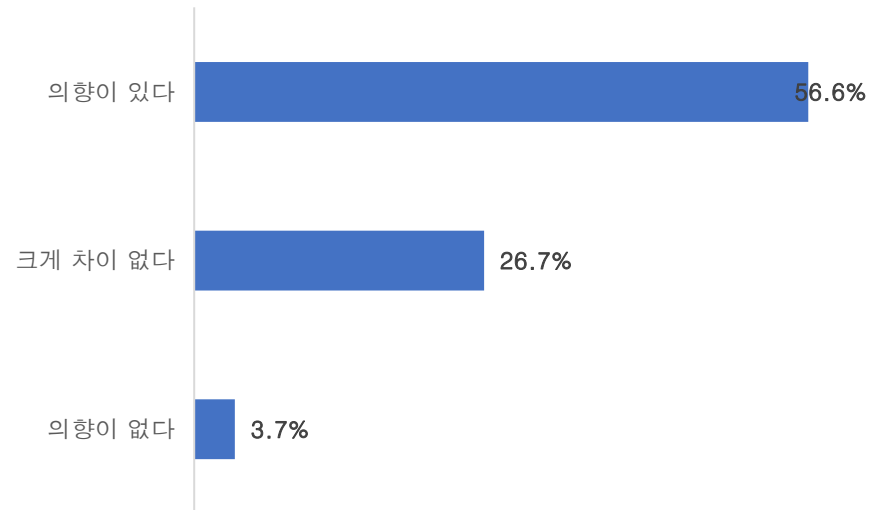
구분	인원 수
1점	74
2점	117
3점	281
4점	232
5점	118
6점	133
7점	11
8점	13
9점	3
10점	19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개별비자 방문자 대상 비자발급 과정 단점 및 단점 해소 시 방문의향

비자발급 과정의 단점



단점 해소 시 방문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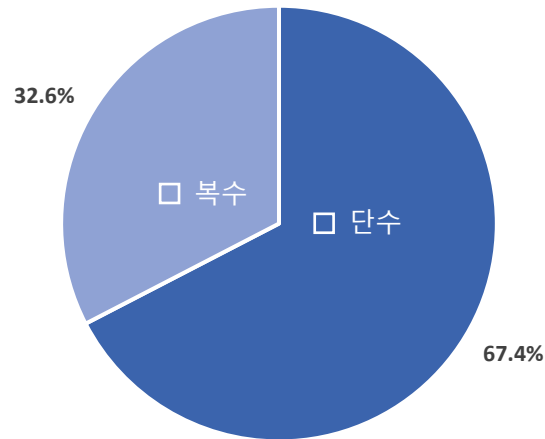


구분	소요시간	비용	서류	용이성	없음
인원수	102	103	128	139	100

구분	매우의향이 있다	다소의향이 있다	보통이다	다소의향이 없다	전혀 의향이 없다
인원수	74	229	143	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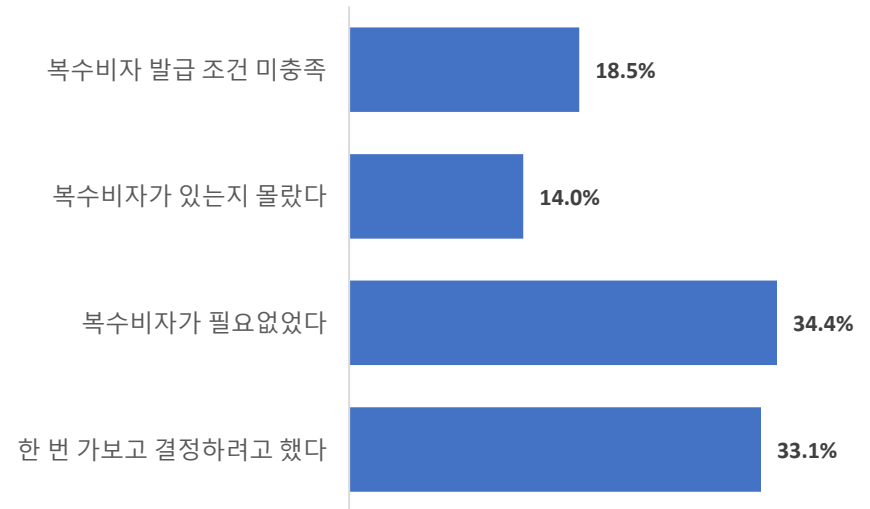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개별비자 방문 시 받은 비자의 종류 및 단수비자 대상 복수비자 미발급 이유

개별비자 방문 시 비자의 종류



구분	단수	복수
인원수	314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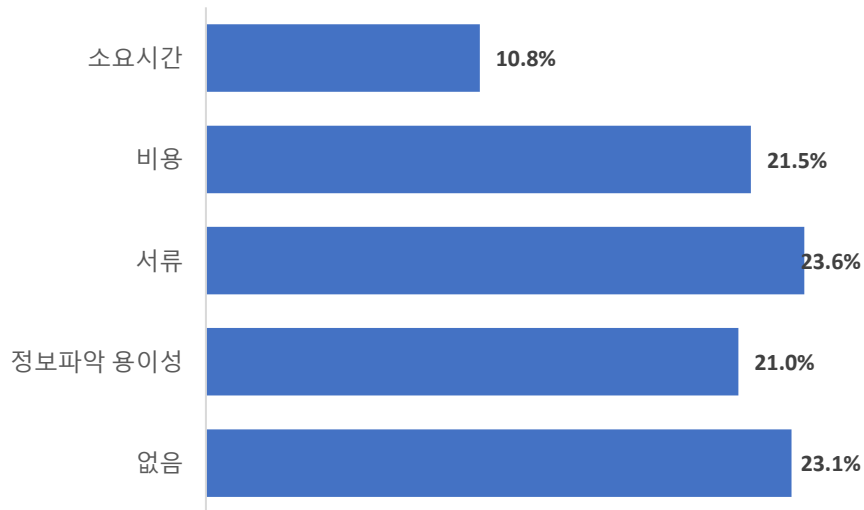
단수비자 여행객 대상 복수비자 미발급 이유



구분	복수비자 발급 조건 미충족	복수비자가 있는지 몰랐음	복수비자가 필요 없었음	한 번 가보고 결정하려고 함
인원수	58	44	108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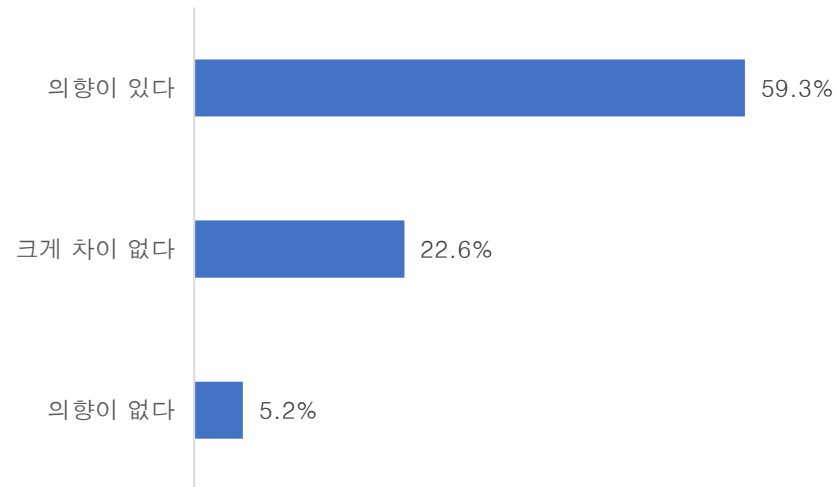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복수비자 여행객 대상 비자발급 과정의 단점 및 단점 해소 시 방문의향

비자발급 과정의 단점



구분	소요시간	비용	서류	용이성	없음
인원수	20	40	44	39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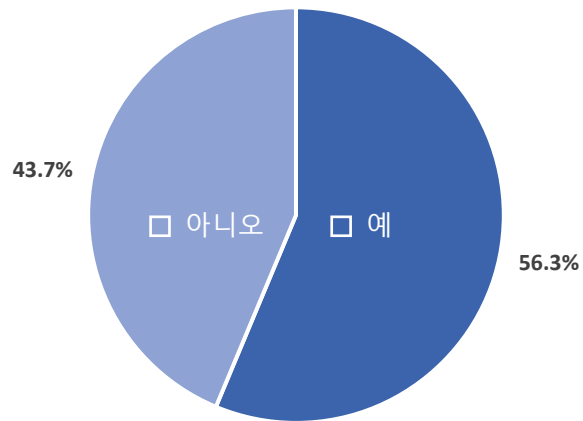
개별비자 여행객 대상 단점 해소 시 방문의향



구분	매우의향이 있다	다소의향이 있다	보통이다	다소의향이 없다	전혀 의향이 없다
인원수	80	237	121	1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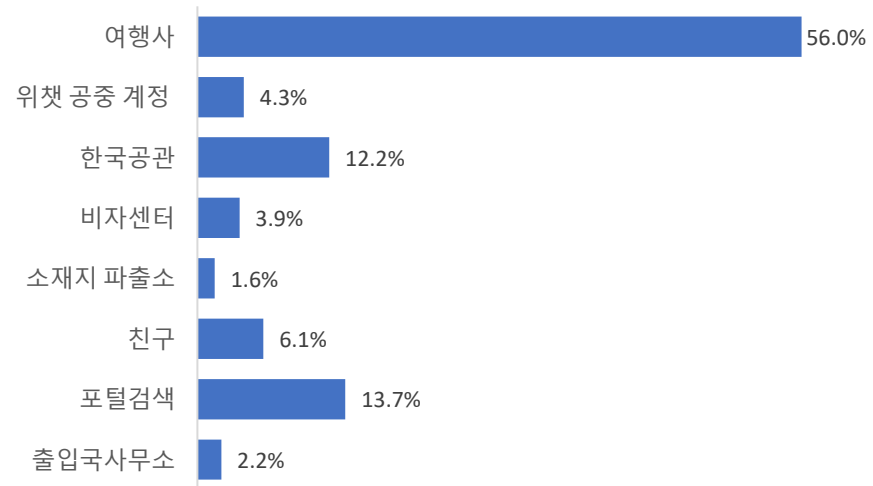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방한 시 자신에게 맞는 비자의 종류 인지 여부 및 비자 정보 얻는 곳

방한 시 자신에게 맞는 비자 종류 인지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인원수	564	437

비자 정보를 얻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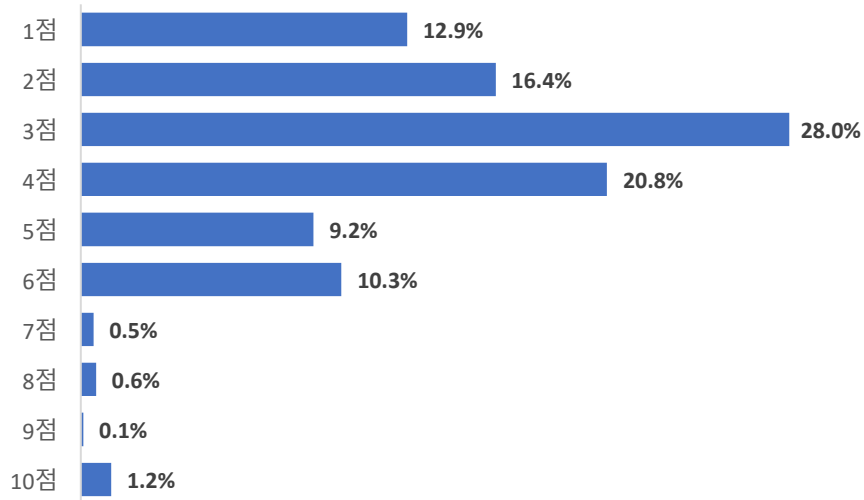
구분	여행사	위챗 공중 계정	한국공관	비자센터
인원수	561	43	122	39

구분	소재지 파출소	친구	포털검색	출입국사무소
인원수	16	61	137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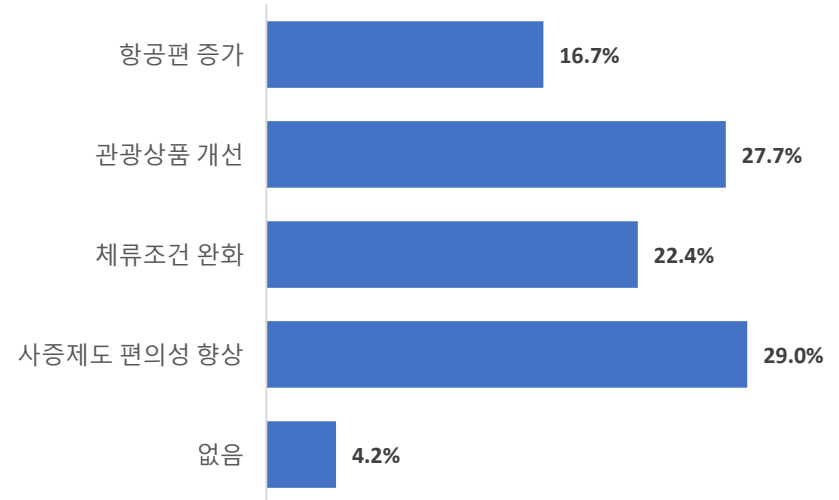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한-중 인적교류의 필요성 및 조치 중 개인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조치 종류

한-중 인적교류의 필요성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인원수	129	164	280	208	92	103	5	7	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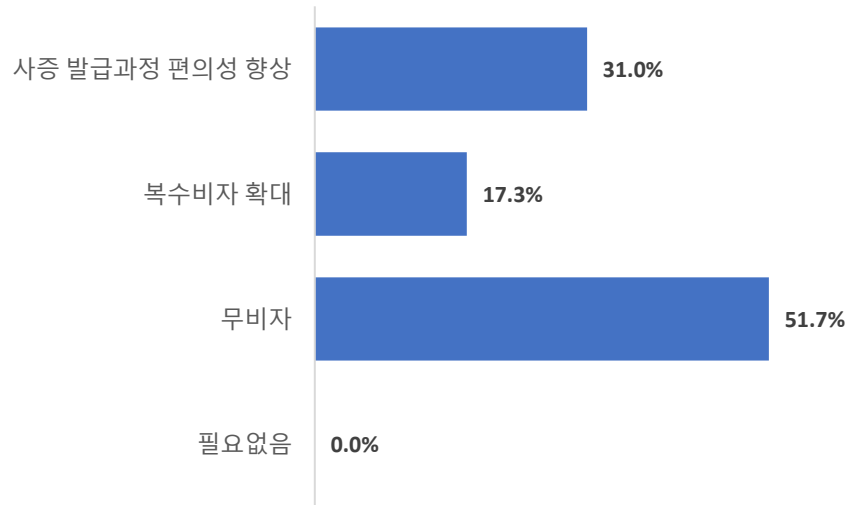
인적교류 증가를 위한 인적조치 중 체감이 큰 것



구분	항공편 증가	관광상품 개선	체류조건 완화	비자제도 편의성 향상	없음
인원수	302	500	403	522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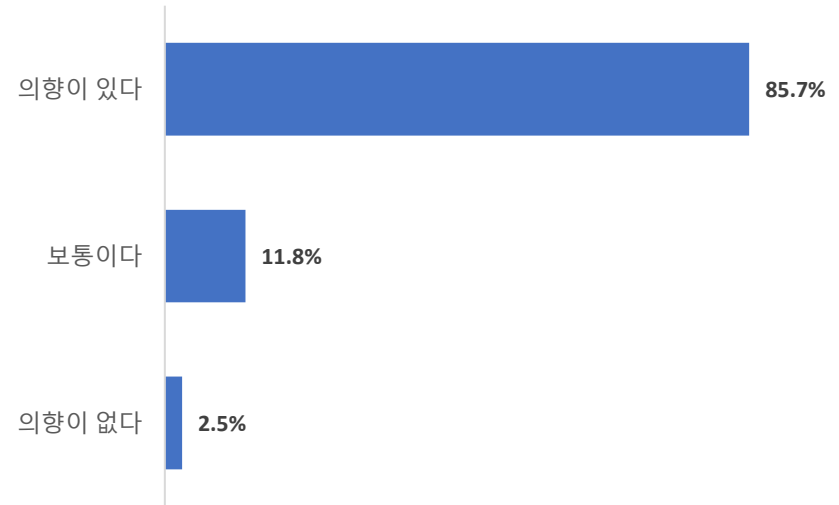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비자제도 개선 중 가장 시행되었으면 하는 것 및 무비자 시행 시 방문의향

비자제도 개선 방향 중 가장 시행되었으면 하는 것



구분	비자 발급과정 편의성 향상	복수비자 확대	무비자	필요 없음
인원수	310	173	518	0

무비자 시행 시 방문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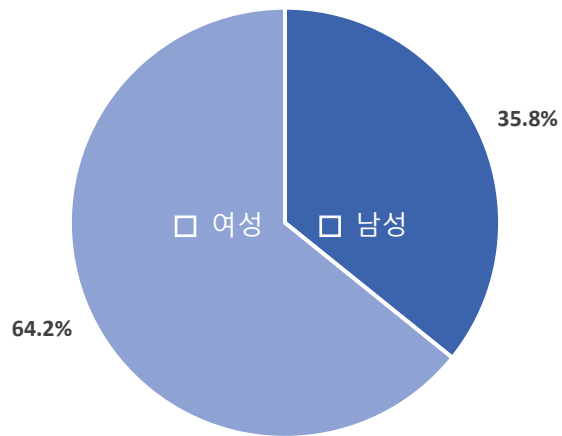


구분	매우 의향이 있다	다소 의향이 있다	보통이다	다소 의향이 없다	전혀 의향이 없다
인원수	356	502	118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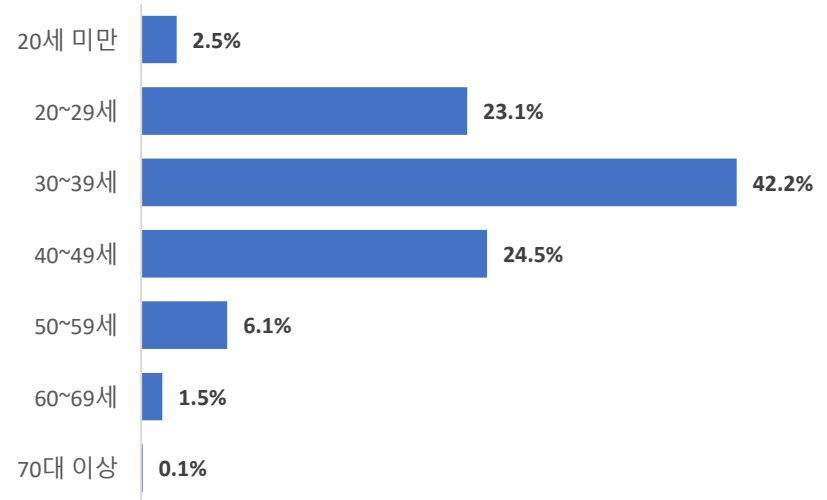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성별 및 연령

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인원수	358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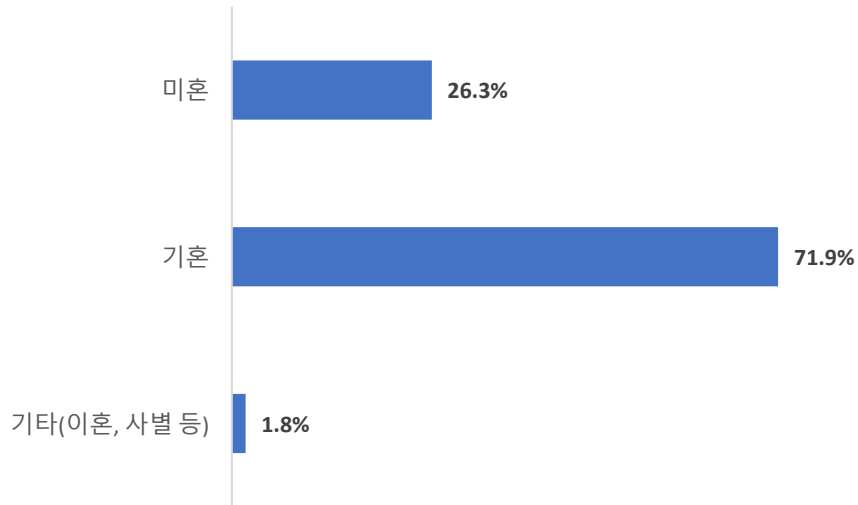
연령



구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대 이상
인원수	25	232	422	245	61	1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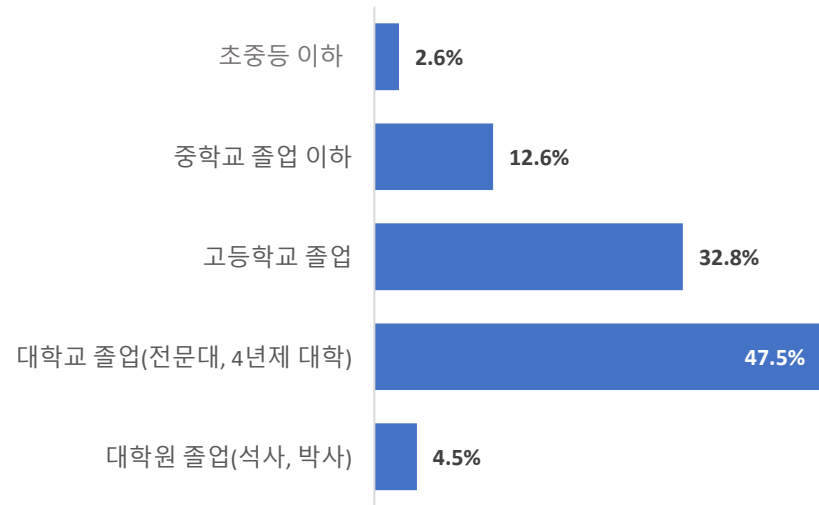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결혼여부 및 학력

결혼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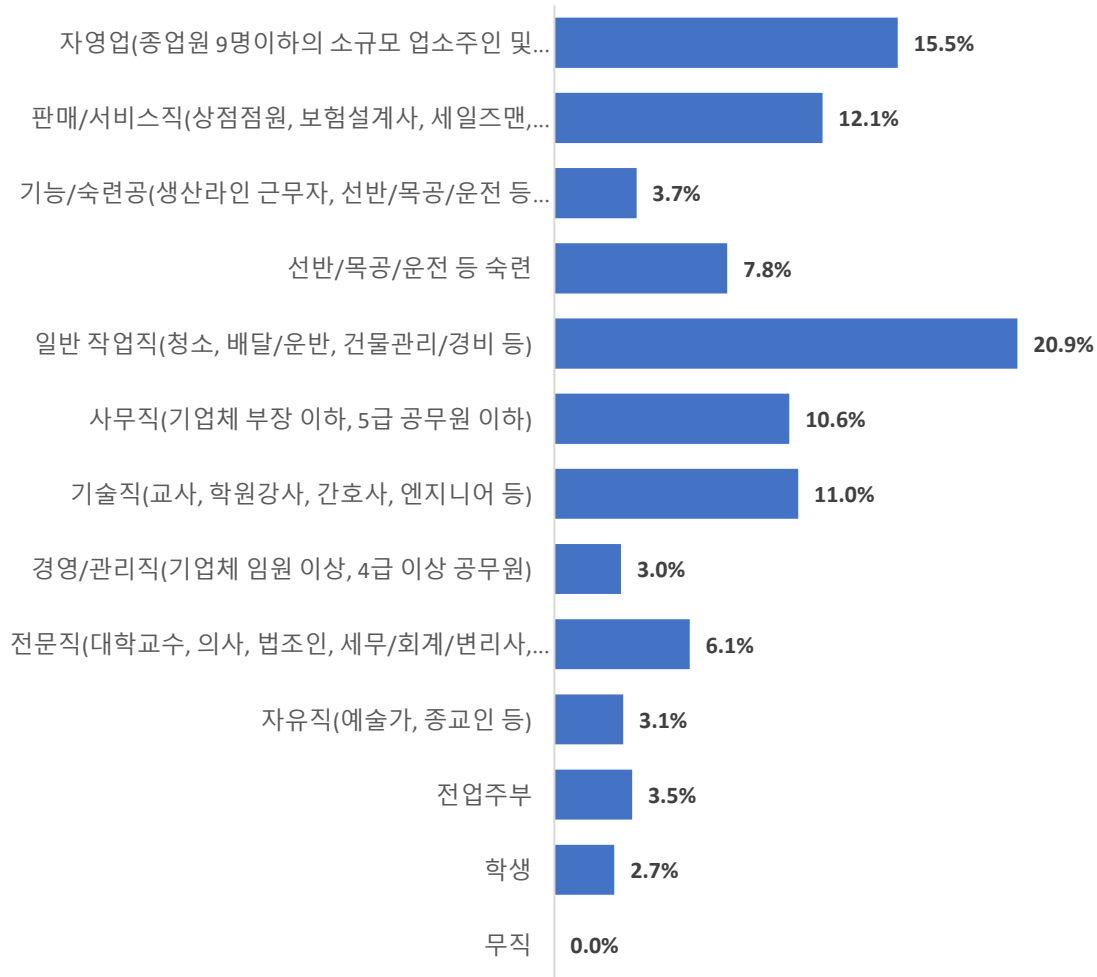
구분	미혼	기혼	기타 (이혼, 사별 등)
인원수	263	720	18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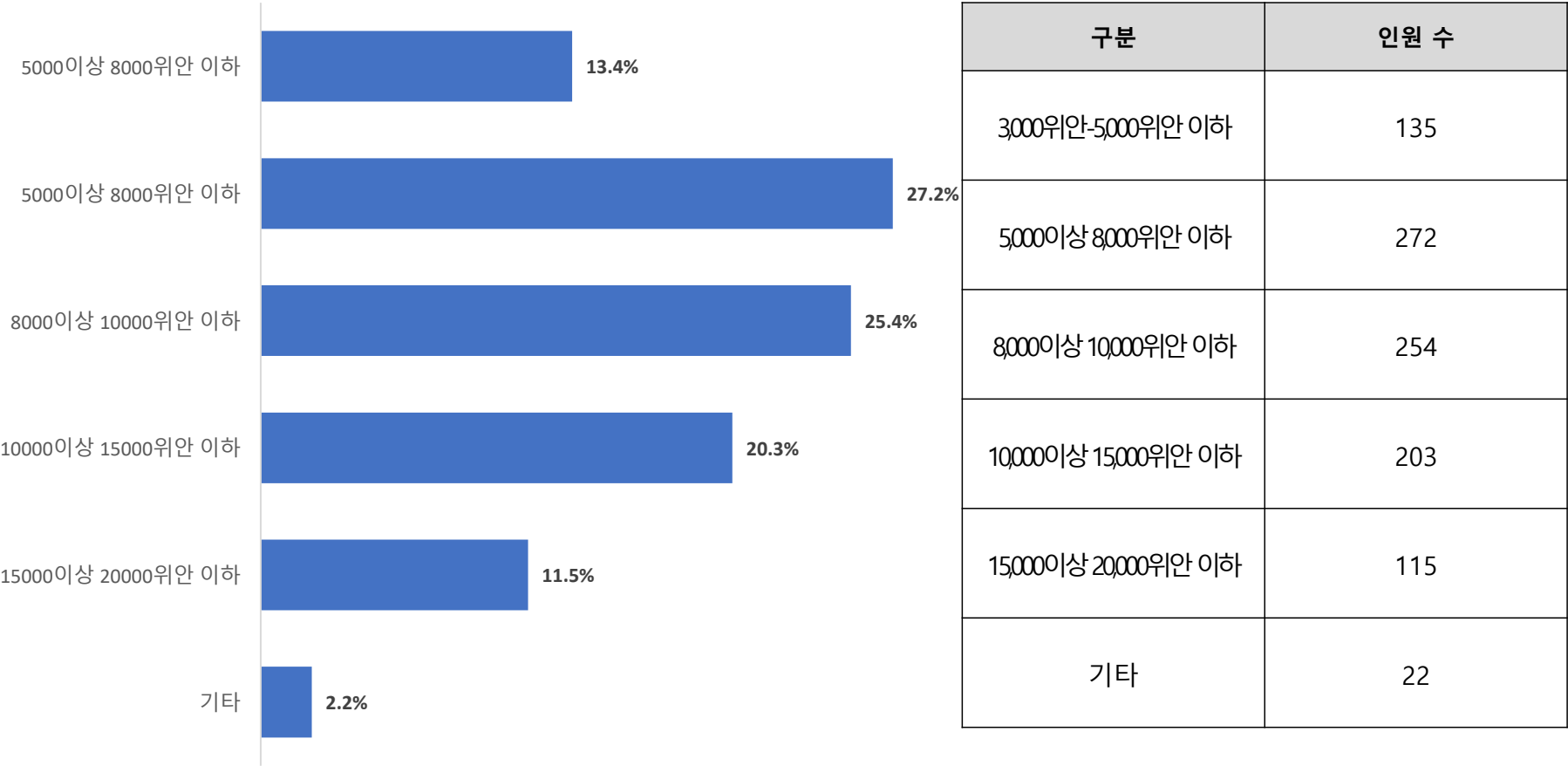
구분	초중등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졸업 (석사, 박사)
인원수	26	126	328	476	45

##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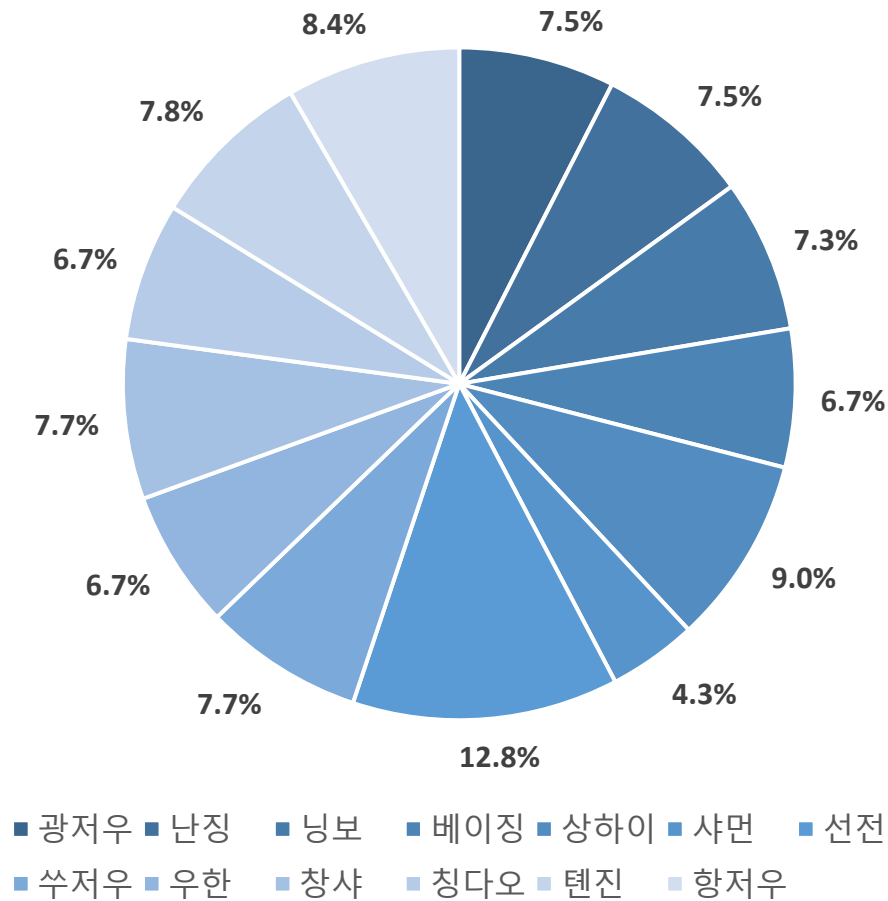


구분	인원 수
자영업(종업원 9명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사 등)	155
판매/서비스직(상점점원, 보험설계사, 세일즈맨, 이발·미용사 등)	122
기능/숙련공(생산라인 근무자, 선반/목공/운전 등 숙련직 등)	37
선반/목공/운전 등 숙련	78
일반 작업직(청소, 배달/운반, 건물관리/경비 등)	209
사무직(기업체 부장 이하, 5급 공무원 이하)	106
기술직(교사, 학원강사, 간호사, 엔지니어 등)	110
경영/관리직(기업체 임원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30
전문직(대학교수, 의사, 법조인, 세무/회계/변리사, 언론인 등)	61
자유직(예술가, 종교인 등)	31
전업주부	35
학생	27
무직	0

6. 1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월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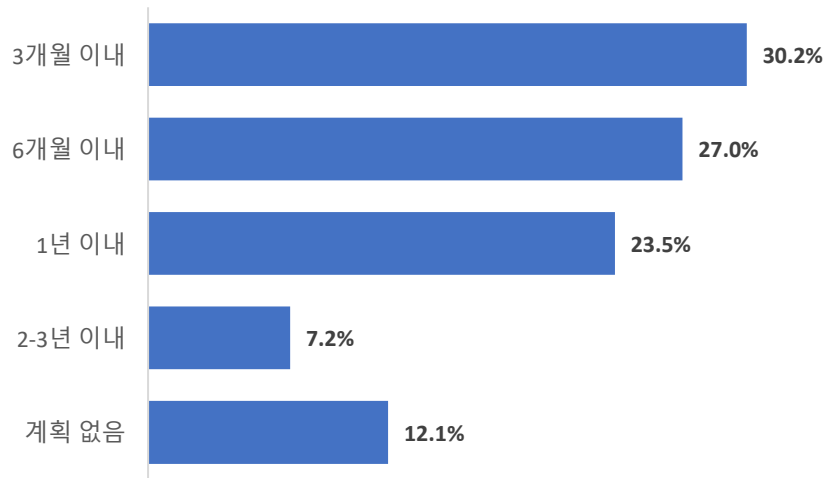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현재 거주 중인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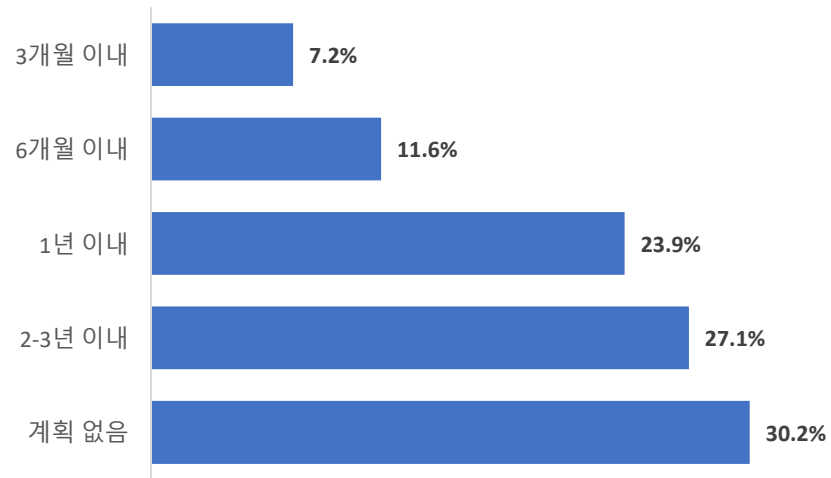
거주 중인 도시	인원 수
광저우	44
난징	44
닝보	43
베이징	39
상하이	53
샤먼	25
선전	75
쑤저우	45
우한	39
창샤	45
칭다오	39
톈진	46
항저우	49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국내여행 계획 시기 및 해외여행 계획 시기

국내여행 계획 시기



해외여행 계획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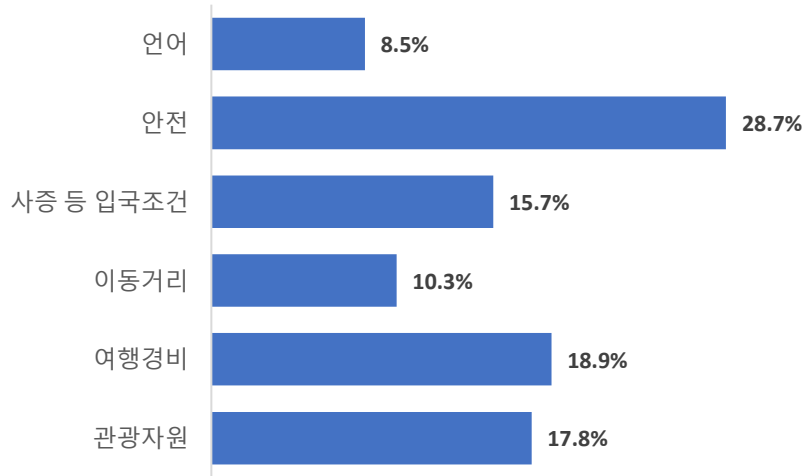


구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3년 이내	여행계획 없음
인원수	177	158	138	42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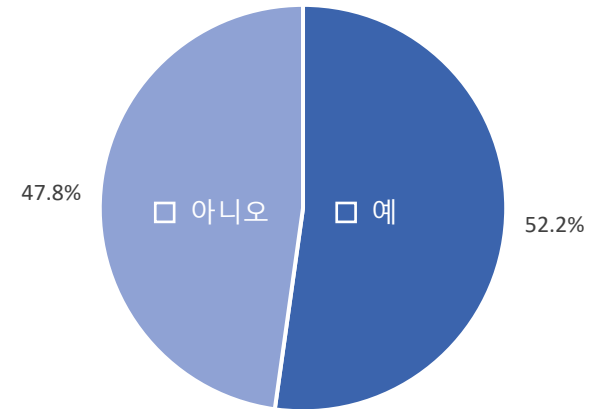
구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3년 이내	여행계획 없음
인원수	69	116	237	266	313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해외여행 결정 시 주요 고려요인 및 한국 방문의향

주요 고려요인



한국 방문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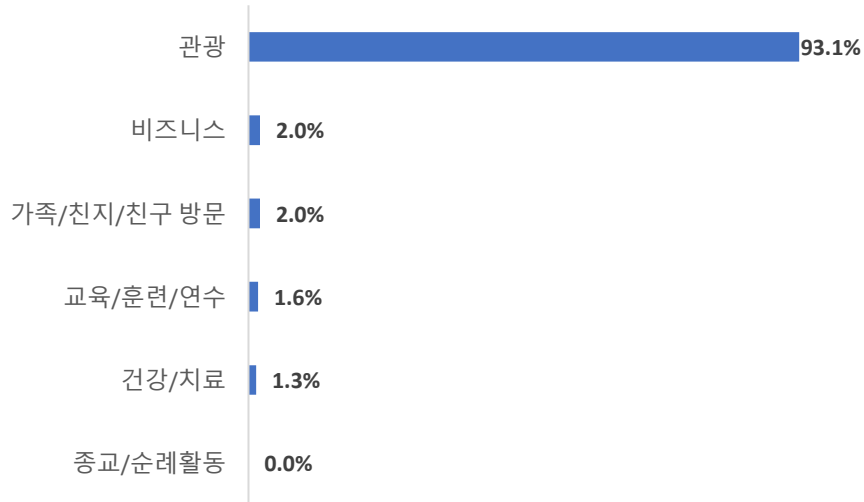


구분	관광자원	여행경비	이동거리	비자 등 입국조건	안전	언어
인원수	242	257	140	213	389	116

구분	예	아니오
인원수	306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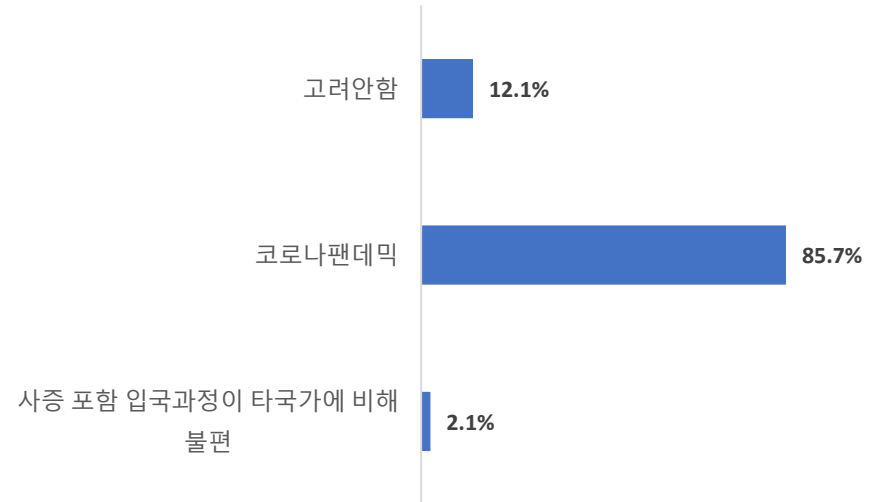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한국 방문의향에 따른 이유

## 한국 방문의향이 있으며, 이유



구분	관광	비즈니스	가족/친지/친구 방문	교육/훈련/연수	건강/치료	종교/순례활동
인원수	285	6	6	5	4	0

## 한국 방문의향이 없으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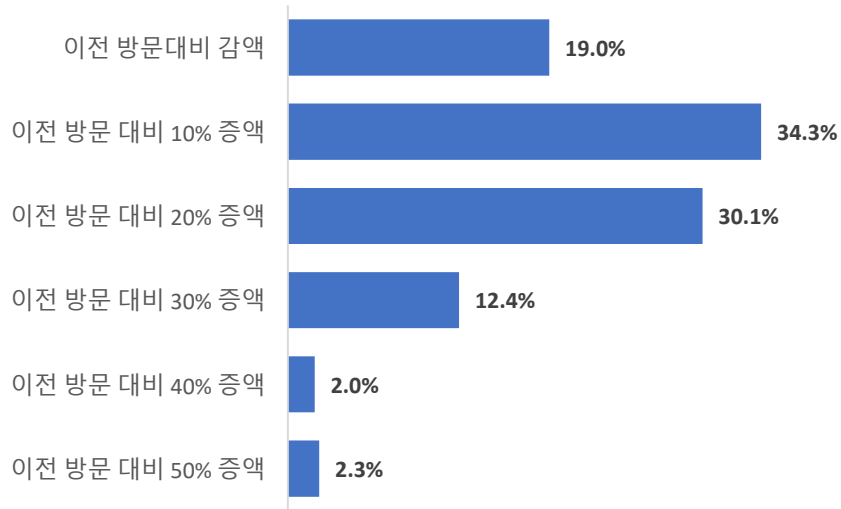


구분	고려안함	코로나팬데믹	비자 포함 입국과정이 타국가에 비해 불편
인원수	34	24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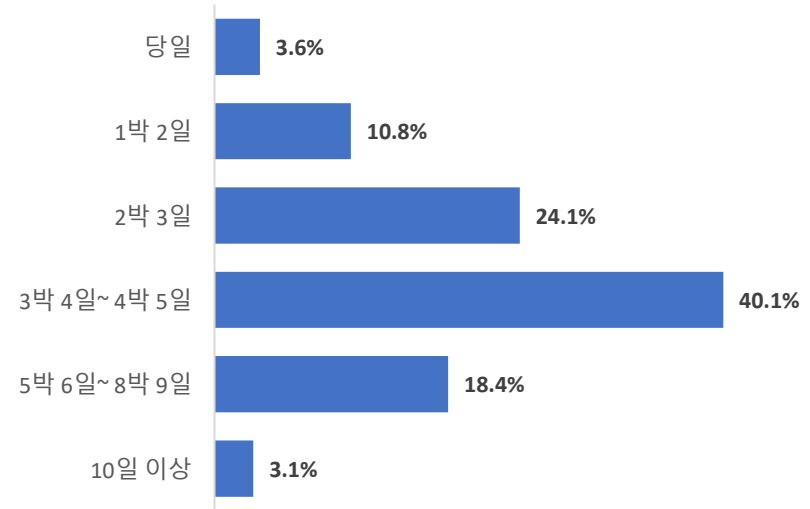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한국 방문 시 예상 경비 및 예상 체류기간

한국 방문 시 예상 경비



구분	이전 방문 대비 감액	이전방문 대비 10% 증액	이전방문 대비 20% 증액	이전방문 대비 30% 증액	이전방문 대비 40% 증액	이전방문 대비 50% 증액
인원수	58	105	92	38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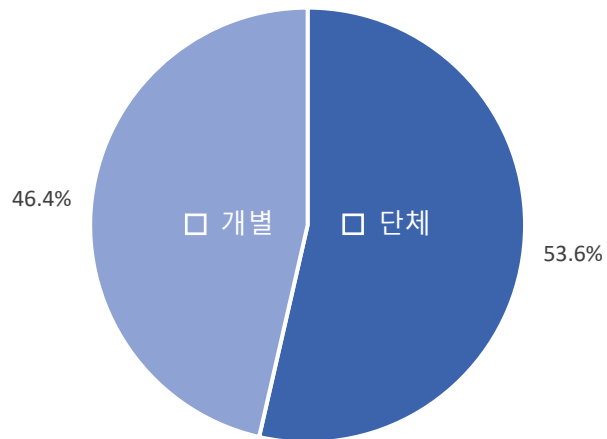
예상 체류기간



구분	당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8박 9일	10일 이상
인원수	21	63	141	235	10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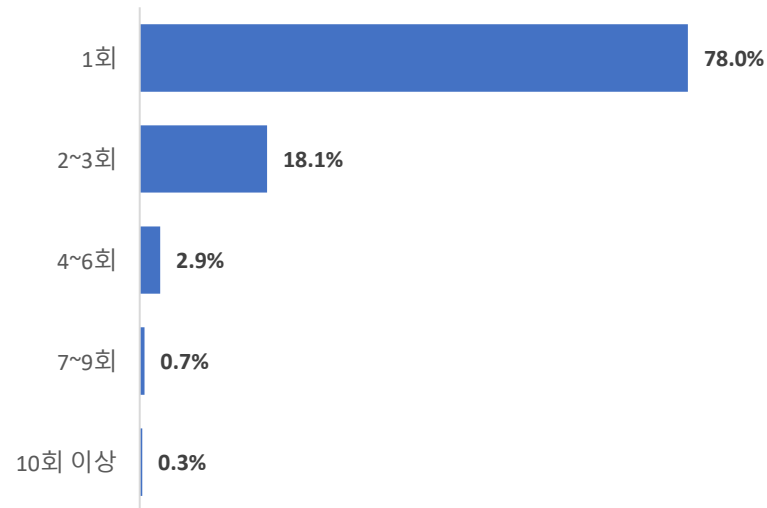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기존 한국 방문 형태 및 횟수

기존 한국 방문 형태



구분	단체	개별
인원수	314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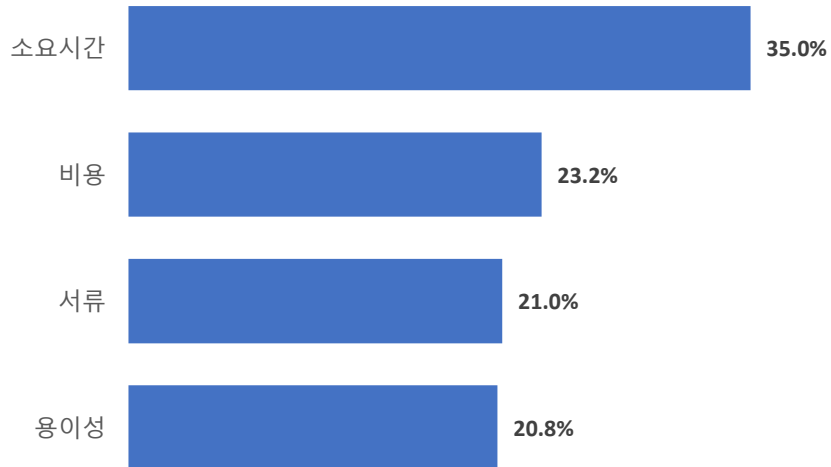
기존 한국 방문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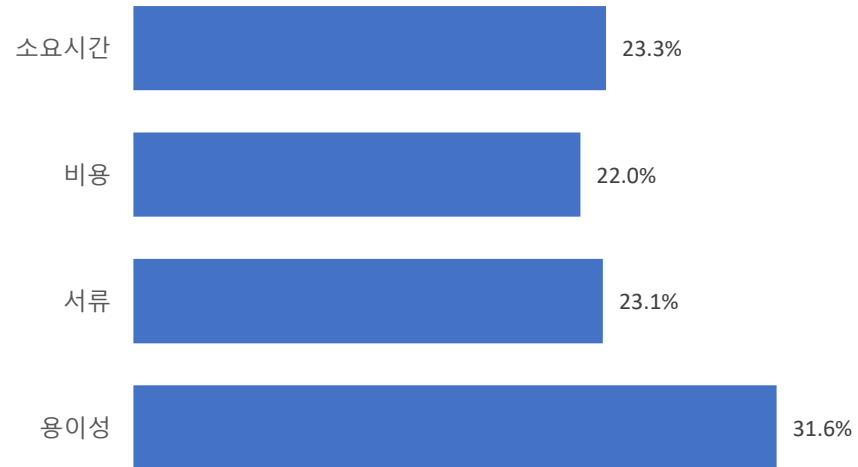
구분	1회	2~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인원수	457	106	17	4	2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비자 신청/수령 과정에서의 장단점

비자 신청/수령 과정에서의 장점(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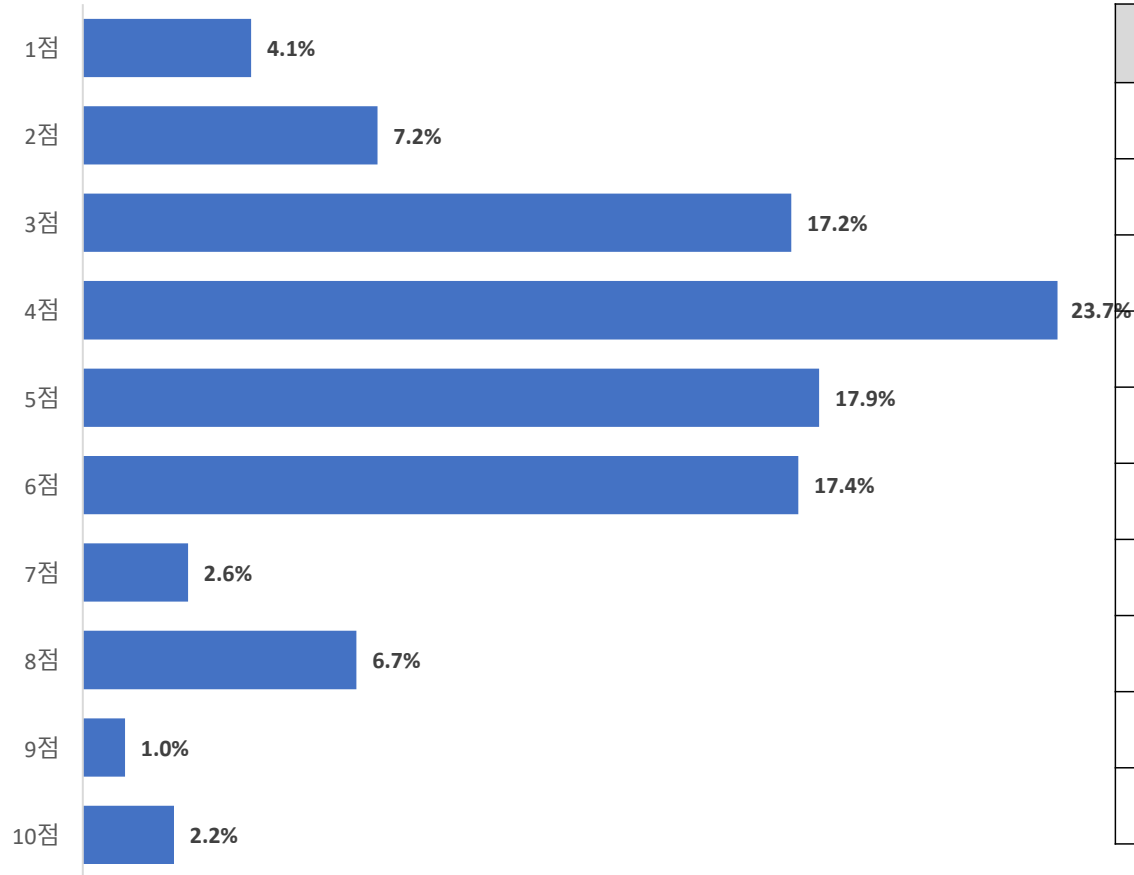
비자 신청/수령 과정에서의 단점(복수응답)



구분	소요시간	비용	서류	용이성
인원수	268	178	161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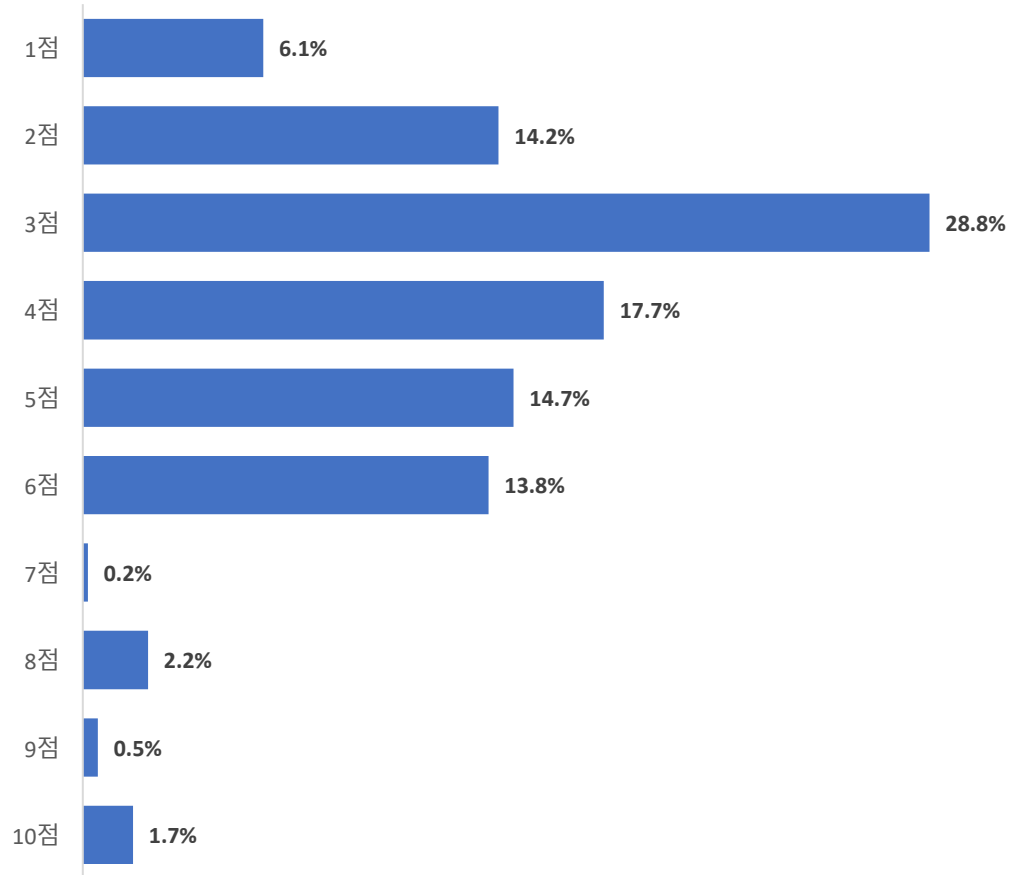
구분	소요시간	비용	서류	용이성
인원수	147	139	146	200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비자 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의 단점이 한국 방문을 재고려할 정도인가?



구분	인원 수
1점	24
2점	42
3점	101
4점	139
5점	105
6점	102
7점	15
8점	39
9점	6
10점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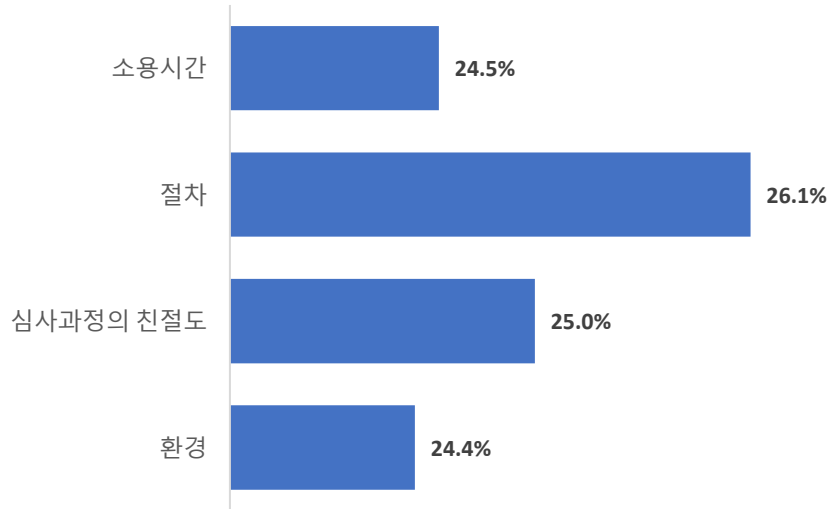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비자 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의 장점이 한국 방문을 재고려할 정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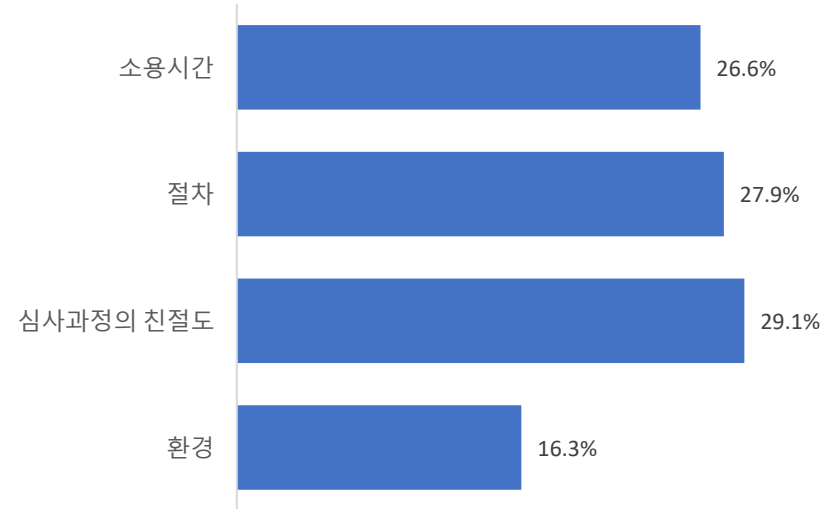
구분	인원 수
1점	36
2점	83
3점	169
4점	104
5점	86
6점	81
7점	1
8점	13
9점	3
10점	10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한국 입국심사 과정에서의 장단점

장점(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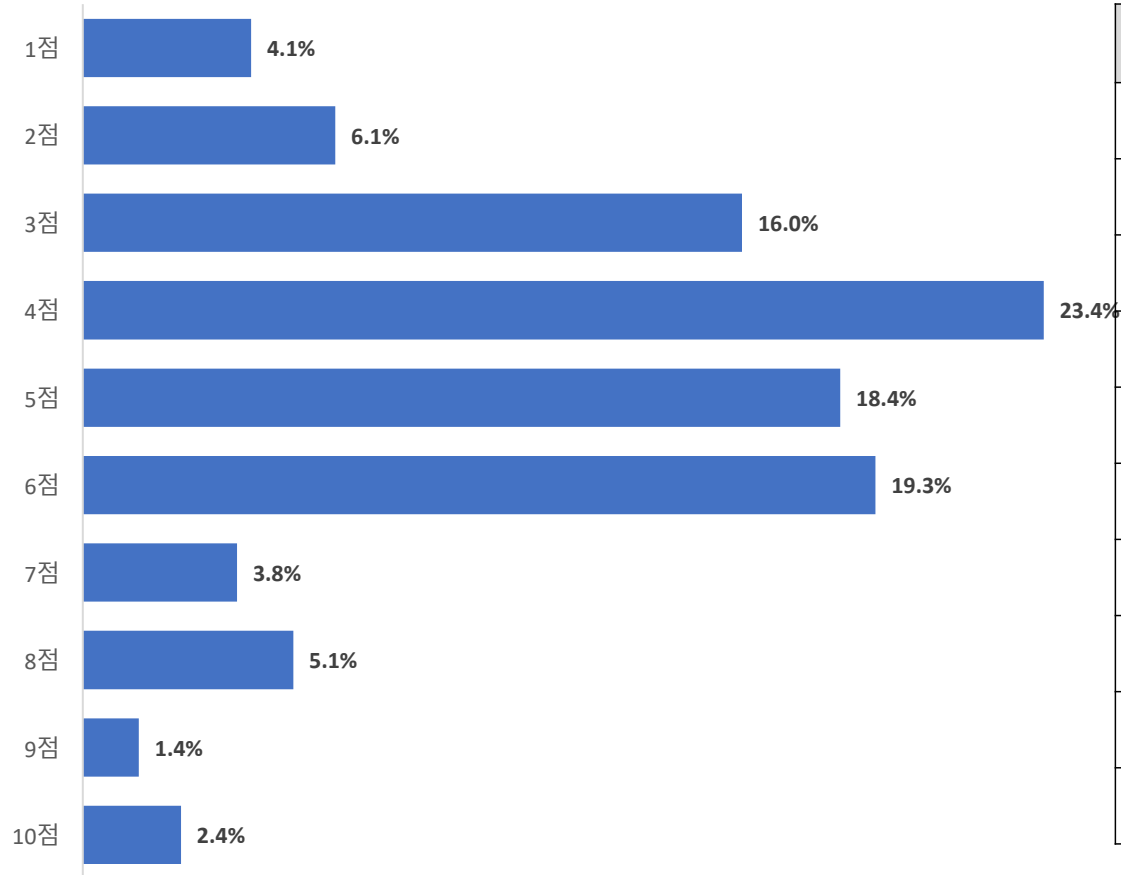
단점(복수응답)



구분	소요시간	절차	심사과정의 친절도	환경
인원수	208	221	212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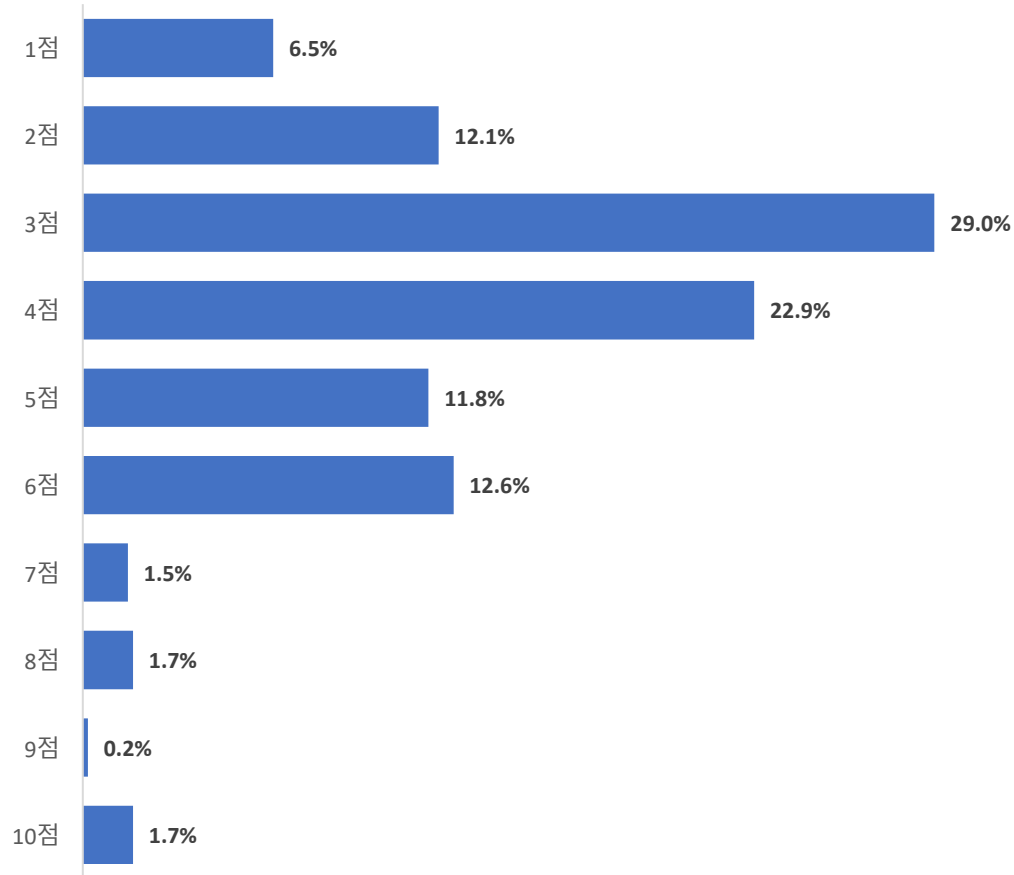
구분	소요시간	절차	심사과정의 친절도	환경
인원수	158	166	173	97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한국 입국 심사과정에서 단점이 한국 방문을 재고려할 정도인가?



구분	인원 수
1점	24
2점	36
3점	94
4점	137
5점	108
6점	113
7점	22
8점	30
9점	8
10점	14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한국 입국 심사과정에서 장점이 한국 방문을 재고려할 정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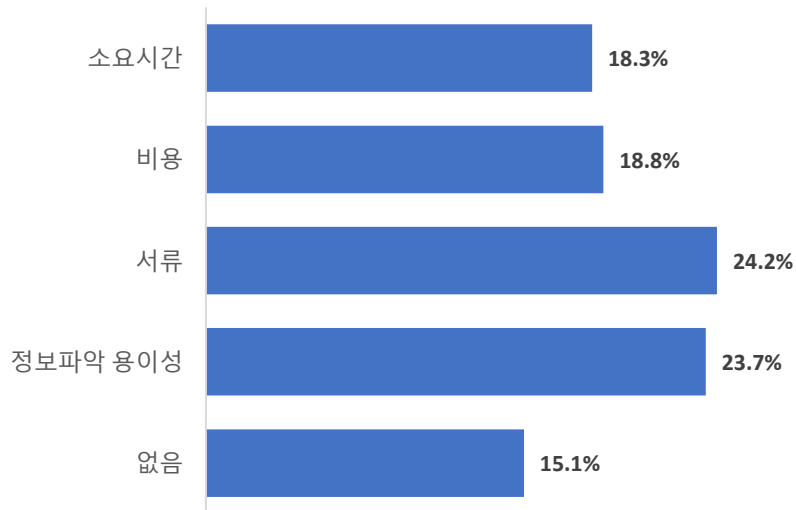


구분	인원 수
1점	38
2점	71
3점	170
4점	134
5점	69
6점	74
7점	9
8점	10
9점	1
10점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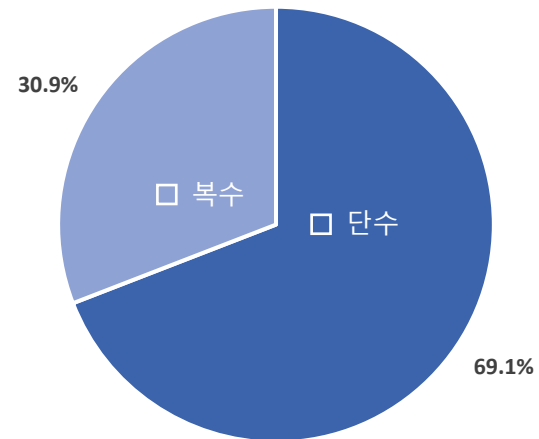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개별비자 방문자 대상 비자발급 과정 단점 및 방문 시 받은 비자의 종류

비자발급 과정의 단점



개별비자 방문 시 비자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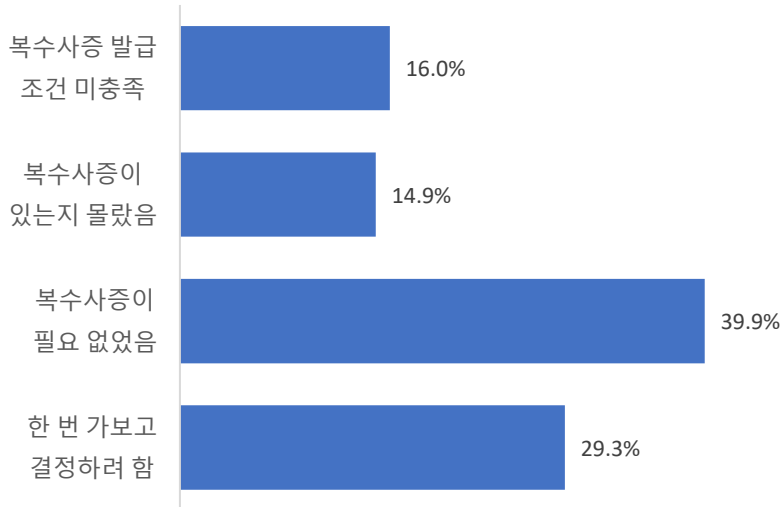


구분	소요시간	비용	서류	용이성	없음
인원수	68	70	90	88	56

구분	단수	복수
인원수	188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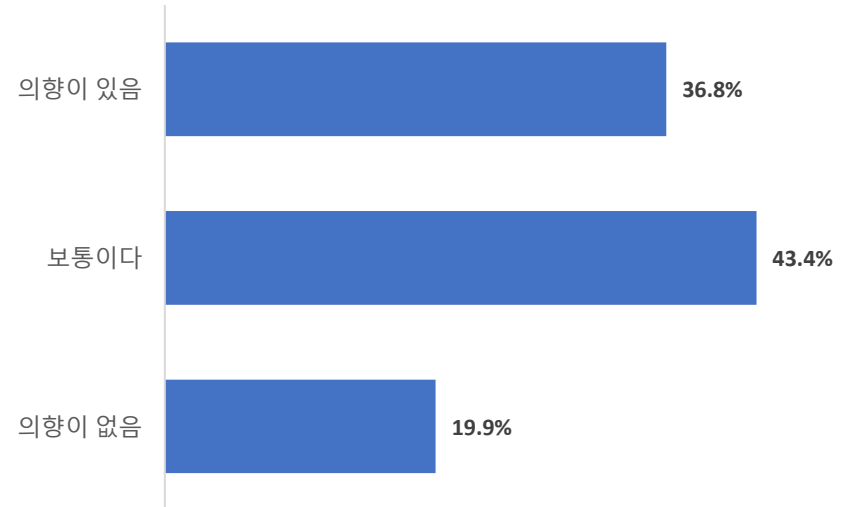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단수비자 대상 복수비자 미발급 이유 및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시 방문의향

단수비자 여행객 대상 복수비자 미발급 이유



구분	복수비자 발급 조건 미충족	복수비자가 있는지 몰랐음	복수비자가 필요 없었음	한 번 가보고 결정하려 함
인원수	30	28	75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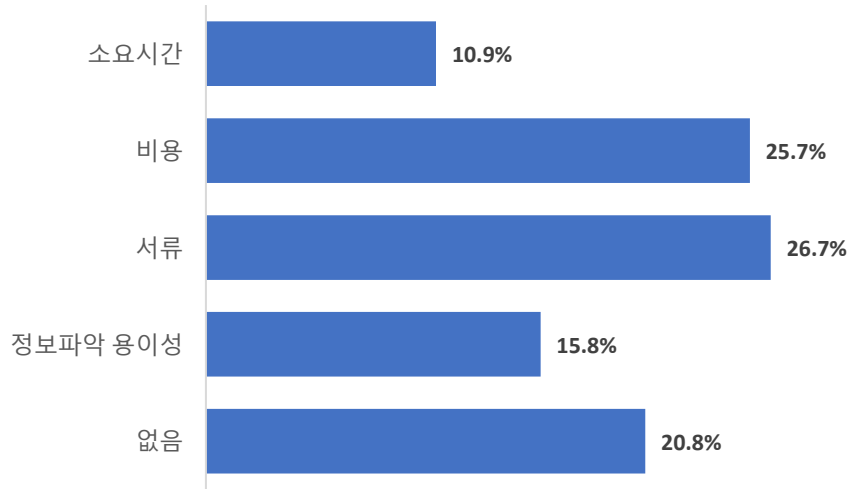
개별비자 여행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시 방문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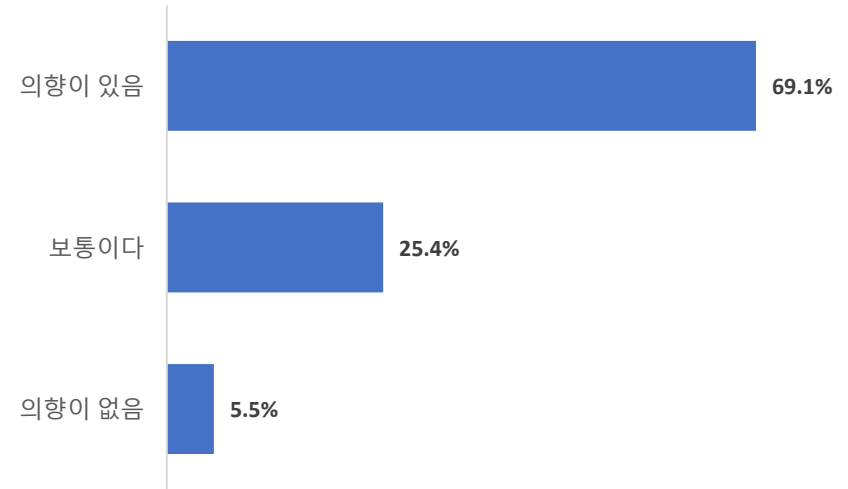
구분	매우의향이 있다	다소의향이 있다	보통이다	다소의향이 없다	전혀 의향이 없다
인원수	34	66	118	30	24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복수비자 여행객 대상 비자발급 과정의 단점 및 복수비자의 전자비자화 방문의향

비자발급 과정의 단점



개별비자 여행객 대상 복수비자의 전자비자화 시 방문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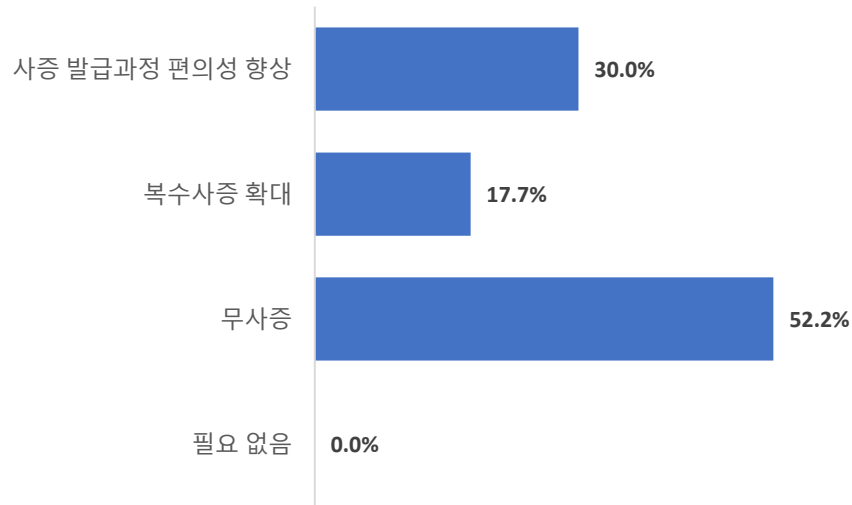


구분	소요시간	비용	서류	용이성	없음
인원수	11	26	27	16	21

구분	매우의향이 있다	다소의향이 있다	보통이다	다소의향이 없다	전혀 의향이 없다
인원수	42	146	69	1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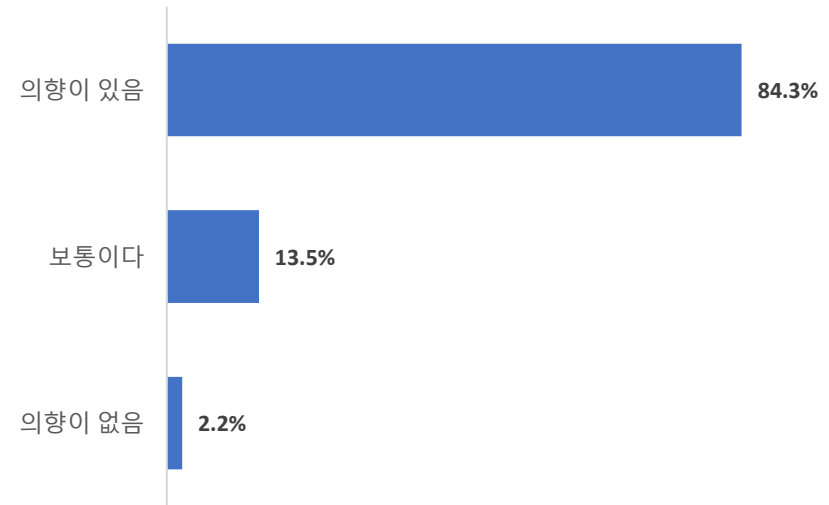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비자제도 개선 중 가장 시행되었으면 하는 것 및 무비자 시행 시 방문의향

비자제도 개선 방향 중 가장 시행되었으면 하는 것



구분	비자 발급과정 편의성 향상	복수비자 확대	무비자	필요 없음
인원수	176	104	306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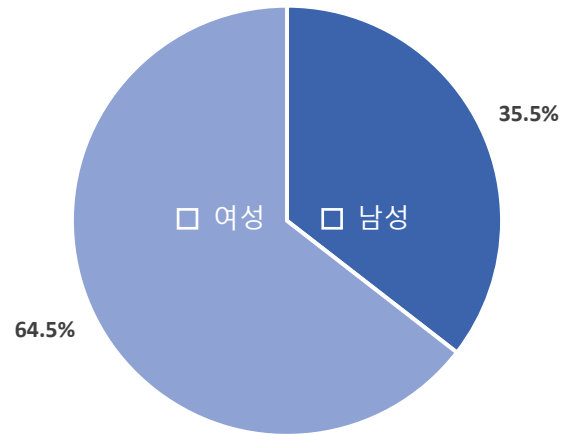
무비자 시행 시 방문 의향



구분	매우 의향이 있다	다소 의향이 있다	보통이다	다소 의향이 없다	전혀 의향이 없다
인원수	205	289	79	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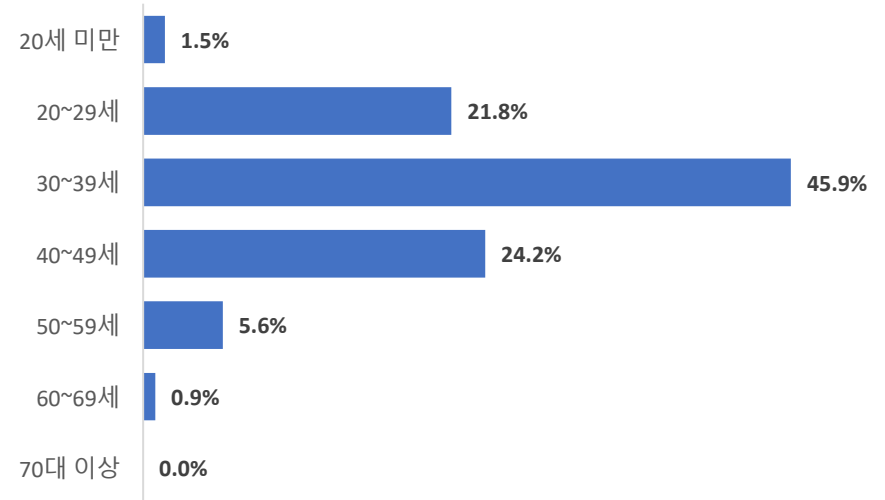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성별 및 연령

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인원수	208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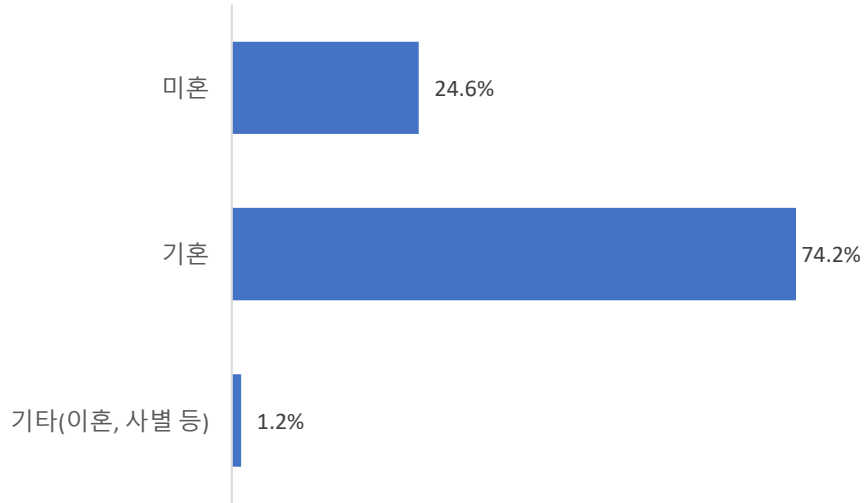
연령



구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대 이상
인원수	9	128	269	142	33	5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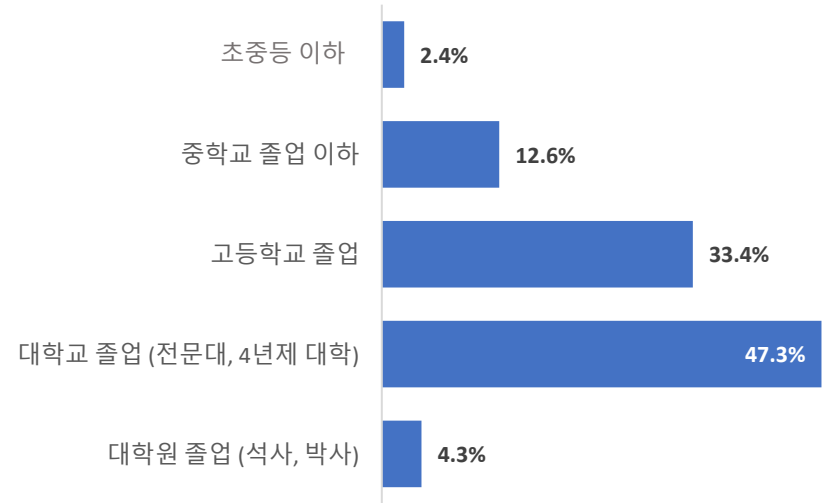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결혼여부 및 학력

결혼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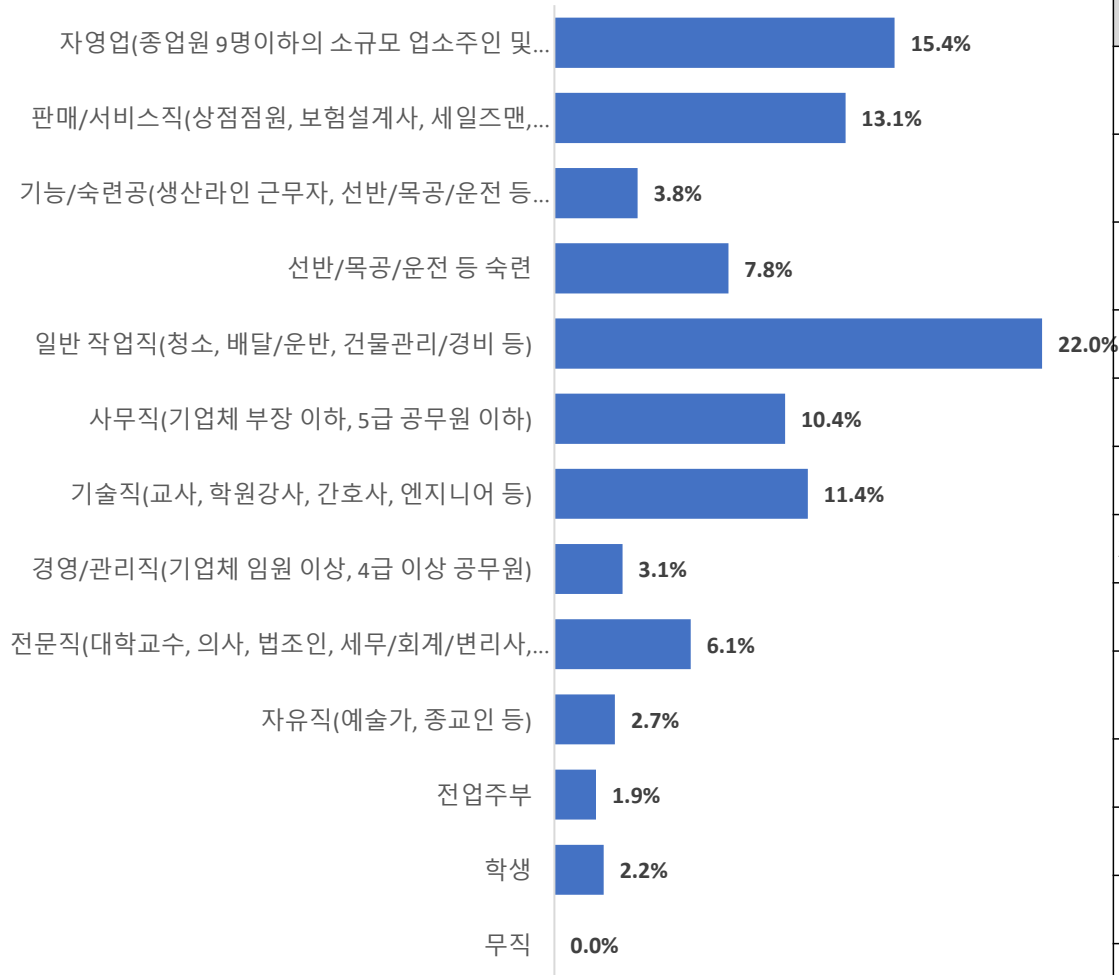
구분	미혼	기혼	기타 (이혼, 사별 등)
인원수	144	435	7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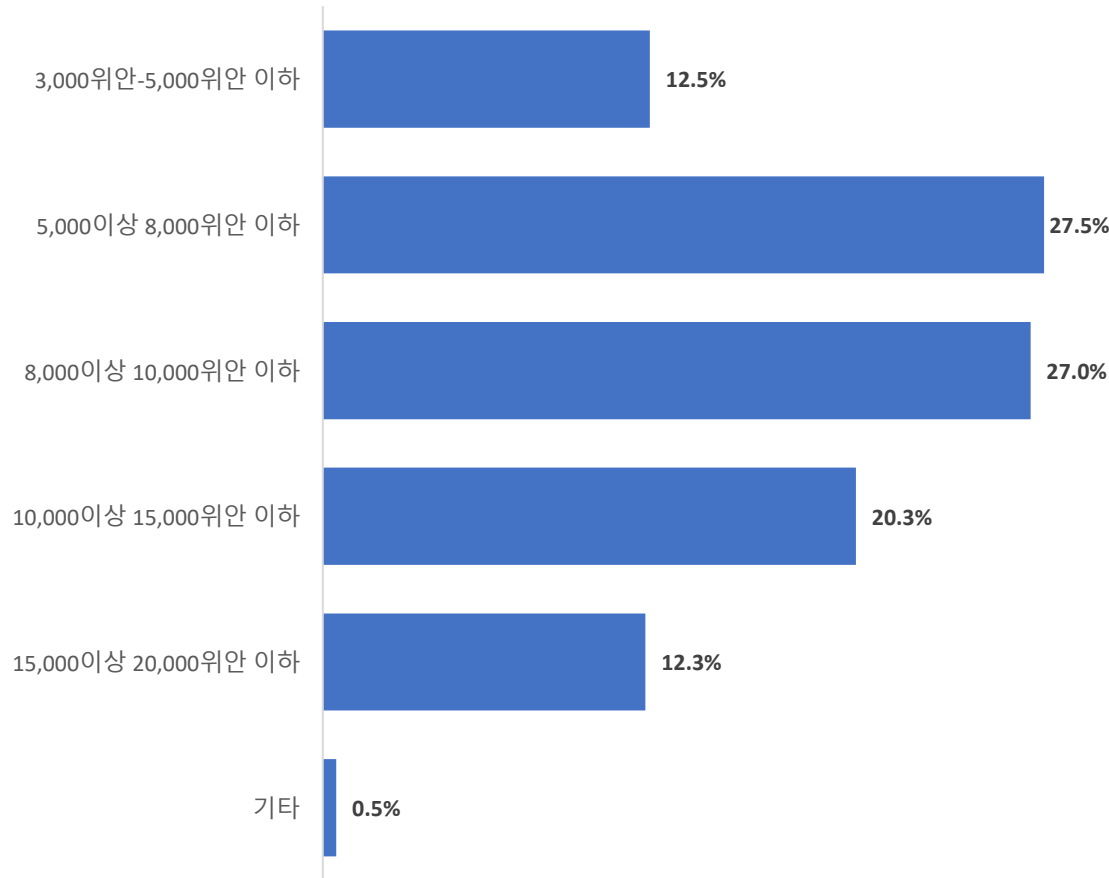
구분	초중등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졸업 (석사, 박사)
인원수	14	74	196	277	25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직업



구분	인원 수
자영업(종업원 9명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사 등)	90
판매/서비스직(상점점원, 보험설계사, 세일즈맨, 이발·미용사 등)	77
기능/숙련공(생산라인 근무자, 선반/목공/운전 등 숙련직 등)	22
선반/목공/운전 등 숙련	46
일반 작업직(청소, 배달/운반, 건물관리/경비 등)	129
사무직(기업체 부장 이하, 5급 공무원 이하)	61
기술직(교사, 학원강사, 간호사, 엔지니어 등)	67
경영/관리직(기업체 임원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18
전문직(대학교수, 의사, 법조인, 세무/회계/변리사, 언론인 등)	36
자유직(예술가, 종교인 등)	16
전업주부	11
학생	13
무직	0

## 7. 2차 수요조사 문항 및 결과\_월소득



구분	인원 수
3,000위안-5,000위안 이하	73
5,000이상 8,000위안 이하	161
8,000이상 10,000위안 이하	158
10,000이상 15,000위안 이하	119
15,000이상 20,000위안 이하	72
기타	3



## 8. 한·중 지역간 자매결연 현황\_서울특별시(1/2)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1	강남구	랴오닝성	다롄시	자매교류
2	강남구	베이징시	차오양구	자매교류
3	강남구	산둥성	지난시	자매교류
4	강남구	상하이시	푸둥신구	우호교류
5	강남구	선전시	푸톈구	우호교류
6	강동구	베이징시	펑타이구	자매교류
7	강동구	저장성	항저우시	우호교류
8	강동구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우호교류
9	강동구	허베이성	탕산시	우호교류
10	강북구	랴오닝성	선양시	자매교류
11	강북구	상하이시	자딩구	자매교류
12	강서구	산둥성	옌타이시	자매교류
13	강서구	상하이시	창닝구	자매교류
14	관악구	네이멍구	자치구	자매교류
15	관악구	랴오닝성	선양시	우호교류
16	관악구	베이징시	다싱구	자매교류
17	관악구	지린성	옌벤조선평족자치주	자매교류
18	구로구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시	자매교류
19	구로구	랴오닝성	선양시	우호교류
20	구로구	베이징시	통저우구	자매교류
21	구로구	산둥성	칭다오시	자매교류
22	구로구	장쑤성	옌청시	우호교류
23	구로구	지린성	옌벤조선평족자치주	우호교류
24	구로구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우호교류
25	금천구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우호교류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26	금천구	산둥성	웨이하이시	우호교류
27	금천구	산둥성	웨이하이시	우호교류
28	금천구	상하이시	바오산구	자매교류
29	노원구	랴오닝성	선양시	자매교류
30	도봉구	베이징시	창핑구	우호교류
31	동대문구	베이징시	옌청구	자매교류
32	동대문구	허베이성	바오딩시	우호교류
33	동작구	베이징시	핑구구	자매교류
34	동작구	산둥성	르자오시	우호교류
35	동작구	지린성	옌벤조선평족자치주	우호교류
36	동작구	지린성	옌벤조선평족자치주	우호교류
37	마포구	베이징시	스징산구	자매교류
38	본청	광둥성		우호교류
39	본청	베이징시		자매교류
40	본청	산둥성		우호교류
41	본청	상하이시		우호교류
42	본청	쓰촨성		우호교류
43	본청	장쑤성		우호교류
44	본청	저장성		우호교류
45	본청	충칭시		우호교류
46	본청	톈진시		우호교류
47	서대문구	베이징시	하이톈구	자매교류
48	서초구	베이징시	둥청구	우호교류
49	서초구	산둥성	칭다오시	자매교류
50	서초구	상하이시	홍커우구	우호교류

## 8. 한·중 지역간 자매결연 현황\_서울특별시(2/2)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51	서초구	지린성	바이산시	우호교류
52	서초구	허난성	허비시	우호교류
53	서초구	허베이성	량팡시	우호교류
54	서초구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우호교류
55	성동구	베이징시	화이러우구	자매교류
56	성북구	베이징시	순이구	자매교류
57	송파구	상하이시	민항구	우호교류
58	송파구	지린성	통화시	자매교류
59	양천구	지린성	창춘시	자매교류
60	영등포구	베이징시	먼터우거우구	자매교류
61	영등포구	산둥성	더저우시	우호교류
62	영등포구	상하이시	황푸구	우호교류
63	용산구	베이징시	취안우구	자매교류
64	용산구	산둥성	웨이하이시	우호교류
65	용산구	상하이시	자딩구	우호교류
66	용산구	저장성	사오싱시	자매교류
67	은평구	랴오닝성	선양시	우호교류
68	은평구	랴오닝성	선양시	우호교류
69	종로구	베이징시	둥청구	자매교류
70	종로구	상하이시	징안구	우호교류
71	중구	베이징시	시청구	우호교류
72	중구	저장성	진화시	우호교류
73	중구	지린성	옌볌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74	중구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우호교류
75	중랑구	베이징시	둥청구	자매교류

## 8. 한·중 지역간 자매결연 현황\_경기도(1/2)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1	고양시	산둥성	빈저우시	우호교류
2	고양시	원난성	쿤밍시	우호교류
3	고양시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4	고양시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자매교류
5	과천시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자매교류
6	광명시	산둥성	랴오청시	자매교류
7	광주시	산둥성	쑤보시	자매교류
8	구리시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9	구리시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우호교류
10	군포시	산둥성	린이시	자매교류
11	김포시	랴오닝성	선양시	자매교류
12	김포시	산둥성	허쩌시	자매교류
13	남양주시	장쑤성	창저우시	자매교류
14	동두천시	허난성	싼먼샤시	자매교류
15	본청	광둥성		자매교류
16	본청	랴오닝성		자매교류
17	본청	산둥성		자매교류
18	본청	장쑤성		우호교류
19	본청	지린성		자매교류
20	본청	텐진시		우호교류
21	본청	허베이성		자매교류
22	본청	헤이룽장성		우호교류
23	부천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우호교류
24	부천시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자매교류
25	성남시	광둥성	후이저우시	우호교류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25	성남시	광둥성	후이저우시	우호교류
26	성남시	랴오닝성	선양시	자매교류
27	성남시	지린성	창춘시	우호교류
28	수원시	광둥성	주하이시	우호교류
29	수원시	산둥성	지난시	자매교류
30	수원시	저장성	항저우시	우호교류
31	시흥시	산둥성	더저우시	자매교류
32	시흥시	산둥성	원딩구	우호교류
33	안산시	광시좡족자치구	바이쩌시	우호교류
34	안산시	랴오닝성	안산시	자매교류
35	안산시	산둥성	옌타이시	우호교류
36	안산시	쓰촨성	러산시	우호교류
37	안성시	광둥성	허위안시	자매교류
38	안성시	랴오닝성	선양시	자매교류
39	안성시	헤이룽장성	쑤이화시	우호교류
40	안양시	산둥성	웨이팡시	자매교류
41	안양시	허난성	안양시	우호교류
42	양주시	산둥성	둥잉시	우호교류
43	양평군	산둥성	웨이팡시	우호교류
44	양평군	산둥성	짜오왕시	자매교류
45	여주시	산시성	웨이난시	우호교류
46	여주시	장쑤성	쉬저우시	자매교류
47	연천군	산둥성	지닝시	우호교류
48	오산시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우루무치시	자매교류
49	용인시	산둥성	타이안시	우호교류
50	용인시	장쑤성	양저우시	자매교류

## 8. 한·중 지역간 자매결연 현황\_경기도(2/2)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51	용인시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52	의왕시	톈진시	우칭구	자매교류
53	의왕시	후베이성	셴닝시	자매교류
54	의정부시	랴오닝성	단둥시	자매교류
55	이천시	장시성	징더전시	자매교류
56	이천시	장쑤성	우시시	우호교류
57	파주시	랴오닝성	진저우시	자매교류
58	파주시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자매교류
59	평택시	랴오닝성	다롄시	우호교류
60	평택시	산둥성	르자오시	우호교류
61	평택시	산둥성	옌타이시	우호교류
62	평택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우호교류
63	평택시	산둥성	칭다오시	우호교류
64	평택시	저장성	닝보시	우호교류
65	평택시	푸젠성	샤먼시	우호교류
66	포천시	랴오닝성	테링시	우호교류
67	포천시	산둥성	라이우시	우호교류
68	포천시	안후이성	화이베이시	자매교류
69	포천시	헤이룽장성	자무쓰시	우호교류
70	포천시	후난성	주저우시	우호교류
71	하남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자매교류
72	하남시	충칭시	원양현	우호교류
73	화성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우호교류
74	화성시	장쑤성	쑤저우시	자매교류
75	화성시	허베이성	싱타이시	우호교류

## 8. 한·중 지역간 자매결연 현황\_인천광역시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1	강화군	저장성	저우산시	우호교류
2	계양구	장쑤성	옌청시	우호교류
3	계양구	충칭시	사핑바구	우호교류
4	남동구	산둥성	칭다오시	우호교류
5	남동구	산둥성	칭다오시	우호교류
6	남동구	지린성	옌벤조선평족자치주	우호교류
7	동구	랴오닝성	선양시	우호교류
8	동구	산둥성	옌타이시	우호교류
9	동구	산둥성	칭다오시	자매교류
10	미추홀구	베이징시	미원현	자매교류
11	미추홀구	톈진시	탕구구	우호교류
12	본청	광둥성	광저우시	우호교류
13	본청	랴오닝성	다롄시	우호교류
14	본청	랴오닝성	단둥시	우호교류
15	본청	랴오닝성	선양시	자매교류
16	본청	산둥성		우호교류
17	본청	산둥성	옌타이시	우호교류
18	본청	산둥성	칭다오시	우호교류
19	본청	충칭시		자매교류
20	본청	톈진시		자매교류
21	본청	허난성		우호교류
22	본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우호교류
23	부평구	랴오닝성	다롄시	우호교류
24	부평구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자매교류
25	부평구	산둥성	원딩구	우호교류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26	서구	랴오닝성	단둥시	자매교류
27	서구	랴오닝성	테링시	우호교류
28	서구	산둥성	웨이하이시	우호교류
29	서구	산둥성	칭다오시	우호교류
30	서구	지린성	옌벤조선평족자치주	우호교류
31	옹진군	저장성	취저우시	우호교류
32	중구	랴오닝성	안산시	우호교류
33	중구	랴오닝성	판진시	우호교류
34	중구	산둥성	랴오청시	우호교류
35	중구	산둥성	린이시	우호교류
36	중구	산둥성	웨이하이시	우호교류
37	중구	산둥성	웨이하이시	우호교류
38	중구	산둥성	쯔보시	우호교류
39	중구	산둥성	칭다오시	우호교류
40	중구	저장성	원저우시	우호교류
41	중구	톈진시	허베이구	우호교류
42	중구	허베이성	탕산시	우호교류

## 8. 한·중 지역간 자매결연 현황\_강원도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1	강릉시	쓰촨성	더양시	자매교류
2	강릉시	원난성	더훙다아족장포족자치주	우호교류
3	강릉시	원난성	바오산시	우호교류
4	강릉시	저장성	자싱시	자매교류
5	강릉시	후베이성	징저우시	자매교류
6	고성군	헤이룽장성	지시시	자매교류
7	동해시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자매교류
8	동해시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우호교류
9	동해시	헤이룽장성	자무쓰시	우호교류
10	본청	랴오닝성		우호교류
11	본청	쓰촨성		우호교류
12	본청	안후이성		자매교류
13	본청	장쑤성		우호교류
14	본청	지린성		자매교류
15	본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16	본청	푸젠성		우호교류
17	본청	허베이성		자매교류
18	본청	후난성		우호교류
19	삼척시	산둥성	둥잉시	자매교류
20	삼척시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21	삼척시	헤이룽장성	지시시	우호교류
22	속초시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자매교류
23	양구군	후베이성	징저우시	우호교류
24	양양군	후베이성	상양시	우호교류
25	영월군	산둥성	웨이하이시	우호교류
26	영월군	장시성	주장시	우호교류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27	영월군	장쑤성	쑤저우시	우호교류
28	영월군	후베이성	이창시	우호교류
29	원주시	산둥성	옌타이시	우호교류
30	원주시	안후이성	허페이시	자매교류
31	인제군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우호교류
32	정선군	장시성	주장시	우호교류
33	철원군	지린성	송위안시	우호교류
34	춘천시	랴오닝성	다롄시	우호교류
35	춘천시	랴오닝성	선양시	우호교류
36	춘천시	장쑤성	창저우시	우호교류
37	춘천시	저장성	항저우시	우호교류
38	춘천시	허난성	난양시	우호교류
39	춘천시	허베이성	바오딩시	우호교류
40	태백시	장시성	이춘시	우호교류
41	태백시	장쑤성	쑤저우시	우호교류
42	태백시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자매교류
43	태백시	지린성	창춘시	우호교류
44	태백시	후베이성	셴닝시	우호교류
45	태백시	후베이성	우한시	우호교류
46	평창군	산둥성	웨이팡시	우호교류
47	평창군	쓰촨성	루저우시	우호교류
48	평창군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49	평창군	헤이룽장성	지시시	우호교류
50	홍천군	지린성	창춘시	우호교류
51	홍천군	허베이성	선저우시	우호교류
52	횡성군	저장성	타이저우시	자매교류

## 8. 한·중 지역간 자매결연 현황\_충청남도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1	계룡시	베이징시	화이러우구	우호교류
2	공주시	랴오닝성	선양시	우호교류
3	금산군	산둥성	옌타이시	우호교류
4	금산군	산둥성	칭다오시	우호교류
5	금산군	저장성		우호교류
6	금산군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자매교류
7	논산시	랴오닝성	진저우시	우호교류
8	논산시	산둥성	지닝시	우호교류
9	논산시	허베이성	량팡시	우호교류
10	당진시	랴오닝성	테링시	우호교류
11	당진시	산둥성	르자오시	자매교류
12	당진시	산둥성	자오난시	우호교류
13	당진시	저장성	타이저우시	우호교류
14	당진시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15	보령시	마청시		우호교류
16	보령시	상하이시	칭푸구	자매교류
17	보령시	톈진시	한구구	우호교류
18	본청	광둥성		자매교류
19	본청	구이저우성		자매교류
20	본청	랴오닝성		자매교류
21	본청	산둥성		우호교류
22	본청	상하이시		우호교류
23	본청	쓰촨성		자매교류
24	본청	윈난성		우호교류
25	본청	장쑤성		우호교류
26	본청	지린성		자매교류
27	본청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28	본청	칭하이성		우호교류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29	본청	허베이성		자매교류
30	본청	헤이룽장성		자매교류
31	부여군	산둥성	연대시	우호교류
32	부여군	안후이성	수현	우호교류
33	부여군	허난성	뤄양시	자매교류
34	서산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자매교류
35	서산시	안후이성	허페이시	우호교류
36	서산시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우호교류
37	아산시	광둥성	둥관시	자매교류
38	아산시	광시좡족자치구	류저우시	우호교류
39	아산시	랴오닝성	다롄시	자매교류
40	아산시	산둥성	린이시	우호교류
41	아산시	산둥성	웨이팡시	우호교류
42	아산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우호교류
43	아산시	산둥성	칭다오시	우호교류
44	연기군	산둥성	옌타이시	우호교류
45	예산군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46	천안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우호교류
47	천안시	허베이성	석가장시	자매교류
48	청양군	랴오닝성	랴오양시	자매교류
49	청양군	허난성	난양시	우호교류
50	청양군	후베이성	쑤이저우시	우호교류
51	태안군	산둥성	옌타이시	우호교류
52	태안군	산둥성	타이안시	자매교류
53	홍성군	산둥성	린이시	자매교류
54	홍성군	장쑤성	전장시	우호교류
55	홍성군	허난성	신양시	우호교류
56	홍성군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우호교류

## 8. 한·중 지역간 자매결연 현황\_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1	괴산군	지린성	통화시	자매교류
2	단양군	장쑤성	옌청시	우호교류
3	단양군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4	보은군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우호교류
5	본청	광시좡족자치구		자매교류
6	본청	산둥성		우호교류
7	본청	지린성		우호교류
8	본청	헤이룽장성		자매교류
9	본청	후베이성		자매교류
10	영동군	광시좡족자치구	팡청강시	자매교류
11	옥천군	산둥성	웨이하이시	우호교류
12	음성군	장쑤성	타이저우시	자매교류
13	제천시	광시좡족자치구	위린시	우호교류
14	제천시	쓰촨성	청두시	우호교류
15	제천시	장시성	이춘시	자매교류
16	제천시	장쑤성	옌청시	우호교류
17	제천시	허베이성	바오딩시	우호교류
18	제천시	후베이성	안스투자주마오족자치주	우호교류
19	제천시	후베이성	황강시	자매교류
20	증평군	장쑤성	롄윈강시	우호교류
21	증평군	헤이룽장성	치타이허시	우호교류
22	진천군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우호교류
23	청주시	장쑤성	우시시	우호교류
24	청주시	저장성	후저우시	우호교류
25	청주시	후베이성	우한시	자매교류
26	충주시	산둥성	옌타이시	우호교류
27	충주시	허난성	자오쥘시	우호교류
28	충주시	헤이룽장성	다칭시	우호교류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1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구이저우성		우호교류
2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산시성		우호교류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2	대전광역시 동구	장쑤성	양저우시	우호교류
3	대전광역시 본청	랴오닝성	선양시	우호교류
4	대전광역시 본청	산둥성	지난시	우호교류
5	대전광역시 본청	산둥성	칭다오시	우호교류
6	대전광역시 본청	안후이성	허페이시	우호교류
7	대전광역시 본청	장쑤성	난징시	자매교류
8	대전광역시 본청	후베이성	우한시	우호교류
9	대전광역시 서구	랴오닝성	선양시	자매교류
10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성	타이저우시	우호교류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랴오닝성	다롄시	자매교류
12	대전광역시 중구	랴오닝성	선양시	우호교류
13	대전광역시 중구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14	대전광역시 중구	칭하이성	닝시	자매교류



## 8. 한·중 지역간 자매결연 현황\_전라남도(1/2)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1	강진군	저장성	리수이시	자매교류
2	고흥군	간쑤성	주취안시	우호교류
3	고흥군	광시좡족자치구	팡청강시	우호교류
4	곡성군	장시성	상라오시	우호교류
5	곡성군	장시성	상라오시	우호교류
6	곡성군	저장성	저우산시	자매교류
7	곡성군	후베이성	상양시	우호교류
8	광양시	광둥성	선전시	자매교류
9	광양시	랴오닝성	다롄시	우호교류
10	광양시	랴오닝성	선양시	우호교류
11	광양시	랴오닝성	잉커우시	우호교류
12	광양시	장쑤성	롄원강시	우호교류
13	광양시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14	광양시	푸젠성	샤먼시	우호교류
15	광양시	푸젠성	푸저우시	우호교류
16	구례군	안후이성	츠저우시	자매교류
17	나주시	안후이성	보저우시	우호교류
18	나주시	장시성	난창시	우호교류
19	나주시	장쑤성	타이저우시	우호교류
20	나주시	저장성	닝보시	우호교류
21	나주시	지린성	바이산시	우호교류
22	담양군	쓰촨성	이빈시	우호교류
23	담양군	저장성	타이저우시	우호교류
24	담양군	저장성	후저우시	자매교류
25	목포시	랴오닝성	단둥시	우호교류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26	목포시	장쑤성	롄원강시	자매교류
27	목포시	저장성	저우산시	우호교류
28	목포시	푸젠성	샤먼시	자매교류
29	무안군	장쑤성	쑤저우시	우호교류
30	보성군	랴오닝성	선양시	자매교류
31	본청	산둥성		우호교류
32	본청	산시성		자매교류
33	본청	상하이시		우호교류
34	본청	쓰촨성		우호교류
35	본청	장시성		자매교류
36	본청	장쑤성		우호교류
37	본청	저장성		자매교류
38	본청	충칭시		우호교류
39	본청	푸젠성		우호교류
40	본청	후난성		우호교류
41	순천시	구이저우성	첸둥난주	우호교류
42	순천시	랴오닝성	단둥시	우호교류
43	순천시	산시성	타이위안시	자매교류
44	순천시	장시성	잉탄시	우호교류
45	순천시	저장성	닝보시	자매교류
46	신안군	랴오닝성	판진시	우호교류
47	신안군	베이징시	다싱구	자매교류
48	여수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자매교류
49	여수시	장쑤성	양저우시	우호교류
50	여수시	저장성	리수이시	우호교류

## 8. 한·중 지역간 자매결연 현황\_전라남도(2/2)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51	여수시	저장성	사오싱시	우호교류
52	여수시	저장성	항저우시	자매교류
53	영광군	저장성	사오싱시	우호교류
54	영암군	저장성	후저우시	자매교류
55	완도군	산둥성	웨이하이시	자매교류
56	완도군	장쑤성	렌원강시	우호교류
57	장성군	저장성	진화시	우호교류
58	장흥군	저장성	자싱시	우호교류
59	장흥군	저장성	후저우시	우호교류
60	장흥군	흑룡강성	하얼빈시	우호교류
61	함평군	베이징시	창핑구	우호교류
62	함평군	베이징시	팡산구	우호교류
63	함평군	허난성	등봉시	우호교류
64	함평군	허베이성	창저우시	우호교류
65	해남군	광둥성	사오관시	자매교류
66	화순군	저장성	타이저우시	우호교류
67	화순군	허베이성	한단시	우호교류

## 8. 한·중 지역간 자매결연 현황\_전라북도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1	고창군	산둥성	짜오창시	우호교류
2	고창군	허난성	신양시	우호교류
3	군산시	광둥성	칭위안시	우호교류
4	군산시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	우호교류
5	군산시	랴오닝성	단둥시	우호교류
6	군산시	랴오닝성	선양시	우호교류
7	군산시	산둥성	옌타이시	자매교류
8	군산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우호교류
9	군산시	산둥성	칭다오시	우호교류
10	군산시	장쑤성	롄원강시	우호교류
11	군산시	장쑤성	쑤저우시	우호교류
12	군산시	장쑤성	양저우시	우호교류
13	군산시	장쑤성	우시시	우호교류
14	군산시	저장성	항저우시	우호교류
15	김제시	장쑤성	난통시	자매교류
16	남원시	장쑤성	옌청시	자매교류
17	남원시	저장성	항저우시	우호교류
18	남원시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19	무주군	허난성	등봉시	자매교류
20	본청	산둥성		우호교류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21	본청	상하이시		우호교류
22	본청	원난성		우호교류
23	본청	장쑤성		자매교류
24	부안군	충칭시		우호교류
25	부안군	후베이성	홍후시	우호교류
26	완주군	산둥성	웨이팡시	우호교류
27	완주군	쓰촨성	청두시	우호교류
28	완주군	장쑤성	화이안시	자매교류
29	완주군	후베이성	스옌시	우호교류
30	익산시	장쑤성	전장시	자매교류
31	임실군	랴오닝성	푸순시	우호교류
32	임실군	산둥성	빈저우시	자매교류
33	장수군	장쑤성	화이안시	우호교류
34	전주시	랴오닝성	선양시	우호교류
35	전주시	장쑤성	쑤저우시	자매교류
36	전주시	지린성	창춘시	우호교류
37	전주시	칭하이성	시닝시	우호교류
38	정읍시	장쑤성	쉬저우시	자매교류
39	진안군	랴오닝성	변시시	자매교류
40	진안군	산시성	상뤄시	우호교류

## 8. 한·중 지역간 자매결연 현황\_광주광역시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1	광산구	톈진시	진난구	자매교류
2	남구	광둥성	광저우시	우호교류
3	남구	쓰촨성	청두시	우호교류
4	남구	충칭시	바난구	우호교류
5	남구	톈진시	베이징구	우호교류
6	동구	광둥성	광저우시	자매교류
7	본청	광둥성	광저우시	자매교류
8	본청	랴오닝성	다롄시	우호교류
9	본청	랴오닝성	선양시	우호교류
10	본청	산시성	창즈시	자매교류
11	본청	저장성	원저우시	우호교류
12	본청	푸젠성	취안저우시	우호교류
13	본청	허난성	뤄양시	우호교류
14	본청	후베이성	우한시	우호교류
15	북구	산둥성	둥잉시	우호교류
16	북구	장쑤성	우시시	우호교류
17	북구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18	서구	랴오닝성	단둥시	우호교류
19	서구	산둥성	칭다오시	자매교류

## 8. 한·중 지역간 자매결연 현황\_경상남도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1	거제시	랴오닝성	선양시	우호교류
2	거제시	장쑤성	지둥시	자매교류
3	거제시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자매교류
4	거제시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자매교류
5	거창군	장쑤성	양저우시	자매교류
6	거창군	후난성	창사시	우호교류
7	고성군	산둥성	웨이팡시	우호교류
8	고성군	쓰촨성	쯔궁시	자매교류
9	김해시	산둥성	칭다오시	우호교류
10	김해시	장쑤성	우시시	자매교류
11	남해군	간쑤성	주취안시	자매교류
12	남해군	장시성	지안시	자매교류
13	남해군	후난성	이양시	자매교류
14	밀양시	네이멍구	자치구	우호교류
15	밀양시	랴오닝성	번시시	우호교류
16	밀양시	허베이성	한단시	우호교류
17	본청	랴오닝성		우호교류
18	본청	산둥성		자매교류
19	본청	산시성		우호교류
20	본청	시짱자치구		자매교류
21	본청	지린성		우호교류
22	본청	헤이룽장성		우호교류
23	사천시	광둥성	칭위안시	우호교류
24	사천시	구이저우성	안순시	우호교류
25	사천시	저장성	저우산시	우호교류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26	산청군	허난성	쉬창시	자매교류
27	의령군	산둥성	랴오청시	자매교류
28	진주시	산시성	시안시	우호교류
29	진주시	허난성	정저우시	우호교류
30	창녕군	산시성	한중시	우호교류
31	창녕군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우호교류
32	창원시	랴오닝성	푸순시	우호교류
33	창원시	산둥성	린이시	우호교류
34	창원시	산시성	웨이난시	우호교류
35	창원시	쓰촨성		우호교류
36	창원시	안후이성	마안산시	자매교류
37	창원시	장쑤성	난통시	자매교류
38	창원시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39	창원시	지린성	지린시	자매교류
40	창원시	하이난성	싼야시	우호교류
41	통영시	광둥성	원푸시	우호교류
42	통영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우호교류
43	하동군	산둥성	지난시	자매교류
44	하동군	쓰촨성	야안시	우호교류
45	하동군	후난성	장자제시	자매교류
46	함안군	랴오닝성	랴오양시	자매교류
47	함양군	산시성	셴양시	우호교류
48	함양군	지린성	통화시	우호교류
49	합천군	저장성	사오싱시	자매교류
50	합천군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 8. 한·중 지역간 자매결연 현황\_경상북도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1	경산시	네이멍구	후룬베이얼시	우호교류
2	경산시	닝샤후이족자치구	인촨시	우호교류
3	경산시	산둥성	자오난시	자매교류
4	경산시	저장성	사오싱시	우호교류
5	경산시	저장성	항저우시	우호교류
6	경주시	산시성	시안시	자매교류
7	경주시	장쑤성	양저우시	우호교류
8	경주시	허난성	자오쥘시	우호교류
9	경주시	허베이성	청더시	우호교류
10	경주시	후베이성	이창시	우호교류
11	고령군	산둥성	쑤보시	자매교류
12	고령군	안후이성	마안산시	우호교류
13	구미시	랴오닝성	선양시	우호교류
14	구미시	산시성	웨이난시	우호교류
15	구미시	쓰촨성	광안시	우호교류
16	구미시	후난성	창사시	자매교류
17	김천시	랴오닝성	푸순시	우호교류
18	김천시	쓰촨성	청두시	자매교류
19	문경시	장쑤성	우시시	자매교류
20	본청	닝샤후이족자치구		우호교류
21	본청	산시성		자매교류
22	본청	지린성		우호교류
23	본청	허난성		자매교류
24	본청	후난성		자매교류
25	봉화군	산시성	통촨시	자매교류
26	봉화군	저장성	닝보시	우호교류
27	상주시	장시성	이춘시	자매교류
28	안동시	산둥성	지난시	우호교류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29	안동시	산둥성	지닝시	우호교류
30	안동시	산시성	시안시	자매교류
31	안동시	허난성	핑딩산시	자매교류
32	영양군	허난성	주마옌시	자매교류
33	영주시	광둥성	사오관시	우호교류
34	영주시	산둥성	지닝시	우호교류
35	영주시	안후이성	보저우시	자매교류
36	영주시	허난성	자오쥘시	우호교류
37	영천시	허난성	카이펑시	자매교류
38	영천시	허베이성	바오딩시	우호교류
39	영천시	허베이성	황화시	우호교류
40	예천군	산시성	바오지시	자매교류
41	의성군	산시성	셴양시	자매교류
42	청도군	헤이룽장성	헤이허시	자매교류
43	청송군	장쑤성	쑤저우시	우호교류
44	청송군	장쑤성	쑤첸시	자매교류
45	청송군	허난성	정저우시	자매교류
46	칠곡군	허난성	지위안시	자매교류
47	포항시	광둥성	잔장시	우호교류
48	포항시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	우호교류
49	포항시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시	우호교류
50	포항시	랴오닝성	다롄시	우호교류
51	포항시	산둥성	라이우시	우호교류
52	포항시	산둥성	르자오시	우호교류
53	포항시	원난성	쿤밍시	우호교류
54	포항시	장쑤성	쑤저우시	자매교류
55	포항시	지린성	옌볌조선족자치주	자매교류
56	포항시	지린성	창춘시	우호교류
57	포항시	허베이성	탕산시	우호교류

## 8. 한·중 지역간 자매결연 현황\_부산광역시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1	울산광역시 남구	랴오닝성	랴오양시	자매교류
2	울산광역시 남구	장쑤성	옌청시	우호교류
3	울산광역시 본청	산둥성	옌타이시	우호교류
4	울산광역시 본청	산둥성	칭다오시	우호교류
5	울산광역시 본청	장쑤성	우시시	자매교류
6	울산광역시 본청	지린성	창춘시	자매교류
7	울산광역시 북구	산둥성	타이안시	자매교류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랴오닝성	선양시	우호교류
9	울산광역시 울주군	랴오닝성	판진시	우호교류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둥성	원딩구	우호교류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둥성	칭다오시	우호교류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쑤성	우시시	자매교류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우호교류
14	울산광역시 중구	산둥성	옌타이시	자매교류
15	울산광역시 중구	허난성	쉬창시	우호교류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1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둥성	칭다오시	우호교류
2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쑤성	옌청시	우호교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장성	자싱시	우호교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허베이성	량팡시	우호교류
5	대구광역시 동구	안후이성	황산시	자매교류
6	대구광역시 동구	장쑤성	쑤저우시	우호교류
7	대구광역시 본청	랴오닝성	선양시	우호교류
8	대구광역시 본청	산둥성	칭다오시	자매교류
9	대구광역시 본청	쓰촨성	청두시	자매교류
10	대구광역시 본청	장쑤성	양저우시	우호교류
11	대구광역시 본청	장쑤성	옌청시	우호교류
12	대구광역시 본청	저장성	닝보시	자매교류
13	대구광역시 본청	저장성	사오싱시	우호교류
14	대구광역시 본청	후난성	창사시	우호교류
15	대구광역시 본청	후베이성	우한시	우호교류
16	대구광역시 북구	항저우시	서호구	우호교류
17	대구광역시 서구	랴오닝성	푸순시	우호교류
18	대구광역시 서구	저장성	사오싱시	우호교류
19	대구광역시 서구	텐진시	허시구	자매교류
20	대구광역시수성구	산둥성	웨이하이시	우호교류
21	대구광역시수성구	산둥성	지닝시	우호교류
22	대구광역시수성구	쓰촨성	청두시	우호교류
23	대구광역시중구	산둥성	웨이하이시	우호교류

## 8. 한·중 지역간 자매결연 현황\_울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1	강서구	산둥성	옌타이시	우호교류
2	강서구	장쑤성	전장시	자매교류
3	강서구	허베이성	형수이시	우호교류
4	금정구	베이징시	창핑구	우호교류
5	금정구	상하이시	푸톈구	자매교류
6	금정구	푸젠성	샤먼시	우호교류
7	남구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자매교류
8	동구	산둥성	옌타이시	자매교류
9	동구	상하이시	취후이구	우호교류
10	동구	저장성	사오싱시	우호교류
11	동래구	상하이시	홍커우구	자매교류
12	본청	광둥성	광저우시	우호교류
13	본청	광둥성	선전시	우호교류
14	본청	베이징시		우호교류
15	본청	상하이시		자매교류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16	본청	충칭시		우호교류
17	본청	톈진시		우호교류
18	부산진구	베이징시	시청구	우호교류
19	북구	산둥성	칭다오시	자매교류
20	북구	상하이시	양푸구	우호교류
21	사상구	랴오닝성	다롄시	자매교류
22	사상구	랴오닝성	선양시	우호교류
23	사상구	산둥성	칭다오시	우호교류
24	사하구	상하이시	자베이구	우호교류
25	사하구	상하이시	징안구	우호교류
26	사하구	톈진시	둥리구	자매교류
27	서구	랴오닝성	다롄시	자매교류
28	서구	산둥성	지닝시	우호교류
29	수영구	랴오닝성	다롄시	자매교류
30	수영구	쓰촨성	청두시	우호교류
31	연제구	상하이시	황푸구	우호교류
32	영도구	상하이시	황푸구	자매교류
33	중구	충칭시	주룽포구	자매교류
34	해운대구	산둥성	르자오시	우호교류
35	해운대구	장쑤성	양저우시	우호교류
36	해운대구	장쑤성	양저우시	자매교류
37	해운대구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우호교류



## 8. 한·중 지역간 자매결연 현황\_제주특별자치도

구분	한국 지역	중국 지역		교류 현황
1	본청	랴오닝성	다롄시	우호교류
2	본청	상하이시		우호교류
3	본청	하이난성		자매교류
4	본청	헤이룽장성		우호교류
5	서귀포시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자매교류
6	서귀포시	산둥성	옌타이시	자매교류
7	서귀포시	상하이시	충밍구	우호교류
8	서귀포시	저장성	항저우시	자매교류
9	서귀포시	하이난성	싼야시	우호교류
10	서귀포시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우호교류
11	제주시	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시	자매교류
12	제주시	산둥성	옌타이시	자매교류
13	제주시	장쑤성	쑤저우시	우호교류
14	제주시	장쑤성	양저우시	우호교류
15	제주시	저장성	진화시	우호교류
16	제주시	지린성	옌볌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 9. 참고문헌\_논문

---

- 구진경 (2020). 포스트 코로나19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한국관광정책, (80), 60-64.
- 김동준 외 (2020). 코로나팬더믹 이후 관광산업 발전방안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9(4), 129-144.
- 김미연 외 (2019). 공항 출입국심사를 위한 효율적인 대기라인 조절방안.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0(1), 89-98.
- 김수진 (2020). 코로나19 관련 태국의 관광정책 동향. 한국관광정책, (80), 140-143.
- 김재선 (2016). 외국인에 관한 출입국 행정의 재량행위성과 입법적 통제. 공법연구, 45(2), 377-405.
- 김하열 (2019).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저스티스(174), 5-46.
- 김형종 (2021). [특집3] 해외의 트래블 버블 추진 현황과 고려사항. 월간교통. 19-23.
- 남기범 (2018). 일본 불법체류관리의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평화 제12권 제3호, 228-248.
- 남승민 외 (2020). 외래관광객 관광수용태세 만족도가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관광레저연구, 32(4), 27-43.
- 다이빈 외 (2020). 코로나19 관련 중국의 관광정책 동향. 한국관광정책, (80), 128-133.
- 마문품 (2021). 제주지역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실태 및 지방정부의 정책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29(1), 137-165.
- 명수연 외 (2020).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입국 동선에 따른 공간배치 분석. 대한건축학회, 40(1), 117-118.
- 문병효 (2018). 한국 출입국관리법의 쟁점과 발전방향. 강원법학, 55, 243-281.
- 빈정하 (2020). 정책정보 코로나 TF 관광분야 지표 동향. 한국관광정책, (81), 120-126.
- 손신욱 (2020). 2020 한·일 국제관광콘퍼런스:코로나19, 한·일 관광산업 현황과 정책적 대응. 한국관광정책, (82), 109-113.

## 9. 참고문헌\_논문

---

- 시오야 히데오 (2020). 코로나19 관련 일본의 관광정책 동향. 한국관광정책, (80), 123-127.
  - 윤주 (2019). 아세안 6개국과의 일반여권 사증 면제 추진 및 주요 국가 사례. 한국관광정책(78), 93-100.
  - 이건수 (2020). 외국인 실종자 찾기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8(4), 131-145.
  - 이재유 (2020).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국의 출입국 제한조치 및 국제법적 평가. 서울국제법연구, 27(1), 65-101.
  - 장옥려 (2021).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인의 위험인식이 한국관광태도 및 관광열망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관광레저학회, 103-110
  - 전동현 (2020). 코로나19 관련 대만의 관광정책 동향. 한국관광정책, (80), 134-138.
  - 정대영 (2020). 코로나19, 여행의 미래를 바꾸다. 이슈&진단, 1-25.
  - 정지훈 외 (2016). ICAO 부속서9(출입국 간소화)에 관한 연구, 항공진흥, 125-141.
  - 주영호 외 (2004). 여권 인식과 얼굴 인증을 이용한 지능형 출입국 관리 시스템. 한국지능시스템학회, 14(2), 400-406.
  - 천원 (2021). 코로나19가 중국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대응. 국제노동브리프, 57-74.
  - 최경은 (2017).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광정책 과제. 한국관광정책, (67), 69-73.
  - 최계영 (2017). 출입국관리행정, 주권 그리고 법치. 행정법연구(48), 29-55.
  - 최진호 (2011). 공항이용객의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9(1), 277-278.
  - 황해국 (2020). 포스트코로나, 세계 관광시장의 변화 전망. 한국관광정책, (80), 22-26.
  - Corinne FOULQUIER (2020).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프랑스 관광산업 대응전략. 한국관광정책, (81), 109-111.
-

## 9. 참고문헌\_기타

---

### - 법률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7934호. 2021. 03. 16)
-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여유법

### - 웹사이트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http://www.mcst.go.kr)
-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 대한민국 외교부: [www.mofa.go.kr](http://www.mofa.go.kr)
-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http://www.Visa.go.kr)
-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www.fmprc.gov.cn](http://www.fmprc.gov.cn)
-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와여유부: [www.mct.gov.cn](http://www.mct.gov.cn)
- UNWTO: [www.unwto.org](http://www.unwto.org)

### - 통계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국적별 입국관광통계 [www.know.tour.go.kr](http://www.know.tour.go.kr)
  - 한국관광 데이터랩: [www.datalab.visitkorea.or.kr](http://www.datalab.visitkorea.or.kr)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www.moj.go.kr](http://www.moj.go.kr)
  - 중국 국가통계국: [www.data.stats.gov.cn](http://www.data.stats.gov.cn)
-